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 호 5 월 5 일

평 양 근 로 자 사 1 9 6 4

제 9 호 (247)

1964년 5월 (상)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극복 방도

리 수 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극복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농민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의 과업 뿐만 아니라 본질 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전반의 종국적 과업을 천명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극복 문제—이것은 계급 자체를 없애는 문제이며 따라서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 목표의 하나로 된다.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은 자본가들과 모든 착취 계급을 타도하고 그러한 사회 계급 관계를 청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온갖 계급적 차이마저 없애 버려야 한다. 착취와 억압, 빈궁과 무권리…사회적 제 모순은 사회의 계급적 분렬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앰으로써만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나라들 즉 부르죠아지와 지주 계급이 타도되고 모든 착취, 압박 관계가 청산된 나라들에서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극복 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적 과업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극복을 위한 투쟁은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그것은 로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이 하는 과정이 곧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이 두 계급을 하나의 사상 의지로 튼튼히 융합시키는 과정으로 되기 때문이다.

계급적 차이의 극복 문제가 가지는 의의는 생산력, 특히 농업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게 한다는 점에도 있다.

그것은 로동자들이 계급적 차이의 극복을 위하여 농촌에 적극 지원을 줄 것이기 때문이며 농민들 측으로 볼 때에도 그들은 계급적 차이의 극복을 위하여 자기들의 락후성을 퇴치하며 의식 수준,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려고 부단히 투쟁할 것인바 이것은 물론 그들의 생산적 열의와 기능을 더욱 높일 것이며, 따라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급적 차이의 극복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필수적 요구로 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앰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한 문제가 본질 상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와 통일된 과정이기 때문이다.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극복 문제가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승리 이후 필수적인 혁명 과업으로 나서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고 의의가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계급적 차이의 극복 문제를 과거에는 제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정 때문이였다.

첫째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나기 전에는 도시에도, 농촌에도 적대적 계급 관계 내지 그것을 산생

하는 소부르죠아적 관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퇴치하기 위한 문제가 우선 전면에 제기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로,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나기 전에는 과거 사회에서 도시가 농촌을, 공업이 농업을 착취하던 잔재도 완전히 가시여진다고 볼 수 없다. 역시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퇴치하기 위한 문제가 보다 전면에 나선다.

세째로, 그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과거의 처지와 관계 때문이였다. 로동 계급 측으로 볼 때나 농민들 측으로 볼 때나 착취적인 계급 관계와 도시가 농촌을 압박하는 관계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는 문제가 전면에 나선다. 왜냐 하면 그러한 관계들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은 형제적 계급인 로동 계급과 농민 간에도 불가피하게 동맹의 강화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부단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뿌리 뺀 후에야 두 계급 간의 차이의 극복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특히 농민들 측의 사정과 더 많이 관련된다.

우리의 농민들은 과거 봉건적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용감하게 싸운 계급이지만 노예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착취 사회의 온갖 낡은 유물을 물려 받은 계급이며, 세기적으로 착취와 압박, 무지와 몽매 속에서 시달려 온 계급이다. 근로자이면서도 소소유자였던 농민은 처지의 2중성으로 하여 항상 동요와 불안정 속에서 살았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을 조그마한 땅뙈기에서 원시적인 로동 도구를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부단한 몰락과 파산의 위협 속에서 자기의 지위를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참으로 이 계급은 그 존재의 전 력사적 기간 무지와 몽매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시달려 온 계급이며 따라서 이 계급은 자기 해방의 문제를 자체로서 해결할 수 없었고 혹은 부르죠아지의, 혹은 로동 계급의 령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였다.

농민 계급은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서만 진정으로 자기 해방의 길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의 로동 계급은 농민들을 이끌어 혁명에로 인도하였고 주권을 전취하였다.

농민들은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지주의 압박을 벗어 났고 땅을 분배 받았으며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 그들은 또한 문맹과 무지에서 벗어 났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작은 땅뙈기에서, 원시적인 생산 도구를 가지고 고립적으로 일해 가고 있는 동안에는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그들의 락후성을 근본적으로 퇴치하는 문제 더우기 로동 계급과의 차이를 없앨 데 대한 문제를 내세울 수는 없었다.

우리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농민들을 사회주의에로 이끌어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하고 개인 농민 경리를 집단 경리로 개조하여 그들을 계속되는 몰락과 파산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건져 낸 오늘에 와서 비로소 이 문제를 전면에 내놓았다.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우리의 농민들을 세기적인 락후성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새로운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농민들은 과거의 그 어느 시대의 농민들과도 비교될 수 없다. 테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민들은 로동 계급과 더불어 《동일한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는 동맹자이며 다같이 사회주의적 근로자이다.》

과거나 오늘이나 농업 생산자들을 우리는 농민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만 내용은 이렇게 질적으로 달라졌다.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의 처지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들 간의 관계, 그들 간의 차이도 과거의 그것과 전혀 다르게 만들었다.

과거에 로동 계급과 농민은 도시가 농촌을, 공업이 농업을 착취하는 관계 속에서 살았지만 오늘은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도 방조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 하여 이것은 로농 동맹을 불패의 기초 우에 올려 세우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를 부단히 없애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극복할 데 대한 문제 제기는 전적으로 가능하며 합법칙적인 것이다.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극복 문제를 실천적으로 제기할 때 우리는 우선 이 두 계급 간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며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그에 해당한 극복 방도를 내세울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의 계급 구조는 사회의 생산 방식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여기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이다. 계급적 차이는 우선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며 따라서 일정한 사회적 생산 체계 내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각이한 형태인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있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로동 계급은 생산 수단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다면 농민은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다.

《소유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 차이이다.》(테제)

계급을 규정하는 다른 징표인 생산물의 분배 형식과 그 량에 있어서도 로동 계급과 농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형태의 차이, 소유의 사회화 정도의 차이와 주로 관계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형태에서의 사회화 정도의 차이로 하여 로동 계급은 전 사회적 범위에서 실현되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에 따라 분배 받으나 농민은 협동적 소유의 범위 안에서 따로 따로 설정된 로동 기준량에 따라 분배 받는다.

분배에서의 차이는 농업의 자연-기후적 특성과도 관련되여 있다.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현저한 정도로 자연-기후적 조건에 의존하게 되는 것만큼 이것은 그의 생산량과 더불어 분배 몫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협동적 소유 관계의 존재는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생산 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로동 조직에서의 역할도 일정하게 다르게 한다. 로동 계급이나 농민이나 다같이 생산 체계에서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로동 계급은 전 인민적 소유로 되여 있는 생산 분야에서 주인공으로 되고 있다면 농민은(로동 계급과 더불어 국유화된 기업소의 전 인민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협동적 소유의 범위 안에서만 생산의 주인공으로 된다. 로동 조직에 있어서도 로동 계급이나 농민이나 다같이 직접적인 생산자로, 동시에 관리자로 되지만 역시 구별된다. 로동자들은 전 인민적 소유의 생산장에서, 농민들은 협동적 소유의 생산장에서 그러한 역할을 논다.

그러면 사회주의 하에서도 농민들이 로동자들과는 다른 소유 관계와 분배 관계, 생산에서의 서로 다른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협동화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농촌의 협동화 문제는 로동 계급 측으로 볼 때 자기의 동맹자를 수탈할 수 없다는 사정과 결부되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동맹자적 립장으로부터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다른 근원이 있다. 테제는 그 근원을 전면적으로 밝히였다.

그것은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며 농민들이 사상,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하고 테제는 지적하였다—전 인민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 경리에서는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되며 따라서 또한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고 생산력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상 문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에 적응한 생산 관계—협동적 소유 관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은 농촌에서의 협동적 소유 관계를 조건 짓고 또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의 분배 관계, 생산 체계와 로동 조직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 지음으로써 사회주의 하에서 농민들의 계급적 존재를 규정 짓는 간접적인 징표로 되고 있다. 즉 계급으로서의 농민은 우선 경제 관계의 산물이지만 그들의 기술, 문화, 사상적 락후성도 그들의 존재를 로동 계급과 구별케 하는 측면을 이루고 있다.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도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표시해 주는 징표로 된다.

그리고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구분은 전형적 의미에서의 계급적 구분 즉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을 구분하는 그것과는 달라서 적대적 성격을 띠지 않는 차이—기술, 문화, 사상에서의 차이와 그로부터 오는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차이에서도 표현된다.

이것들은 물론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규정 짓는 데 있어서 소유 관계와 분배 관계, 생산 체계 및 로동 조직에서의 지위에 비하면 차요한 측면을 이루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 하면 로동자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이 근원들을 없애는 문제는 오히려 계급을 규정 짓는 본질적 근원을 없애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테제는 계급적 차이의 근원을 밝힘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계급적 차이의 극복에 대한 정확한 방도를 천명하고 있다.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그 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징표인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형태 상 차이를 없애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협동적 소유 관계는 자체가 농촌의 락후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선 그 근원부터 뿌리 빼야 한다. 그것은 바로 농촌에서의 계속 혁명의 과업으로 되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그 분야에서의 락후성을 없애는 것이다.

기술 혁명을 수행함이 없이는 농촌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공고 발전시킬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로 제고할 수도 없다.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수행하여 농업 생산력을 공업 생산력의 수준에까지 제고하여야만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 수 있으며, 주요하게는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의 차이, 두 소유 형태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혁명은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또한 기술 혁명은 령세한 소농 경리와 련결되였던 농민들의 낡은 사상도 성과적으로 개조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문화 기술 수준도 높일 수 있게 한다.

기술 혁명은 문화 혁명의 수행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문화 혁명을 통하여 농민들을 높은 과학 기술 지식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야만 그들로 하여금 현대적인 기술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케 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력 자체도 성과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혁명은 낡은 사회가 남겨 놓은 농촌의 세기적인 문화적 락후성을 청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 문화 분야에서의 로동 계급과 농민의 차이도 없앨 수 있게 한다.

문화 혁명은 사상 혁명의 성과적 수행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사상 혁명을 통하여 농민들을 혁명적인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킴이 없이는 농촌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계급적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할 수 없다. 원쑤들의 반혁명적 책동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가 소생되여 그들을 정치적으로 암둔하게 하고 계급적으로 모호한 립장에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농촌에 수립된 협동 경리 제도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발양할 수 없게 할 것이며 결국은 이 제도의 공고 발전,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상승을 저애할 것이다.

요컨대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의 전진 운동에서 커다란 장애로 되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극복 과정을 지연시키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농민을 로동 계급의 수준에 끌어 올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농촌의 세 가지 혁명은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이 강화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로동 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 협동적 소유와 전 인민적 소유의 호상 관계 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강화가 생산 수단의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공업의 발전에 의존하며 농업 협동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의 강화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 있기 때문이다.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이 높아진다는 것은 농업 생산에서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의 비중이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소유 형태 간의 유기적인 결합과 농업 생산에서 전 인민적 소유의 비중의 제고는 형상적으로 표현하여 과거 적대적 계급 사회에서 고혈을 짜 내던 온갖 착취에 시달린 농민들에게 건장한 로동 계급의 피와 살을 직접 주입하고 이식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일정한 시기에 가서 완전히 동화될 것인바 그 량이 많아질수록 농민들의 로동 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농업 생산에서의 전 인민적 소유의 비중의 점차적 제고는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불가피적으로 농촌에서의 제반 협동적 소유물을 극히 부차적인 위치에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 과정이 더욱 진척된다면 농업에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배가 확립될 것이며 따라서 두 소유 형태 간의 차이는 점차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동자 뿐만 아니라 농민도 다만 자기의 로동력을 가지고 전 인민적 소유인 기재들을 다루어 일하는 사람으로 될 것인바 이는 이미 그들 간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두 소유 형태 간의 유기적인 결합과 농촌에서의 전 인민적 소유의 비중의 제고는 농업 생산 분야에서 로동 계급의 량적 확대와 그의 지도적 역할의 강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이것은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을 강화할 것이며 현대적 기술 수단과 함께 로동 계급의 생산 문화, 생활 문화를 농촌에 보급할 것이다.

그리 하여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 간에 존재하던 차이의 소멸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테제는 또한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의 퇴치 문제를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극복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 방향은 농업에서의 부단한 기술의 도입에 적응하게 기업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농촌에서의 기업적 지도 방법의 보급은 필연적으로 농민들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는 농업에 대한 관리 기능을 배양케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공업 부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계 관리의 주인공으로 되게 할 것이다.

로동 계급과 농민들의 계급적 차이를 극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의 혁명을 계속하고 농민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 제고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써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농민들의 수준을 로동 계급의 수준에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결코 오늘의 로동 계급의 수준을 그 기준으로 해서 설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로동자들 자신도 오늘의 수준에서 공산주의에로 들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로동 계급 속에서도 부단한 발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와 공업 분야에서도, 로동 계급 속에서도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마찬가지로 강력히 추진되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 상 농촌의 다른 혁명 과업들과 더불어 농민의 수준을 로동 계급의 수준에로 끌어 올리는 문제도 이것은 결정적으로 로동 계급의 지도와 지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 자신이 기술, 문화, 사상 령역에서 혁명을 더욱 추진하여 농촌 지원을 위한 힘을 풍부히 축적하며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은 사회주의 하에서의 객관적 필연성인바 우리 당은 바로 이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들 속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작성하였고 로동 계급과 농민의 차이의 극복에 관한 방도와 공산주의에로 가는 방도를 밝혔다.

당이 제시한 테제의 방침에 립각하여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계급적 차이와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로 성과 있게 전진할 것이다.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과 국가 예산

최 윤 수

최근 진행된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는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문제와 1963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및 1964년 국가 예산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금년도 국가 예산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1964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과 특히는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기된 당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재정적인 담보로 된다.

실로 금년도 예산은 테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가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 져야 하며 전 인민적 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 져야 한다는 우리 당의 립장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금년도 국가 예산의 성과적인 집행은 농촌에 대한 국가의 증대되는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케 하여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농업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고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킬 것이며,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보다 앞당길 것이다.

* *

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 예산을 통한 지원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국가 예산이 담당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는 예산을 통하여 인민 경제에서 형성되는 국민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자기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분배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 예산은 재정 체계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기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 강력한 경제적 공간, 즉 국가 예산을 리용하여 각이한 부문에서 조성되는 국민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를 정확히 실시할 때만이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국가가 예산을 통하여 국민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를 잘 하지 못한다면 공업과 농업 간,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농촌 문제의 해결도,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

의 촉진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국가는 자기의 수중에 장악된 예산 자금을 리용하지 않고도 은행 대부를 통하여 협동 경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협동 경리에 대하여 대부적 방조를 주는 것만 가지고는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대한 기본 건설 자금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농민들의 생활도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가 협동 경리의 발전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 지는 립장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국가 예산을 통한 지원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 예산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농촌 기본 건설에 대한 국가 투자의 참가, 국가에 대한 협동 농장들의 납부 몫의 저하, 가격 공간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돌려지는 국가 투전의 증대, 협동 농장에 주는 국가 대부금의 상환 면제 등에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그러므로 농촌에 대한 국가 예산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협동 농장과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 주며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재정적 방조를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도로 된다.

우리 당은 협동 경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함에 있어서 언제나 국가 예산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되는 관심을 돌려 왔다.

당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의 위력이 장성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축성되는데 따라 농촌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계속 증대시켜 왔으며, 협동 경리에서 조성되는 순 소득 중 국가 예산에 들어 오는 몫의 크기를 계통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

	1953년	1954~1956년(년평균)	1957~1960년(년평균)	1961~1963년(년평균)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	100	108	151	188
그 중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 투자	100	157	247	370

(%)

	1959년	1963년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예산 수입	100	183.7
협동 농장으로부터의 현물세 수입	100	74. 5

우의 표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년간에 농촌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의 장성이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장성 속도보다 계속 앞서고 있다.

동시에 국가 예산 수입 중 협동 농장들로부터의 농업 현물세 수입은 년년이 감소되면서도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이 계속 급속히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국가 예산으로부터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해 지출되는 자금은 해마다 증대되는 반면에 협동 경리에서 국가 예산에로 들어 오는 부분은 부단히 감소되여 왔다.

사실 상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공업 건설에 결정적으로 투자를 집중하여야 하였던 공업화의 기초 건설 시기에도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농촌에 대한 국가 투자를 증대시켜 왔으며 농업 현물세, 관개 사용료, 농기계 작업료 등 농민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몫을 체계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농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이 부문에 대한 국가 투자와 함께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 증대에도 거대한 자금을 배당하여 왔다.

전후 10년 간 우리 나라 중공업 부문

의 생산액이 21 배로 장성하였는데 그 중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공업 부문의 생산액은 28 배로 증가하였으며 각종 농기계 및 농기구의 생산액은 30 배, 화학 비료의 생산량은 39 배로 장성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실증하여 주고 있다.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기본 건설 투자가 증대되고 협동 농장들이 국가에 바치는 납부량이 부단히 감소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의 기술 혁명은 급속히 촉진되였으며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와 농민들의 생활은 더한층 개선되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협동 농장과 농민들에게 가격 체계를 통하여 혜택을 주며 국가 대부금의 상환을 면제하여 주는 데도 큰 주목을 돌리여 왔다.

례컨대 1963년 한 해 동안에만도 우리 당은 목화, 담배 등 공예 작물의 수매 가격을 인상하고 협동 농장들에 공급하는 농업 생산용 자재와 기계, 설비들의 가격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농민들에게 주었으며 협동 농장들에 대하여 4천 600여만 원의 은행 대부금을 면제하여 주었다.

그 외에도 우리 당은 지난해에 당의 농업 정책 관철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협동 농민들의 위훈을 찬양하여 3천 670만 원에 해당하는 아동용 겨울옷과 내의, 모자, 목수건 등을 모든 농촌 어린이들에게 새 해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근위 1 급 군의 영예를 쟁취한 7 개 군의 협동 농장들에 대하여서는 80여 대의 화물 자동차, 2,000여 대의 가마니 짜는 기계와 새끼 꼬는 기계, 18만 3,000여 벌의 솜옷과 좋은 옷감을 비롯한 수다한 선물을 보냈다.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이러한 세반 시책들에 의하여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우리 나라 협동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은 실로 2억 4천 952만 원에 달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특히 국가 예산을 통한 지원이 얼마나 방대하였으며 그것이 협동 경리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명백히 증시하여 주고 있다.

* *

농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금년도 국가 예산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에서 명시된 전례 없는 당면 대책들의 실현을 재정적으로 확고히 안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금년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의 하나는 농촌의 모든 기본 건설과 문화 주택 건설을 국가 투자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앞으로 모든 농촌 기본 건설과 문화 주택 건설을 국가 자금으로 부담할 것을 제시하였다.

당의 이 방침에 의하여 국가는 금년부터 년차 별 계획에 따라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진행하던 중 소 관개 공사, 하천 정리, 양수 시설, 탈곡장, 축사, 창고, 농촌 발전소 등 농촌의 모든 생산적 건설과 문화 주택,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을 직접 담당 수행하게 되며 농기계들을 무상으로 협동 농장들에 공급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는 협동 농장들의 토지 개량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많은 소석회와 광재들을 무상으로 공

급하게 될 것이며, 가축 방역비와 량곡 수송비, 농기계와 농촌 주택 및 농촌의 일체 문화 후생 시설의 보수비까지 국가 자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금년도 예산은 협동 농장들의 경제 형편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자금 지출 이외에도 농촌 경리의 전반적인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업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1.5 배나 더 많은 기본 건설 자금을 농촌에 지출하게 된다.

그리 하여 금년에 압록강 지구, 신계 지구, 평육 지구 등의 대규모 관개 공사가 적극 추진될 것이며 기양, 어지돈, 청단을 비롯한 기존 관개 시설들이 더욱 정비되여 관개 면적은 또다시 4만 정보가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금년에는 압록강 지구에 500여 리의 제방을 쌓고 순화강, 청천강, 대령강, 성천강 등 대규모의 하천 공사들이 진행되며 총 376 키로 메터의 중 소 하천들이 정비될 것이다.

금년에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기 위하여 5,100여 대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 각종 련결 농기계를 비롯한 수 많은 현대적 농기계와 기계 설비들이 공급되며 78만 톤의 화학 비료와 각종 농약, 살초제들이 다량 공급되여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금년에 실시될 농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얼마나 방대한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실로 금년에 농촌의 대규모 기본 건설과 지난 기간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실시하던 모든 기본 건설을 포함하여 농촌 경리 부문에 배당된 국가 투자 총액은 지난해보다 무려 2.9 배나 더 많다.

금년에 농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이다.

김 일성 동지의 테제에 제시되여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에 농업 현물세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 이것은 국가가 그 만큼 량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이제까지 국가가 협동 농장들로부터 무상으로 받던 현물세 량을 돈으로 사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농업 현물세제 폐지에 상응하게 국가의 수입은 감소되는 반면에 지출은 증대된다. 이것은 실로 국가가 협동 농장과 농민들을 위하여 막대한 부담을 추가적으로 진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농업 현물세제를 폐지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또다시 800여 개의 협동 농장들이 현물세의 납부를 면제받게 될 것이며 농민들은 여기서만도 3천 700만 원의 추가적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금년 말까지 이미 현물세를 면제받은 농장들을 포함하여 협동 농장 총수의 거의 60%가 현물세의 부담에서 해방될 것이다.

우리 당은 1965년에 가서도 약 800개의 협동 농장들의 현물세를 면제하여 주며 1966년에 가서는 나머지 농장들까지 다 면제하여 주어 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현물세제 폐지의 이러한 순차는 물론 매개 협동 농장들의 구체적인 경제 형편들을 참작한 데 기초하여 설정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는 농촌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서 큰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전 사회

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는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그들의 생산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고 농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게 할 것이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로 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 조세 제도는 종국적으로 청산되게 된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우리 조상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며 근로 인민 자신이 국가의 주인으로 된 우리 제도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력사적 사변이다.

농촌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의 증대와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 이 외에도 우리 당은 금년에 협동 농장들에 공급하는 영농 자재와 농기구의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농민들에게 낮은 값으로 작업복을 공급하여 주며 전등 료금의 인하, 의약품의 무상 공급, 육류 수매 가격의 인상 등으로 1억 9천 652만 원의 국가적 혜택을 농민들에게 베풀 것이다.

실로 우리 나라의 국가 예산이 금년에 농촌을 위하여 지출하게 될 자금의 규모는 농촌에서 진행되는 대규모의 기본 건설비를 제외하고도 지난해보다 2 배나 더 많은 5억 324만여 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 자금에 의한 농촌의 모든 기본 건설의 진행,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 등 금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된 우리 당의 제반 조치들의 실현은 국가 경리가 협동 경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책의 실시는 농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시원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며 국가적 방조의 성격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농촌에 대한 이러한 지원을 줄 수 있게 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를 위하여 인민 경제에 대한 자금 지출을 계속 증대시키면서도 협동 농장의 경제 토대 강화와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이러한 방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게 된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우리 당이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간고 분투하여 마련하여 놓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위력이 낳은 것이며 우리의 공고한 재정 토대, 중공업과 경공업이 창조한 거대한 축적에 기초한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국가 예산은 날로 장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리에 확고한 기초를 두고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방대한 자금을 원만히 공급하고 있다.

인민 경제 발전의 빠른 속도와 국민 소득의 체계적인 장성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 예산 수입이 해마다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국가 예산 수입 중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은 전후 10 년 간에 매년 평균 25.2%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국가 예산 수입 중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52.9%로부터 98%로 제고되였다.

우리 나라 국가 예산은 1957~1960 년까지의 기간에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의 4 년 간(1946~1949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14 배, 1953~1956년 간 예산의 2 배에 달하는 방대한 자금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하였으며,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도 5억 5천여만 원의 재정 예비를 조성하였다.

나라의 재정 예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증대되여 1961~1963년까지의 기간에는 또다시 3억 4천 600여만 원의 예비가 조성되였다.

우리 나라 재정 예산은 해마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의 토대는 날로 공고화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공고한 재정 토대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방대한 자금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농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 *

농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오늘 재정 부문 앞에는 더욱더 무거운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금년도 국가 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 특히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당면 과업의 실현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무엇보다 먼저 나라의 재정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 축적을 최대한 증대하며 국가 예산에로 들어 오는 사회의 순 소득을 제때에 정확히 집중하여야만 사회주의 건설에서 요구되는 방대한 자금을 원만히 공급할 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나라의 축적을 증대하며 농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부단히 증대하고 재정 관리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재정은 국가 생활의 표준이다. 따라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한나라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꾸려나가는가를 규정하는 하나의 척도로 된다.

재정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절약 제도를 확립하고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보다 많은 예비를 조성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케 함으로써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다 부유하게 하고 재정 토대를 가일층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재정 관리 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절약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생산물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주어야 한다.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전례 없이 증대되는 조건에서 협동 농장들에 대한 재정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된다.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방대한 국가 투자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지 않는다면 협동 농장과 농민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배려가 농업 생산과 농민 생활에서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농촌 경리 부문의 지도 일'군들과 계획 기관, 재정 은행 기관 일'군들은 협동 농장의 생산 재정 계획 수립과 그의 정확한 집행, 부기 계산, 재산 관리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사업을 조직 진행함으로써 금년에 모든 협동 농장들의 경영 활동과 재정 관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도와 함께 농장 관리 일'군들 자신이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협동 농장들은 농업을 경영하는 생산 기관이며 경제 기관이다.

따라서 협동 농장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자면 반드시 경제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협동 농장 관리 일'군들은 농업 생산

에서 기술 장비를 강화하고 로력 조직을 잘 하며 새 기술을 도입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생산 원가를 부단히 낮춤으로써 지출을 적게 하고 수입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데 언제나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협동 농장들에서 재정 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며 공동 재산을 알뜰히 관리함으로써 농장의 살림살이 전반을 잘 꾸려 나가야 한다.

농촌 기본 건설을 모두 국가 자금으로 진행하는 조건에서 이 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건설에서의 랑비 현상을 근절하고 건설비를 적극 절약하며 건설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키는 데 더욱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최근에 개편된 새로운 은행 체계에 상응하게 은행 사업을 개선하며 그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중앙 은행 기관들은 농촌 건설을 위한 국가의 자금 지출을 정확히 보장하며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적극 통제하여야 하며 특히 새로운 류동 자금 공급 체계에 따라 그 공급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은 자금으로 보다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 농장들에 대한 재정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산업 은행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은행 기관들은 매개 협동 농장들에 설치된 출장소를 잘 꾸리고 그의 역할을 높여 협동 농장의 현금 출납, 국가 보험 및 저금과 신용부 사업을 정확히 진행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증대와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 부문의 지도 일'군들과 재정 은행 기관 일'군들은 협동 농장들의 재정 규률 준수 정형과 경영 활동 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 장악하며 재정 통제 사업을 강화하는 데 부단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리 하여 우리는 금년에 우리 당이 협동 경리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베푸는 방대한 재정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특성과 교양

송 선 경

청년 시기, 청춘 시절은 사람의 수양에서 가장 중요한 때이다. 임금의 권력과 황금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다고 일러온 젊은 시절에 잘 배우고 그 나날을 값있게 보낸 사람은 후에 옳게 발전하여 그 보람을 더 느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의 장래는 청년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훈련하며 준비시키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청년들은 사회 혁명 력량의 적극적인 부분이며 혁명의 계승자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청년들을 옳게 교양하는 문제는 현 단계의 우리 혁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조국의 장래 운명과 관련된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당은 지금 우리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청년 대렬을 정치 도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며 그들을 지, 덕, 체가 겸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육성할 과업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에 대한 교양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형식과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청년 교양 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청년들을 옳게 교양하려면 그들의 특성에 알맞는 내용과 방법, 형태들을 택해야 한다. 교양은 사람들의 심리 및 정신 세계에 적극적인 작용을 줄 때만이 효과 있게 될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당 시대, 천리마 시대의 새 인간으로서 모두다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참된 혁명 전사로 되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각이한 체질, 능력과 소질, 각이한 심리와 성격, 취미, 각이한 생활 정위와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 교양이 사람들의 특성에 적응할 때만이 그것은 감화력을 가지며 새로운 인간 형성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청년 공작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시를 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이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한방의들은 환자를 대할 때 우선 그 환자의 성격부터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왜냐 하면 환자의 성격, 체질에 따라서 같은 병이라도 그 증세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병이라도 그 체질과 성격에 따라서 약재나 그 분량을 달리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한방의들은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 올

때부터 진맥을 하고 약 처방을 낼 때까지 모든 관심과 주의를 돌려 그 환자를 료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한방의들이 하는 일에 비길 수 있겠는가! 한방의들은 환자의 병을 고쳐 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낡은 사상을 새것으로 고쳐 주고 의식을 개변시키며 그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하게 함으로써 혁명 전선의 선구자가 되도록 길러 내야 하는 것이다.

청년들을 교양하며 지도하자면 보다 세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의 깊이 관찰하고 포착하여 그들에게 알맞게 사업해야 한다.》

* *

청년들의 일반적 특성에는 그들의 년령적 특성과 사회 생활의 제 조건이 반영된다.

청년들의 특성은 우선 미래를 열렬히 사랑하며 높은 리상과 원대한 포부에 불타며 끓어 넘치는 정열이 충만되여 있는 데서 표현된다.

청년들의 이런 특성은 청년 시기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이며 세계관의 형성 시기라는 데서부터 온다.

우리 청년들은 전도양양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데로부터 청년들은 미래를 사랑하며 자기들의 시대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리상적인 사회로 만들며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려는 높은 리상에 충만되여 있다. 그들은 훌륭하고 비범한 큰 일을 해 보려는 뜻이 높으며 남의 모범에 깊이 감동되여 그 모범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스무 살 안팎의 청년들은 《장차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꿈 속에서 공상의 날개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박 연암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가 될 것을 꿈 꾸는가 하면 인류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위대한 과학자, 발명가로 될 것을 동경하며 또한 정치 활동가, 로력 위훈자가 되여 조국에 이바지할 것을 생각한다.

이것은 청년들의 발전을 위하여 아주 귀중한 꿈이다.

생활은 이러한 꿈과 큰 뜻이 있을 때만이,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고 싸우는 사람만이 옛날부터 위대한 인물로 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을지 문덕, 강 감찬, 리 순신 등 우리 나라 력대 명장들이 그러하였고 또한 우리 나라의 문명과 인류의 문화사에 이바지한 모든 명인들이 그러하였다.

신라의 청년 혜초는 20 세 전에 큰 뜻을 품고 10 년 이상이나 도보로 인도와 아세아의 온 지역을 답사하여 《왕오 천축 국전》과 같은 인문, 지리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후세에까지 이름을 떨치고 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기능과 인내를 갖는 것이다》—이것은 독일의 위대한 시인 괴테의 말이다. 그는 이것을 신조로 하여 평생을 창작에 바치여 드디여는 《파우스트》와 같은 걸작을 만들어 당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람들을 전모에로 고무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미래를 사랑하며 리상적 사회에 대한 포부와 정열이 높은 청년들의 특성은 매우 귀중하다. 그러나 청년들은 아직 세계관이 확고히 서 있지 못 하고 또 사회적 생활 경험이 어리고 단

련이 부족한 조건에서 그들을 옳게 교양하지 않는다면 모험주의에로 나갈 수 있으며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감정에 사로잡혀 인내성과 신중성이 부족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청년 교양에서 류의하여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청년들의 특성은 또한 그들의 비상한 감수성에서 표현된다.

이러한 특성은 청년들에게 소년기에는 미약하였던 추상적 사고력을 비롯한 인식 능력이 강하게 발전하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그들은 객관적 사물 현상에 대한 일련의 구체적 개념과 함께 추상적 개념의 전 체계를 점차 소유하게 된다. 또한 그들의 사고력이 발전함에 따라 지각, 기억, 상상의 활동도 더욱 높은 단계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청년 시절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반영이 넓어지고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보다 깊이 있게 반영되게 된다. 소년 시절에는 보고 들으면서도 느낄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일반화하는 능력이 자라나게 된다.

새것에 대한 청년들의 민감한 감수성은 그들의 청백한 감정 세계와 결부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열의를 북돋우며 정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의지를 배양한다.

그러나 청년들의 감수성은 그들이 아직 혁명적 단련과 실천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새것과 낡은 것을 잘 구분하지 못 하게 하며 따라서 그것을 그 대로 받아 들이는 경향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 교양에서는 이 측면을 옳게 고려하여야 한다.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일반적 특성과 함께 민족적인 일련의 고유한 특성도 있다.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우리 나라 청년들은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고, 사상적으로 강의하고 민족적 자부심이 높다.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우리 청년들의 고귀한 특성이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며 원쑤에게는 무자비하고 정의와 진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이악하다.

이것은 외래 침략자들의 거듭되는 침습을 물리치고 피로써 수호한 조국 강토를 자기의 손, 자기의 힘으로 잘 꾸리기 위한 력사적 행정에서 배양되고 단련된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기질의 발현이다.《…내 차라리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는 될 수 없다.》 이는 신라의 왕자 미해를 일본에서 구출하려다가 일본 왕에 의하여 목도에서 화장 당한 박 제상의 말이다.

우리 선조들의 조국애는 이렇듯 열렬하며 침략자들에 대한 적개심은 높다.

우리 선조들의 이 숭고한 애국심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상을 조국 강토우에 실현하기 위한 청년들의 혁명 정신으로 계승 발전되였다.

항일 빨찌산 청년 투사 박 길송 동지는 사형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굴함없이 원쑤들 앞에 조국에 모든 것을 바치는 숭고한 애국주의를 보여 주었다.

《지금 이 최후의 순간에도 나의 상념은 오직 조국으로만 한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조국이여! 나는 그대를 자랑합니다. 나의 위대한 조국이여! 공산당이여! 나는 그대의 동요할 줄 모르는 아

음을 자랑합니다…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키워 내는 요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웃으면서 죽습니다.》

항일 빨찌산의 이 고귀한 혁명 정신은 해방 후 조국의 통일 독립과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우리 청년들의 투쟁에서 유감 없이 발휘되였다.

로동당 시대의 우리 청년들은 또한 례절이 밝고 무한히 근면하고 소박하다. 그들은 효성이 지극하고 동기, 이웃간에 의리가 밝고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며 생활을 검박하게 꾸려 나간다.

우리 선조들은 사치와 라태를 배격하고 그 어떤 권력과 간난신고 앞에서도 송죽 같이 절개를 지켜 왔으며 소박하며 례의 범절이 밝다.

여보소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소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섧다는데 짐조차 지시올가

이것이 예로부터 일러 오는 늙은이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품성이다.

19 세기 후반기에 로씨야의 려행가들이 조선을 다녀 가서 쓴 저서 《조선 사람의 성격》에는 조선 민족의 서로 돕는 미풍, 소박성이 서술되여 있으며, 조선에서 받은 환대에 대하여 강조되여 있다.

《동방 례의지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나라의 이러한 도덕적 미풍은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우리 청년들의 정신 도덕 생활에서 꽃 피고 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서로 돕고 밀며 이끌면서 광명한 미래에로 전진하고 있다.

그들 속에서는 길 확실, 리 신자, 리 만성과 같은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공산주의적 미풍이 대중화되고 있다.

* *

인류 력사는 수천 수만의 세대를 거쳤다.

후대 교양의 내용과 방법은 력사 발전의 매 시기에 적응하게 부단히 변화 발전되여 왔다.

세기적으로 착취 계급은 후대 교육 사업을 자기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데 리용하였을 뿐 젊은 세대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고대 희랍의 스파르따의 통치자들은 청년들을 무사로 키우기 위해 야만적인 규률을 적용했으며 만일 몸이 허약하여 무사로 될 수 없으면 죽여 버렸다. 특히 현 시기 독점 부르죠아지는 청년들의 특성들을 부정적 방향으로 이끌며, 극력 조장시킴으로써 청년을 기형적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 부르죠아 청년들은 마태하고 타락하고 세기말적인 취미에 물젖은 사회의 전달로 전락하고 있다. 착취 계급과 온갖 압박 관계가 청산된 사회주의 하에서만 청년들은 처음으로 이러한 부정적 길로의 전락을 극복하고 그 자신과 사회를 위한 진정한 역군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만이 청년들에게 자신을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준다.

오늘 우리 당은 청년들을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으로 즉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이 확립되고 지, 덕, 체가 겸비된 인간으로 교양 육성하고 있다.

청년들을 새 형의 인간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고유한 특성들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긍정적 방향으로 적극 조장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이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오늘 우리에게는 청년들의 특성을 옳게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들이 있다.

청년들은 우리 제도 하에서 다 중등 의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소년단 생활과 민청 생활을 통하여 공산주의적으로 교양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년들은 우수한 특성들을 소유한 새로운 세대로 훌륭히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제도 하에서의 훌륭한 교양적 환경과 조건들도 그것이 청년들의 특성에 적응한 교양 사업과 결부되지 않을 때에는 생활력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 혁명의 현실적 요구와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교양의 내용, 방도들을 정확히 설정하고 이 문제를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

청년들의 특성에 근거한 교양 내용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혁명 전사로서의 계급적 원칙과 지조를 지킬 줄 아는, 그를 위하여 청년적인 기질: 용감성, 희생성, 완강성 등을 발휘할 줄 아는 투사로 되게 하는 것이다.

청년 시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때이니 만큼 교양에서 사회와 자연에 대한 옳은 관점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서 기본으로 되여야 할 것은 계급 의식을 높이며 계급적 지조와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며 반미, 반제 사상을 철저히 주입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 20 대의 청년들은 해방 후 인민 정권 하에서 세상에 부럼 없는 생활을 누리면서 자라 왔다. 그들은 과거 자기의 부모들이 겪은 계급적 압박과 착취를 잘 알지 못하며 혁명의 시련 속에서 준엄한 사변들을 직접 체험해 보지도 못하였다. 또한 우리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부유해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현 시기 젊은 세대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은 그들을 혁명 전사로 교양하는 데서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청년들 속에서 계급 교양과 더불어 지,덕,체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그들의 특성을 옳게 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청년들을 새 사회의 담당자로 육성함에 있어서 현 시대가 제기하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 청년들 자신의 요구이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을 훌륭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현대 과학 기술과 높은 문화적 소양, 풍부한 인간성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가지기에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지, 덕, 체 교양을 줌으로써만이 그들의 긍정적인 기질들을 옳게 조장 발전시킬 수 있다.

청년들의 특성에 적응한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그 형식과 형태들을 다양하게 하며 흥미 있게 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도식적이며 딱딱한 틀과 방법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년 교양의 형식들은 그들의 흥미를 돋우며 열성을 낼 수 있게 되여야

한다.

청년들의 사상 수양은 회의와 생활 총화 사업 등 만으로써는 옳게 될 수 없다. 또 학습을 시키는 것도 교과서나 보고 명제와 공식 등을 외우게 하는 방법만으로써는 안 된다.

청년들은 연설하기를 좋아하고 일을 책임 지고 맡아 해 보려는 욕망이 높다. 이러한 기호와 심리를 포착하여 거기에 맞는 형식과 방법들을 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웅변 대회, 과학 토론회, 창작품 발표회, 문예 작품 현상 모집, 써클 경연회 등 흥미 있는 형식과 방도들을 택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생활과 학습이 재미 있고 청년 자신들이 그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되여야 한다.

청년들을 교양하는 데서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조건에서 학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학생 청년들을 다방면적이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되게 하는 데 특히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 청년들을 교육, 교양함에 있어서 학습과 함께 생산 실천, 사회 정치 생활, 군중 문화, 체육 활동을 광범히 조직하고 배합하는 데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만일 학교 교육이 이렇게 되지 않고 청년들에게 일반 지식만을 주고 사회 생활과 유리시킨다면 청년들을 한갓 《글뒤주》로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학교 교육 사업은 사회주의 건설 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배운 리론이 생산 실천을 통하여 공고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청년들을 민청 조직 생활에 잘 참가시키며 다양한 사회 활동과 정치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여 우리의 혁명 사업에서 배우며 단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우리 학교는 반드시 청년들에게 일반 원리 지식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실지 써 먹을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 기능을 주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의 교육 교양 문제는 학교에만 일임될 수 없다. 미래의 역군을 키우는 이 심중한 사업은 응당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가정, 학교, 사회의 교양을 밀접히 결합하여 청년들을 앞날의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여야 한다. 학교와 사회 단체들이 청년을 교양하고 가정이 청년을 교양하고 사회의 모든 생활 환경이 청년들을 교양하도록 되여야 한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우리 혁명의 계승자인 청년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의 교양에 대하여 당과 조국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귀중한 자본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결정적인 자본은 사람이며 인재라고 쓰딸린은 말하였다.

우리의 청년들은 오늘의 혁명 사업을 이어 받을 후비대이며 항일 빨찌산들이 백두의 밀림에서 15 성상 높이 추켜 들었던 혁명의 기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끝까지 휘날리면서 공산주의 미래에로 전진하여야 할 젊은 투사들이다.

오늘 청년들에게 더 훌륭한 교양을 주어 그들을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한 담보이다.

우리는 모든 청년들을 자기의 혈육으로서, 우리 혁명의 보배로서 극진히 사랑하며 어버이의 심정으로 청년들을 따뜻하고 인내성 있고 신중하게 보살펴 주며 그리고 긍정을 통하여 부정을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의 우수한 특성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

청년들의 특성에 알맞는 교양은 그들을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지, 덕, 체가 겸비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사회주의와 개성

황 영 식

인간 개성에 대한 문제는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깜빠니야의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사상적 적들은 사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는 개성의 자유가 말살되는듯이 사태를 묘사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개성의 옹호자이고 인도주의자인듯이 가장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나라들을 《자유 세계》라고 부르고 있다.

지어 오늘 남조선의 괴뢰 도당까지도 이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의 반동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가까와 오고 인민 대중의 혁명적 의식이 제고되면 될수록 더욱더 《반공 선전》에 광분하면서 《공산주의 위협》, 《자유 수호》, 《개성의 자유》 등의 기만적인 구호들을 들고 나온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개성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요란스럽게 떠벌리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패배를 보여 줄 따름이다.

정전 직후에 미제와 남조선의 괴뢰 도당은 북조선에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재'더미로 된 조건에서 생산은 침체될 것이며, 인민 경제 계획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인민들의 생활에 빈궁을 가져 올 것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적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룩된 거대한 물질 생산적 성과들은 그들의 선전을 여지 없이 분쇄하고 말았다. 이제 와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적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리 하여 미제와 남조선의 괴뢰 도당은 경제 건설에 대한 비방으로부터 정신 도덕적 면에 공격의 화살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그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물질 생산적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성과는 다른 보다 고귀한 것을 희생으로 하여 달성되였다고 한다. 즉 이 성과들은 개성의 자유를 희생으로 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론조는 모든 부르죠아 리론에서 공통적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부르죠아 리론에 발을 맞추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개성에 대한 문제를 사회 계급적 문제와 분리시켜 소위 《추상적 개성》, 《순수 개성》 따위의 낡아 빠진 부르죠아 개성론을 들고 나오면서 계급 투쟁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거부하는 데 이것을 리용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의 본질은 혁명 대렬 속에 부르죠아 사상을 부식시킴으로써 계급적 각성을 무디게 하며 근로 대중을 무장 해제시키자는 데 있다.

그러나 적대 계급들로 분렬된 사회에서 《추상적 개성》,《순수 개성》,《개성의 절대적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진정한 개성의 자유는 치렬한 계급 투쟁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통하여서만 철저히 보장될 수 있다.

* *

인간 개성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와 함께 항상 날카로운 사회 계급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인간의 본질은 체질, 건강 및 본능 등과 같은 자연적 표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심리, 사상 의식, 견해, 습관 등과 같은 사회적 표징에 의하여 규정된다.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본질은 개별적 개인에 고유한 추상물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맑스 엥겔스 선집 제 2 권, 470 페지) 인간은 일정한 사회 관계에서 생존하는 만큼 사회를 떠난 완전히 고립된 추상적 인간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 있지도 않다. 인간의 사회성은 동물과의 본질적 차이이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인간의 사회성을 떠나서 인간을 단독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그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추상한다면 그것은 다만 자연적 본질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동물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된다.

인간의 개성은 그의 자연적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총체에 의하여 규정되는 개변적인 사람들의 특성이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 개성은 계급성을 띤다. 왜냐하면 계급 사회에 있어서 매개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계급에 속하고 있으며 모두 일정한 력사적 조건과 사회적 관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개 사회 구성태 내에서 생산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계급은 일정하게 특수한 생활 양식, 특수한 리해 관계, 특수한 심리, 사상, 관습, 견해 등을 가지게 된다.

이리 하여 생산 관계를 달리 하는 계급들의 사상, 성격, 취미 등은 서로 같지 않다.

부르죠아지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며 근로 대중을 억압 착취하는 것을 응당한 일로 간주하며 로동을 천시하고 부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락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대로 근로자들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반대하며 다른 사람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의 행복을 누리려 하지 않으며 로동을 존중하며 검박하게 생활한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사상 의식은 개성을 규정하는 모든 요소들 중에서도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으로서 이여의 다른 요소들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급 사회에 있어서 매 사람이 계급적인 공통성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이 각양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계급은 공통적인 생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그 계급 내부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각양한 생활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이한 사업에 종사하며 사회의 복잡한 현상의 각이한 영향을 받으며 각이한 생활 양식과 물질적 처지에 놓여 있다. 매 개인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 환경과 구체적 생활 경력은 모두 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실은 매 개인에게 개성을 가지게 한다. 또한 개성에는 인간의 각이한 생리적 특성도 반영된다. 이리 하여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고 방식, 취미, 능력, 소질, 재능, 성격 등을 가진다. 물론 이것은 고정 불변한 것은 아니다. 이 자체도 환경과 로동, 교양에 의해서 부단히 변화 발전한다.

이러한 개성의 차이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 계급이 없어지고 그들의 처지가 같아진다 하더라도 개성은 의연히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객관적 세계의 산물로서의 각양한 개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객관적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 생활의 다양성과 매 개인의 생리적 특징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러한 립장은 계급적 처지가 같은 인간은 모두다 같은 인간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개성의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으로 계급성을 부인하는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 개성의 사회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고 《추상적 개성》, 《순수 개성》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황당한 것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력사를 초월한 그 어떤 《영원한 인간의 본성》, 《추상적 개성》 등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그러나 계급을 초월하는 그 어떤 《추상적 인간》, 《추상적 개성》이란 있을 수 없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 개성의 계급성과 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본질을 부인하고 자연적 본질을 절대화하는 것이며 결국 이것은 관념론의 견지에 굴러 떨어지는 것이며 부르죠아 개성론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맑스-레닌주의는 개성의 사회 계급적 내용을 천명함과 동시에 개성의 해방과 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투쟁 방도도 명백히 제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성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력사 무대에서 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한 부분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여 왔다. 인류 력사는 일정한 의미에서 개성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력사라고 말할 수 있다.

원시 공동체 사회로부터 공산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 제도의 교체 과정은 역시 인간 개성의 발전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노예 사회에 있어서 노예들은 《말하는 도구》에 불과하였고 개성의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봉건 사회에 있어서 농노들은 노예보다는 나은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과 개성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봉건적 신분제와 중세기적 압혹과 종교적 예속은 개성의 자유와 그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인간 개성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구호는 부르죠아지가 봉건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것은 초기에 일정한 진보적 역할을 놀았다. 부르죠아들은 봉건적 압혹 세계를 뒤집어 엎음으로써 인간 개성이 보다 자유로이 발전할 수 있는 일정한 가능성을 주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도 근로자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들이 지어지지 못 하였으며 또 지어질 수도 없다. 자본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억압 그로 인한 대중적 빈궁은 근로자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에 질곡으로 되였다.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자들은 형식 상 부르죠아지에 예속되지 않고 있으나 사실 상에 있어서는 기아의 규률, 채찍의 규률에서 전혀 벗어 날 수 없는 것이다. 로동자들은 무덤 속으로 들어 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 취미와는 관계 없이 로동력을 팔아야 하며 부르죠아지를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개성의 발전을 완전히 억제해 버린다.

자본주의는 황금의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인간 관계를 금전 관계로 바꾸어 놓았으며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 가치로 전환시켰》(맑스 엥겔스 선집 제1권, 14 페지)던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분업은 인간들을 일면적인 인간으로, 기형적인 인간으로 되게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 권력은 부르죠아지가 장악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아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도 갖지 못 하고 있다. 방송국, 출판 기관, 학교, 극장 등 각종 사회, 문화 기관들은 부르죠아지가 독점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문맹과 종교와 각종 미신의 정신적 예속에서 벗어 나지 못 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약육강식의 승냥이 법칙이 작용하며 사람들 호상간에

서로 적대하는 감정과 생존 경쟁이 지배한다. 자본주의는 탐욕과 잔인성, 랭담 그리고 살인, 절도, 타락 등 각종 오물들을 전염병처럼 전파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개성의 자유》의 구호는 착취자들의 특전과 전횡을 유지하며 근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는 자유, 평등, 개성, 해방에 대한 형식적인 구호의 미명하에 무수한 대량적 학살을 감행하였으며 수천만 인민들을 육체적 및 정신적 불구로 만들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인류의 발전에 대한 가장 반동적인 장애물로 되였으며 인간 개성에 대한 유린자로 되였다.

개성의 해방은 인간 개성의 발전을 억제하는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인간은 사회 관계의 총체로서 사회 밖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회 안에서만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성의 해방은 사회로부터 개인의 해방이 아니라 그를 노예화하는 사회적 관계를 청산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국가와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부르죠아지에 발을 맞추어 계급 투쟁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인도주의적 사회》는 계급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절대적 사랑》, 《마음의 혁명》에 의하여, 개성의 륜리적 완성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은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 즉 로동 계급의 혁명적 립장이 아니라 추상적 《전 인류적 사랑》이다.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벗》이라고 하는 등의 부르죠아 인간학적 견지에서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에 대립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 프로레타리아 도덕에는 《인간성》과 《개성의 자유》가 결여되여 있는듯이 말하고 있으며, 《전 인류적 도덕》, 《전 인류적 사랑》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그들은 마치 도덕에는 계급적인 것과 전 인류적인 것이 있고 계급적인 것은 상대적이고 전 인류적인 것은 절대적이라고 하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계급적인 것은 감소되고 전 인류적인 것이 지배적인 것으로 된다고 한다.

그들은 《전 인류적 도덕 규범》은 수천년 간 인류 력사가 이루어 놓은 고상한 도덕적 원칙들의 계승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말며, 욕하지 말며, 훔치지 말며, 거짓말을 하지 말며, 로인을 존경하며, 어린애를 사랑하라는 등의 추상적 《인류애》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추상적 도덕, 추상적 인류애 등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도덕 문제가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더욱 밀접하며 인간의 본능, 감정 등에 더 쉽게 수정주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모든 전쟁, 모든 무기는 다 비인도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부르죠아 평화주의를 설교하고 있다.

《사람들이여, 무기를 놓으시오》—이것이 오늘 그들이 웨치는 구호이다.

수정주의자들은 추상적인 《인류애》에 호소하면서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에게 무기를 놓고 피착취 인민과 피압박 민족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설교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식민지적 압박 밑에서 신음하는 인민 대중의 고통도 마치 그 어떤 《인류애》에 의해서 가시여질듯이 선전하고 있으며 군비 철폐에 의한 자금으로써 피압박 인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원조》가 가능한듯이 말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모든 책동은 결국 계급 투쟁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부르죠아 성선설로 바꾸어

놓으며 인민 대중 속에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계급적 모순을 완화시킴으로써 근로 대중을 무장 해제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을 와해하자는 것이다.

인간 개성의 해방과 그의 전면적 발전은 그 어떤 《초계급적 사랑》이나 《추상적 인류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개성을 유린하는 자본주의 제도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함으로써만 가능하다.

* *

사회주의 제도는 인류 력사 상 처음으로 개성의 완전한 해방과 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그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인간 개성의 전면적 발전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제기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생산 관계를 개조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의 물질 문화적 부를 풍부히함과 동시에 사회 성원들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육성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개성의 전면적 발전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보다 급속한 실현을 위해서도 긴절하게 제기된다.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육성이 없이는 고도로 조직된 사회주의 경제가 옳게 운영될 수 없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인간 개성의 전면적 발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실제적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생산 수단이 사회적, 집단적 소유로 된 조건에서 사회,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은 통일되여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단합되며 자각적으로 로동에 참가하며 매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이 보장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적 복리와 행복은 사회주의 사회의 전반적 복리와 완전히 일치한다. 모든 일은 개인의 일이자 나라의 일이고 집단을 위한 일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의 물질적 및 정신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사회의 리익을 떠난 그 어떤 개인의 리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개인의 리익은 사회의 리익에 복종된다. 개인의 리익은 사회의 리익 우에 올려 세울 수 없으며 개인의 리익은 사회의 리익이 충족될 때 보장된다.

물론 사회주의 하에서도 개인적 리익의 객관적 내용과 사람들의 주관적 지향, 욕망 간에 모순이 생길 수 있으며 개인적 리익의 가까운 것과 먼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상시적인 것 간에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 모든 대책들은 종국적으로는 개인들 자신의 리익을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일치, 사회의 리익에 개인의 리익의 복종은 사회주의 집단주의 도덕의 기본 원칙으로 된다.

사회주의 집단주의 하에서만 인간 개성의 전면적 발전이 가능하다.

집단주의는 사람들 사이에 견해 및 목적의 공통성, 호상 방조와 동지적 결합을 발생시키는 바 이것이 없이는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도 각자의 재능과 능력의 자유로운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집단주의 하에서 매 개인은 자기의 인간적 가치를 진실로 향수하며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 집단주의 하에서 개성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된다. 집단주의 하에서는 사람들 호상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 주고 밀어 준다. 집단주의 하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하에 인간들 호상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진실한 인간 관계와

감정이 형성된다. 집단은 자기 전체 성원들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 지며 집단의 매개 성원은 사회와 집단에 대하여 책임 진다. 다른 개인에 대한 한 개인의 영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영향은 집단의 영향에 대하여 비교할 수도 없다. 집단은 사람들의 고상한 성격과 도덕적 품성을 형성시킨다. 집단주의 하에서만 사람들은 고독을 모르며, 호상간 부족점을 비판 시정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집단으로부터의 리탈은 인간의 개성을 불구로 만들며 성격에서 교만, 자고자대, 질투, 비겁성 등을 낳는다. 맑스는 《오직 집단적 관계 속에서만 개인은 자기의 소질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그에게 주는 수단을 획득하며, 따라서 오직 집단적 관계 속에서만 인격적 자유가 가능하다》. (맑스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80 페지)고 강조하였다.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은 사회주의 하에서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대립시키면서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개성의 자유를 억제하는듯이 비방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개성의 자유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는 인간의 행동에서의 자유는 객관적 법칙으로부터의 공상적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인식하고 그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데 있다고 본다.

엥겔스는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자유란 《이 법칙의 인식 가운데에 또 이 지식에 기초된, 자연 법칙을 계획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작용시킬 가능성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외적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도 인간 자체의 육체적 및 정신적 존재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한다. —이 두 종류의 법칙은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의 표상에 있어서나 서로 구별할 수 있고 현실에 있어서는 결코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의 자유란 것은 로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따라서 자유란 것은 자연 필연성의 인식에 기초한, 우리들 자신 및 외적 자연에 대한 지배》이다. (《반듀링론》 148~149 페지)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을 지도한다. 그러므로 근로 대중의 진정한 자유는 그들이 당 및 국가적 통제와 규률로부터 벗어 나는 데서가 아니라 그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치렬한 계급 투쟁의 조건에서 로동 계급의 개성의 해방은 단독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만약 프로레타리아트가 단결하지 못 하고 무정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적에게 각개 격파 당할 것이며 노예적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 나지 못 할 것이다. 로동 계급은 강철 같은 규률에 의해 통일되고 단결될 때에만 부르죠아 정권을 타도하고 자신의 해방을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의 통제와 규률은 로동 계급의 개성의 자유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로동 계급의 해방과 그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로동 계급은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조직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영예로운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개인을 희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동 계급은 규률이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개성의 자유는 무제한한 초계급적인 개성의 절대

적 자유가 아니다. 이것은 부르죠아적 착취적 침략적 요소에 대하여 제한하고 사회의 일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에 대하여 제한하는 데서 더욱 철저히 보장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대중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착취자들과 그 방조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며, 이 착취자들로부터 착취한 〈자유〉, 기근을 리용하여 치부할 〈자유〉, 자본의 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할 〈자유〉, 조국의 로동자 및 농민을 반대하여 외국의 부르죠아지와 결탁할 〈자유〉를 박탈한다.》 (레닌 전집 제 29 권, 370 페지) 착취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인민 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사회에서 몇 사람의 전횡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억압하며 침해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폭력은 가장 인도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개성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폭력이 전부도, 주되는 것도 아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보다 중요한 창조적 과업 즉 새로운 경제 건설, 사회주의적 사회 관계의 형성, 새로운 인간의 교양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한다.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은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대립시키고 당의 령도와 개성의 자유를 대립시키면서 사회주의 하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고 독재와 규률과 복종이 지배한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

그들은 개성의 자유는 개인주의를 의미하며 개인주의는 인간의 영원한 《본성》이라고 한다. 즉 《사람은 날 때부터 자사 자리의 동물이며》 이것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사회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며 《나에게 유익한 것은 사회에도 유익하다》는 립장에 선다. 사회니, 인민이니 하는 말은 공허한 추상이며 내용이 없는 개념 뿐이라고 하면서 개인주의만이 모든 행복의 원천이라고 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하에서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대립시키고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면서 진정한 개성의 자유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고 당 및 국가의 통제와 규률을 약화하는 데서만 보장되는듯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인간의 본성》에 적대되는 그 어떤 다른 힘으로 묘사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찌또 도당은 《사회주의는 인간의 개인적 행복을 그 어떤 〈최고 목적〉에 복종시킬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개인적 행복이 사회주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집단이 개인의 발전을 위한 조건에 불과한듯이 사실을 전도하고 있다. 이것은 부르죠아 개성론, 부르죠아 개인주의 립장에로의 완전한 전락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 제국주의 반동 사상가들은 찌또주의는 《지금까지의 모든 종류의 맑스주의에 비하여 인간성에 부합되며 맑스주의 근본 원리와 서방 자유주의의 근본적 원리 간에 새로운 련계를 맺어 놓았다》고 극구 찬양하였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소위 《개인 미신 반대 운동》이라는 날조된 깜빠니야를 련속 벌려 놓으면서 이른바 《개인 미신 시기》에는 《민주주의》, 《자유》, 《개성》이 유린되였다고 하며 《과도한 중앙 집권제》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책동은 《민주주의》, 《자유》라는 기만적 구호 하에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고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거부하며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이 모든 책동은 부르죠아 인간 소외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영원한 인간의 본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간주하며 개성에 대한 사회의 온갖 제약이 인간의 소

외이며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회적 계약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인간을 자기 자신에로 되돌아 올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인간의 본성의 복귀》—이것은 사실상 개성의 절대적 자유를 고취하는 것이며 사회적 의무를 부정하며 객관적 필연성에 대한 인간 활동의 제약성을 거부하며 무제한한 방종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 계급의 계급성을 말살하며 사회주의적 인간을 부르죠아적 인간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의 절대적 자유는 필연성을 부인할 수 있으나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것은 무정부적 지향과 객관적 현실과의 모순을 첨예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성의 자유는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모욕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개성의 자유는 오직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데서만 보장될 수 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더욱 강화하여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의 차이를 소멸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공고 발전시키며 나라의 기술,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개성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강화함이 없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공고 발전시킴이 없이 개성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 나라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관계를 조장시키고 물질적 관심성만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부르죠아적 개인주의를 조장시키며 개성의 전면적 발전을 억제한다.

또한 개성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계급 교양의 강화는 개성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을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유습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계급 교양을 홀시하고 《초계급적 인간 개성의 전면적 발전》, 《지'적, 정신적생활의 자유》,《개인의 기호와 감정, 취미의 자유로운 발전》 등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결국 프로레타리아 개성을 부르죠아 개성으로 변형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성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서는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며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이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하에 대중적 혁신 운동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 경쟁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 방법으로 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기풍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여 가고 있으며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새로운 형태

전 정 희

지금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는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새로운 형태가 창조되여 급속히 확대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 작업반원들의 발기에 의하여 처음으로 일어난 《한 달에 한 건 이상의 새 기술 도입 운동》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전국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파급되였으며 금년에 들어 와서는 생산의 전문화와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작업반 간의 련합 혁신 운동으로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다.

이 운동의 대렬에는 이미 기계 공업 부문의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망라되였으며 거기에 참가하는 다른 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작업반 수도 날을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운동을 처음으로 발기한 대안 전기 공장을 비롯하여 락원 기계 공장, 김책 제철소와 성진 제강소 등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작업반들 간의 련대적 혁신에 의하여 생산의 전문화와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창발적 의견들이 련이어 제기되고 있으며 생산에 도입되고 있다.

작업반들 간의 련계와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더욱 목적 지향성 있게 실현하여 나아가는 이 운동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우월성으로 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계속 급속히 확대 발전하고 있다.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집단적인 기술 혁신 운동—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 올림에 있어서 귀중한 새 싹이다.

따라서 오늘 이 운동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 지지해 주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한 달에 한 건 이상의 새 기술 도입 운동》과 그것에 기초하여 발생한 작업반 간의 련합 혁신 운동은 기술 혁명 수행에서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하며 기술 발전을 위한 대중 운동을 보다 조직화하고 보다 계획화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혁신 운동의 새로운 형태이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결합된 생산자 집단의 집체적인 참가와 공동적인 책임 하에 기술 혁신 과제의 수행을 계획하고 집행하여 나가는 조직화된 운동이며, 기술 혁명 수행에 모든 생산자 대중을 전면적으로 인입하는 집단적 혁신 운동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은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기본 공정들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과 모든 공정들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간단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로부터 복잡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로, 생산 공정의 기계화로부터 자동화에로의 이행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나라의 기술 혁명이 전면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생산의 전문화와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기계 설비들을 더욱더 많이 보장하며 기술 발전을 한 계단 더 심화시

길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전 군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 혁신 운동을 생산과 밀접히 결부시켜 더욱 조직화하고 계획화하며 서로 련관된 생산부문과 생산 공정들 간의 련대적 혁신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생산과 직접 결부시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며 련관된 생산 공정들 간의 련대적 혁신을 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 운동을 고정적으로 결합된 생산자 집단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하여야 기업소들에서 생산 계획과 기술 발전 계획의 수행을 통일적인 과정으로 맞물려 추진시킬 수 있으며, 기업소 전반의 범위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조직화하고 계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적으로 결합된 생산자 집단에 의거하지 못하는 기술 혁신 운동에서는 생산 행정과 새 기술 도입 과정이 밀접히 결부될 수 없으며 생산 단위 및 고리들 간의 집단적인 방조를 강화할 수 없으며 련대적 기술 혁신을 광범히 일으킬 수 없다. 또한 제한된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서만 기술 혁신이 실현되는 경우에 그 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발생은 날로 심화 발전하는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수행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 운동이 전개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은 과거와 같이 기술 일'군들이나 숙련 로동자들에 의하여서만이 아니라 작업반을 단위로 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성원들의 집체적인 지혜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실현되게 되였으며, 제기된 창안을 생산에 도입하는 사업이 생산과 통일적인 과정으로 맞물려 진행되게 되였다.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이 발생하고 확대 발전할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이 지난 시기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에 대한 낡은 관점을 퇴치하고 그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백방으로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온 결과이다.

당은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면서 기술 혁명과 결합시켜 문화 혁명을 진행하는 방침을 견지함으로써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극복하였으며 그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제고시켰다.

동시에 우리 당은 기술 혁신 운동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결부시키고 기술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며 인민 경제의 매개 단위, 매개 고리들 간의 련대적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로동자들 호상간, 로동자와 기술자 간, 생산 단위들 간에 동지적으로 협조하는 기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 놓았다.

특히 우리 당에 의한 대안 사업 체계의 확립은 우리 나라에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생산과 밀접히 결부시켜 보다 조직적으로,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결정적 담보로 되였다.

공업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생산에 대한 지도와 기술 지도는 공장 참모부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였으며 로동자들은 기업소의 관리 운영 사업 전반에 전면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이것은 대안의 사업 체계가 생산과 기술 발전 사업을 통일적인 과정으로 결합시켜 고도로 계획화할 수 있게 하며 기술 혁신 운동에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창발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지난 시기

까지 우리 나라의 공업 부문들에서 진행되던 《1인 1건 창의 고안 운동》과 같은 기술 혁신 운동과는 구별되는 일련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작업반을 거점으로 모든 생산자들이 례외 없이 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둘째로, 작업반을 단위로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을 작업반 집단의 관심과 책임 하에 끝까지 조직적으로 추진시킨다는 데 있으며 세째로, 작업반 호상간의 집단적인 방조에 의하여 기술 혁신을 련대적으로 일으킨다는 데 있다.

현대적 기술은 본질 상 일정한 집단의 공동적 로력에 기초하여야만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직 결합된 로동자의 경험만이, 어디서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이미 이루어진 발견들을 어떻게 가장 간단히 리용할 것인가, 리론을 생산 과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실제적인 곤난들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등등을 발견하며 지시하는 것이다.》(《자본론》 제3권 제1분책, 133페지)

기술 혁신을 고정적으로 결합된 생산자 집단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작업반은 가장 합리적인 단위로 된다.

이것은 생산 과정에서의 작업반의 위치와 역할로부터 설명된다.

작업반은 일정한 생산 과제에 따라 공동 작업이 수행되고 직접 기술 혁신이 실현되는 생산의 말단 단위일 뿐만 아니라 기업 관리에 대중이 직접 참가하는 기본 단위이며 대중적 사상 교양 사업의 거점이다.

따라서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여 기술 혁신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 운동에 생산자 대중을 전면적으로 망라시킬 수 있게 하며 작업반 전체 성원들의 집체적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이 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기술 혁신 운동과 최대한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게 하며 기술 혁신과 인간 개조 사업을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으로 진척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 혁신 운동이 그 이전의 기술 혁신 운동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작업반을 거점으로 전체 생산자 대중을 기술 혁신 운동에 망라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기술 혁신에서 집체적 지혜의 발휘는 작업반 성원들로 하여금 기술 혁신안을 대량적으로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새 기술의 도입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기술을 더욱 잘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오늘 작업반을 단위로 하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성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1인 1건 이상의 새 기술을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하던 지난 시기보다 2~3배의 새 기술 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리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이 그 이전의 기술 혁신 운동과 구별되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기술 발전 계획의 작성과 집행이 작업반 집단의 관심과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추진된다는 데 있다.

일정한 생산 단위를 거점으로 하는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은 그 단위 별로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의 수행을 전체 집단의 관심과 책임 하에 조직 집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술 발전 계획—이것은 기술 혁명 과업을 구체화한 당과 정부의 지령이며 무조건 집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이다.

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술 혁신 운동에 대중을 목적 지향성 있게 참가시키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기술 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기술 발전 계획은 응당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남김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접수되여 현실적인 투쟁 목표로 전환되여야 한다.

이것은 기술 발전 계획이 생산과 기술 혁신을 직접 실현하는 작업반을 단위로, 그 성원들에 의거하여 작성될 때 성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에서는 바로 《…계획은 생산자들과 토의하여 작성하며 그 계획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것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원칙》(김 일성,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기술 발전 계획의 수립과 그의 집행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 오게 하고 있다.

그리 하여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열성은 기술 발전 계획의 작성 과정에서 유감 없이 동원되게 되였으며, 온갖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타산한 보다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이 작업반을 단위로 작성되게 되였다.

기술 발전 계획 수행을 위한 방도들이 대중적 토의를 거쳐 강구되고 근로자들이 기술 혁신의 뚜렷한 목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행에 자신심을 가지고 달라붙게 되였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또한 기술 발전 계획의 군중적 토의 단위를 생산 계획 토의의 기층 단위인 작업반에 일치시킴으로써 기술 발전 계획을 생산 계획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기술 발전에 대한 생산의 적극적인 반작용을 강화하며 기술 혁신의 생산적 효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술 발전의 계획성은 고도의 조직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원래 높은 정밀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현대적 기술은 그 설계로부터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만큼 그 발전은 고도의 조직성을 전제로 한다.

더우기 기술 발전 계획이 생산 계획과 직접 련결되는 조건에서 그 수행에 대한 옳은 조직 지도 사업이 없이는 기술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기술을 사회의 복리를 위한 거대한 원천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에서는 매개 기술 혁신의 내용과 그 수행 방도에 따라 작업반 성원들의 기능과 능력에 적응한 분공을 조직하며 집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기술 발전을 위한 조직 사업이 지난 시기에 비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전환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중에 의거하여 기술 발전 계획을 집행하는 것은 이 계획을 매달, 매 분기마다 어김 없이 수행하게 하며 새 기술 도입에 대한 로동자들의 안목과 사고력을 부단히 제고시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창안과 발기를 활발히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조건으로 되고 있다.

기술 혁신 운동을 집단에 의거하여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결과에 대한 집단의 높은 책임과 관심에 기초하여야 한다.

기술 발전 계획의 수행에 작업반 전체 성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조건에서 집단의 책임과 관심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 혁신을 성과적으로 일으킬 수 없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에서는 기술 발전 계획 수행에 대하여 그 어떤 개별적 로동자나 기술자가 책임 지는 것이 아니라 작업반 전체 성원들이 공동적으로 책임 지며 관심을 가진다.

기술 발전에 대한 작업반 전체 성원들의 이러한 공동적 책임과 관심은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제도와 또한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에서는 새 기술 도입에 대한 상금을 작업반 집단의 성과에 의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분배함에 있어서는 기술 발전 계획 수행에서 각자가 논 역할에 따라 집체적인 의사에 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기술 발전 결과에 대한 이러한 평가 제도는 기술 혁신 운동에서 작업반 전체 성원의 책임과 관심을 제고하여 그들의 력량을 단합하며 그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고 있으며 개별적 성원들의 열성도 비상히 제고시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이와 같이 기술 발전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작업반 단위의 집단적인 책임과 직접 결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작업반 호상간의 련대적 방조와 책임 하에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술 혁신 운동에서 작업반들 간의 호상 방조는 기술 공정의 련관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매개 작업반은 전체 생산 과정의 일정한 부분만을 담당하면서 서로 련결되여 있는 것 만큼 한 작업반에서의 기술 혁신은 그것과 기술 공정 상 직접 련결된 작업반에서의 해당한 기술 발전을 요구한다.

이것은 생산 공정들 간의 능력 상 균형을 유지하며 기술의 부단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합법칙적 현상이다.

작업반 간의 기술의 균형적인 발전은 련대적 기술 혁신을 일으켜 그것들 호상간에 적극적으로 반작용함으로써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에서는 가공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작업반이 그것을 못 가지고 있는 작업반을,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작업반이 그것을 못 가진 생산 단위를 집단적으로 도와 줌으로써 련대적 기술 혁신을 부단히 일으킬 수 있게 하고 있다.

호상성 원칙에 기초한 작업반들 간의 이러한 집단적 방조와 련대적 기술 혁신은 기술 발전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질 기술적 및 인적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케 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예비를 동원하여 간단한 기계화로부터 복잡한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자체로 실현케 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들 간의 기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다.

* *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새로운 형태—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집단적인 기술 혁신 운동은 생활에서 벌써 거대한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현 시기 나라의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보다 심화시킬 데 대한 요구의 실현을 촉진시켜 준다는 데 있다.

그것은 이 운동이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 특히는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의 발전에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생산의 전문화와 기계화, 자동화의 실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실 상 작업반 단위의 련합 기술 혁신 운동은 이미 우리 나라에서 기술 발전의 높은 과업인 생산의 자동화가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으며 그것이 광범한 생산자 대중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전개에 의한 기술의 심화 발전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거와는 비할 바 없는 많은 기술 혁신안들이 제기되여 생산에 도입되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례하면 시난해 락원 기계 공장에서

는 《한 달에 한 건 이상의 새 기술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108 개의 작업반을 13 개 조로 묶어 련대적 혁신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엑스까와또르 무한 궤도를 가공용 쌍축 보링반을 창안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전 해에 비하여 1.8 배나 되는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이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금년 1월에는 지난해의 월 평균 실적에 비하여 2.4 배나 더 많은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들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그 결과 이 공장에서의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은 금년 1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실로 2 배 이상 제고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처음으로 전개한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지난 한 해 사이에 그 전 해에 비하여 3 배에 달하는 2,300여 건의 각종 기술 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하였으며 기대 당 생산량, 주물 평방 메터 당 생산량, 주강 톤 당 전력 소비 기준 등 국가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들을 모두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년간 생산 계획은 물론 기술 발전 계획을 1 개월이나 앞당겨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전기 기계 생산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22%나 더 제고시켰다.

실로 지난해에 공업 및 기본 건설 부문에서 그 전해보다 거의 1.5 배나 더 많은 64,000여 건의 발명 및 합리화안들을 생산에 도입하고 모든 국가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이 부문에서 작업반을 단위로 하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한 거기에 있다.

생산과 기술, 기술 혁신 운동과 기술 발전 계획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이 운동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 발전을 계획적으로, 전망적으로 추진시키며 기술 혁신에서 벌판된 작업반들 간의 협조와 반작용을 강화케 함으로써 기술 발전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매개 단위들 간의 기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보다 잘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키며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데서도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은 광범한 생산자 대중의 참가하에서 실천을 일반화하고 광범한 대중의 경험에 기초할 때에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리론과 실천의 유기적 결합,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는 일정한 생산 단위, 특히 작업반을 거점으로 할 때 보다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것은 작업반이야 말로 로동자들의 실천 활동과 창조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단위이며 현장에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기술 혁신 운동의 전개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작업반 단위에서 기술자들로부터 기술 지식을 실속 있게 배울 수 있게 하며 자기의 실천적 경험으로 기술 일'군들의 연구 사업을 적극 방조하고 직접적인 생산 활동의 결과로 과학 기술 발전의 조건과 수단을 조성하게 한다.

다른 한편 그것은 기술 일'군들로 하여금 생산의 말단 단위에 직접 내려가 대중과 토의하여 기술 발전 계획을 더 잘 세우며 그들의 창안과 발기를 과학 리론적으로 안받침하여 주게 하며 현실에서 문제의 소재를 발견하고 사고를 성숙시키면서 로동 계급의 혁명성을 적극 배울 수 있게 하여 준다.

다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작업반을 단위로 생산에서의 기술 혁신과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및 기술 문화 수준의 제고를 위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행함에 있어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전개에 의하여 작업반은 비단 생

산 단위일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 제고의 거점으로 더욱더 전환되였다.

작업반을 단위로 하는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을 통하여 모든 로동자들은 새 기술의 설계로부터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문화 수준은 보다 급속히 제고되게 되였다.

동시에 기술 혁신을 위한 생산자들 호상간의 동지적 협조의 강화는 그들 속에서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게 한다.

기술 혁신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종전과는 달리 이 운동에서는 로동자들 호상간, 로동자와 기술자 간, 작업반 호상간의 협조가 기술 발전 계획 수행의 전 행정에 거쳐 이루어진다.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이 일반화되고 집단주의가 발양됨으로써 그것은 로동자들의 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게 되였다.

이리 하여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그것들 호상간에 서로 밀접히 협력하는 기술 혁신 운동의 전개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내용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며 그를 보다 심화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준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또한 기업 관리에 대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수 있게 하며 생산과 기술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더 철저히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원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기업 관리에 대중을 참가시키는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그것들 간에 서로 밀접히 협조하는 련합 혁신 운동은 새 기술 도입 사업을 작업반 전체 성원들의 공동적인 관심 사에 직접 조직 집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기업 관리에 더욱 대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참가시킨다.

동시에 그것은 생산과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종합적이며 통일적 지도를 철저히 보장하게 한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이 기업 관리에 대중을 직접 참가시키며 생산과 기술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데 대한 대안 사업 체계의 본질적 요구를 보다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하며 이 사업 체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반 단위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현 시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 쥐고 나아가야 할 중요 고리의 하나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이 보다 확대 발전될 때 우리 나라에서의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과업은 더 잘, 더 빨리 수행될 것이다.

선진 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정상화 경험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함 형 숙

우리는 1964년 1.4 분기를 생산 장성의 빛나는 성과로써 총화하였다.

1.4 분기 계획은 공업 총생산액적으로 훨씬 초과 수행되였으며 2.4 분기 계획도 훌륭히 수행되여 가고 있다.

지난해와 특히는 1.4 분기 동안에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공업 총생산액을 121%로 장성시킬 것을 예견한 금년도 계획을 전반적으로 성과 있게 수행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속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사실 인민 경제의 규모가 방대해진 현 조건에서 한 해 동안에 공업 생산을 21%나 장성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금년도 공업 생산 장성의 1%는 그 절대량에 있어서 과거에 비할 바 없이 크다. 특히 지난해 실적에 비하여 훨씬 장성된 금년도 계획은 1.4 분기에 비하여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에 더욱더 높은 발전 속도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인민 경제 매개 기업소들이 자기 앞에 부과된 생산 계획 과제를 일 별, 월 별, 분기 별로 어김 없이 수행하고 생산에서의 일체 파동성을 근절하며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함으로써만 이와 같은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전면적으로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생산 정상화는 매개 기업소의 범위에서 보나 인민 경제 전반적 견지에서 보나 생산 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된다.

생산의 정상화는 인민 경제의 매개 기업소들에서 금년도 계획 수행의 가장 중요한 담보인 내부 예비를 최대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하는 선결 조건으로 된다.

생산의 파동성을 제거하고 그를 정상화함으로써만 생산 장성의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 요소인 생산 수단과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조건에서만 기계 설비들에 무리를 주지 않고 계획적인 예방 보수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조건에서만 기계 설비의 개선안, 창의 고안 등도 계획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기계 설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의 리용률을 높일 수 있다.

생산의 정상화에 의한 기계 설비들의 수명 연장과 그 리용률의 제고는 결국 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그것도 단 한 푼의 자금도 더 들이지 않고 생산,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의의를 가지는바 이것이 생산량을 그 만큼 증대시키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또한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조건에서만 로동자들의 로력 랑비를 제거하고 그들의 생산 열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로동자들로 하여금 새 기술 도입과 생산 합리화에 더 머리를 쓰게 할 수 있다.

생산에서 파동성이 있고 생산이 돌격식으로 진행된다면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자기 사업을 깊이 연구할 정신적

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게 할 것이며 지어는 이미 시험 생산이 진행되던 것까지도 내던지고 낡은 방법에로 되돌아 가게 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 이러한 기업소에서 선진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 테마가 창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생산을 정상화하여야만 로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문화 생활 및 학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그들의 건강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생산의 정상화는 또한 기계, 설비, 자재, 연료, 원료 등의 공급에서 긴장성을 제거하며 그의 철저한 계획화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제품의 신천을 정상화하는 등 생산 장성과 련쇄되여 있는 기타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생산의 정상화가 현 시기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규모가 매우 방대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모든 기업소들이 호상간 밀접한 련계 밑에서만 완전한 제품 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도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수천 개의 크고 작은 공장, 기업소들 가운데 원료로부터 시작하여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생산을 보장하는 곳이란 거의 없다. 례하면 자동차 생산에는 각종 철재류들이 필요한데 그를 생산 공급하는 광산, 제철소, 제강소, 운수 부문은 다 제외하고 순전히 부속품 가공에서의 협동 생산에만도 무려 220 종의 부속품을 생산하는 20여 개 공장이 참가하고 있다. 뜨락또르의 생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138 종의 부속품을 생산하는 17 개 공장이 참가하고 있다.

이것은 제품 생산에서 매개 부문, 공장, 기업소들 간에 세밀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 간에는 서로 제약하는 밀접한 호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제반 사실들은 매개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인민 경제 계획 과제를 제정된 기일 내에 질, 량적으로 어김 없이 수행함으로써만 인민 경제 다른 부문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으며 경제의 전반적인 급속한 발전을 예견하고 있는 금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당은 생산 정상화가 인민 경제 계획 수행의 주요 고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이미 제시하였다.

많은 공장, 기업소들은 생산을 정상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꾸준하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온 결과 이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생산의 높은 장성 속도를 계속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실적 장성률)

기업소명	1963 년				1964 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성진 제강소	100	113	119	129	100	100	113
희천 공작기계 공장	100	105	107	127	100	100	110
무산 광산	100	161	155	165	100	100	101

생산이 정상화된 선진 제강소, 회천 공작 기계 공장 및 무산 광산을 비롯한 선진 기업소들의 생산 정상화의 비결은 바로 우리 당이 제시한 방도—기계 설비 가동의 정상화를 보장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고 우로부터 생산 현장에까지 내려다 주는 자재 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동—를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생산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기계 설비 가동의 정상화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기계화, 자동화가 촉진될수록 생산 과정에서 기계 설비들이 노는 역할이 더욱더 증대된다는 데 있다. 만약 기계 설비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현대적인 생산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된다.

설비 가동의 정상화와 그 리용률의 제고가 생산 장성에서 커다란 역할을 논다는 것은 특히 1963 년도 성진 제강소 회전로 대당 생산 장성의 64%가 설비의 정상화와 그 리용률의 제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선진 기업소들의 경험은 기계 설비 가동의 정상화를 보장함에 있어서 해당 운전공들의 책임성과 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대중을 설비 관리 사업에 적극 인입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무산 광산에서는 기계 설비의 주인은 해당 운전공이라는 원칙 밑에 《나의 기대 운동》, 《붉은 기대 운동》 등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는 한편 지배인을 비롯한 책임 일'군들이 설비의 점검 보수에 직접 참가하는 등으로써 운전공들의 자기 기대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그를 애호 관리하도록 하였다. 결과 이 광산에서는 교대하기 전에 30 분간씩 기계 설비들을 점검 보수하고 생산 과정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는 사업을 생활화하였고 설비 리용률을 현저히 제고하였다. 례하면 뽐프공들은 17 분마다 한 번씩 순회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뽐프 리용률은 종전의 60~70%로부터 96%까지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에 이미 생산을 정상화하였고 금년도 1.4 분기 계획도 기한 전에 완수한 김 책 제철소에서는 기술 일'군들이 용광로, 해탄로 직장의 교대와 중요 기대들을 고정 담당하고 현지에서 로동자들에게 기술을 배워 주는 한편 《모두가 수리공되기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간단한 보수 사업을 운전공 자신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수 과정을 통하여 기계의 구조와 성능, 부속품들의 작용 원리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케 하였다.

이와 같이 자검 자수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운전공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은 그들의 기능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중을 설비 관리 사업에 적극 인입시키므로 설비 가동의 정상화를 보장하며 그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설비 가동의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예비 부속품을 3 개월 분 이상 확보하는 것이다.

예비 부속품이 없이는 기계 설비들을 제때에 보수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가동시킬 수 없다.

회천 공작 기계 공장에서는 작년 12월 말 현재 치차류와 볼트류를 비롯한 예비 부속품을 3 개월 분의 기준에 비하여 품종 상으로는 114%, 개수 상으로는 132%로 확보하고 계획적인 점검 보수 체계를 확립한 결과 지난해에는 물론 금년 1월과 2월에도 공작 기계의 리

용률을 88.5%로 제고하였으며 생산을 정상화하였다.

예비 부속품과 함께 기업소의 실정에 따라 일정한 대수의 예비 기대를 갖추는 것은 생산의 정상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철, 제강, 채취 공업 부문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 부문 기업소들에서는 적당한 대수의 예비 기대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보수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진 제강소와 무산 광산에서는 전체 기대들을 동시에 다 가동시키지 않고 항상 일정한 대수의 예비 기대를 보수 정비하여 둠으로써 우에 이미 지적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를 계통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보수 기간의 단축, 특히 보수의 질 제고는 설비 보수 주기를 연장시킴으로써 설비의 정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보수 기간이 단축된 그 만큼 또 보수 주기가 연장된 그 만큼 설비 리용률은 높아지고 생산은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 기일을 단축하며 보수 주기를 연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사전 보수 준비를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기계를 뜯어 놓고 이러저러한 준비 부족으로 보수를 지연시키는 현상을 근절하며 보수에 새로운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하는 문제이다.

무산 광산에서는 보수에 묶음식 부속과 조립식 방법을 도입한 결과 종전에는 27 일 간이나 걸리던 로또밀 보수를 3 일 간에 하면서도 질을 현저히 높여 보수 주기를 2 개월로부터 6 개월로 연장시켰다.

이 기업소에서 설비 보수 기간의 단축과 그의 질 제고에 의하여 1963년의 설비 가동률은 1962년에 비하여 굴착기는 8.3%, 광석 운반용 자동차는 17.7%가 각각 높아졌다.

이와 함께 설비 보수에서 전문화와 보증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설비의 정상화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김 책 제철소에서는 설비 보수에서 고정 담당제를 실시하여 수리공들을 항상 류사한 작업에 전문화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담당한 기계, 설비의 상태를 항상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리 보수한 기계 설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보수를 보다 더 신속하고 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일'군들이 생산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원자재와 연료 및 공구 등의 보장 사업을 잘 하는 것이다.

설비가 제아무리 정상적인 상태에서 준비되여 있다고 하더라도 가공할 대상이 없다면 결코 생산이 진행될 수 없으며 생산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보장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성, 국들이 자재 상사들의 기능을 높여 정확한 계획에 의하여 기업소에까지 원료, 자재 등을 날라다 주는 자재 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특히는 생산자들 자신이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며 가능한 모든 예비들을 최대한 동원 리용함으로써 적당한 예비를 조성하는 문제이다.

김 책 제철소에서는 지난 시기 품위가 낮고 립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리유로 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4만여 톤의 철광석을 수집 리용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으며 원료의 충분한 예비를 조성케 하여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였다. 또한 해탄로 가열 직장 천리마 작업반에서는 자재에 대한

《사회적 담당제》를 조직하고 작업반 전체 성원들의 책임성과 열성을 높이도록 한 결과 샤모트 몰탈은 71%로, 기름은 73%로 각각 그 소비 기준을 저하시켰다.

회천 공작 기계 공장에서는 기대공들의 총공구 소비량의 33%를 이미 폐품로 된 공구들을 재생하여 보장함으로써 충분한 예비 공구를 갖출 수 있게 되였다.

선진 기업소들의 경험은 로동 행정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로력 조직에서 중심 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이 생산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회천 공작 기계 공장에서는 로동자들의 체질, 성격, 년령, 기능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데 기초하여 그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능력과 소질에 따라 각이한 생산 과제를 주도록 하였다. 례하면 선반공들의 작업 분공에서 4급공에게는 정밀도가 낮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볼트와 나트를, 5급공에게는 붓슈를, 6급공에게는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각종 축류들을 가공하도록 하였는데 로력의 이러한 합리적인 배치는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생산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이 공장에서 1963년도에 그 전년에 비하여 장성한 생산 실적의 80%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금년도 1, 2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한 생산 장성의 50%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보장하였다.

덕현 광산에서는 갱내 로력을 기업소 전체 로력의 70% 이상으로 보장하고 그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굴진과 생산의 로력 비중을 5 대 5로 보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이미 1963년 말까지 기본 굴진은 3년 분, 준비 굴진은 6개월분 이상을 선행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였다. 특히 이 광산에서는 갱내 작업반들을 청장년들과 우수한 기능자들로 꾸리고 설비 이설, 수리 등을 능히 자체로 보장할 수 있도록 력량을 재편성하였다.

로력 조직에서는 생산 공정들 간의 련계에 따라 련합 작업반 또는 적당한 교대를 조직하는 등으로써 로동자들로 하여금 기업소 또는 직장 내의 린접 생산 공정에 대한 관심과 리해를 깊이 하도록 하며 로동 시간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책 제철소에서는 해탄로, 용광로 열 관리실 등 호상 밀접히 련관된 공정들로써 련합 작업반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다음 공정에 관심을 돌리게 함으로써 해탄 직장에서 생산된 콕스가 분이 많고 강도가 낮아 로 작업에서 휴풍, 감풍 현상을 나타내는 폐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

련합 작업반의 조직은 이 기업소가 지난해에 로력을 계획에 비하여 2.3%나 적게 쓰면서도 생산 계획을 111%로 넘쳐 수행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불충분한 생산 공정을 완비하며 기계화, 자동화를 광범히 도입하는 것은 생산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선진 기업소들의 경험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를 부단히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회천 공작 기계 공장에서는 18,325

개에 달하는 3,209 종의 부속품으로 된 자동선을 축 가공에 도입함으로써 종전에는 축 1 개를 깎기만 하는 데 40 분이 걸렸다면 지금에는 측면 따기와 중심치기까지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단 3 분 동안에 깎을 수 있게 되였다.(이에는 직경 30～60 미리, 길이 150～500 미리의 무려 47 종에 달하는 각종 축이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소에서는 일부 생산 공정들을 더 완비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만능 철관 절단기, 각종 단능 선반 등 42 대를 생산 설치하였으며 금년 2월 말까지에는 59 대에 달하는 47 종의 기계 설비들을 새로 생산 설치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를 부단히 제고할 수 있었다.

기계화,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 일'군들을 그들의 본신 사업과는 인연이 먼 기타 사업에 동원하는 현상을 근절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로동자들과의 협조를 광범히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매개 공장, 기업소의 책임 일'군들은 로동자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이 오직 생산 활동에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자체의 후방 공급 기지를 마련하고 그것을 잘 관리 운영하는 등 후방 공급 사업 개선을 위한 모든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절적 제약성을 극복하는 것은 생산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광산, 탄광, 건설, 발전, 림업 부문에서는 여기에 중요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진 기업소들이 생산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얻은 가장 고귀한 경험은 기업 관리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사업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였다.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에 놓고 대중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불러 일으킴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금년도 계획을 초과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 계급의 전형 창조를 위하여

리 상 태

우리 문학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혁명적 계급인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예술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근로 대중을 계급 의식과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의 환경 속에서 그의 력사적 사명을 예술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으며 그의 투쟁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은 발생 이래 혁명적 로동 계급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돌려 왔으며 그들의 계급적 지향과 사상 감정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하여 왔다.

우리 문학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 운동이 앙양되던 1920~30년대에 이미 외래 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선 혁명적 로동 계급의 전형들을 수다히 창조하였고 해방 후에는 일련의 우수한 작품들을 통하여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의 선두에 선 로동 계급의 성격들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는 원만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현실은 영웅적 로동 계급의 형상을 보다 전면적으로 창조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로동 계급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두에 서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강력한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였으며 위대한 천리마 진군의 선두에 서서 낡고 보수적인 것을 깃부시고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면서 공산주의 미래에로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바로 우리 로동 계급에 의하여 천리마 대진군이 시작되였으며 바로 그들에 의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살며 일하는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이 전 사회에 일반화되고 있다. 로동 계급은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창조하였으며 또 그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는 얼마나 풍부화되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은 로동 계급의 이런 영웅적인 투쟁과 그들의 고상한 풍모를 심오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작가는 응당 시대의 주도적 경향에 대하여 일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것을 예술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 문학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형 창조에서와 사회주의적 새 농민들의 전형을 창조하는 데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는 다른 주제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발전에 비하여서도 뒤떨어지고 있다. 최근 영화 예술 분야에서는 《성방공》, 《축배》, 《뜨거운 심정》 등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로동 계급을 형상하는 데서 일보 전진을 보여 주었지만 그것은 아직 초보적인 성과에 불과하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 문학의 현 상태는 로동 계급의 전형 창조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로동 계급의 전형 창조는 또한 오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혁명적 기치를 고수하기 위한 문제와도 직접 관련되여 있다.

오늘 어떤 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리

상화》를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전투적인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를 거부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문학의 혁명적 기백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영웅적인 것에 평범한 것을 대치시키면서 세태적이며 사말적인 인간 잡사를 그리기에 열중하며 소시민적 인간들의 보잘 것 없는 형상들을 창조하는 데 일념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당성의 요구를 배반하고 저들의 소부르죠아적 취미에 문학 창작을 종속시키려는 로골적인 책동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혁명적 로동 계급의 력사적 위업의 실현에 복무하느니 만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그들의 사상 감정과 리상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생각할 수 없다. 창작 실천에서 혁명적 로동 계급의 형상을 보다 전면적으로 창조함으로써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격파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치를 고수하여야 할 전투적 과업이 전체 작가, 예술인들 앞에 제기되고 있다.

혁명적 로동 계급의 전형 창조는 또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계급 교양이란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세계관,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예술 작품이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으로,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와 온갖 착취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 성과적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동 계급의 영웅적 형상을 전면적으로 창조하여야 한다.

이 모든 사실은 로동 계급의 전형을 보다 심오하고 폭 넓게 창조하는 것이 시대의 절실한 요구이며 작가들 앞에 나선 선차적인 창작적 과업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매개 작가들은 자기의 생활 체험과 스찔 상 특성에 따라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생활의 모든 분야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또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또 우리 혁명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의 투쟁과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적게 돌리거나 지어는 방관시해도 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에 있어서 시대의 요구에 대답하며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 계급인 로동 계급의 생활과 투쟁에 대하여 적극적인 창작적 관심을 돌리는 것은 혁명 위업 수행에 자기의 창작을 바치고 있는 우리의 당'적 작가, 예술인들의 일차적인 창작적 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에서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는 응당한 수준에 있지 못하며 작가들의 심각한 관심과 노력이 이에 집중되지 못 하고 있다.

우리의 일부 작가들은 당면한 창작적 성과에 몰두하면서 체계적인 생활 체험을 통하여 로동 계급의 생활을 깊이 리해하고 그것을 폭 넓고 심오하게 그리려는 데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다.

현대적 주제의 해결에서, 특히는 로동 계급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 생활 체험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변되는 생활을 체험하며 현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의 축적이 없이는 현대적 주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로동 계급의 형상도 성과적으로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원칙적이며 일반적인 상식이 실지 창작 생활에서 현실화되지 못 하고 있는 데 있다.

로동 계급의 전형 창조를 저애하는 다른 하나의 현상은 이 주제에 대한 신비성이 일부 작가들 사이에 지배하고 있는 사실이다. 로동 계급의 생활에 대한 주제는 창작적 성과를 달성하기가 다른 주제에 비하여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신인 작가들에게까

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에서 도식주의와 기록주의 잔재도 아직 남아 있다. 일부 작가들은 시대와 함께 부단히 변모하는 로동 계급의 새로운 정신 도덕적 풍모를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다양하게 그리며 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우리 사회의 본질을 그들의 성격적 특징을 통하여 보여 주려 할 대신에 단순한 호소로써 그것을 강조하는 폐단을 극복하지 못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정한 사물 현상을 그리면서도 심각한 문제성을 제기하려는 작가적 사색이 결한 데로부터 로동 계급의 생활을 취급한 일부 작품들은 심오한 성격을 창조하지 못 하고 다분히 외부적 기록에 그치거나 생산 공정을 단순히 해설하는 경향을 발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주의적 및 도식주의적 경향은 예술적 성과를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다.

문제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로동 계급의 생활을 부단히 체험하고 그들의 사상과 지향을 더욱 깊이 파악하며 그것을 세련된 예술적 형식을 통하여 표현하는 데 있다.

사실 상 로동 계급의 전형을 창조하는 데서 신비성을 타파하는 것도, 기록주의와 도식주의적 잔재를 극복하는 것도 생활에 대한 풍부한 체험과 연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로동 계급의 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일부 작가들이 자신을 못 가지게 되며 신비주의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물젖게 되는 것은 결국 로동 계급의 생활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다. 생활에 대한 풍부한 체험과 확고한 지식이 없다나니 로동 계급의 생활 반영은 자연히 어렵게 생각되며 설사 창작을 한다 하더라도 기록주의와 도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로동 계급의 전형 창조에서 새로운 창작적 앙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로동 계급의 생활을 연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생활 체험을 쌓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매개 작가들이 로동 계급의 생활 속에 직접 들어 가서 항구적인 창작 기지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미 구상한 것에 사실적인 자료를 안받침하기 위한 단편적인 현실 체험이 아니라 로동 계급의 생활과 그들의 정신적 풍모를 직접 육신으로 느끼며 그로부터 심각한 사회적 및 철학적 문제성을 찾아 내기 위한 진지한 탐구가 필요한 것이다. 경험은 그래도 다른 작가에 비하여 로동자들의 생활 속에서 오래 동안 체험을 쌓고 그들의 정신 생활을 연구한 작가들이 비교적 성과작을 창작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생활 속에 들어 갔다고 하여 성과작이 곧 쏟아져 나올 수는 없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이다. 자기의 창작 기지에서 로동자들과 오래 동안 생활하는 과정에서 체험을 쌓고 그들의 생활, 정신 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작가 자신이 그들의 생활에서 철연적인 분신으로 되여질 때 비로소 위대한 예술적 구상을 싹 티울 수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생활에 대한 체험은 생활의 심원한 본질을 반영하는 기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작가로 하여금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하며 예술적 기교의 완성을 촉진시켜 주는 조건으로 된다. 로동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그들에 대한 풍부한 생활 자료를 얻을 뿐만 아니라 로동 계급의 사상을 배우며 자신의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며 자기의 세계관을 확고하게 다진다. 따라서 생활 체험은 작가들의 정치적 장성을 촉진시키며 로동 계급의 생활을 옳게 평가하고 리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주며 나아가서는 현실을 생동한 화폭 속에 재현하는 예술적 기교의 발전을 추진시킨다. 참으로 로동 계급의 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심오한 리해가 없이는 로동 계급의 생활 감정을 생동하게 그리고 높은 예술적 수준에서 반영할 수 없다.

* *

로동 계급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우리 로동 계급의 성격적 특징, 새로운 정신 도덕적 풍모를 옳게 전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천리마 진군의 도상에서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의 정신 도덕적 풍모는 비할 바 없이 발전하였다. 로동 계급 속에서 형성되는 공산주의적 풍모는 날이 감에 따라 더욱더 풍고 발전되고 있다.

우리 문학은 로동 계급의 투쟁과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풍모를 예술적으로 전형화하는 데서 물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장편 소설 《용광로는 숨 쉰다》, 단편 소설 《〈해주—하성〉서 온 편지》, 《백일홍》 등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을 례로 들 수 있다. 로동 계급을 형상하는 데서 이 작품들이 거둔 성과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탄생하는 그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옳게 포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훌륭하게 성격화한 데 있다.

일례로 《백일홍》에 대하여 말하여도 역시 그렇다. 잘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소설에서는 철도 로동자인 한 락석 감시원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작가는 주인공 현 우혁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로동 계급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영웅적으로, 주인답게 일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심각한 대답을 주고 있다. 조국의 부강 발전과 혁명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면 비록 그 일이 《특출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풍모, 로동당원들의 성격적 특질을 해명한다는 데 이 작품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작가는 우혁의 이러한 공산주의적 풍모를 그의 외부적인 로동 활동과 분리해서 묘사하지 않았다. 작가는 락석 감시원으로서 응당 하여야 할 그의 일상적인 생활을 묘사하면서도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강인한 정신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자기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희생 정신, 공산주의적 풍모가 어떻게 형성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돌렸다.

우혁의 처지와 그의 리상을 한때 리해하지 못한 안해 금녀와의 갈등 묘사를 통하여, 그리고 양아들 영호와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생활적 계기들의 묘사를 통하여 소설은 영예 군인인 우혁이가 무엇 때문에 고산 지대 락석 감시원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의 몫까지 맡아 일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생의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바치고 있는가를 아주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구현하였다.

이와 같이 《백일홍》을 비롯한 일련의 소설들에서는 지난 시기 로동 계급을 형상한 일부 작품들에서 발로되였던 것과 같은, 로동자들의 생산 활동에 대한 외부적 묘사에 치우침으로써 형상을 빈약하게 만들던 부족점들을 극복하였다. 즉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로동 계급이 생산 활동에서 발휘하고 있는 위훈을 전면에 묘사하면서도 그 위훈을 낳게 한 그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생동하게 성격화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로동 계급을 형상하는 데서 성과를 달성하게 한 요인의 하나이다.

우리는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를 그들의 생산 활동에 대한 사실 소개로서 대치하는 극히 안일한 창작 태도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대담한 예술적 상상력과 창조적 환상을 가지고 그들의 고상하고도 혁명적이며 검박하면서도 풍만한 정신 세계를 생산 활동과 인간 관계, 가정 생활과 륜리 도덕적 관계들 속에서 보여 주어야 하며 그것을 폭넓게 일반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형상을 왜소하게

하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으며 로동 계급의 성격적 특징을 다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에서 성격적 특징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산 활동 과정에 대한 묘사와 정신 세계, 특히는 심리 묘사와의 유기적 통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서 유래되고 있다.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에서 그들의 생산 활동 과정을 묘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을 떠나서 로동 계급의 정신 세계를 운운할 수 없으며 또 이것을 떠나서 로동 계급의 성격의 전형적 특징을 천명할 수 없다.

생산 활동 과정에 대한 묘사가 로동 계급의 성격의 전형적 특징 특히 그들의 성격에서 주도적인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해주—하성〉서 온 편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철성의 로동 계급다운 성격적 특징은 벅찬 건설 투쟁 환경 속에서 얼마나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가! 《해주—하성》 청년 돌격대원들의 투쟁 마당을 떠나서 철성이와 명희의 대담성, 자기 희생 정신, 그들의 희망과 랑만을 그토록 감명 깊게 보여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모든 작품에서 옳게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용광로는 숨 쉰다》는 로동 계급을 형상하는 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로동 계급다운 성격의 주도적 특징들도 비교적 뚜렷이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인 상범의 형상에서는 어딘가 빈약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것은 바로 작가가 상범의 생산 활동에 대한 묘사에 치중하던 나머지 그의 성격적 특징의 전모를 다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생활적 계기들을 놓쳐 버린 것과 관련되어 있다. 로동 활동 과정에 대한 묘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인공의 성격 형성과 분리시키거나 또는 그 어느 일방에 치중하여 묘사한다면 로동 계급의 형상은 불가피하게 왜소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로동 활동과 분리된 성격 창조, 성격 형성과 분리된 로동 활동 묘사란 무의미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로동 활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를 그들의 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서 폭 넓게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 데 있으며 성격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천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될 때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에서는 보다 높은 예술적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 *

혁명적 랑만성의 뚜렷한 구현은 로동 계급의 전형적 성격을 부각하는 데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 발전의 앞날과 항상 리해 관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의 이러한 계급적 지향을 뚜렷이 표현하는 것은 전형 창조의 기본 요구이다.

로동 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리상을 옳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리상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로동 계급은 그 어느 계급보다도 가장 선진적인 계급적 리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로동 계급이 천리마 진군의 선두에 서서 7개년 계획을 앞당기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계급적 리상과 떼여서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다. 모든 착취 관계를 퇴절하며 인민 대중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로동 계급의 열렬한 지향은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서 기적과 영웅성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작품들에서는 사

회주의 건설 투쟁에서 발휘되고 있는 로동 계급의 영웅적 위훈을 당면한 경제 과업 수행의 견지에서만 묘사함으로써 형상이 메마르고 혁명적 랑만이 결여되고 있다. 오늘 우리 로동 계급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는 것은 당면한 경제 과업 수행의 견지에서만 고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휘황한 조국의 미래—공산주의 앞날에 대한 열렬한 혁명적 리상이 거기에 안받침되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휘황한 공산주의적 미래를 앞당기려는 열망—이는 로동 계급의 계급적 지향이며 그의 주되는 사상이다. 이러한 지향으로 하여 로동 계급은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창조성과 영웅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당면한 혁명 과업 수행에서 어떠한 난관과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물러 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로동 계급의 전형을 창조하는 데서 당면한 건설 투쟁을 그들의 위대한 계급적 리상과 밀접히 결합시켜 묘사하지 못 한다면 로동 계급의 사상 정신적 위대성을 심오하게 천명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계급적 성격도 옳게 전형화하지 못 할 것이다.

장편 소설 《시련 속에서》, 희곡 《우리는 행복해요》, 단편 《〈해주—하성〉서 온 편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의 사상-예술적 성과가 이를 잘 실증해 주고 있다. 림 태운, 길 학심, 서 칠성 등 주인공들의 형상적 매력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로력 투쟁에서 영웅성을 발휘하게 되였는가를 그들의 계급적 처지, 계급적 리상과 결부시켜 생동하게 표현한 데 있다.

혁명적 랑만성을 부각하는 데서 또한 로동 계급의 영웅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로동 계급은 자본의 질곡을 끊어 버리는 투쟁을 개시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기 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왔다. 우리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기적과 위훈을 발휘하고 있다. 영웅적인 것—이것은 온갖 낡고 추악한 것을 분쇄하고 가장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로동 계급의 생활과 투쟁에서 표현되는 주되는 특징이며 로동 계급의 리상과 지향이 반영되는 중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적인 성격을 보여 주지 않고는 로동 계급의 정신 세계를 심오하게 해명할 수 없으며 자기의 계급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우는 로동 계급의 투쟁 정신과 혁명적 락관주의를 심오하게 해명할 수 없다.

우리는 물론 기상천외의 신기한 《영웅》을 그리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의 영웅들은 그러한 비현실적인 리상화된 인간들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영웅들은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또는 그들의 자제들이다. 그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신심 그대로를 묘사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공화국의 영웅들이 될 것이다.》(선집 제 3 권, 1954년 판, 243 페지)

로동 계급의 영웅적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발휘되고 있는 대중적 영웅주의를 형상화하는 문제이다. 집단과 개인의 리해 관계의 유기적 통일, 대중의 창발성이 부단히 발양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조성,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살며 일하는 공산주의적 기풍의 수립—우리 사회의 이 모든 특징은 로동 계급 속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발양시킬 수 있게 하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로동 계급의 이러한 대중적 영웅주의를 힘 있게 표현하여야 한다.

대중적 영웅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성격을 고립적으

로 창조하지 않는 데 있으며 대중의 분신으로서의 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는 데 있다.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대중의 희망을 표현하며 대중과 같이 투쟁하는 그러한 영웅만이 집단적 영웅주의의 참된 주인공으로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작가, 예술인들은 로동 계급의 생활과 투쟁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며 발전되고 있는 새로운 요소들과 새로운 생활 기풍을 보다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를 일반화함으로써 혁명적 랑만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새롭고, 발전하는 것들에 대한 작가들의 적극적인 탐구는 시대의 전진 운동을 앞당기려는 열렬한 지향의 표현이다.

지난 시기 우리 문학은 희곡 《우리는 행복해요》, 단편 《진심》, 중편 《산'새들》 등의 창작을 통하여 천리마 기수들의 새로운 공산주의적 풍모와 특히는 인간 개조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 돌진하는 우리 로동 계급의 혁명적 전진 운동에 비해 볼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 지지하는 작가들의 창조적 탐구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는 부단히 새것이 싹트고 있다. 특히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 우리 로동 계급의 정신적 풍모는 급격히 달라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풍과 새로운 작풍이 형성 공고화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런 것을 제때에 탐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로동 계급의 새로운 풍모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서는 시대의 전형적 성격을 창조할 수 없으며 또한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 줄 수도 없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영웅적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에서 새로운 창작적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시대의 긴절한 요구에 대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 예술은 영웅적 주인공의 화랑을 더욱 풍만하게 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어야 한다.

근 로 자 제 9 호(루계 247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5월 3일 발 행 • 1964년 5월 5일

ㄱ-320272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0호 5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0 호 (248)

1964년 5월 (하)

차 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김 일 성

친애하는 청년 대표 동무들!

오늘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는 우리의 남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동무들의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으며 대회 사업의 성과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의 훌륭한 남녀 청년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믿고 있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의 전투적 조직인 민주 청년 동맹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위대한 공훈으로 하여 당과 인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 청년들은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일제 통치 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억압에 항거하여 나섰으며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수 많은 애국 청년들은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영웅적인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젊은 공산주의 혁명 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조선 청년들의 혁명적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 해방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청년 운동의 가장 빛나는 전통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당의 부름에 항상 충실하였습니다.

해방 후 우리 청년들은 당의 령도 밑에 민주 청년 동맹의 기'발 아래 굳게 뭉쳐 북조선에서 인민 정권을 세우고 민주 개혁을 실시하며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복구 발전시키는 데 적극 참가함으로써 북조선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며 공고화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애국적 헌신성과 불굴의 투지와 용감성을 발휘하여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피로써 사수하였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세운 위대한 공훈은 우리 나라의 력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영웅하게 싸웠을 뿐 아니라 자기 조국 땅 우에 인민들의 행복한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비상한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은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악전 고투하면서 공장을 일으켜 세우고 진도를 복구하였으며 폐허로 된 도시와 농촌을 새로운 면모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진하여 맡아 나섰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려는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불타는 혁명적 열정, 그들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은 위대한 천리마 운동에서 전면적으로 발양되였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수 많은 남녀 청년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하여 로동과 학습과 생활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자기의 선배들과 힘을 합하여 짧은 기간에 자립적인 사회주의 공업과 공고한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창설하였으며 민족 문화와 예술을 찬란히 꽃피게 하였으며 자신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답게 건설되고 날로 더욱 번영하는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는 그리고 행복한 우리 인민의 생활 속에는 영웅 조선의 남녀 청년들의 고귀한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진정한 아들딸로서, 외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 제도를 창설하는 젊은 혁명 전사로서, 락후하고 빈곤하던 자기 조국을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키는 젊은 건설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지난 18 년 간에 민주 청년 동맹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높이 찬양하며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강화하고 그 영예를 빛내인 우리의 민청원들과 전체 청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계속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자립성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해결되였으며 그들의 모든 살림살이는 날로 더욱 높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은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 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청년들의 생활과 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오늘의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살며 일하며 배우고 있는 사회주의적 근로 청년들이며 다같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동 리상을 위하여 싸웁니다. 우리 청년들은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을 통하여 더욱 단련되였으며 그들의 정치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전체 청년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였으며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으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검박하게 살며 승리에도 자만하지 않고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계속 용감하게 싸우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풍모로 되였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발전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살며 어려운 일에 앞을 다투어 나서고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공산주의적 도덕의 아름다운 기풍이 더욱더 발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 위업을 이어 나아갈 훌륭하고 믿음직한 새 세대를 육성하여 놓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이 더욱 높은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이 번에 동무들의 대회에서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나라의 변화된 현실과 청년 운동 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을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 청년들의 더욱 위력한 전투적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년 동맹의 각급 단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동맹 조직 생활을 부단히 강화하며 전체 청년들 속에서 정치 사상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 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 동맹과 청년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조선 청년들은 우선 조선 로동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며 로동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북반부를 조선 혁명의 불패의 기지로,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의 더욱 튼튼한 근거지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세째로, 조선 청년들은 조국 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합니

다. 우리 청년들은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그의 주구들을 타도하며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굳세게,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네째로, 조선 청년들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 청년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그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청년들은 로동당의 령도 밑에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자신들의 더욱 행복한 앞날을 개척할 것이며 조국과 인민 앞에 새로운 위대한 공훈을 세울 것이며 세계의 진보적 청년들과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1

동무들!

청년들은 사회 발전의 선진 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 세대들입니다. 생기 발랄하고 원기 왕성하고 용감하며 두려움과 피곤을 모르는 것은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청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훌륭한 자질로 하여 사회 혁명과 새 사회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사회 발전에서 진실로 큰 역할을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령도를 받으며 어떻게 교양되고 훈련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오직 옳은 령도와 교양을 받을 때에만 청년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운 자질을 전면적으로 발양할 수 있으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대표하는 믿음직한 일'군으로 자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 운동을 령도하며 청년들을 선진적인 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투쟁의 앞길을 가리켜 주는 것은 바로 조선 로동당입니다.

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향도적 력량이며 조선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 난 영광스러운 당이며 위대한 혁명 투쟁에서 검열되고 세련된 불패의 당입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민 대중에게 항상 정확한 투쟁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들을 승리에로 확신성 있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생각할 수 없으며 청년 운동의 발전도, 청년들의 더 훌륭한 앞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 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지 항상 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 조직들과 모든 청년들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여야 합니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을 옹호하고 보위하며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중앙 위원회로부터 초급 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 조직들과 청년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당 정책의 집행에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청춘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당의 후비대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혁명의 장래 발전과 우리 조국의 앞날은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당의 붉은 전사로 자라 날 때 우리의 혁명 위업은 계속 힘 있게 전진할 것이며 우리 조국은 더욱더 번영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처한 력사적 시기와 그들이 담당할 중대한 사명에 비추어 청년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 빨찌산들이 피어린 투쟁으로써 개척하였고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웅적 투쟁을 통하여 꽃 피워 놓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나라의 세기적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진보와 문명에로의 비약을 이룩하는 시대, 우리 민족을 완전히 해방하며 통일되고 독립되고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위대한 시대에 태여나 조국의 찬란한 새 력사를 창조하는 젊은 혁명 전사들이며 젊은 건설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라 나는 새 세대들에게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전통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숭고한 력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맑스-레닌주의는 과학적 공산주의 학설이며 우리 당의 지도적 사상입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하여야만 부단히 변화하는 국내 국제 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혁명 승리의 명확한 방도를 찾을 수 있으며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동요 없이 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학설을 체득하며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맑스주의는 온갖 부르죠아 반동 사상과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발전되고 풍부화되여 왔습니다. 맑스-레닌주의와 그에 적대되는 각종 사상 조류와의 투쟁은 현대 사회의 계급 투쟁을 반영하는 것이며 계급 투쟁이 있는 한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하기 위한 투쟁은 단순한 리론 탐구가 아니라 날카로운 사상 투쟁입니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맑스-레닌주의를 발광적으로 공격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과거의 모든 수정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없애 버리고 그것을 우경 기회주의로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요구에 순응하여 자신이 혁명을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혁명을 하지 못 하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특히 맑스-레닌주의적 수양과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그들 속에 기회주의의 독소를 퍼뜨리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시키고 타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청년 동맹은 우리 나라 청년 운동 대렬에 수정주의적 조류가 침습하지 못 하도록 사상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의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반수정주의 투쟁과 결부하여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이고 어떤 것이 수정주의인가를 스스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수정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 학설의 진수를 파악하며 그것을 혁명적 실천에 적용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우리의 혁명적 실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사상과 방법을 체득하여야 합니다. 이 학설을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혁명의 전략과 전술, 우리의 일상적인 사업과 결부하여 깊이 연구하며 그것을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의 우리의 위력한 사상 리론적 무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교조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째로 삼키며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 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나라의 민족적 특성과 력사적 조건을 연구하지 않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교조주의에 빠져 독자성을 잃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려 하며 옳고 그른 것도 구분하지 못 하고 남이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체의 사상 리론 수준 제고에서나 실지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며 민족적 자주 의식과 민족적 자부심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조선 청년들의 기본 임무는 조선 혁명을 완수하며 조선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그들은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와 함께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연구하여야만 조선 혁명의 정확한 전략 전술을 체득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옳은 방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소유하여야만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심이 생기고 투지와 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여 당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청년들 자신의 사상으로,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며 그들의 모든 활동의 지침으로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 교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계급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 범위에서 국제 로동 계급과 제국주의 반동 세력 간에 치렬한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 내부에서도 계급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량단되여 있으며 우리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미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하고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생활이 향상되였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 특히 새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속에서 계급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과거에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이 자기의 부모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는가를 알아야 하며 오늘도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 통치 밑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침략과 략탈 행위 그리고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인민들의 처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 빨찌산들이 이루어 놓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과 투쟁 업적을 일상적으로 깊이 연구하며 그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행복한 새 생활이 혁명 선배들의 간고한 투쟁과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고귀한 전취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청년들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적 본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며 제국주의와 착취 제도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열렬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담성하며 자기의 로동과 국내 자원으로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력 갱생의 정신을 더욱 발양하여 부족한 것은 찾아 내고 없는 것은 만들어 내며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혁명적인 사업 기풍과 혁명적인 생활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며 그것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싸우는 것은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청년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앞날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씩씩하게 싸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모든 곳이 청춘의 정열로 들끓고 혁명적 랑만으로 가득 차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 하여 전체 청년들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 전사가 되며 당이 제기하는 혁명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동무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근로자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경제 토대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으로 되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전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됩니다.

오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기 왕성하고 용감한 청년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는 로력 전선에서 위대한 힘으로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에 대한 성실성은 공산주의자의 기본 표징으로 됩니다.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정력적으로 일하며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녀 청년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 먹는 것을 착취 계급의 사상으로서 증오하며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다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 서야 하며 공업,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합니다. 전체 청년들이 공산주의적 근로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장엄한 로력 투쟁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더욱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술 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이 현대적 기술과 결합되여야만 사회주의 사회의 높은 생산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인민 경제의 전면적인 기술적 개건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설하여 놓은 자체의 중공업 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동원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며 현대 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대대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기술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선두에 서야 할 사람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입니다. 과거에 기술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나라를 부강한 현대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오래 동안 식민지 통치 밑에서 온갖 고역에 시달려 온 우리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력사적 임무가 바로 우리 시대의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에게 부과되였습니다. 전체 청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새 기술을 도입하며 보급하는 데서 가장 적극적이고 대담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도처에서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을 퇴치하고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낡은 기술 기준을 타파하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 혁명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하며 과학과 경험을 옳게 배합하는 것입니다.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서로 배우고 도와 주며 청년들의 대담한 발기와 창안들이 로련한 선배들의 경험과 결합될 때에만 기술 발전에서 더 훌륭하고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이와 같은 협조 정신을 고도로 발양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집단적 기술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술 혁명의 투사가 되려면 반드시 과학과 기술 지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청년들 속에서 유능한 과학 기술 간부들을 계속 대대적으로 양성하며 모든 청년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자기가 맡은 부문의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은 자기의 창조적 로동으로 나라의 재부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공동 재산을 애호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 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개인 재산보다 공동 재산을 더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해치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공장, 광산, 농장, 어장, 관개 시설, 철도, 항만, 도로 등 모든 생산 시설들과 생산 설비 그리고 학교, 병원, 도서관, 극장을 비롯한 모든 문화 보건 시설들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모든 산과 하천들을 애호하며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이라도 다 인민의 소유로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매 사람이 국가 경리와 공동 경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재부를 잘 거두고 아껴 쓰며 그것들이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조국 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도시와 농촌들을 규모 있게 건설하고 살기 좋게 꾸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한 새 사회의 새 인간으로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를 창조하는 선진 투사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거리와 마을, 자기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다 깨끗하게 문화적으로 꾸려 나가야 합니다.

이리 하여 낡은 사회가 우리에게 남겨 놓은 온갖 락후성을 퇴치하고 우리 나라의 모든 곳을 꽃 피는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건설 특히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 로동 청년들과 농민 청년들의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며 그들 간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업 협동 경리를 공고 발전시킴으로써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가 없이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농촌을 지원하는 것은 로동 계급 특히 청년 로동자들의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로동 청년들은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도시와 로동자구를 더 잘 건설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농민 청년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분야에 걸쳐 농촌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청년 로동자들이 농촌에 진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 청년들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영광스러운 직접적 담당자들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중대한 사명에 대하여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로동 계급의 지원 밑에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

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수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 계급과 농민, 로동 청년들과 농민 청년들이 굳게 단결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나아갈 때 공업과 농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주의 도시와 사회주의 농촌이 더욱더 번영할 것이며 로동자들과 농민들이 다같이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국 보위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는 것은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을 보위하는 것이며 우리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위하는 것이며 조선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전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담보로 되는 우리의 혁명 기지를 보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쑤들의 침략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 군대 내 청년들은 전체 군인들과 함께 조국의 방선을 철벽 같이 다짐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적 전취물과 행복한 생활을 계속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 군대와 함께 전체 로농 적위대원들과 청년들이 각각 자기의 초소에서 조국 보위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리 하여 우리 청년들과 근로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조국 땅 우에 사회주의를 더 빨리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 학생들과 소년들은 새 사회의 건설에 필요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학생들 속에서 학습 규률을 강화하고 학습 열의를 더욱 높이며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하여 모든 학생들이 일반 과학 지식과 일정한 기술 지식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체 청년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 청년들은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지식을 소유하라는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차로는 모두가 다 기사, 기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쓰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문학과 예술도 알아야 하며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문학 서적을 애독하게 하며 그들 속에서 군중적인 문예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청년 동맹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며 집

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동지를 사랑하며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을 더욱 배양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언제나 집단과 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 같이 공동의 리상과 목적을 위하여 싸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사랑하며 학교에서는 선생과 동무들을 사랑하며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의 동지들과 전체 근로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선배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로련한 경험에서 허심하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또한 겸손하고 례절이 밝아야 하며 외모를 단정히 하며 공중 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 속에서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이 모두가 다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되고 지, 덕, 체를 겸비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계속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천리마 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천리마 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입니다. 그것은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킨 훌륭한 공산주의의 학교입니다.

청년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전체 청년들을 우리 당의 붉은 전사로, 유능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다시 한 번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비약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3

동무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 해방 혁명을 완성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과 조선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과업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벌써 근 19년 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거기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 군사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

배하는 생지옥에 몰아 넣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근로 청년들은 2중 3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며 수 많은 청년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일터에서 쫓겨 나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학원은 모리화되고 파쑈화되였으며 청년 학생들은 괴뢰군에 끌려 나가 미국 침략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야수적인 탄압 밑에 자기 동포들과 형제 자매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겨눌 것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참을 수 없는 천대와 모욕을 받고 있으며 생존의 권리마저 항시적으로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하루 속히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청년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과 테로는 즉시 중지되여야 하며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근로 인민의 자제들을 비롯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여야 하며 학원을 민주화하고 청년 학생들이 과학 탐구의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근로 청년들에게는 모두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그들의 로동 조건과 생활 조건은 근본적으로 개변되여야 합니다. 전체 청년들이 정치 사회 활동에 광범히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반드시 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여야 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청년들과 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운명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련결되여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우리 민족이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게 된 때에만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자기들의 광명한 앞날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등 민족 반역자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실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남조선 청년들의 해방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며 미국 군대를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야 합니다.

청년 학생들은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미국 군대의 만행을 규탄하고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 하게 하여야 합니다. 미국 침략 군대로 하여금 도처에서 청년들의 항거에 부딪쳐 우리 강토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체 남조선 청년들이 강제 징집을 반대하며 미국 침략자들에 대한 온갖 협력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국방군》에 끌려 나간 청년들은 거의 전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 자제들입니다. 그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맹종하여 자기의 부모 형제들과 동포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이 아니라 응당 인민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국군》 내 청년 장병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

로 리용되는 치욕스러운 처지에서 벗어 나야 하며 외래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근로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 침략 도구에 불과한 남조선 괴뢰 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의 괴뢰 도당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까지 끌어 들여 남조선을 미 일 제국주의의 이중적인 예속에 밀어 넣으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괴뢰 도당의 파쑈적 탄압과 매국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괴뢰 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청년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의 청년 학생들은 민족적 각성이 높고 반제국주의 의식이 강합니다. 민족적 억압과 멸시를 극도로 증오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하게 투쟁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통치 시기에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광주 학생 사건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반일 투쟁을 통하여 조선 청년의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과 혁명적 기개를 시위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총검으로 비호하던 리 승만 괴뢰 정권도 주로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남조선 청년들은 원쑤들의 야만적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박 정희 괴뢰 도당의 매국 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이 미국 식민지 통치를 증오하고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휘황한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청년들이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 굴종할 수 없으며 오늘의 비참한 남조선 사태를 그 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귀중히 여기며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남조선의 모든 청년들은 전 민족적인 반미 구국 투쟁에 더욱 용감히 나서야 하며 이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훈을 떨쳐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이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해방 투쟁에서 지닌 영광스러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들의 투쟁 대오를 튼튼히 결속하고 청년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학생 청년들은 아직도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같이 통일적인 혁명적 청년 조직에 결속되지 못 하였으며 학생 청년들의 투쟁은 로동자, 농민 청년 대중의 투쟁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인민 봉기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용감하게 싸웠으며 많은 고귀한 피를 흘렸으나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전취하지 못 하고 투쟁의 열매를 원쑤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이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자기들의 혁명 력량을 더욱 튼

저히 준비하여 투쟁을 끝까지 계속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들과 근로 인테리들의 선진 분자들로 조직되는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당의 활동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청년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진보적 사상을 가진 핵심 대렬을 꾸려야 하며 혁명적인 청년 조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적 청년 조직을 도처에 결성하고 이 조직을 통하여 공장과 농촌의 근로 청년들과 혁명적 학생들 속에서 핵심을 길러야 합니다.

혁명적 청년 조직은 공장과 농촌, 학원들에서 진보적 청년들을 교양하여 그들을 자기 대렬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의 핵심 대렬을 꾸리는 동시에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신앙과 정견, 출신의 차이를 막론하고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체 청년들을 반미 구국 통일 전선에 묶어 세워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할 수 있는 혁명의 주력군은 로동자, 농민 대중입니다.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청년 학생들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청년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운동은 오직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야만 진정한 혁명 운동으로 될 수 있으며 해방 투쟁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로동자, 농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청년들이 혁명적 당의 령도 밑에 하나의 전투 대오로 결속될 때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거대한 혁명 력량으로 될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과 조국 통일 위업에 위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공동의 투쟁 과업입니다. 남북 조선 청년들은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북조선 청년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북조선 청년들은 항상 남조선 청년들의 어려운 처지를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민족 해방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결의 밑에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 청년들과 힘을 합하여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어야 합니다. 북반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하는 모든 성과들과 그들의 강력한 지원은 싸우는 남조선 청년들에게 커다란 힘으로 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며 남북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 서로 반목질시케 하려고 온갖 교활한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

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북 간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도, 경제 문화 교류도 한사코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조선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민족 분렬 정책을 단호히 분쇄하고 호상간의 단결과 협조를 위하여, 전 민족적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남북 간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위하여,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온갖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 자신의 손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민족 자체의 힘과 자원으로 통일되고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힘도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궐기한 애국적인 조선 청년들과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은 종국적으로 파탄될 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입니다.

4

동무들!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일환이며 조선 청년 운동은 국제 청년 운동의 구성 부분입니다.

조선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동시에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의 공동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 운동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며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진압하며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열핵 전쟁을 반광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도처에서 침략과 략탈 행위를 감행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민들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특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과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공동의 투쟁 과업입니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과 전쟁 공포증을 배격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며 그들에게 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함으로써만 평화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체 인민과 함께 조선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전쟁 도발 음모를 파탄시키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며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추동 하에 또다시 우리 나라에 기여 들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기도를 결정적으로 분쇄하여 버려야 합니다. 조선 청년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차게 타 오르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혁량이며 세계 평화의 강력한 요인입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자기들의 영웅적 해방 투쟁으로써 자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고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세계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오래 동안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압박을 받아 왔으며 오늘도 미 제국주의의 남조선 강점을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며 언제나 피압박 민족들의 편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조선 청년들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예속 국가의 인민들과 청년들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여야 하며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지구 상에서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청년들과의 전투적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공동 투쟁에서 그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리상이며 광명한 미래입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도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공산주의에로의 인류의 전진 도상에서 국제 로동 계급이 달성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그 위력의 장성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인민들의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조선 청년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보위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이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며 이 진영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밑에 사회주의 국가 청년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근로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그리 하여 근로 청년들의 공동의 리상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조선 청년들은 민주주의적 국제 청년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적 청년들의 국제적 운동이 전진하게 발전하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반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며 특히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공격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난 진보적 운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 민주 청년들의 자유와 해방, 그들의 광명한 앞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제국주의 기치 하에서만 진실로 광범한 진보적 청년들을 결속시킬 수 있으며 청년 운동이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으로서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공동 투쟁에서 위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선 청년들은 국제 청년 운동을 강력한 혁명 력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세계 진보적 청년들과 함께 반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청년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며 세계 각지에서 일어 나는 인민들의 모든 반미 투쟁을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폭로 규탄하는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반미 투쟁의 불'길이 온 세계 도처에서 더욱 세차게 타 오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인민들의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인민들의 투쟁 대렬은 계속 장성하고 있으며 결속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장성하는 혁명 력량은 결국에 가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도하고 사회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가져 오게 할 것입니다.

조선 로동당이 령도하는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싸워 나아감으로써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공동 위업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반석 같은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조선 혁명의 불패의 기지로, 조국 통일의 강력한 성새로 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은 계속 장성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의 전국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로동당의 세련된 령도 밑에 조국의 휘황찬 미래를 뚜렷이 내다 보면서 승리의 대로를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체 인민의 이 장엄한 투쟁에서 앞장 서 나아가는 가장 씩씩하고 생기 발랄한 부대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조선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영웅 조선 인민의 아들딸로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두터운 사랑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조선 청년 운동의 강령적 과업

전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거대한 관심과 열렬한 축하 속에서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지난 기간 민주 청년 동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총화하고 동맹 앞에 나선 새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을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한 력사적인 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에서는 조선 청년 운동이 걸어 온 승리와 영광에 가득 찬 행로가 개괄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선 청년 운동의 나아갈 길이 밝혀졌으며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앞에 제기된 기본 과업들이 명시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은 조선 청년 운동의 전투적 강령이며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청년들의 활동과 생활의 지도적 지침이다.

대회 사업의 전 과정은 지난 기간 민주 청년 동맹이 우리 당의 후비대로서 국내외 원쑤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영예를 고수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공훈을 세웠으며, 전체 청년 대렬이 우리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여 있으며, 앞으로도 당의 기치 하에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실로 금번 대회는 조선 청년들의 위대한 승리자의 대회, 조선 청년 운동을 더욱 높은 발전 단계에로 올려 세운 력사적 전환의 대회로서 조선 혁명 운동과 청년 운동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연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금번 대회에서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나라의 변화된 현실과 청년 운동 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혁명적 민주 기지를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더욱 튼튼한 근거지로 만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이 땅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청년들의 생활과 풍모에서도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났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다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적 근로 청년으로 되였으며 다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공동 리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고 있다. 청년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혁명적 실천 투쟁을 통하여 더욱 단련되였으며 그들의

정치 사상 의식과 문화 수준은 높아지고 그들 속에서는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된 새로운 혁명 임무와 우리 청년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화는 청년 동맹을 더욱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그의 역할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울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금번 대회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는 력사적 전환점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연설에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앞에 나서고 있는 임무를 명백히 제시하였다.

청년들을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교양하는 것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가장 중요한 혁명 임무이다.

《청년들은 사회 발전의 선진 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 세대들이다.》(김 일성)

그러나 청년들이 사회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놀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의 령도를 받으며 어떻게 교양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조선 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선봉대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의 길로 확신성 있게 령도하고 있는 조선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이다.

조선 인민은 지난 기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밑에 중첩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을 걸어 왔으며 앞으로도 오직 당의 령도 하에서만 광명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청년들도 오직 조선 로동당의 령도를 받고 그에 무한히 충실하여야만 새 사회 건설에서 선진 투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조국의 운명을 량 어깨에 걸머지고 나아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 날 수 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받지 않고 우리 당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될 수 없으며 조선 혁명에 충실할 수 없고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도 충실할 수 없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을 옹호하고 보위하며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김 일성)

이것은 조선 혁명을 위하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려는 모든 사람들과 청년들이 지녀야 할 혁명 투사의 고상한 품성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각급 조직들은 청년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교양과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로동 계급의 세계관, 우리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청년 운동 대렬 내에 수정주의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일체 활동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도록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타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체계적으로 연구시켜 모든 청년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붉은 공산주의 전사가 되게 하여야 한다.

청년 동맹과 그의 각급 조직들은 청년들 속에서 계급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착취 제도의 반동적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동맹 조직들은 또한 청년들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리 하여 전체 청년들을 우리 당 주위에 칠석 같이 단결시키고 그들 속에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확고히 수립하며 어느 때,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일편단심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견결히 보위하고 사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도록 그들을 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전체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은 청년 동맹의 중요한 과업이다.

지난 기간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국내외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그리고 모진 간난 신고를 극복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경제 토대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으로 되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전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된다.》 (김 일성)

각급 동맹 조직들은 나타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급속히 촉진시키기 위하여 청년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교양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 항상 앞장 서게 하며, 기술 혁명 수행에서 선도적 역할을 놀게 하며, 공동 재산을 애호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정신에 립각하여 로동 청년들과 농민 청년들의 단결과 호상 협조를 강화하며 로동 청년들이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각급 동맹 조직들은 또한 원쑤들의 침략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투쟁에 청년 대중을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임무를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청년들을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 육성하여야 한다.

지, 덕, 체의 과업—이것은 새 형의 인간을 육성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청소년 교육 교양의

총적 방향이며 내용이다.

각급 동맹 조직들은 전체 청년들을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공산주의 도덕 품성과 높은 과학 지식을 소유하고 건전한 체력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 육성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각급 동맹 조직들은 또한 청년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청년들을 우리 당의 붉은 전사로 육성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들과 전체 조선 청년들은 조국 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 해방 혁명을 완성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과 조선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과업이다.》(김 일성)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남조선의 청년 운동은 해방 후 계속 발전되여 왔다.

오늘도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원쑤들의 야만적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박 정희 도당의 매국적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남조선 청년 학생 운동에는 적지 않은 부족점이 있다. 《남조선에서 학생 청년들은 아직도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같이 통일적인 혁명적 청년 조직에 결속되지 못 하였으며 학생 청년들의 투쟁은 로동자, 농민 청년 대중의 투쟁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 하고 있다.》(김 일성)

이러한 부족점으로 하여 남조선의 청년 학생 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으며 자유와 해방을 전취하지 못 하고 있다.

남조선의 청년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청년 학생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는 혁명적 당의 창건과 그의 활동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또한 시급한 시일 내에 통일적인 혁명적 청년 조직을 창건하고 청년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진보적 사상을 가진 핵심 대렬을 꾸려야 하며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로동자, 농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남조선의 청년 운동을 목적 지향성 있게 전개하며 청년 학생 대렬을 결속시키고 그의 력량을 부단히 확대하여 청년 운동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남북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공동의 투쟁 과업이다.

남북 조선 청년들은 미제의 민족 분렬 정책을 단호히 분쇄하고 전 민족적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서로 굳게 단결하여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전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이다.

조선 청년들은 우선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세계 혁명을 위한 공동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모든 나라 진보적 청년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선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조선 청년들이 자기들에게 부과된 이러한 국제주의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전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둘째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청년들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여야 하며

세째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밑에 사회주의 국가 청년들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근로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네째로, 국제 청년 운동을 강력한 혁명 력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 함께 반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줄기차게 싸워 나아감으로써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인민들과 청년들의 공동 위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금번 대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은 조선 청년 운동의 발전과 청년들의 생활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연설은 전체 청년 조직과 청년들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혁명 위업 수행에 적극 조직 동원하며 그들을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새 사회 건설자로 교양 육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이 연설은 또한 남조선 청년 학생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남북 조선 청년들의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며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반미.구국 투쟁에로 더욱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될 것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각급 조직들과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들을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두터운 신뢰와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1939년 무산 지구 전투를 회상하면서

오 백 룡

오늘 우리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그 암담하던 시기에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령솔 하에 조직 전개된 무산 지구 전투 승리 25 주년을 뜻깊게 맞이한다.

돌이켜 보면 무산 지구에 대한 진공 방침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였고 그 전투에서 김 일성 동지의 령군술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였으며 그 승리의 의의가 얼마나 컸던가를 감명 깊게 생각하게 된다.

무산 지구 전투는 일제를 소탕하는 수백 수천의 전투들 중에서도 그 규모와 정치, 군사 전략 상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 *

1938년 11월에 있은 몽강현 남패자 회의는 우리 혁명군이 국경 지대에 진출하여 국내에로 무장 투쟁을 확대할 전략적인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우리가 《고난의 행군》 끝에 장백현에 이른 것은 1939년 4월 초였다.

장백현에 도착하자 곧 북대정자 회의가 열렸다.

김 일성 동지는 바로 이 회의에서 당시의 형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일제 침략자놈에게 거듭되는 타격을 가함으로써 적들의 야수적 탄압에 의해 파괴된 혁명 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국내의 광범한 인민들과 애국 청년들을 반일 전선에 궐기시키기 위해 무산 지구를 공격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사실 당시로 말하면 조선 인민의 전도에 검은 구름이 떠돌고 있던 우리 나라 력사에서도 매우 엄혹한 시기였다.

일제는 극악한 파쑈 집단들인 독일, 이태리와 《반공 협정》을 체결하고 《반공》 깜빠니야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쏘련을 위협하였고 중국 혁명을 압살하려 하였으며 몽고에도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 하였다. 적들은 쏘련과 몽고에 대하여 무장 충돌을 빈번히 도발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더욱 확대하였다.

중 일 전쟁을 개시한 후 일제는 국내에서 저들의 지반을 공고히 하여 보려고 국내 혁명 운동에 대한 파쑈적 폭압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대대적인 《토벌》로써 항일 무장 투쟁을 압살해 보려고 발광하였다.

놈들은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실시하여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침략 전쟁에 모조리 동원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경찰과 헌병, 군대를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또한 《국민 정신 총동원 련맹》, 《조선 반공 협회》 등 파쑈 단체들과 각종 파쑈적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

선 인민의 반일 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하였다.

일제의 파쑈적 공세는 특히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집중되였다.

1938년 가을부터 놈들은 1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소위 지역 별 담당제와 《진드기 전술》 등을 써 가면서 우리 혁명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가장 악질적인 경찰을 혜산, 장백 일대에 동원하여 수천 명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으며 조국 광복회 조직들과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수 많은 조직들을 파괴하였다.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민족 개량주의자들과 종파 분자들은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일제 앞에 투항 변절하거나 그들의 주구, 간첩으로 전락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형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 인민들에게 조국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주어야 했으며 파괴된 혁명 조직들을 복구해야 했으며 나아가서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며 중국 혁명을 지원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했다.

그리 하여 김 일성 동지는 대병력에 의한 《토벌》이 진행되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 쥐고 국내 무산 지구에로 진출함으로써 적들에게 타격을 주는 작전을 전개하게 되였다.

특히 무산 지구는 김 일성 동지의 방침에 근거하여 1937년에 최 현 동지가 인솔한 조선 인민 혁명군이 이미 진공한 바 있고 또 림산 로동자들이 집중되여 있는 지대로서 이 지구에 대한 진출은 강한 혁명적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전국 각지에 그 영향을 급속히 전파시킬 수 있었다. 무산 지구는 또한 일제의 정치 군사적 요지의 하나로서 여기에 진공하는 것은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조국 진공에 대한 명령이 내렸을 때 우리들은 적에 대한 복수와 조국 해방에 대한 일념에 불탔었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의 전략적 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장백 일대에서 국내 진공 작전의 물질 정신적 준비를 갖추면서 구가점, 십오도구, 반절구 등 지점들을 습격하여 적을 소탕하였다.

장백 국경 일대에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한 우리들은 소덕수 마등창에서 1939년 5.1 절을 맞던 그 기세로 김 일성 동지의 친솔 하에 조국 진군의 길에 들어 섰다.

5월 18일 오전에 우리는 오매에도 잊을 수 없었던 조국 땅에 올랐다.

조국! 우리 모두가 조국 땅에 들어 섰다는 감격으로 하여 얼마나 들끓었고 기쁨에 넘쳐 환호를 올렸던가! 우리는 조국의 한 줌의 흙, 한 그루의 나무, 조국의 모든 것을 정답게 바라 보면서 자기의 고향과 부모 처자들을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 정든 조국 땅에 둥지를 틀고 우리의 부모 형제 처자들의 고혈을 빨아 내며 온갖 만행을 감행하는 놈들을 기어이 몰아 내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싸움의 길로 나아갔다.

우리는 국내 진격의 1 주일 간, 가는 곳마다에서 놈들을 족쳐 무리 죽음을 안겨 주었으며 우리 인민 혁명군의 위용을 남김 없이 떨치였다.

* *

우리가 무산 지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은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 것은 적정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면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항상 주동적 립장에 서서 대담하고 과단성 있게 전투를 지휘하며 인민에 의거하고 그들의 힘을 불러 일으킨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명군술이였다.

무산 지구 전투는 대부대로 국내 깊이에까지 들어 와 진행된 큰 전투였다.

당시 적들이 방대한 력량을 동원하여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부대가 국내 깊이에 진격한다는 것은 사실 상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 혁명군은 바로 김 일성 동지의 주동적이며 대담한 전투 지휘에 의하여 놈들에게 련속적인 혼란과 패배를 주면서 그것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우리 인민 혁명군이 진[illegible] 일대에로 진출하자 이를 탐색한 일제는 장백현 주둔 오니시 부대와 김 정[illegible]대의 포부대, 장조 부대 등 500여 명을 동원하여 장백현 24 도구 부근에 배치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함남, 함북에 주둔하고 있던 수백 명의 국경 경비대와 경찰대를 동원하여 국경선에 대한 경비진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혜산, 갑산, 신갈파, 호인 등 각지의 경찰서에서 300여 명의 경찰을 선발하여 《특별 토벌대》를 편성하고 우리의 행동 방향을 탐지하기에 광분하였다.

리 운신, 최 인덕, 리 철수, 김 성국, 류 영찬 동지들의 정찰 보고에 의하여 적들의 이러한 동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신 김 일성 동지는 청봉에서 리명수 부근의 목재소와 마을들에 정치 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청봉 숙영지를 떠난 조선 인민 혁명군은 건창, 베개봉 숙영지를 거쳐 삼지연에서 휴식한 후 우리를 《경비》하겠다고 닦아 놓은 적의 군용 도로를 리용하여 무포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때 적들은 우리 혁명군이 아무리 날고 뛴다 해도 자기들의 군용 도로로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주의도 돌리지 않고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이것을 타산하고 대담하게 《갑무 경비 도로》를 따라 우리 혁명군이 행군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적들의 눈을 피하여 하루 동안에 100리 길을 걸어 무포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 이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대가 울창한 밀림을 헤치고 나간다면 대원들을 피로하게 하면서도 그러한 기동성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은 물론이고 적들에게 발견되여 추격과 포위에 빠질 수 있었을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5월 22일 주도 면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대를 불의에 무산 지구에로 진격케 하였다.

개활 지대를 따라 70~80 리에 달하는 적의 종심 깊이에 들어 가야 하는 만큼 우리는 행군 도중 경계를 특별히 강화하면서 속히 대홍단'벌을 횡단하여 국사당 부근에 이르러 두 방향으로 행동을 전개하였다.

오 중흡 련대장이 지휘하는 7 련대는 로은산 우측 신개척 부락에 진출하여 로동자들의 협조 밑에 일본인이 경영하

던 《북선 제지 주식 회사》 계통의 목재 작업소와 들쭉 회사를 습격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의 명출 하에 사령부와 김 일 정치 위원이 인솔한 8 련대는 신사동 쪽으로 진출하여 철도 연변에서 따라 올라 오는 적들을 견제하는 한편 인민들 속에서 정치 공작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5월 23일에 있은 대홍단'벌 전투는 가렬하고도 통쾌한 매복전이였다.

전투가 있기 전날 저녁에 적들은 가소링차를 타고 올라 오다가 우리의 위세에 압도되여 도중에 차를 세우고 도망쳤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는 적들이 다시 추격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부대를 대홍단'벌 집결처에 철수시켜 지형상 유리한 지점에 매복진을 치게 하였다.

예견은 틀림 없었다.

관평, 붉은 바위, 사동 등지에서 부랴부랴 긁어 모은 일제의 수비대와 경찰대들은 새벽 안개를 뚫고 철수하여 오는 7 련대 동무들을 따라 국사당 부근으로 추격하여 왔다.

정면 고지에서 이 정형을 보고 계시던 김 일성 동지는 7 련대에 매복진을 시급히 통과하라는 지시를 주고 적들이 매복진 안에 들어 올 것을 기다렸다.

이윽고 사격 명령이 내리였다.

10여 정의 경기와 수백 정의 보총이 일제히 불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완전히 독 안에 든 쥐 모양이였다.

앞에서 가던 7 련대 동무들도 되돌아서서 맹렬히 사격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나는 일부 력량을 인솔하여 동쪽으로 우회하여 측면 공격을 가하였다. 적진에서는 대혼란이 일어 났다.

고지를 뒤흔드는 정의의 총성은 원한에 사무친 이 땅에 새 힘을 안겨 주는 듯 벅차게 울려 퍼졌다.

겨우 살아 유곡 방향으로 도망치면 적들은 얼마나 혼비백산하였던지 응원하려 오는 부대와 마주쳐 저들끼리 악을 쓰며 맞불질을 하는 추태까지 빚어냈다.

무산 지구 전투에서 김 일성 동지는 특히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그들을 혁명 투쟁에 불러 일으키는 데 많은 주의를 돌렸다.

우리 혁명군 대원들과 정치 공작원들은 전투의 바쁜 도중에도 가는 곳마다에서 마을 사람들 속에 들어 가 우리 혁명군에 대하여서와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과 《3.1월간》 기타 혁명적 출판물의 내용을 해설하여 주었으며 국내 진군의 목적에 대하여서도 알려 주었다.

또한 유격대원들은 놈들에게서 로획한 식량, 피복, 신발 등 전리품들을 지방 인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몸소 인민들 속에서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을 알기 쉽게 들려 주면서 일제는 멸망하고 조선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은 군중들을 한없이 격동시켰으며 그들에게 조국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굳은 신념을 북돋아 주었다.

천대와 억압만 받아 왔고 나라 없는 설음 밖에 모르던 마을 사람들은 그처럼 흠모하고 존경해 온 민족의 영웅 김 일성 동지의 모습을 눈 앞에 바라보면서 다함 없는 감격에 잠기였다.

실로 우리는 약 1 주일 간 조국 땅을 밟고 있는 기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주었다.

지금도 청봉 숙영지에서 유격대원들이 나무 껍질을 벗기고 구호를 쓰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

《조선 청년들이여, 속히 일떠 나와 일제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하자》

《궐기하라! 단결하라! 전체 로력 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항일 대전 승리 만세!》 등 이러한 구호는 수 많은 인민 대중을 반일 투쟁에로 고무하였다.

인민들은 우리 혁명군을 친자식과도 같이 사랑해 주었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원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축원하여 주었다.

그 곳 청장년들과 인민들은 우리 혁명군이 승리하고 돌아 올 때 우리 대오에 참가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수 많은 인민들이 전리품을 운반하는 데 자진하여 나섰던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신출귀몰》하는 전술과 바로 이러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원호 밑에 우리 혁명군은 무산 지구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 기어코 조국을 해방할 굳은 결의를 다시면서 다시 두만강을 건넜다.

* *

참으로 무산 지구 전투 승리는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에서와 일제의 침략 정책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그것은 우선 조선 인민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주었으며 인민 대중의 계급적 각성과 승리의 신심을 제고시켜 주었다.

무산 지구 전투는 일제에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국내 방어 체계가 난공불락의 요새라던 《신화》를 여지 없이 깨여 버렸다.

적들은 무려 20여만의 대병력을 풀어 우리 조선 인민 혁명군을 《소멸》하겠다고 10여 년 간 집질기게 달려 들었으나 그 때마다 타격을 받은 것처럼 무산에서도 치명적 타격을 받고 녹아 났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진행된 무산 지구 전투에 대한 소식은 일제의 갖은 발악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방방곡곡에 삽시에 퍼졌다.

인민들은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에서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신출귀몰한 전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우리의 승리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언장담하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조소하였다.

무산 지구 전투 이후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고조되였으며 《김 일성 부대》는 전멸되고 몇 명만이 남아 있어 다시는 일어 설 수 없다던 적들의 허위 선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말았다.

나는 그 때 인민들 속에서 돌아 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무산에서 수백 명의 왜놈들이 녹아 났다. 아마 왜놈들이 망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왜놈들이 날고 뛴대야 백두산 천기를 타고 난 김 장군이야 당할 재간이 있나!》

이 짤막한 인민들의 말 속에서 무산 지구 전투가 조선 인민들의 기세를 돋우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국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른 시각에 인민 혁명군이 조국에로 진출한 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 주고 매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투쟁의 불씨를 지펴 주었으며 자나 깨나 깊이 흠모하고 존경해 온 민족의 영웅이며 수령이신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그들을 더욱 굳게 결속시켰다.

인민들은 자기의 수령을 모시고 있으며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궁지로 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

무산 지구 전투를 계기로 하여 혁명은 더한층 앙양되였다.

혁명 조직들의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고 국내 각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 인민들의 반일 투쟁이 더욱 거세차게 일어 났다.

194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만도 로동자들은 일제의 착취와 탄압을 반대하여 623 회에 달하는 파업을 일으켰으며 이에는 연 4만 9,000 명 이상의 인원들이 참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산 지구 전투를 통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국내 혁명 운동을 앙양시킴으로써 우리의 조국 력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금자탑을 아로새기게 되였다.

무산 지구 전투는 또한 《반공》을 부르짖으면서 쏘련과 몽고를 위협하며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개시한 일제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놈들의 배후를 견제함으로써 무장으로 직접 쏘련을 옹호하였으며 몽고 인민과 형제적 중국 인민의 반일 무장 투쟁을 도울 수 있었다.

※ ※

이상으로 나는 이 글을 끝 내려고 한다.

나는 원쑤놈들과의 싸움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전우들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하여, 활짝 꽃 피고 있는 조국의 더욱 무궁한 륭성 발전을 위하여, 무릎에 안겨 나의 흰 머리카락을 세며 재롱을 부리는 어린것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조국 남녘 땅에서 몰아 내며 이 지구 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총을 더욱 굳게 틀어 잡으려고 한다.

나는 25 년 전에도 김 일성 동지의 전사였으며 오늘도 그이의 전사다. 나는 김 일성 동지를 자기의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더 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생각한다.

기술, 문화, 사상 혁명과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

정 지 수

김 일성 동지는 전국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 강사 열성자 회의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은 비단 농촌에서 뿐만 아니라 공업 분야까지 포함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며 이에 있어서 문화 혁명이 첫 공정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은 서로 밀접한 련계 하에 서로 의존하며 제약하는 관계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사상 혁명을 꾸준히 선행시키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혁명 실천에서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가장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혁명을 보다 빨리, 보다 잘 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인공들인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급속히 높여야 할 과업이 전면에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 자체가 문화 혁명의 주요한 내용으로 되는 동시에 문화 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 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기술 혁명 수행의 중요한 전제이며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이며 이 세 가지 혁명을 호상 밀접히 련결시키고 통일적 과정으로 수행케 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와 최근에 있은 전국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 강사 열성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시금 현 시기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수준을 최단 기간 내에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릴 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이 문제를 급속히 해결함으로써만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

* *

지식은 문화성의 기초이고 인간 실천 활동의 무기이다.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일반 지식 수준이 없이는 정치 사상 교양이 있을 수 없으며 그들 속에서 현대적 기술을 론할 수 없다. 문맹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치 밖에, 기술 밖에, 그리고 문화 생활 밖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공산주의 교육 문제에서 시'적 교육을 중요하게 제기하면서 과학 지식의 습득을 근로자들과 청소년 교양의 기본 과업의 하나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

류가 이룩한 그 모든 지식의 부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때에라야 비로소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는 것이다.》(전집 제 31 권,343 페지)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는 문화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문화 혁명에서는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여기로부터 현 시기 우리 당은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중심 과업으로서 기술 혁명, 사상 혁명과 함께 문화 혁명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거기에서도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를 매우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이것은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첫 공정이며 그 전제 조건이다.

일반 지식이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하며 높은 정치,문화 수준과 기술 지식을 갖게 하는 기초적인 과학 지식이다.

국어, 수학을 비롯한 일련의 자연 및 사회의 일반 지식이 있음으로써만 근로자들은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공산주의 의식과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성과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자립적으로 현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일반 지식은 우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초 지식으로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기능을 파악케 하여 기술 혁명의 수행과 문화 혁명 자체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가지게 한다.

례하면, 일반 지식의 기초인 국어 학습은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 말과 글을 정확하게 읽고, 쓰고, 해득하고, 말할 수 있게 하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얻게 한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문화, 사상, 기술 수준 제고의 기초로서 그들에게 모든 부문의 과학 지식을 섭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준다. 또한 문학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과 창작 능력을 배양하여 준다.

수학 과목들의 학습은 각종 계산 능력을 배양하여 근로자들을 정신 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그들에게 자연 과학과 기술 과학 지식을 심오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 과학 과목들의 학습은 근로자들에게 자연 현상의 본질과 호상 관계를 리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업과 농업 생산의 기본 원리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현대 생산 기술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와 같이 일반 지식은 도시와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을 심화 발전시키는 토대로 되며 나라의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게 하는 주요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일반 지식은 또한 근로자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 발전 법칙을 리해하게 하며 과학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튼튼한 기초로 된다.

국어와 수학, 그리고 자연 과학 과목들의 학습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객관 세계의 각종 현상의 본질, 세계의 물질성과 그 발전 법칙의 기본을 리해하게 되고 자연 현상의 부단한 변화 발전, 자연 현상의 상호 련관, 상호 제약성 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유물 변증법적 세계관 형성의 기초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특히 력사, 지리, 국어(문학) 등의 학습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인류 사회와 우리 나라 력사,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인류 사회의 발전 법칙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기초를 얻게 된다. 또한 력사를 비롯한 일반 사회 과학 지식들의 학습 과정을 통하여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한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 당 정책 교양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

여기에서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은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산주의적 세계관 확립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지식의 습득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는 높은 사상성, 고상한 도덕 품성, 예술성이 배양되게 되며 현대적 기술 기능을 소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는 사물에 대한 관찰력, 기억력, 사고력 등이 발전되게 되며 보다 높고 전문적인 지식을 심오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된다.

례를 들어, 수학의 응용 문제를 푸는 행정에서 근로자들에게는 사고력, 인식력이 배양되게 되며 론리적 사고력이 발전되고 자연 지식의 습득 행정에서 관찰력, 주의력, 인식력이 발전되게 된다.

일반 지식은 또한 신체의 균형적 발육을 위한 근로자들의 체육 사업과 보건 위생 사업, 정서 생활을 위한 군중 문화 사업 기타 모든 생활을 알뜰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의 기초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혁명의 주요한 부문들인 체육, 보건, 군중 문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전제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이렇듯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토대로, 그 전제 조건으로 되며 또 그 자체가 문화 혁명 수행의 주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며 기술, 사상 혁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높여 줌으로써만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불길 기술적 토대를 더욱 공고 발전시킴과 함께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인간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높이는 것은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 있게 수행하는 첫 공정인 동시에 그들을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으로 육성하는 첫 공정으로 된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된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세계관이 확립되고 지, 덕, 체가 겸비된 인간으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현대 생산 기술을 요구하며 따라서 이러한 현대 기술의 발명과 그의 사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높은 일반 과학 지식과 문화 기술 수준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매개 근로자들이 나라와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도 높은 지식을 소유할 것을 긴절하게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근로자들의 높은 정치 사상 의식과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요구한다. 이것도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옳은 관점을 소유시키는 일반 지식에 토대하여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간고하고 웅대한 사업이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체력을 건전하게 단련시키지 않고서는 정신 로동 및 육체 로동에서나 조국 보위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여 맡은 숭고한 혁명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물질적 부만 아니라 높은 문화 예술적 소양을 요구한다. 이것 없이는 창조된 물질적 부를 옳게 향유할 수 없으며 새로운 생활을 문화적으로 즐길 수 없다.

이것도 근로자들이 일반 지식을 소유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로부터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일반 지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오직 일반 지식에 확고히 기초함으로써만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부를 소유하고 현대 생산의 기술 기능을 파악한 사람으로, 자기 능력의 한 측면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활짝 꽃 피여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훌륭한 생산자로, 당과 혁명에 충직한 정치 활동가로, 고상한 도덕적 품성과 문화적 소양이 풍부한 새 형의 공산주의 인간으로 될 수 있다.

바로 우리 당은, 우리의 후대들은 물론이고 전체 근로자들을 모두 이러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인간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됨으로써만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의 차이를 소멸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전체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을 보장하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이다.

* *

근로 대중의 일반 지식을 높이기 위한 과업은 사회주의 길에 들어 선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주의를 돌려야 할 혁명 임무이다.

과거 계급 사회에서는 착취 계급이 물질적 수단과 함께 정신 문화적 수단까지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근로 대중은 물질 생활에서 빈궁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의 혜택으로부터도 제외되여 있었으며 무지와 몽매 속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정권을 장악한 로동 계급은 자기의 정권에 의거하면서 우선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함과 함께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을 무지와 몽매에서 해방시키며 그들에게 높은 문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을 돌려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과거에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처지에서 살아 온 인민에게 있어서 이 과업의 수행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러므로 해방 후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는 과거 일제의 악독한 우민화 정책에 의하여 배움의 길을 빼앗겼던 전체 근로자들과 후대들에게 지식을 주며 새 조국 건설 도상에서 큰 애로로 제기된 인재의 심한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을 민주 건설 사업에서 모든 문제의 초점으로 간주하고 이 사업을 급속히 추진시키는 혁명적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다.

이 분야에서 우리 당은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반적인 무료 교육과 초등 및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벌써 젊은 세대들은 다 중학교 이상의 일반 지식을 소유하게 되였다. 그 우에 새로운 기술 교육 체계가 창설되여 가까운 장래에 9~10 년제의 기술 의무 교육제가 실시될 것인바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일반 교육과 함께 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지금 우리의 후대들은 우월한 인민 교육 체계를 통하여 모두 지, 덕, 체가 겸비된 전면적으로 발전된 쓸모 있는 인재로 육성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 수준 제고 문제 해결에서의 결정적인 전진을 의미한다.

한편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문화·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성인 교육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해방 직후 우리 당은 전체 근로자들을 장기간에 걸친 무지와 몽매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문맹 퇴치와 대중 계몽 사업을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여 불과 2~3 년 내에 문맹을 퇴치하였다.

그 후 우리 당은 생산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성인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인민 학교 또는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을 소유케 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특히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현 시기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나라의 혁명 발전에 따라 제우기 위하여 전체 로동자, 농민들이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함께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수 많은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들과 중등 및 고등 기술 학교, 통신 대학, 공장 대학, 공산 대학, 각종 간부 양성 기관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 기술 학습과 기술 전습제가 광범히 조직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과 사상 의식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과 사상 의식을 높이는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다. 원래 문화 혁명 과업은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성을 요한다. 더우기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그 절대 다수가 과거에 배우지 못한 조건에서 그들의 전반적 수준을 단시일 내에 높일 수 없었다. 그 결과 지금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은 류례 없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 제고의 토대로 되는 일반 지식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 과업이 전면적으로 제기된 오늘 우리 혁명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고리의 하나로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문제는 전체 근로자들, 그 중에서도 과거에 배우지 못한 40~50 대 사람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제고하는 성인 교육 사업이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함에 있어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근로자들이고 우리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도 근로자들이다.

오직 근로자들의 일반 기초 지식을 급속히 제고함으로써만 그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일 수 있으며 우리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인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더 빨리, 더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

*　　*

모든 근로자들을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게 하는 이 혁명 과업의 실천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우선 정규적인 교육 체계를 통한 청소년 교육과는 달라서 주로 일하면서 배우는 성인 교육 체계를 통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일정한 난관이 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본신 혁명 사업들이 매우 바쁘다.

또한 이 과업의 실천은 주로 년령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진행된다는 데 난점의 하나가 있다. 일반 지식의 체득은 체계적으로 되여야 하고 인내성 있게 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유치원으로부터 인민 학교, 중학교로 밟아 올라 가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일이 바쁘고 학습에 숙달되지 못한 성년 근로자들에게 일반 지식을 계통적으로 가르치는 문제는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간고한 투쟁을 동반하는 혁명 사업이다.

그러나 비록 간고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혁명 사업을 능히 실현할 수 있는 온갖 조건들과 가능성들이 구비되여 있다.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여 있으며

전국 도처에 어디를 가나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우월한 교육 체계와 학습 체계가 확립되여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자라 났다.

그 우에 《조선 사람은 어렵게 살아 왔기 때문에 배우자는 욕망이 또한 남보다 강하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118 페지)

고대로부터 문명하고 재능 있는 인민으로서 주경 야독(晝耕夜讀)하기를 즐기던 조선 인민들의 향학열은 해방 후 우리 제도 하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는 세기적인 문화적 락후성을 완전히 가시고 남만 못지 않게 문명하게 잘 살기 위해서 빨리 배우려는 의욕이 타 오르고 있다.

문제는 매개 단위들에서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이 사업에 한 사람 같이 동원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성인 교육 사업의 성과 여부는 지금 우리 당이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 과업을 더 빨리, 더 잘 실현하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일'군들 특히 이 사업을 담당한 교육 일'군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데 주목이 돌려져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제고하는 것은 간고하고 인내성 있는 투쟁을 요하는 것인 만큼 이 사업을 담당한 일'군들 속에서 혁명가적 기풍을 수립하여 그들이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며, 이 사업에서 우리 당의 군중 로선과 계급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계급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여 오래 동안 무지와 암흑 속에서 살아 온 근로자들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으로부터 출발한 숭고한 혁명 사업인 것이다.

우리의 근로자들, 특히 농민들이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세기적인 문화적 락후성을 완전히 가시지 못 하고 일반 지식과 기술 수준이 아직도 낮은 형편에 있는 데 대하여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당은 지금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밥에 고기'국을 먹이며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문화적으로 잘 살게 하여 주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글을 가르쳐 그들의 일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사업도 이 투쟁의 주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성인 교육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하려면 모두가 혁명적 군중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달라붙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동지와 같이 사랑하고 친부모와 같이 존경하면서 인내성을 가지고 꾸준히 가르쳐 주고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배움의 대열에서 한 사람의 락오자도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문명한 사람으로 되여 우리의 리상인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성인 교육 사업을 조직함에 있어서는 정규적인 교육 체계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과 다른 특성을 심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가 강조한 바와 같이 그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교수 방법과 학습 조직을 연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근로자들의 학습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그것을 항일 투사들의 혁명적인 학습 방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것은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학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며 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이 되여 구체적으로 짜고 들어 군중을 인내성 있게 가르치며 학습이 근로자들 속에서 완전히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가장 힘을 많이 경주하여야 할 농촌에서 근로자들의 학습 조직과 학습 방법을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지 호상간에 서로 도와 주고 배워 주며 글 아는 모든 사람이 이 사업에 군중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로청, 녀맹, 직맹 등 사회 단체들에서 이런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맡아 나서야 한다.

또한 군중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까다로운 말을 쓰지 말고 쉬운 말로 헐하고 흥미 있게 하도록 교수 방법에 심중한 주의를 돌림으로써 근로자들이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하며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리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는 사업의 성과 여부는 결국 근로자들 자신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적 나이 많은 근로자들 속에 있는 과학 지식과 기술 습득에 대한 신비주의, 보수주의, 소극성 등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다.

과학 지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근로 인민들의 고귀한 생산 실천과 혁명 투쟁 속에서 축적되여 온 경험이다. 근로 대중은 과학 지식을 배우는 데 필요한 산 경험을 풍부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고 결심만 하면 모두가 빨리,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개 단위들에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지식을 신비화하며 학습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타파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전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항일 유격대원들의 모범을 따라 모두가 신심을 가지고 분초를 다투어 가면서 배우며 책을 읽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빨리 높이기 위한 성인 교육 사업의 성과 여부는 또한 실천적 경험들이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매개 당 조직들에서 특히 농촌의 리당 위원회들에서 이 사업을 직접 틀어 쥐고 자기 실정에 맞게 조직 정치 사업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강력히 추진시키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전체 근로자들을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게 하는 이 혁명 과업의 실현은 현 시기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동시에 이는 장차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기수, 기사, 전문가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되게 하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극복하여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당 조직들과 전체 당원들은 자기들의 창조적 열성을 다함으로써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이 웅대한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고조되고 있는 조국 통일 지향

최 창 진

남조선에서 《군사 정변》 후 일시 저조되였던 인민들의 조국 통일 지향은 최근 점차 높아 가고 있다.

현 시기 남조선에서의 사회 경제적 모순의 심각화는 인민들 속에서 통일 지향을 앙양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이 나라가 분렬되여 부모 형제 간에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 현 사태를 통탄하면서 《우리의 살'길은 민족의 통일 밖에 없다》,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총동원하라》고 한결 같이 웨치고 있는 것은 생활 체험에서 흘러 나오는 응당한 요구이다.

남조선의 현 정세는 박 정희의 파쑈 테로 통치 하에서도 혁명 력량이 점차 장성하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새롭게 끓어 오르는 조국 통일 지향은 그 깊이, 그 넓이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일련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우선 《군사 정변》 직후와는 달리 공개적인 성격을 띠고 광범한 대중 속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박 정희가 집권한 후 야수적 폭압으로 인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조국 통일 구호를 직접 제기할 수 없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하여도 조국 통일 념원은 《삼천만 동포에게 호소한다》고 돌려서 밖에 말하지 못 하였다.

조국 통일 지향은 남조선에서 혁명 력량이 장성되고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거족적인 투쟁이 전개됨에 따라 점차 파쑈적인 법 질서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되였다.

남조선 출판물들은 박 정희 도당의 엄격한 보도 관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과 사회계의 지향을 광범히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일 문제에 대한 지상 토론까지 벌리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남조선 평론가들은 《작년 말 이래 한국에는 새로운 통일 무드(기운)가 대두하게 되였다》라고 론평하고 있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이 지난 시기에는 《평화 통일》이나 《남북 협상》에 대한 말만 해도 《용공 분자》니 《적색 분자》니 하고 함부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날로 높아 가는 인민들의 통일 열망을 더는 억제할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조국 통일을 갈망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웨침은 어느 한 계층이나 몇몇 인사들의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국군》, 상인, 기업가, 가정 부인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의 광범한 인사들 속에서 대중적 요구로 울려 나오고 있다.

《한국 일보》가 남조선 지역에 걸쳐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현 시기 남조선에서 《해결을 요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남북 통일》이라고 대답하였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감이 강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려 대학교 3,000여 명의 학생들은

《4.18 3 주년기념식》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현《정권》 당국자와 구 정치인들을 모두 불신하면서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질서의 조속한 확립》을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다.

최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책동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중적 시위의 기저에도 반일, 반《정부》 감정과 함께 조국 통일에 대한 념원이 반영되여 있다.

지난 4월 20일 청주 공업 고등 학교 학생 800 명은《한 일 회담》을《백지화하라》는 구호와 함께 《4.19 혁명 정신으로 3천만이 뭉쳐 보자, 단결 없이 남북 통일할 수 없다》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외정부의 한 로동자는 《이북에 가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월북을 기도하였으며(《조선 일보》 1964.3. 19) 경기도의 한 농민은 《언제나 통일의 날이 오겠는지 꿈 속에서도 통일을 본다》고 말하였다.

서울시 내 룡산구 룡산동 주민 90여 명은 조국 통일을 위해 《유엔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전개하였다. (《합동 통신》 1964. 4. 10)

통일에 대한 열망은 괴뢰군 병사들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괴뢰군 제 2 사단 일등병 강 모는 《우리 다같이 3. 1 독립 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부르면 이 땅의 아들딸들인데 마냥 이렇게 서로 외면한 채 살아야 된단 말인가?》고 하였으며(《서울 신문》 1964. 1. 13) 일부 병사들은 《월북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하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입북하고 있다. 심지어 유교도, 불교도들까지도 《남북 통일은 국가의 대원이며 민족적 념원》이라고 하면서 통일제(統一祭)까지 지내는 사실이 있다.

이처럼 남조선에서 조국 통일 기운은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서 대중적 성격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조국 통일 기운의 대중적 성격에 대하여 미 국무성 정책 작성 위원장 로스도브까지 《최근 남조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사실들은 5. 16 전과는 달리 남조선 학생 인테리 계층에서보다도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남북간의 접촉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억세할 수 없는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자인하였다.

조국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편승하여 남조선의 보수 세력 내부에서도 조국 통일과 남북 간의 교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보수 정객들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한 《통일 방안》의 수립을 촉구하면서 《조국 통일》 문제를 걸어 《정부》에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가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성숙해야 할 국내외적 현실 하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외국의 례와 같이 우리도 스스로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겠다》(《부산 일보》 1963. 12. 27)고 하였으며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한 《혁신계 정치인을 석방 안 하는 리유》를 따지였다.

최근 보수 정객들은 《민족 자결주의에 립각한 확고한 국토 통일 방안》의 모색을 표방하고 《국토 통일 협의회 창립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조선 일보》 1964. 1. 18) 외국 군대의 철거 후 남북 대표자 회담으로 평화 통일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국제 신보》 1964. 1. 25)

이것은 인민들의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보수 세력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에서 고조되고 있는 조국 통일 지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또한 박 정희 《정권》의 외세 의존 통일론을 반대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다 아는 비와 같이 박 정희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기한 통일론의 기본은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론과 《승공 통일》론이다.

이 통일론은 박 정희의 창안물이 아

니고 멸망한 리 승만, 장 면의 시책을 계승한 데 불과하다.

남조선 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이 국토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저들의 매국 배족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위정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의 꾸준한 협상으로 통일의 타결점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박 정희가 부르짖는 통일은 《자유, 민주 량당 때와 대동소이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고식적인 〈유엔 감시하 선거론〉에 매여 달리려 하는가》라고 규탄하고 남북이 꾸준히 협상하면 민족의 《혈거가 반드시 상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은 《고식적인 통일론》을 표방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하여 방관시하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의 반민족적 처사를 폭로하고 자주적 조국 통일을 위한 《희망적이고 창발적인 새로운 방안》을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놓을 것을 촉구하여 나섰다.

4월 초순에 한 청년은 《현 정치인들은 국토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북한 수뇌들과 회담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내용으로 된 수십 매의 삐라를 《국회 의사당》 앞에 산포하였다.

이것은 박 정희의 통일 방안이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반대 배격을 받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조선 인민들이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할 데 대한 우리의 통일 방안에 공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통일 지향에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국한된 부문에서라도 남북 간의 길이 트이여야 한다》고 하면서 끊어진 남북 간의 련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의 모 시민은 남북 간에 《서신, 문화, 경제 교류의 길을 열고 정치성 없는 학생 회담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적 접근을 이루는 한편 오직 애국 애족 일념의 협상을 벌려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원의 모 녀학생은 《남북의 문화 교류만은 과감히 단행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경향 신문》 1964. 1. 24)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요구는 뉴델리, 인스브루크 등에서의 남북 체육 선수들의 상봉을 계기로 더한층 높아 가고 있다.

한 의사 김 모는 남조선 출판물에 게재된 남북 체육 선수들의 사진을 보고 나서 《오매 불망 갈구해 온 동족 분렬 해소의 예고편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하였다(《대구 일보》 1964. 1.9) 《한국 일보》도 동기 올림픽 대회에서의 《한 필희의 입선은 민족의 영예》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남북의 접촉과 경제 및 문화적 교류의 실현이 단일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성숙된 현실적 요구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고조되고 있는 조국 통일 지향에 극도로 당황한 위정자들은 이를 회유 무마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 괴뢰 지배층은 인민들의 통일 지향을 종전처럼 파쑈적 폭압 수단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타산하고 괴뢰 정부와 여당이 《국가 안전 보장회의》 아래에 정부 기관 혹은 반관 반민 단체로서 《통일 문제 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그들은 《이 기구의 긴급 과제》는 《우선 남북 간의 서신 왕래와 실정 소개 등을 실현》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들에게 자기들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듯이 가장하며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 고조되고 있는 통

일 지향을 자기들의 유일적인 관리 및 통제 하에 두어 사실 상 남북 서신 거래, 래왕과 접촉, 통일 문제 등의 해결을 방해하려는 회유, 기만 책동에 불과한 것이다.

2

남조선에서의 날로 고조되는 조국 통일 지향은 인민들 자신의 생활 체험, 공화국 북반부의 영향력, 국제 혁명 력량의 장성 등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19년 간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였다. 그들은 4월 인민 봉기 전까지만 해도 조국 통일에 대한 요구를 전면에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리승만 독재 정권만 전복되면 만사가 잘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세 차례에 걸쳐 괴뢰 《정권》이 교체되였으나 그들의 처지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현 파국적 사태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서는 괴뢰 정권을 전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인민들의 각성은 박 정희의 부패 무능과 매국 배족적 정체가 더욱 명백하여짐에 따라 더욱 높아졌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도 《미 군정을 겪고, 4. 19를 치르고 과도 정권을 거쳐 민주당 통치도 받아 보았으나 민중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태산격으로 암담하기만 하다》고 개탄하고 《아마 살'길은 민족 통일 밖에 없는듯 하다》고 썼다.

남조선 인민들은 한 날 한 시에 해방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유족한 생활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 보면서 남북의 접촉과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미제와 괴뢰 도당을 저주하고 조국의 통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와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 하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서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방책은 남반부 인민들에게 거대한 고무적 힘으로 되고 있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해결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정당한 방침과 그에 기초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한 방안들은 그 합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12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및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의 공동 련석 회의에서 제시한 남북 간의 긴장 상태의 제거와 호상 리해와 민족적 뉴대를 회복할 데 대한 제안과 얼마 전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에서 채택된 《한 일 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한 호소문이 남조선 인민들 속에 침투됨에 따라 또다시 그들 속에서 반향이 크게 일어 나고 있다.

그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북한에서 주겠다는 백미 200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 북한에서는 실업자에게 일터도 준다니. 한일 회담보다 판문점 개방 협상이 더 절실하다》(《경향 신문》 1964. 5. 12)라고 우리의 제안에 수궁하고 있는 사실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조국 통일 지향의 고조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국제 혁명 력량의 장성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의 가일층의 격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남조선의 위정자들까지도 《불란서의 중국 승인으로 국제 정세가 많이 변해 가고 있으며 오늘날 남북 통일 기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여 가고 있다》고 하면서 종래의 구태의연한 저들의 《통일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최근 남조선에서 불란서 대통령 드 골이 제기한 《동남 아세

아 《중립화안》과 관련하여 일시 자취를 감추었던 《중립화 통일론》이 다시 싹트게 되였다.

이 모든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광범한 계층들과 사회계에서 강력하게 울려 나오고 있는 조국 통일 지향은 정세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이 지향을 멈춰 세울 힘은 세상에 없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고조되고 있는 조국 통일 지향은 날이 갈수록 광범한 대중의 심장을 틀어 잡으며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다.

이 지향은 그 요구의 내용으로 보아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주체적 력량에 의하여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는 애국 정신의 발현이다.

물론 이 지향이 아직까지는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 통일을 위한 대중적인 행동 단계에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주로 조국 통일을 념원하고 호소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향은 미구에 남조선에서 반드시 도래하고야 말 반미 구국 투쟁과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준비함에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놀게 될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한 계단 높이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념원, 호소의 단계로부터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 단계의 높이에까지 올려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승리는 오직 실천적인 투쟁을 요구하며 또한 실천 활동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아무리 객관적 진리를 반영한 정당한 념원이라 할지라도 실천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그 념원은 다만 공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며 현실을 변혁할 수 없는 것이다.

조국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념원도 례외로 될 수 없다.

적지 않은 남조선 인민들은 조국 통일을 념원하면서도 아직도 공미, 숭미 사상에 사로잡혀 주체적 반제 애국 력량을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공산주의에 대한 리해가 부족하고 적들의 허위 선전에 기만 당하고 있는 데로부터 박 정희 도당의 《반공 통일론》에 동조하면서 《한국의 이니샤티브에 의한 국토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현상들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가 자기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교활한 수법으로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며 공산주의에 대하여 터무니없이 비방 중상하는 악랄한 《반공》 선전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는 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남조선 인민들을 숭미, 공미, 《반공》 사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궐기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미제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기만 책동과 그에 아부 추종하는 주구들의 매국 매족 행위를 철저히 폭로 분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여야 한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지금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빠지고 있으며 그들은 대중의 투쟁을 무엇보다도 두려워 하고 있다.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단결된 인민의 힘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에 대하여

김 하 명

천세봉의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제 1 부)는 최근 년간 우리 문학이 당 문예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또 하나의 빛나는 성과이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인민들 속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극으로 상연되여 인민들의 계급 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8. 15 해방은 유구한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온 새 시대의 서곡으로 되였다. 력사는—새 생활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떠한 나라를 세워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모든 계급에게 이런 절박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각이한 계급적 처지와 저마다의 리해 관계에 따라 이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지 않았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해방 직후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하에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 선 조선 인민의 력사를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진실하게 재현하면서 우리 당 로선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인하고 있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동해안의 한 농촌 지대 군 소재지와 신구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 곳 인민들이 해방과 함께 반동들과 반당 종파 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물리치고 새 인민 정권을 세우며 3. 7 제를 위한 투쟁을 거쳐 토지 개혁의 실시로써 세기적 숙망이던 땅의 주인이 되는 거창한 력사적 흐름을 재현하고 있다. 작품은 뛰여난 사실주의적 전형화에 의하여 한 지방의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해방 직후 우리 인민이 체험한 위대한 력사를 전면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각계 각층의 정치적 동향과 투쟁, 그 생활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당하게 밝히였다. 이 작품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은 당시 우리 나라의 그 어느 군, 그 어느 마을에서도 볼 수 있던 일반적 현상이였고 작품의 주인공들은 당시 그 어데서나 만날 수 있던 낯 익은 사람들이다.

작품은 이렇게 주권과 토지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기본 사건으로 하면서 시종일관 이 위대한 흐름이 어떠한 힘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작자는 작품의 앞 머리에 직접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진리의 대하가 흘러 간다. 어두운 질곡의 밤에 시작되여 빛을 뿌려 이 나라를 일깨우고 삶의 샘물과 호흡의 열기로써 이 불행했던 나라를 구원한 오직 밝고 옳으며 참신하고 위대한 흐름이 도도히 흘러 간다.

계곡을 뚫고 바위를 밀고 숲과 모든 험한 장애를 열어 헤치며 흘러 온 장쾌한 흐름… 오늘은 무변대야에 굽이치는 장강(長江)… 그 장려하고 줄기참이 다시 또 있으리!》

작자 자신의 이 힘 있는 웨침은 작품의 사상적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은 일제 통치의 암담하던 시기에 《빛을 뿌려 이 나라를 일깨우고》 《이 불행했던 나라를 구원한 오직 밝고 옳으며 참신하고 위대한 흐름》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작품의 곳곳에서 령도자를 기다리는 인민들의 뜨거운 념원과 두터운 신망의 토로를 들을 수 있다. 가령 조국이 해방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나라가 어떤 길로 나갈 것인가를 알아 보려고

찾아 온 마을 사람들과 우국지사인 배 덕현과의 대화는 당시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기분과 지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래 앞으로 조선은 어떻게 될가요?〉

사람들은 또 배 덕현에게 물었다.

〈그야 민주 정치가 실시돼야지〉

〈민주 정치라니요〉

〈민주 정치를 모르나?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단 말일세〉

....

〈그래두 백성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도록 령도를 하는 수령 되시는 분이야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물론 있어야지, 그러게 그 수령으로 선 우리 조선에 김 일성 장군이 계신단 말야, 조선의 해'빛은 장백산 우에서 비쳐 내리고 있네〉

......

김 일성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은 웅성웅성 끓었다…》

작품은 복잡하고 첨예하였던 해방 직후의 정치 투쟁을 생동한 사실주의적 화폭으로 재현하면서 우리 당의 로선, 김 일성 동지가 일찌기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서 천명하신 사상의 위대한 승리의 로정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이 기본 주제와의 관계에서 해방된 인민들의 급속한 정신적 장성 문제, 민주주의 혁명 수행에서의 로농 동맹의 의의와 인테리의 역할 문제, 농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 문제, 청년 남녀들의 새로운 애정 륜리 문제 등 수다한 부수 제들이 천명되고 있다.

이리하여 이 작품은 오늘의 사회주의 지상 락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 그 위대한 구상의 실현을 령도한 조선 로동당이 어떻게 창건되고 공고화되였으며 그 밑뿌리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장편 소설로서 그 주제 탐구의 대담성과 영웅적 현실 반영에 적응한 대서사시적 구성과 진실한 생활 묘사의 힘에 있어서 우리 문학 발전의 새로운 지표로 되였다.

작품이 독자들에게 주는 심각한 인상은 우선 생활 묘사의 진실성이다. 작자는 생활이 제기하는 모든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대하였으며, 그 현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심오한 사회 정치적 의의를 천명하기 위하여 거대한 창조적 노력을 기울였다. 작품은 생활의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니라 토지를 위하여 싸우는 농민들의 생활과 투쟁, 그들의 인정 세계와 성격적 특성을 다른 계급들과의 밀접한 련관 속에서 모사함으로써 당시 우리 사회의 발전 운동을 전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작품은 그 사상적 구상을 중심 주인공 강 형진을 비롯한 80여 명의 각계 각층 인물들의 복잡한 호상 관계를 통하여 구현하고 있다. 작품에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계급적 처지와 개성적 특성이 각이하고 다양하지만 력사적 흐름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형상 집단으로 구분된다. 즉 새 력사를 창조하는 인민의 편에 선 긍정 인물로서 리 두범, 장 길봉을 비롯한 로동자들, 한 덕삼, 마 영기, 배 덕걸 등을 중심으로 한 신 구안동의 농민들, 배 명준, 박 일과 같은 선진 인테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선두에는 항일 투사—공산주의자 강 형진이 서 있다. 이들 긍정 인물과 대립하여 낡은 사회 제도를 유지하려고 발악하는 부정 인물의 계렬에는 지주 배 덕수와 그의 아들 배 명달, 배 덕수의 앞잡이 배 치순, 미제의 앞잡이로 고용된 배 명달의 졸개 서 상국, 악질 종교인 김 장로, 김 병선, 반당 종파 분자 최 일벽 등이 들어 있다.

작자는 이 두 집단 간의 적대적 대립 관계를 통하여 당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 및 애국적 력량과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 있는 미제의 힘에 의지하여 추악한 목숨을 연장해 보려고 발악하는 반동 세력 간의 적대적 모순과 투쟁을 반영하였으며, 반동 세력의 패망의 불가피성을 보여 주었다.

작자는 생활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인물들의 호상 관계를 정확하게 선정하였으며 계급 투쟁의 준엄성을 단순화하지 않았다. 작자는 개별적 인물들의 구체적 운명과의 통일 속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계급 관계와 그 투쟁의 합

법칙성을 설득력 있게 밝히였다. 같은 인테리 출신으로서 맑스-레닌주의의 진리와 인민의 힘을 믿고 혁명의 편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배 명준과, 두 정치 세력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대세를 관망하다가 끝내는 반동들의 손에 의하여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 온 장 인표, 그리고 빚에 몰려 지주 배 덕수의 첩으로 팔려 가서 불행한 생애를 마친 빈농의 딸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범죄의 소굴에서 한 걸음씩 광명의 세계에로 접근하고 있는 배 명희의 형상 등은 계급 투쟁의 복잡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작자는 이 형상들을 통하여 오직 진리를 믿고 인민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작품에서는 우국지사 배 덕현, 선진 인테리 배 명● 등 기본 계급 출신이 아닌 간부들을 아량 있고 너그럽게 대해 주는 강 형진의 형상을 통하여, 또한 농조와 국청 등 근로 단체의 조직 로선을 두고 벌어진 반당 종파 분자 최 일벽과의 투쟁 과정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우리 당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의 승리의 로정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강 형진의 형상은 작품의 기본 사상을 직접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 작품에 묘사된 기본 사건의 중심에 서서 혁명 력량을 묶어 세우고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

그는 일찌기 고향 땅에서 농민들의 소작 쟁의가 일어 났을 때부터 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투쟁 과정에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성원으로 된 투사이다. 그는 일제 경찰에 체포되여 형무소에서 형을 받고 있다가 8. 15 해방으로 출옥하자 지방의 혁명 력량을 묶어 세워 공산당을 조직하고 당원들의 일치한 의사에 의하여 군당 비서로 된다. 그는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이 제시한 로선을 충실히 집행하는 길에서 인민의 승리와 조국의 미래를 보며 오직 그 로선을 따라 투쟁을 지도해 나간다. 그는 이러한 혁명 투쟁 경험과 높은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주위 일'군들이 정치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범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 주며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 세우며 제기되는 복잡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작품은 그가 높은 정치적 식견과 소박한 인민적 품성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작자는 강 형진과 장 인표 간에 전개되는 론쟁을 우연히 듣고 느끼는 명희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웃방에서 벌어진 거창한 내용의 이야기가 자기의 연약한 가슴엔 무언지 모르게 무거운 압박감으로 육박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강 형진의 이야기에선 어덴지 모르게 조선의 굳건한 앞날이 내다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이란 바로 저런 사람들인가? 명희는 이 때까지 상종해 온 명준이에게선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한 철저성, 명확성, 그리고 놀라운만한 큰 힘을 강 형진의 이야기에서 느끼였다. 그러면서 막연하나마 한 나라의 운명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어깨 우에 놓여져야 하리란 생각도 들었다.》

확고한 계급적 립장과 혁명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넓은 도량과 명철한 지혜, 난관 앞에서의 불요 불굴성 등은 공산주의자—혁명 투사인 강 형진의 주요한 성격적 특성이다. 작품에서는 정치 일'군—혁명가로서의 강 형진의 형상을 각계 각층 인물과의 관계에서 아주 다면적으로, 개성이 뚜렷하고 생동하게 그리였다. 우리는 이 형상을 통하여 항일 투사—공산주의자들의 혁명가적 품성, 그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배우며 공산주의자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을 잘 알게 되며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한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가 달성한 또 하나의 성과는 계급적 원쑤들의 형상을 깊이 있게, 성격의 다양성을 통하여 그려 냈으며 그들의 리해 관계의 모

순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밝혀 낸데 있다. 작자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혁명적 견지에서 첨예한 계급 투쟁의 력사로 엮어지고 있는 당대 시기의 생활을 정확하게 고찰하고, 진정한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의 힘에 의하여 구축되는 낡은 세력들의 몰락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다.

모든 사실주의 문학은 그것이 생활의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불가피적으로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 사회의 계급적 모순과 투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에 있어서는 어떤 개별적 분야에서의 모순이나 투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 발전의 한 단계에서 진행된 계급 투쟁을 전면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소설을 구성하였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이것은 해방 후 우리 인민의 새 생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 작가들의 예술적 기량의 장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해방 후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의하여 지도된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은 보다 목적 의식적인 것으로 되였으며 각계 각층 호상간의 련계는 더욱 강화되고 그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작자는 이러한 생활 내용의 특징에 적응하게 작품을 구성하였으며 인민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사회 경제적 토대, 정치적 배후 관계, 사상 도덕적 본질과 풍모 등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인 묘사를 시도하였다.

작품은 우선 지주 배 덕수를 비롯한 해방 직후 정치 무대에 나타나서 어부지리를 탐내던 이른바 군내 유지들—금융 조합장 장 석근, 중학 기성회 회장 장 일수, 정미 업자 강 치덕, 사법 대서쟁이 장 광익, 보험 외교원 김 병설, 김 장로를 비롯한 악질 종교인 등의 형상을 통하여 반동 분자들의 계급적 본성과 정치적 동향을 진실하게 재현하였다. 작자는 이 자들의 교활한 성격과 비도덕적이며 비인간적인 행위, 그들이 인민과 리탈되고 인민 앞에 지은 죄과로 하여 응당한 심판을 받고 파멸의 구렁텅이에로 굴러 떨어지는 과정을 진실하게 묘사하였다. 동시에 소설은 이런 계급적 원쑤들이 그 어떤 처지에서나 제 스스로는 결코 착취와 압박의 《권리》를 버리려고 하지 않으며 호사스런 생활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발악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확인하고 있다.

배 덕수는 해방된 후에도 인민의 고혈을 빨아 먹고 살아 온 자기의 죄과를 뉘우칠 대신에 오히려 일본인 지주 나까무라의 토지 문서를 무상으로 넘겨받아 그 소작료까지 받아 먹으려고 음모를 꾸미며, 3. 7 제와 토지 개혁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반대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미제와 손을 잡는 데로 나아간다. 김 장로를 비롯한 악질 종교인들이 외래 침략 세력과 결탁하고 토착 지주들과 합세하여 감히 폭력으로 인민 정권을 파괴하려고 음모하여 나서는 데서도 반동 세력의 계급적 본성이 뚜렷이 표현되여 있다. 결국 이 자들은 공산당의 정확한 지도를 받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박멸되였으며 자기 상전 미제의 품으로 도망쳤다. 작품에 묘사된 계급 투쟁의 대하폭은 오직 단결된 투쟁에 의해서만, 수탈자에 대한 수탈에 의해서만 인민은 자기의 생활 상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자기의 진실한 사실주의적 화폭으로 나라의 주인이 된 인민의 정신적 면모와 그 무진장한 창조적 힘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이 창조한 마 영기, 한 덕삼, 장 길봉, 배 덕걸 등 수 많은 로동자, 농민 출신 인물들의 형상은 인민들이 착취와 압박의 기반에서 해방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계급적 원쑤에 대해서 비타협적이고 혁명성이 강하며 소박하고 의리에 밝은 공통적인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직 정치적 식견이 어리고 단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과오도

범하나 당의 올바른 지도와 교양에 의하여 그것을 제때에 시정하고 부단히 전진하며 세련된 일'군으로 급속히 장성한다. 그들의 리상과 포부는 무한히 높고 광활하다. 작가는 특히 꿈 많고 생기 발랄한 성격의 소유자들인 청년 마영기, 장 길봉을 비롯한 정치 강습소 강습생들의 생활을 매우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다. 첫 추위가 으르렁거리며 엄습해 온 설날 어느 날 밤에 3.7 제를 거부하고 은밀히 농민들에게서 소작료를 받아 들이고 있는 배 덕수의 흉책을 쳐부시기 위하여 투쟁에 나선 강습생들의 름름한 모습과 당당한 기상은 얼마나 믿음직한가!

《…그들은 찬바람이 씽씽 불어 가는 데도 귀와 볼편이 화끈화끈해서 힘이 북받쳐 노래를 부른다.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 들인다.

웅글은 합창 소리는 련속 강으로 퍼져 가고 있다…어둠이 잠긴 속에서 검은 강물이 몸부림하듯 뒤설렌다…

노래를 부르는 마 영기의 가슴은 찢기는 것 같이 아팠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글이글 서슬이 올랐다. 눈 앞엔 거창한 환상이 있다. 싸움이 벌어지고 온 천지에 붉은 기가 나붓긴다. 그 무엇이 이 판가리 싸움에 들어 선 화산 같은 심장을 막으랴! 엄숙하게 나가자. 비애도, 사랑도 넘어서 나가자! 마 영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우렁차게 울렸다.》

마 영기는 조국의 미래와 련결된 농촌 청년으로서 작가가 애정을 기울여 그려 낸 형상이다. 작품의 전체 구조로 볼 때에 마 영기는 강 형진과 함께 작품의 중심 위치에 서 있으며 등장 인물들 중에서 가장 미래가 내다 보이는 인물로, 따라서 제 2 부에 가서 더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인물로 설정되여 있다. 그는 결기 있고 정의감이 강하며 《홍 길동》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청년으로서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사상 정치적으로 단련되며 확고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토지 개혁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는 청년 간부로 자라 난다. 해방 전에 갈고치에서 머슴을 살다가 해방되자 인민 주권과 토지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한 덕삼의 형상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하나는 작가의 사상 정치적 립장과 진지한 현실 연구와 부단한 예술적 기량의 련마가 작품의 사상 예술적 성과를 규정하는 가장 주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가르친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힘있게 확증하였다는 점이다. 이 작품이 높은 사상 예술성을 지니게 된 것은 우선 작가가 우리의 현실을 열렬히 긍정하며 계급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부름에 해답을 주려는 정당한 사상 주제적 과업을 설정한 것과 관련되여 있다. 소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문학 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은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사상성을 떠난 순수한 예술성이란 있을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적 예술은 반드시 높은 사상성을 가져야 하며 인민에게 투쟁의 무기로서 복무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술성으로 더욱 강화여진 고상한 사상성—이것은 어떠한 예술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든지 유일하고 정당한 범주》(《선집 제 4 권, 1953년 판, 39 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예술 작품에서 작가가 제기한 사상 주제적 과업이 정치적으로 정당하고 보다 절박한 현실적 의의를 가질수록, 생활의 본질을 보다 진실하게 재현하면 할수록 그 만큼 예술성의 높이도 제고된다.

작가 천 세봉은 자기의 전 창작 과정을 통하여 사상 예술적으로 부단히 전진하고 있다. 중편 소설 《싸우는 마을 사람들》, 장편 소설 《석개울의 새 봄》, 《대하는 흐른다》 등은 그의 공통적인 작가적 개성을 뚜렷이 보여 주면서 동시에 각각 고유한 혁신적 성과를 첨부

하고 있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석개울의 새 봄》이 가지고 있는 3부작으로서의 구성 상 약점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위대한 영웅 서사시적 현실을 보다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인물들의 성격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언어적 표현 수단과 수법들을 솜씨 있게 구사하고 있다. 장편 소설은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자연 묘사에 있어서,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심오하게 추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는 형상 창조에서의 민족적 특성 구현 등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우리 문학의 전반적 발전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력사의 한 시대를 전체 포괄적으로 재현할 것을 사상 주제적 과업으로 제기한 다부작으로서 이제 제 1 부가 끝 났을 뿐이다. 따라서 어떤 인물들의 운명은 이미 끝이 났으나 많은 인물들의 성격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묘사되여 있으며, 어떤 문제는 이미 밝혀졌으나 또한 많은 사회 미학적 문제들은 앞으로 해명되여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우리는 작가가 나날이 장성하는 우리 인민의 미학적 요구에 수응하여 진지한 창조적 탐구를 경주함으로써 생활과 성격 발전의 론리에 충실하며 천리마 시대의 금자탑으로 남을 우수한 제 2 부, 제 3 부를 보여 주리라고 확신한다.

근 로 자 제 10 호 (루계 248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5월 17일 발 행 • 1964년 5월 20일

ㄱ—430315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호 6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제 11 호 (249)

1964년 6월 (상)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조선 혁명의 앞길을 밝힌 창조적 맑스-레닌주의 로작

총 6 권으로 된 김 일성 선집 제 2 판이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직속 당 력사 연구소 편찬으로 발간되고 있다.

선집 제 2 판의 4, 5, 6 권은 이미 발간되였으며 최근에는 처음으로 발표되는 적지 않은 로작들로 보충된 1, 2 권이 발간되였다.

김 일성 선집 제 2 판의 발간은 로동당원들과 조선 인민의 사상 생활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선집에는 조선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로동당이 제기한 로선과 정책들이 심오하게 천명되여 있으며 당 내외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에서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당이 쌓은 고귀한 경험들과 투쟁 업적들이 맑스-레닌주의 립장에서 전면적으로 분석 개괄되여 있다.

김 일성 선집은 조선 혁명에 이바지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과 사업의 지침으로 되고 있으며 또 되여야 한다.

김 일성 선집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조선 혁명의 실천에 능숙하게 적용하고 있는 조선 로동당의 리론적, 실천적 활동을 보여 주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 저서이다.

선집에 담겨 있는 로작들은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옳게 적용하며 그것을 어떻게 대중의 혁명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산 모범으로 된다.

리론에 대한 교조적 태도를 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현실에 대한 면밀한 타산에 기초하여 대담하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도를 강구하는 창조적 정신이 선집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선집에 수록된 로작들은 또한 맑스-레닌주의가 실생활에 옳게 구현되는 과정은 평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온갖 기회주의적 편향과의 원칙적이며 비타협적인 투쟁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온갖 반맑스주의 편향들을 견결히 반대하며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는 혁명적 정신이 선집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선집에서 1, 2 권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선집 1, 2 권에는 해방 직후부터 조국 해방 전쟁까지의 평화적 건설 시기의 주요 보고, 연설, 론설들이 수록되여 있다. 이 시기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고 북반부는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점차적으로 들어 서게 되였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에서 처음으로 근본적인 사회적 변혁이 시작되고 진척되였다.

이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 앞에 이 사회적 변혁을 령도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며 조선 혁명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리론적 해명을 주며 그 실천적 해결 방도를 강구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선집 1, 2 권은 바로 이러한 시기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선집 1, 2 권에서 김 일성 동지는 조선 혁명의 근본적 문제들과 우리 사회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고 있다.

이 중 많은 문제들이 김 일성 동지의 그 후 시기의 로작들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 발전되였다.

그러나 바로 선집 1, 2 권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초석은 이미 마련되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선집 1, 2 권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사상과 투쟁 경험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오늘의 정책과 로선을 심오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아래에 1, 2 권에서 천명된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서만 제기하려 한다.

1,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로선에 관한 문제

해방 후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정확한 혁명 로선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여 왔다.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며 나라의 세기적 락후성을 청산하고 번영과 륭성을 이룩하는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들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우리 당이 견지한 정확한 혁명 로선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락후한 식민지 농업국이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국으로 전변되였으며 나라의 국제적 위신이 높아지고 우리 민족이 일대 번영기에 처한 이 모든 것은 우리 당 혁명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증시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 우리 나라의 사회 형편과 정세 발전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이 나아갈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혔다.

《새 조선 건설과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는 조선 혁명의 성격과 로선이 천명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로선을 규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선집 제 1 권, 3 페지)들로부터 출발하였다.

첫째로, 《그것은 조선이 오래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상동)이며

둘째로, 《제 2 차 대전 후에조성된 유리한 국제 정세와 아울러 북위 38도를 계선으로 하여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 군대와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 군대가 남북에 진주하고 있는 사실》(선집 제 1 권, 4 페지)이였다.

장기간에 걸친 일제의 지배로 인하여 조선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심히 억제당하였으며 조선 사회는 봉건적 잔재를 다분히 가진 식민지 사회로 남아 있었다.

특히 조선 농촌에서는 봉건적 착취 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조선 혁명의 당면 과업으로 규정하였으며 혁명의 대상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려는 제국주의의 주구들, 그와 결탁한 봉건 세력이며 혁명의 동력은 로동 계급과 농민 대중, 그리고 애국적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 자본가들을 포괄한다고 명확히 해명하셨다. (선집 제 1 권, 7~9 페지 참조)

이와 같이 우리 혁명의 성격과 혁명의 대상 및 동력에 관한 문제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해방 직후에 과학적으로 해명된 것은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선집 1,2 권에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수행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가지는 일련의 중요한 특성들이 심오하게 개괄되여 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는 국내에 조성된 계급적 력량 관계와 나라의 사회 경제적 제 조건 그리고 유리한 국제적 환경 등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로동 계급의 확고한 령도 하에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였다.

해방 전에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 계급이 성장하고 가장 선진적 투사로서 민족 해방의 투쟁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1930 년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던 시기에 로동 계급은 조선 혁명의 령도 계급으로서 투쟁의 선두에 서 있었다.

조선의 자본가 계급은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조선 인민을 착취하고 압박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력량은 매우 미약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오직 로동 계급만이 조선 혁명을 령도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앞에 투항하고 그와 야합한 조선의 자본가 계급이 혁명을 령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영용하게 싸운 로동 계급만이 조선 혁명을 령도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령도하여야 한다.》(선집 제 1 권, 4 페지)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낡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보다 비할 바 없이 심각하고 그의 테두리를 훨씬 벗어 난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의 조선에는 미국이나 영국식 <민주주의>가 맞지 않는다. 서구라파의 <민주주의>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것을 채용한다면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외래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에는 조선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선집 제 1 권, 9～10 페지)

이것이 바로 김 일성 동지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 로선이다.

이것은 레닌의 계속 혁명에 관한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적합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을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하는 과정이였으며 민주 혁명의 철저한 수행은 곧 사회주의 혁명의 서막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혁명 로선은 순조롭게 관철된 것이 아니다.

해방 직후 《엠엘파》의 변종인 《장안파》 분자들은 민주 혁명 단계를 뛰여 넘어 즉시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화요파》인 박헌영 도당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방조》를 받아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황당하게 주장하였다.

이것들은 모두다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며 조선 혁명에 심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좌우경적 기회주의 견해들이였다.

우리 당의 혁명 로선은 이러한 각종 좌우경적 편향들을 극복하는 투쟁 속에서 실생활에 옮겨졌으며 혁명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 나갔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전망을 명확히 밝혔을뿐만 아니라 혁명을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정확한 전략적 로선,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통일 전선에 기초하여 북반부를 조선 혁명의 책원지로 전변시킬 데 대한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제기하였다.

민주 기지 로선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우리 혁명 발전에 복잡한 사태가 조성된 정세 하에서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혁명 승리를 위한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이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려는 창조적 방침이며 철저한 반제 로선이다.

해방 후 북반부에는 혁명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지어졌으나 남반부에서는 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이 심히 유린되고 억제되였다. 조선 인민은 통일된 력량으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조선과 남조선의 각이한 조건에서 혁명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북조선에서 혁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전반적으로 조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정치 로선은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과의 련합의 기초 우에서 우리 나라에 통일적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며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 기지로 전변시키는 것이다.》(선집 제 1 권, 26~27 페지)

《우리가 만일 북조선의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리용하지 못 한다면 남조선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토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북조선에서 당의 력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기지를 튼튼히 닦는다면 전 조선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선집 제 1 권, 81 페지)

북반부를 조선 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전변시키고 그를 공고히 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는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강화하고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각 계층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함으로써 북반부를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꾸리며 경제적으로는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우리 인민이 완전히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는 물질적 지반을 구축하며 군사적으로는 어떠한 침략자들의 침해로부터도 조국을 수호할 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차 세계 대전 직후 세계 일부 나라들에서는 미제에 대한 환상이 이러저러하게 조성되여 있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박 헌영 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마치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조선 혁명의 원조자인듯이 선전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을 명철하게 간파하고 그에 대처하여 북반부를 최단 기간 내에 튼튼한 반제 력량으로 꾸리며 조선 혁명의 근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조선 인민은 날이 가면 갈수록, 혁명이 더욱 심화 발전되고 그 종국적 승리가 가까와지면 질수록 해방 직후에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제기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시킨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통찰력과 혁명성에 대하여 더욱더 생각하게 된다.

민주 기지 로선의 정당성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 의하여 완전히 확증되였다.

우리 당이 제때에 민주 기지를 창설

하고 그것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공고히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3년 간에 걸친 가렬한 전쟁에서 미제를 비롯한 16개국 무력 침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할 수 있었다.

조선 인민은 전 세계 인민들의 국제적 성원을 받으면서 자체의 강력한 민주 기지에 의거함으로써만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로 민주 기지 로선은 조선 혁명의 승리적 추진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다.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해방 직후부터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당이 창건되고 그의 유일적 지도가 확립되였으며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이 실시된 결과 북반부를 민주 기지로 전변시키는 정치 경제적 기초가 축성되였다.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제 관계를 혁명적으로 청산한 민주 개혁의 승리적 수행은 북반부를 조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구원하는 강력한 기지로 전변시키였다.

김 일성 동지는 새 조국 건설의 첫날부터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에 심중한 관심을 돌렸으며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사업을 혁명 수행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제기하였다.

선집 1 권에 수록된《새 조선 건설과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하여》,《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 위원회를 결성할 데 대하여》, 제 2 권에 수록된《우리 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등 일련의 로작들에는 통일 전선 운동에 대한 당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천명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 로작들에서 통일 전선을 강화할 필요성과 민주 정당들과 통일 전선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밝혔으며 통일 전선 내에서 우리 당이 고수하여야 할 원칙들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화 정책을 분쇄하고 전 조선을 완전히 해방하며 통일적인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함에 있어서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 각 당, 각 파와 련합하여 광대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전술 방침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가능한 일체의 동맹자를 쟁취하고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켜 격파하는 혁명적 방침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이 민주 정당들과 련합할 수 있는 기초는 그들이 외래 제국주의의 압박을 반대하고 부강한 조선을 건설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고 있으며 조국의 완전 독립과 민주주의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 있다고 가르쳤다. (선집 제 2 권, 38~43 페지 참조)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은 통일 전선 내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과 우리 당의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통일 전선의 기본 핵심인 로농 동맹을 강화하며 그 기초 우에서 일체 반제 반봉건적 애국 력량을 집결시키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통일 전선 사업에서 자기의 독자성을 절대로 잃지 말고 항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추미주의적 경향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할 것이다.》(선집 제 1 권, 193 페지) 《지금 우리가 통일 전선을 튼튼히 형성하려면 우선 로동자와 농민들의 동맹을 강화하여야 하며 광범한 농민들을 우리 편에 쟁취하여야 한다.》(선집 제 1 권, 8 페지)

김 일성 동지는 또한 민족 자본가들을 포함한 광범한 계층들과 련합을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 단결하는 동시에 투쟁하는 원칙》(선집 제 1 권, 6~7 페지)을 견지하는 것이며 특히 당이 통일 전선 사업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거든 여하한 조건 하에서도 일제의 주구들과 결코 통일 전선을 형성하지 말아야 하며 적아를 옳게 분변하고 대중이 발동되여 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군중 공작을 능숙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은 통일 전선 운동에서 좌우경적 편향을 엄격히 경계하였다. 당은 《대동 단결》을 제창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주구들과의 련합을 주장하는 우경적 경향과 로동 계급은 오직 농촌의 고농, 빈농과만 동맹하여야 한다는 좌경적 경향을 철저히 배격하였다.

우리 당이 제때에 통일 전선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그것을 훌륭히 해결한 결과 기백만 대중이 우리 당의 주위에 집결되였으며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민주주의 력량의 공고한 단결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혁명 력량을 확대 강화하고 적대 세력을 고립시키게 하였으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개조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밑천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의 빛나는 승리는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이 로동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되여 당이 제기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를 조선 혁명의 강력한 보루로 전변시켰으며 인민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과 단결이 강화된 데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공화국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 기지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으며 이 기지에 의거하여 혁명을 계속 급속히 추진시키고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이 제시한 혁명 로선을 따라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로선에 확고히 의거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 맑스-레닌주의 당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관한 문제

선집에 수록된 《북조선 로동당 제 2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는 당 창건에 관한 방침이 천명되고 있으며 우리 당이 대중적 당으로 급속히 강화 발전된 행정이 전면적으로 개괄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창건 방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 건설에 관한 레닌적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특성과 해방 직후에 조성되였던 혁명 정세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장기간에 걸친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당의 혁명 전통이 이룩되였으며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가 확고히 이루어

졌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령도 핵심이 형성되고 그 주위에 공산주의 대렬이 튼튼히 결속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혁명 로선이 수립되였다. 당 창건을 위한 튼튼한 대중적 지반도 축성되였다.

8.15 해방은 조선 혁명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해방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을 선두로 하는 혁명 력량과 미제와 그에 추종하여 나선 반혁명 력량 간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로동 계급의 맑스-레닌주의적 당을 지체 없이 창건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데 혁명의 운명이 달린 그러한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당 창건을 위한 사업에는 헤아릴 수 없는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미제와 국내 반동들은 자기의 주되는 포화를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로 돌렸으며 또한 반당 종파 분자들이 공산주의 운동과 근로 대중을 사분오렬케 하려고 날뛰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복잡한 정세하에서 당을 창건하고 혁명 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북조선 각지에 산만하게 조직되였던 지방의 당 단체들을 결속하여 북조선의 모든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 맞게 당의 정치 로선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유력한 중앙 지도 기관을 북조선에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선집 제 2 권, 151 페지)고 인정하였다.

지방 당 조직들을 결속하고 그에 대한 유일적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 방법으로 통일적 당을 창건하는 것은 우리 당 령도 핵심의 주위에 공산주의 대렬을 급속히 집결시키며 당의 분렬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원칙을 철저히 확립하는 가장 빠른 길이였다.

또한 당 중앙 지도 기관을 북조선에 두는 것은 북조선의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당의 력량을 확대하고 혁명적 민주 기지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전국의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였다.

이리 하여 1945년 10월 10일,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령도 핵심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 때부터 우리 당은 통일적이며 건전한 맑스-레닌주의적 당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선집 제 4 권, 525 페지)

해방 후 2 개월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통일적인 당을 창건한 것은 우리 혁명의 진로를 과학적으로 예견한 현명한 조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로동당 제 2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우리가 종파쟁이들이 주장하던 대로 그 때에 조직 위원회를 창설하지 않고 서울만 쳐다 보면서 각 지방의 분산된 당 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북조선의 형편이 어떻게 되였을 것이며 우리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을 것인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당은 오늘과 같은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기는 고사하고 종파 분자들의 손에 롱락되여 사분오렬되였을 것이며 북조선에서 민주주의적 개혁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 하였을 것이며 북조선에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한 튼튼한 민주주의적 근거지를 창설하지 못 하였을 것이다.》(선집 제 2 권, 153 페지)

통일적 당이 창건된 새로운 조건에서 우리 당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된 것은 당의 통일과 규률을 강화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간부들을 양성하고 당의 력량을 배치하는 사업을 개선하는 것 등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 3 차 확대 집행 위원회에서 한 보고 《북조선 공산당 각급 당 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와 결론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에서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당의 정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당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당을 로동 계급 속에 깊이 뿌리 박게 하며 당의 규률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해결 대책들을 제시하였으며 당 간부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릴 것을 강조하였다:

《제 3 차 확대 집행 위원회는 우리 당이 창건된 후 처음으로 당 사업과 당 생활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이 때부터 비로소 우리 당이 진실로 건전하고 강력한 당으로 발전하게 되였다.》(선집 제 2 권, 155 폐지)

김 일성 동지는 당 조직이 공고화되고 근로 대중이 당을 열렬히 지지하게 됨에 따라 사회의 진보와 국가 정치 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상응하게 우리 당을 더욱 광범한 토대를 가진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을 강력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근로 대중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제고하여 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키는 가장 정당한 조치였다.

《근로 대중의 통일적 당의 창건을 위하여》, 《북조선 로동당 창립 대회의 총화에 관하여》, 《로동당의 창립과 당면한 과업》 등 일련의 저작들에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동이 필연적이고 가장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론증되였으며 대중적 당으로서의 로동당 건설의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공산당과 신민당은 조선 근로 대중의 절실한 요구의 관철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과 과업을 가진 두 당의 합동은 필연적이다》(선집 제 1 권, 177 폐지)라고 지적하였다.

근로 대중의 대중적 정당으로의 발전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우리 당 조직 로선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의미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민주 개혁이 실시되고 공산주의적 력량이 장성하였으며 로동 계급 속에서 수 많은 당 간부들이 육성되여 당의 기본 핵심이 튼튼히 꾸며진 기초 우에서 적시에 대중적 정당 조직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정확한 지도를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또한 우리 당을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조선의 농민 대중과 근로 인테리들의 특성과 해방 후 그들의 처지에서 일어 난 근본적 변화를 면밀히 타산하였다.

과거 장기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가장 야만적인 착취와 억압을 받아 온 조선의 로동 계급, 농민은 혁명성이 비상히 강하였으며 민족적 멸시를 당하여 온 인테리들은 진보적이였다.

농민과 절대 다수의 인테리들은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에서 로동 계급과 더불어 일치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더우기 북조선에서 위대한 민주주의적 개혁들이 실시된 결과 로동 계급과 농민, 근로 인테리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들의 리해 관계가 더욱 더 일치하게 되였으며 그들 간의 정치 경제적 동맹이 가일층 공고한 것으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중적 당으로의 발전은 필연적이며 가장 적절한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로동 계급과 농민, 근로 인테리들의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며 광범한 근로 대중을 국가 정치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의 공통적인 리익을 대표하는 대중적 정당이 필요하게 되였다.》(선집 제 2 권, 156 폐지)

우리 당은 일부 사람들이 당을 《소자

산 계급화》한다고 보는 그릇된 견해를 단호히 물리치고 1946년 8월 28일에 신민당과 합당하여 조선 근로 대중의 유일한 대중적 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하였다.

우리 당의 로동당으로의 발전은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의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결속시키고 민주 력량을 확대 강화하며 민주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졌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이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한 조건에서 당을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 건설의 원칙과 방도를 창조적으로 작성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당 핵심을 육성하고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할 데 대한 문제들이다.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우리 당 건설에서 실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종파 도당들이 당 내에 잠입하여 책동하고 있었으며 단련된 간부들이 부족하고 당원들의 정치적 수준이 낮았던 사정과 관련되여 있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종파주의, 지방 할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 당이 창건된 그 때부터 첫 자리를 차지하였다.

《종파주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와해시키며 로동 운동을 파괴하는 해독적인 사상이다.》(선집 제 1 권, 88 페지)

김 일성 동지는 일련의 로작들에서 종파주의, 지방 할거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폭로 비판하면서 전 당에 엄격한 중앙 집권적 규률을 확립하고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며 종파주의, 지방주의, 자유주의 등 비프로레타리아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지도 밑에 자기의 혁명적 대오를 철석 같이 꾸리기 위한 투쟁을 끊임 없이 전개하였으며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주저 없이 종파주의의 발현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우리 당은 이 방침에 확고히 의거하여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집요하게 당을 반대하여 나선 《엠엘파》, 《화요파》를 비롯한 종파 분자들을 대중적 투쟁을 통하여 철저히 청산하였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는 데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장구한 기간 우리 나라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 온 종파주의는 1958년 우리 당 제 1 차 대표자회를 계기로 완전히 청산되였으며 전 당이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튼튼히 결속되고 전체 당원들이 당 중앙 위원회와 같이 숨 쉬고 움직이며 생각하는 당'적 사상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인 위업이 달성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 내에서 반당 종파 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견결한 투쟁과 거기에서 달성한 거대한 승리, 이것이 바로 가혹한 전쟁의 시기에도, 전후 복구 건설의 시기에도 우리 당이 수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넘고 우리 인민을 령도하여 확고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 결정적 담보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 핵심을 육성하고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 당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제기하였다.

우리 당이 대중적 정당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행정에서 아직 공산주의자로 준비되지 못한 수 많은 선진적 근로자들이 당 대렬에 들어 오게 되였다.

우리의 혁명 과업은 광범한 근로 대중의 선진 분자들을 당의 대오에 망라시켜 교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우리 당은 그들을 받아 들여 능히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있었다.

당 핵심을 육성할 데 대한 문제는 전체 당원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 육성함에 있어서 제기된 중요한 방침이다.

물론 맑스-레닌주의당은 그 자체가 로동 계급의 핵심적 부대이다. 그러나 당원들의 수준 상 차이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보다 준비된 당원들이 지도적,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더우기 우리 당처럼 당원들의 구성 성분이 복잡하고 한 세포 내에서도 그들의 수준이 가이한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1948년 1월에 있은 북조선 로동당 평안 남도 순천군 당 대표회에서 당 핵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당의 적극 분자들로써 매개 세포의 핵심을 꾸리고 핵심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그들이 자기의 실지 모범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의 정치 사상 의식과 당'적 각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야 하겠다…그리 하여 각 세포의 핵심이 세포 사업을 개선하며 전체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제고하는 데서 주동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선집 제 2 권, 36 페지)

전체 당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열렬한 공산주의 혁명 투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당 핵심을 육성하고 그의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그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당원들의 정치, 조직 생활의 기초인 세포 생활을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건전한 세포 생활이 없이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할 수 없으며 당 내의 사상적, 정치적 단결을 보장할 수 없다.》(선집 제 1 권, 360 페지)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있고 국내에서 치열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조건 하에서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 특히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로동당 제 2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 사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인민에게 과거와 현재의 우리 나라 형편과 사회적 계급 관계를 옳게 인식시켜 그들의 계급 의식을 고취하며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정치적 경각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선집 제 2 권, 169 페지)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 계급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이 교시는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주력 부대가 계급 투쟁을 체험하지 못한 새 세대들에 의하여 점차 교체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 더욱 큰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이 대중적 당으로 발전하는 행정에서 우리 당 앞에는 또한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할 데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당 대렬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당 내에 들어 온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군중 공작에서 일제의 잔재인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사업 작풍을 발로시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초기의

로작인 《북조선 공산당 각급 당 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많은 문헌들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사업 작풍의 반인민적 본질을 분석하면서 전체 당원들이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적 사업 작풍을 체득할 것을 간곡히 교시하고 있다.

《우리는 군중에게 명령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설하여 주며 군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심정을 료해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서 배우며 군중의 벗이 되고 군중과 한 덩어리가 되여 그들을 목적 달성의 길로 이끌고 나아가는 사업 방법을 체득하여야 하겠다.》 (선집 제 2 권, 162 페지)

당 창건 초기부터 그렇게도 중요하게 강조된 이 교시들은 우리 당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업 작풍과 군중 공작 방법을 개선하고 이미 1930 년대에 확립된 혁명적 사업 방법과 작풍을 전 당에 확립하며 당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케 하는 강령적 지침으로 되였다.

선집 1,2 권에는 또한 당의 인전대인 민청, 직맹 등 사회 단체들을 조선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천명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부합되게 청년 운동의 발전 방향과 그 조직 형태를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한 것은 청년 운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청년 대중을 당 주위에 집결시키며 그들을 새 사회의 건설자로 교양 육성하는 가장 정당한 조치였다.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길을 따라 부단히 발전하여 왔다.

오늘에 와서 우리 나라의 변화된 현실과 청년 운동 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청이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된 것은 이 운동이 더욱 높은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지도 하에 우리 당이 취한 조직 로선은 실생활을 통하여 그의 정당성이 유감 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은 국내외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과 어려운 혁명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에서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강대한 당으로 자라 났다.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반석 같이 강화되고 전 당에 당'적 사상 체계와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당원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훨씬 제고되였다.

당내 핵심 진지가 공고화되고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높아졌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하여졌다.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1930 년대에 확립된 혁명적 사업 방법과 작풍이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구현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전 당에 일반화되였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풍파와 난관 속에서도 조선 인민을 확고하게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는 강유력한 맑스-레닌주의 당을 가지게 되였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3. 인민 정권에 관한 문제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 정권의 수립 및 공고 발전에 관한 문제는 선집 1,2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조선 인민 앞에는 낡은 통치 기구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가장 적합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의 리익을 대표할 수 있는 새 형태의 정권 기관을 수립하는 것이 혁명 수행을 위한 첫째가는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인민 혁명 정부 수립 경험과 해방 후 조선 인민의 정권 수립을 위한 창조적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기초하여 인민 위원회를 바로 이러한 새 형태의 정권 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이 인민 위원회를 조선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고 그들의 리익을 대표할 수 있는 새 형태의 정권 형태로 규정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것은 인민 위원회야말로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 자신의 손으로 수립된 정권이며, 조선 인민의 원쑤인 친일파, 민족 반역자, 지주 및 예속 자본가들을 반대하고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 대중과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권이며,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인민의 요구에 가장 민첩하게 수응하며 인민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정권 기관이며, 낡은 부르죠아 사회의 〈의회적 민주주의〉 정권 형태인 것이 아니라 악독한 일제 통치의 억압적 국가 기구가 소탕된 자리에 발생한 전혀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권 형태이며, 앞으로 우리 인민을 자유롭고 행복하고 부유한, 더욱 고상한 민주주의 사회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 형태의 정권이기 때문이다.》(선집 제 2 권, 137 페지)

해방 후 전국 각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 난 인민 정권 창설 운동은 우리 인민이 인민 위원회를 자기들의 진정한 정권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었다.

조선 인민이 자진하여 선택하였으며 그들의 창의에 의하여 그들 자신의 손으로 창설한 북조선의 각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해방 후 혼란된 정세를 수습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인민 위원회는 창설된 지 불과 수 개월도 못 되는 기간에 자체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었으며 인민 대중 속에서 높은 권위와 신망을 얻었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는 남반부 인민들이 창설한 인민 위원회들을 탄압하고 해산시켰으며 조선 인민이 일치하게 지향하는 통일적 림시 정부 수립 문제도 실현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나섰다.

김 일성 동지는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북반부에서 만이라도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지방 인민 위원회들을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중앙 지도 기관을 창설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2월 8일에 통일적인 중앙 정권 기관으로서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창설됨으로써 조선 인민은 력사 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혁명적 주권을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각계 각층의 애국적 력량을 망라한 정권이였으며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할 것을 자기 과업으로 삼은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권이였다.

이 인민 정권의 혁명적 성격과 그 기본 과업들은 〈20 개조 정강〉에 명백히 표현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20 개조 정강》을 북조선에서 구현하며 제반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철저히 수행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세력을 숙청하며 력사적인 토지 개혁을 수행하고 중요 산업 기관들을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켰으며 로동 법령, 남녀 평등권 법령, 농업 현물세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사법 및 교육 기관들의 민주화를 단행하였다.

민주 개혁이 실시된 결과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였고 조국 통일의 기초로 될 민주 기지가 창설 되였으며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이루어 졌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수행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하여 사회주의 혁명에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 혁명 과업이 철저히 수행된 이후에 와서는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며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로 이행할 데 대한 문제가 일정에 제기되였으며 인민 정권을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으로 발전시킬 것이 요구되였다.

1947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인민 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정권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더욱 강화 발전된 인민 민주주의적 정권 기관으로서 우리의 혁명적 과업들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강한 투쟁을 계속 전개하는 한편 북조선에서의 민주 개혁의 성과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 가는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선집 제4 권, 447 페지)

보다 공고 발전된 정권으로서의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민주 개혁에서 얻은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고 완전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기본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부흥기의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러나 남반부에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더욱 로골화되고 괴뢰 단독 정부를 조작하기 위한 음모가 꾸며진 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는 복잡하고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 분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결정적인 구국 대책으로서 전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중앙 정부를 창건할 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조선 인민들의 총선거가 실시되였고 1948년 9월 9일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으며 우리 혁명 발전에서 획기적 단계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강》에서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과 그 기본 임무를 전면적으로 천명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공화국 정부는 우선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일제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숙청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또한 국내의 모든 자원을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도록 유일한 인민 경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 경제와 문화를 적극 발전시켰으며 민족 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였다.

이와 같이 공화국 정부는 인민의 원쑤들을 진압하고 인민 대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하였으며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공화국 정권이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각계 각층 인민의 통일 전선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것이 그 어떤 《중간 독재》가 아니라 바로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이라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독재도 로동자, 농민 기타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혁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이다. 우리 정권은 본질 상 프로레타리아 독재이지 결코 다른 어떤 중간 독재로 될 수 없다.》(《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3 페지)

공화국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본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피압박 민족의 해방 투쟁과 자본주의 나라 근로 인민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선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히 하고 평등한 립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정상적인 국가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여 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고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식민지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적 대외 정책은 우리 조국의 국제적 위신을 비상히 제고시켰다.

김 일성 동지는 특히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더욱 충직하자》에서 유고슬라비아의 짜또 수정주의 도당을 규탄하면서 국제 혁명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여기에서 또한 **《민주 진영의 력량이 강하고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이 아무리 평화를 념원한다 하여도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잘 조직 전개하지 못 하면 평화를 수호해 낼 수 없다.》**(선집 제 2 권, 362~363 페지)고 지적하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평화를 위한 투쟁과 반제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이 정연하게 천명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우리 당의 인민 정권 로선이 정확하였으며 인민 정권을 제때에 창설하고 강화 발전시킨 당의 조치가 정당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민 정권은 혁명의 모든 발전 단계들에서 자기 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였으며 오늘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당의 위력한 무기로,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기치로 되였다.

4, 인민 무력에 관한 문제

인민 무력의 창건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혁명 로선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해방 후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임무의 하나였다.

혁명 투쟁에서 무력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조선 혁명에서 이것은 해방 전후를 통하여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해방 후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특수성은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수호하며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 인민이 자신의 강력한 무장력을 가질 것을 긴박하게 요구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부터 인민 무력을 창건하는 사업을 직접 조직 지도하면서 무력 건설의 명확한 방침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선집 1, 2 권에는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애국 전통을 계승하여 인민 무력을 창건할 데 대한, 인민 군대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조선 인민 자신의 힘으로 현대적 정규군을 육성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들이 천명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군 창건에 제하여》에서 인민 군대를 창건하는 목적은 조국의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 독립을 더욱 추진하며 북조선의 민주 기지와 민주 개혁의 성과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북조선 인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혁명 전통과 무력 건설의 고귀한 경험은 해방 후 인민군 창건의 튼튼한 기초로 되였다.

이리 하여 해방 후 조선 인민은 인민 무력 건설에서 혁명 군대, 맑스-레닌주의 군대의 전통과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군의 창건이 항일 유격대의 정규군으로의 확대 발전을 의미한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인민 군대는 민주 조선의 정규 군대로서 비록 오늘 창건되기는 하지마는 실지로는 오랜 력사적 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 유격 투쟁의 혁명 전통과 고귀한 투쟁 경험과 불굴의 애국 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이다.》(선집 제 2 권, 78~79 페지)

인민 군대는 항일 유격 투쟁에 참가한 애국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그의 혁명적 애국 전통과 투쟁 경험을 토대로 하여 건설되였다.

우리 당은 장기간의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항일 빨찌산들을 골간으로 하여 인민군을 조직함으로써 군대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간부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하였다.

인민 군대는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인 애국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강력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육성되였으며 인민의 리익에 무한히 충실하며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되였다.

혁명 전통의 계승은 인민군을 맑스-레닌주의 군대로, 혁명적 무장력으로 창건 육성할 수 있게 한 정당한 방침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 군대의 계급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오늘 우리가 창건하는 군대는 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 아들딸들로써 조직되였으며 조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인민 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다.》(선집 제 2 권, 77~78 페지)

인민 군대는 자체의 계급적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군민 간에 있어서나 관병 간에 있어서 대립이 있을 수 없으며 투쟁 목적과 리해 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불패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군민 일치, 관병 일치는 로동 계급의 군대인 인민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인민군 건설에서 첫째가는 문제로 나선 것은 그를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군대 내에서 정치

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전체 군인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확고한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릴 것을 지적하였다.

자기 사명의 정당성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군대, 투쟁 목적을 옳게 리해하고 자각적인 규률로 무장한 군대—이러한 군대는 필승 불패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우리는 군대 내에서 혁명 선배들의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을 본 받으며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단결하는 정신과 용감하고 솔선 실행하는 기풍을 배양하며 강철 같은 규률을 확립하기 위하여 군무자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도록 하여야 하겠다》(선집 제 2 권, 80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인민 군대를 철저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건설 육성할 데 대한 방침은 김 일성 동지의 무력 건설 방침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강대한 무장력을 가진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전략 전술 상으로나 군사 기술 상으로 가장 우수한 군대를 육성》(선집 제 1 권, 374 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당은 인민군을 선진 군사 과학과 최신 기술로 무장시키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해방 후 현대적인 정규군을 건설하는 사업에는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가로 놓여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현대적 무력 창건의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남이 도와 줄 것만을 바라고 있을 수 없으며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어데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자신의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인민은…어느 누가 우리를 독립시켜 주고 우리의 군대를 조직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조선 인민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군대를 조직하여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 조국의 창건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선집 제 2 권, 75 페지)

이 원칙은 우리 인민에게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 정규군을 건설할 수 있고 또 건설해야 한다는 신심과 각오를 가지게 하였으며 전 당과 전체 인민이 건군 사업에 온갖 지혜와 힘과 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이상과 같은 인민 무력 창건의 방침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준비된 군사 강령을 구체화한 것이며 맑스-레닌주의 군사 리론의 창조적 적용으로 된다.

이 방침은 우리 당의 군사 로선의 확고한 기초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 국방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지도적 지침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군사 로선의 정당성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실증되였으며 오늘 우리 인민이 불패의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게 된 데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 로선의 불패의 생활력은 앞으로 우리 혁명의 승리적인 전진 과정에서 더욱더 명백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군사 문제를 혁명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에서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취하여진 이 모든 조치들, 인민 군대의 간부 군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 전국의 요새화, 국방 공업의 기일층의 발전, 인민 군대 내 계급 교양 사업의 강

화 등은 우리 당의 혁명적 무력 건설 방침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혁명의 군사적 지반은 반석같이 굳어졌다. 전국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무장력은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 발전되였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당의 무력 건설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하고 우리 혁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사회주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고수하여 나아갈 것이다.

5,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관한 문제

선집에 수록된 이면의 저작들에는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자력 갱생의 원칙과 그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바쳐진 김 일성 동지의 리론적 및 실천적 활동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이 걸어 온 력사의 려·로정은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하여 온 로정이다.

우리 당은 벌써 해방 초기에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주요한 투쟁 원칙과 방도로 제기하였다.

새 사회를 건설하는 길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는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이 일찌기 천명되였고 그것이 시종일관 확고히 관철되여 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자력 갱생—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 기풍이며 철저한 혁명 정신이다.

이것은 자기의 혁명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며 자기의 힘으로 낡은 사회를 전복하고 새 사회를 창조하려는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립장이다.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한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해방 후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령역에서 투쟁의 지침으로 삼았으며 모든 것을 이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하여 왔다.

특히 해방 직후에 김 일성 동지가 자력 갱생의 투쟁 구호를 제기한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해방된 조선 인민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 것은 우리 민족이 남만 못지 않은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민족적 긍지와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며 자기 손으로 제 나라를 능히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굳은 자신심을 가지는 것이였다.

새 조국 창건의 위업은 오직 이런 긍지와 신심을 가진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 고상한 애국적 열의, 만난을 극복하는 백절불굴의 인내력, 파고 드는 탐구력과 창발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선집 제 2 권, 3 페지)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투에서도 승리에 대한 신심이 없는 군대는 패전하며 사기가 왕성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군대는 반드시 적을 타승하게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혁명 투쟁이나 경제 건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 대중이 자기의 힘을 자각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는 것이다.》(선집 제 2 권, 31 페지)

특히 김 일성 동지는 강계군 각 정당, 사회 단체 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 《우리는 이 해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서 조선 인민은 일제의 혹독한 박해와 압박 밑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력사와 민족의 슬기를 고이 간직한 우수한 민족이며 어떠한 침략자

도 다시는 우리 민족을 정복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독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강하고 선진적인 민주 조선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해방 초기에 김 일성 동지는 또한 자력 갱생의 정신을 발양한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고 난관이 많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전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 내며 부족한 것을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선집 제 1 권, 260 페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발기되고 강력히 전개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은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을 국가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대책이였다.

이리 하여 자력 갱생의 기치는 해방 직후부터 우리 인민을 혁명의 승리에로 이끄는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로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로선에 명백히 구현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은 모든 내부적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인민 경제를 더욱 빨리, 더욱 훌륭히 발전시키려는 로선이며, 혁명과 건설을 가장 급속히 추진시키려는 로선이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 각별히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자립적 경제를 건설함이 없이는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독립 국가 인민으로서의 경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었으며 국제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실현할 수도 없었다.

선집 제 1 권, 제 2 권은 바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이 해방 직후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어떻게 제기되였으며 투쟁의 첫 시기에 그것이 어떤 구체적 조건 하에서 실현되여 나갔으며 우리 인민이 어떤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는가 하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는 첫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관한 문제를 혁명 승리를 위한 기본 문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주주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 자립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자면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자립적 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 수 없고 건국도 할 수 없고 또한 살아 갈 수도 없는 것이다.»(선집 제 1 권, 317 페지)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것은 경제와 문화의 심한 락후성, 민족 간부와 경제 건설 경험의 결핍, 자재와 원료, 자금의 부족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치렬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이 과업을 해결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선집 1, 2 권에는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하여 명백한 투쟁 방향과 현실적인 투쟁 목표를 제시하고 강력한 조직 지도 사업과 사상 교양 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확신성 있게 인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이 론증되고 있다.

우리 당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들을 철저히 해결함으로써 봉건주의의 잔재와 식민지적 예속의 경제적 지반을 허물고 공업과 농업이 유기적 련계 밑에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을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과 결합시켜 강력히 추진시켰다.

당은 우선 온갖 내부 력량을 남김 없이 동원 리용하여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퇴치하는 데 주력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북조선 로동당 제 2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와《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비롯한 수 많은 저작들에서 당의 경제 정책을 천명하였으며 부흥기의 난관과 그의 극복 방도를 구명하고 있다.

민족 경제의 부흥 발전을 위한 과업을 제시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기본은 중요 산업 부문들과 철도, 운수, 체신, 대외 무역,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계획적 관리를 보장하며 인민 경제의 발전에서 국영 부문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협동 조합 부문과 개인 경리 부문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선집 제 2 권, 113~144 페지 참조)

선집 1,2 권에는 부흥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던 민족 기술 간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당이 취한 조치들이 포괄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현재 우리의 민주 건설 사업에서 모든 문제의 초점은 결국 인재 문제이다. …특별히 기술 인재에 있어서 그러하다. 만일 우리가 민족 간부를 속한 기간 내에 양성하지 못 한다면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선집 제 1 권, 267~268 페지)라고 강조하고 기술 간부 문제를 대담하게 창조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기술 인재에 대한 현실적 수요와 전망적 수요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한 방면으로는 대학과 기술 전문 학교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다른 방면으로는 생산 현장에서와 각종 강습 체계를 통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기술자, 전문가들을 길러 내는 데 최대의 힘을 기울였다.

김 일성 동지는《국영 기업의 계획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1947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관하여》,《2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수행은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등에서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국영 공업의 계획적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한 우리 당의 경험을 개괄하고 있다.

이 문헌들에는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과 가능성이 심오하게 론증되고 경제의 계획적 관리 운영 원칙과 그 방도가 밝혀져 있으며 계획 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과업들이 명시되고 있다.

북반부에서는 해방 후 불과 1 년 5 개월의 짧은 정리 수습의 시기를 경과한 후 1947년부터 우리 인민의 력사 상 처음으로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에 들어 섰다. 1947년과 1948년에는 단일 년도 계획이 수행되였으며 그 다음에는 1949~1950년 2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이 작성되였다.

전쟁 전 계획들은 공장들을 급속히 복구하고 경제 발전의 속도를 높이며《…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함으로써 자주적인 민족 경제의 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용 필수품들을 많이 생산할 것을 예견하였다.》(선집 제 2 권, 333 페지)

선집 1,2 권에는 이 시기에 우리 당이 진행한 다양한 활동과 우리 인민이 전개한 창조적 투쟁이 전면적으로 담겨져 있다.

우리 당은 전 당을 발동시켜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사상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증산과 절약, 기술 습득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여 첫 계획들의 승리적 수행을 보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민 경제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는 분야에서 일련의 성과가 달성되였다.

1946년 공업 생산을 100으로 할 때 1947년에는 153.3, 1948년에는 217.9, 1949년에는 336.7로 장성하였으며 1949년에 알곡 생산은 1944년에 비하여 109.8%로 장성하였다.

특히 과거에 거의 없던 기계 공업과 경공업은 1949년에 일제 시대의 최고 수준을 각각 246.9%, 152.7%로 현저히 초과하였다.

첫 인민 경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사회주의 경제 부문의 지배적 역할과 로동 계급의 령도적 지위가 강화되였으며 혁명적 민주 기지가 일층 공고화되였다.

우리 당은 이 행정에서 더욱 단련되고 경제 건설을 정확히 지도할 줄 아는 당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다른 민족에 못지 않게 자기 나라를 제 손으로 훌륭히 건설할 수 있다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다.

이리 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길을 따라 더욱 힘 있게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지도 밑에 우리 당은 조국 해방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도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그의 준비를 계속하였으며 전후 시기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전후 경제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기본 로선은 해방 직후에 천명된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방침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그의 관철은 나라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관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는 열'쇠로 되였다.

당의 정확한 령도와 우리 인민의 비상한 로력적 열의가 결합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3 개년 계획 기간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기본적으로 축성되였으며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그것이 튼튼히 다져졌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에 우리 당이 천명하였고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자력 갱생의 원칙과 그에 기초한 자립적 경제 건설의 로선이 우리 나라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짧은 기간에 낡은 사회에서 넘겨 받은 락후성을 청산하고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킬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유족하게 만들 수 있는 자체의 공고한 경제적 지반을 닦을 수 있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성과적 건설은 북반부 민주 기지를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 축성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는 우리 당이 조선 혁명의 수도권을 장악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불멸의 지반으로 되고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형제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적 분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였다.

생활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이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일 뿐만 아니라 혁명 투쟁에서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정확히 결합시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견지에서 보아도 가장 정당한 맑스-레닌주의적 로선이라는 것을 힘 있게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더욱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의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위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6,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문제

선집 제 1 권과 제 2 권에는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방침이 천명되여 있으며 해방 후 5 년 간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이 개괄되여 있다.

1946년부터 1950년까지의 시기는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강력한 투쟁이 전개된 시기이다. 실로 이 시기는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력사적 경험의 견지에서 보나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의 견지에서 보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기이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에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을 천명하면서 《그것은 외국의 간섭이 없이 남북 조선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조선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국가 제도에 대한 문제는 전체 조선 인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자는 것》(선집 제 2 권, 429 페지)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평화적, 자주적,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이 벌써 그 때에 체계화되고 천명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은 이러한 조국 통일 방침이 조선 민족의 리익과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에 부합되며 또 그러한 방도로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단일한 국가, 단일한 민족의 인공적 분렬을 제거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회복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전적으로 조선 인민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조선 문제는 오직 조선 사람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여기에 외국이 간섭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인정한다.

김 일성 동지는 《오늘 조선 문제는 오직 조선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조선 인민 외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권리도 없다…오직 조선 인민이 자기의 손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우리만이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선집 제 2 권, 6 페지)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세계의 평화, 특히 극동과 아세아의 평화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은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초기의 여러 저작들에서 조국의 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 및 전술적 방침들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정책의 침략적 본질과 2 차 대전 후 조성된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북반부를 조국 통일의 불패의 기지로 꾸리며 남조선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 력량들의 반미 통일 전선을 강화하며 국제 혁명 세력에 튼튼히 의거하고 국제적 규모에서 모든 반미 세력과 련합하여 투쟁하는 것을 조국 통일을 위한 당의 전략적 방침으로 규정하였다.

우리 당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 행정에서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고 매 시기 조성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술적 방침을 제기하여 통일을 촉진시켜 왔다.

선집 1, 2 권에는 해방 후 첫 시기에 있어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계획을 반대하며 그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단독 선거와 괴뢰 정부의 조작을 반대한 조선 인민의 투쟁이 반영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문제를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어 가 드디여 1948년 5월에 남조선에서 반동적 단독 선거를 홍책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나라의 분렬은 더욱 심각화되였으며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조성되였다.

이 때 우리 당의 발기에 따라 1948년 4월에 남북 조선 정당 사회 단체들의 대표자 련석 회의가 소집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 회의에서 한 보고 《북조선 정치 정세》에서 우리 조국을 량단하려는 미제의 기도를 폭로하고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민족적 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며 망국적 단독 선거를 단호히 거부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로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 일으켰다. 이 련석 회의에는 남조선의 좌익 정당들과 함께 중간파 및 다수 우익 정당의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련석 회의는 《유엔 조선 위원단》이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도구이라는 것을 철저히 폭로하였으며 전체 조선 인민이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그에 의하여 조작되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회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제외한 전체 조선 인민이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으며 미제와 반동 세력이 남조선 인민 대중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여 있음을 보여 주었다.

회의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민족 분렬 정책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정견이 서로 다른 애국적 정당들이 공산주의자들과 능히 단결할 수 있으며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구국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오늘도 거대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조선 인민의 거족적 항거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무력으로 《선거》를 강행하고 괴뢰 정부를 날조하였으며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남조선에서의 단독 선거의 실시와 괴뢰 정부의 수립은 조선의 인공적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술책》(선집 제 2권, 425 페지)이였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당의 발기에 의하여 1948년 6월에 남북 조선 정당, 사회 단체들의 지도자 협의회가 다시 소집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 회의에서 한 보고 《남조선 단독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대책》에서 지체 없이 남북 조선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며 민주주의적 중앙 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 조치의 정당성은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의 열광적인 지지에서 표현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1948년 8월 25일 남북 조선 전 지역에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였으며 조선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최고 립법 기관과 정부가 수립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기된 자주적 조국 통일 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완전히 확증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통일된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선집 제 2 권, 426 페지)

이 때부터 조선 인민은 자기의 국가 주권을 가진 당당한 인민으로서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국토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기 위하여 1949년 6월에는 남북 조선 71 개의 정당 사회 단체들을 망라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결성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방책을 다시 제기하였다.

특히 최고 인민 회의는 1950년 6월에 남북 조선의 립법 기관을 련합하는 방도로 통일을 이룩할 데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이 모든 제의를 덮어 놓고 거부하고 북반부를 무력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동족 상쟁의 전쟁을 도발하였다.

우리 당의 지도 하에 공화국 정부는 전후 시기에 있어서도 계속 평화적, 자주적,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조국 통일 방침을 견지하고 투쟁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거듭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전 행정의 순차와 매 단계에 있어서 해결할 구체적 과업들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상세하게 천명하였다.

조국 통일 문제에서 선결 조건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 군대를 철거시키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킴으로써만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조성되며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남북간의 신뢰를 두터이 하기 위하여 남북 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군대를 각각 10만 이하로 축소시킬 것을 수차 제의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경제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련방제를 실시하여 통일

의 길을 한걸음 한걸음 개척하여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제의는 해방 직후에 이미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을 변화된 새 정세에 부합되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공화국 정부의 이 모든 조치는 우리 인민의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서 남북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극소수 반동들만이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무력으로써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 그리고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 박 정희 도당도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떠받들고 조선 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으며 동족 상쟁의 비극을 재연시키고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가 전체 조선 인민들로부터 일치하게 배격 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는 자주, 자립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자주적 통일의 기운이 더욱더 비등되여 가고 있다.

사태 발전의 모든 행정은 해방 직후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한 투쟁이 비록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으나 우리 당의 방침에 기초하여 통일이 실현될 날이 더욱더 가까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의 단결을 이룩하며 전 민족이 단합하여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때 조국의 통일 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　　　　*

김 일성 선집 제 1 권, 제 2 권은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땅에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경험을 집대성한 승리의 기록이다.

선집 1, 2 권은 당과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선집의 심오한 연구는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투쟁 력사와 투쟁 경험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위력한 담보로 된다.

로동당원들과 우리 인민은 선집 1, 2 권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그것을 오늘의 현실적 조건과 결부시키고 맑스-레닌주의 원전들과 결부시켜 학습하여야 한다.

선집 1, 2 권에 체현되여 있는 우리 당의 사상과 우리 당 전략 전술의 진수를 깊이 파악할 때 우리는 조선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고 우리 민족의 가일층의 번영과 륭성을 실현하는 데서 보다 큰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모두다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사회주의 상업 발전에서의 획기적 조치

김 세 봉

최근 당과 정부에서는 발전하는 새로운 현실에 상응하게 상업 체계를 개편하고 상품 류통 사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최단 기간 내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사회주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간의 상업적 련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한 요구의 성과적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조치는 실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된다.

1

인민 경제의 중요 구성 부문의 하나인 상업은 자체의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사회주의 공업과 농업에서 생산된 각종 상품들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며 생산과 소비, 도시와 농촌, 국내 각 지역 간의 경제적 련계를 실현한다.

생산의 발전과 주민 수요의 장성에 적응하게 상업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그 활동을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부단히 완성하는 것은 인민 경제 발전과 상품 공급 사업의 개선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상업 체계 확립에서의 기본 문제는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 간, 상업 행정 기능과 관리 기능 간의 호상 관계를 옳게 규정하며 상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상품 운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경영 활동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은 사회주의 상업을 창설한 첫 시기부터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서 조성된 구체적 환경에 적응하게 상업 체계를 부단히 개선 정비하여 왔다.

력사적인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승리하고 국내 시장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된 조건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에 적응하게 상업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정비하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은 소매 상업에서 불필요한 중간 단위들을 제거하고 독립 채산제에 기초한 종합 상점 체계를 창설하였으며 도매 상업을 국가가 유일적으로 장악하는 원칙에서 중앙으로부터 시, 군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의 도매 상업망을 조밀하게 포치하였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서의 종합 상점 체계의 확립은 상업 활동의 기본 단위인 상점 사업을 강화케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상업적 봉사를 현저히 개선하게 하였으며 또한 국가 유일 도매 상업 체계의 창설은 상품 운동 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적 역할을 강화하고 상품 운동의 민활성과 기동성을 보장케 하였다.

그 후 당은 농촌에서 소비 협동 조합 상업을 협동 농장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넘김으로써 매개 협동 농장 단위로 생산, 분배, 류통을 호상 유기적으로 련결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농업 생산을 자극하고 농촌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업 체계의 이러한 개편은 5 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7 개년 계획의 첫 3 년간 상품 류통 부문 앞에 부과된 임무의 성과적 수행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산이 더욱 발전하고 생산과 상업,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상업 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고 상품의 품종 구성이 다양해진 오늘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현시기 상업 부문 앞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은 상업 체계를 가일층 개선 정비할 것을 긴절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 요구와 상업 체계 조직의 현재 형편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도매 상업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소매 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원칙에서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을 분리하는 한편 상업 지도 기관들의 행정적 기능과 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상업 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의 이 방침에 의하여 공화국 내각에서는 상업성을 강화하여 그로 하여금 국내 상업 전반에 대한 행정 기술적 지도와 함께 도매 상업을 직접 관리 운영케 하고 도 인민 위원회는 도내 소매 상업에 대한 행정 기술적 지도와 도매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본을 두게 하였으며 시, 군 인민 위원회는 소매 상업에 대한 지도 관리 기능을 직접 담당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상업성에서는 전문화된 행정 부서들을 강화하고 도매 상업 총국을 조직하여 중앙 도매소와 출하 도매소 및 도 도매 상업 관리국을 통하여 지구 도매소를 관리하게 하고, 도 인민 위원회에는 도내 상업에 대한 행정 기술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상업국을 조직하였으며 시, 군 인민 위원회들에는 상업 행정 부서인 상업처와 그에 직속하는 기업 관리 단위인 상업 관리처를 조직하여 소매 상업 전반을 직접 관리 운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을 분리하여 도매 상업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매 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며 행정 기능과 관리 기능을 분리 강화하게 한 금번 조치는 현시기 우리 나라 상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원래 소매 상업은 상품 공급의 마지막 환절로서 도매 상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 받아 주민들의 생활 상 요구에 적응하게 공급해 주는 상업 활동의 기본 단위이다. 또한 도매 상업은 생산과 소매 상업의 중간에서 활동하면서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소매 상업망에 분배 공급해 주는 상품 운동의 조직 환절이다.

그러므로 소매 상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실질적으로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품 공급을 책임적으로 조직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도매 상업은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류통 령역에 제때에 끌어 들여 그것을 국내 각지에 널려져 있는 소매 상업망들에 합리적으로 조절 공급하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상품 류통의 규모가 확대되고 상품 공급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을 분리시켜 각각 그것들의 활동을 전문화하며 도매 상업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소매 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만 지방은 소매 상업을 장악하고 상업적 봉사 조직을 더욱 개선할 수 있으며 중앙은 도매 상업을 장악하고 생산자와의 련계를 더욱 밀접히 하며 그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상품 자원을 유일한 지령 체계에 의하여 기동적으로 움직이며 소매 상업을 위하여 더 잘 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화에 의해서만 또한 소매 상업은 도매 상업에 대하여 강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고 도매 상업은 소매 상업에 대하여 제멋대로 상품을 내려먹일 수 없게 한다.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을 분리하여 도매 상업은 성이 직접 담당하고 소매 상업은 지방 인민 위원회 특히 시, 군 인민 위원회가 담당케 한 것은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원칙에서 중앙이 지방의 소매 활동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한편 지방 인민 위원회들로 하여금 지방적 특성에 맞게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을 창발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을 분리하는 한편 중앙과 도, 시, 군에 이르는 상업의 모든 지도 관리 단위들에서 행정 기능과 관리 기능을 분리한 것은 또한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이다.

그것은 상업 기업소 경영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내용이 복잡해졌으며 기업 관리에서 구체적인 기술 경제적 타산이 필요하게 된 조건에서 관리 기능을 전문화하여 심화시키지 않고서는 상업 경영 활동 전반을 개선할 수 없게 되였기 때문이다.

행정 단위와 기업 관리 단위를 분리하여 전문화함으로써만 상업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는 일방 기업 관리에서 중앙 집중적 관리 원칙과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원칙, 정치 사업 선행의 원칙, 계획적인 관리와 독립 채산제의 원칙 등 사회주의적 경영 관리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다.

특히 시, 군들에서의 소매 상업의 기본 관리 단위인 소매 상업 관리처의 조직은 군적인 상업 력량을 소매 상업에 집중케 하며 군적 범위에서 상품 물자 및 화폐 재산을 유기적으로 련결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잡다한 통계와 업무 계산을 축소시키며 간부 대렬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며 모든 상업 단위들의 활동을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복종케 하는 등 커다란 우월성을 가진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 관리 체계에 의하여 행정 기능을 담당한 상업성 행정 부서들과 도 인민 위원회 상업국, 시, 군 인민 위원회 상업처들은 계획 및 재정 활동과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상업 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 기능을 담당한 도매 상업 총국을 비롯한 도 도매 상업 관리국과 시, 군 상업 관리처들에서는 자기의 관리 기능을 더욱 높여 상품 확보, 상품 관리, 상품 공급 및 재정 관리 등 상업 경영 활동을 더 잘, 더 경제적으로 조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 군에 조직된 소매 상업 관리처들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키는 것이다.

상업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상업의 지도 관리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됨으로써만 상업에 대한 전반적 지도 관리 기능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한 계단 높일 수 있다.

금번에 취해진 상업 체계의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농촌 상업을 협동 농장에서 떼여 내서 국영 상업으로 개편한 것이다.

국가가 농촌 상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 문제의 정확한 해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성과적 해결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 당은 항상 농촌 상업 문제의 정확한 해결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으며 그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금번 조치는 바로 국가가 모든 면에서 농촌을 책임 지고 도와 주는 원칙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농촌 상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가장 정당한 조치이다.

지난 시기 농촌 상업을 협동 농장들의 관리 하에 두고 매개 협동 농장 단위로 생산과 분배, 류통을 계획적으로 련결시키게 한 조치는 협동 농장 자체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형편은 달라졌다.

오늘 농촌 주민들의 생활이 점차 향상되고 그들의 상품 수요가 도시 주민들의 수요에 접근됨에 따라 농촌 상업을 도시 상업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려야 할 문제가 긴절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 농촌에서 협동 경리가 더욱 확대되고 농업 생산의 기술 공정이 복잡해졌으며 생산의 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협동 농장들의 생산적 부담이 커졌으며 확대된 협동 경리 전반에 대한 기술 경제적 관리를 더 강화할 데 대한 요구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바로 우리 나라 농촌에 조성된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종전과 같이 협동 농장들에서는 상품 류통에까지 심중한 관심을 돌릴 수 없게 되였으며 협동 농장들을 상품 류통의 부담에서 해방시켜 생산 발전에 보다 많은 힘을 집중하도록 할 것이 요구되였다.

그리고 오늘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 상업은 농촌 상업까지 책임 지고 운영할 수 있으리 만큼 강력한 힘으로 자라 났다.

이 모든 것은 국가가 농촌 상업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객관적 필요성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건 지어 준다.

농촌 상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은 협동 농장들을 상품 류통의 부담에서 해방하고 농업 생산의 장성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하며 농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품들을 더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생산적 공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상업적 공간을 통하여 전 인민적 국가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를 지원하는 중요한 형태로 된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당이 국가 축적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소비품 생산을 장성시켰으며 가장 높은 사회화에 기초한 국영 상업을 부단히 강화해 온 결과 실현될 수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모든 면에서 농촌을 적극 도와 그것을 하루속히 도시의 수준에로 끌어 올리며 농촌 주민들의 생활을 로동자들의 생활 수준에로 끌어 올릴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 상업에 대한 지도 관리를 직접 담당한 도, 시, 군 인민 위원회, 국영 상업 기관들은 당 조직들의 지도 밑에 농촌 상업의 이관 인수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농촌 상업의 수준을 국영 상업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서의 군의 상업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군은 자체의 공급 기지를 강화하고 농촌 상업망을 합리적으로 포치하고 상품

배정 사업을 정확히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농촌 주민들에 대한 공업 상품 공급 사업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

2

새로운 상업 체계의 개편은 필연코 그에 적응한 상업의 조직과 방법을 요구한다. 상업의 조직과 방법이 안받침됨으로써만 새로운 상업 체계는 자체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휘할 수 있으며 상업 활동 전반을 급속히 개선할 수 있다.

상업의 조직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인민들의 수요를 더 잘, 더 편리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업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경쟁적으로 다채롭게 조직하는 것이다.

상업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 맞게 상품 생산의 구조를 근로자들의 수요 구조에 가장 정확히 적응시키며 생산된 상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일성 동지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문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업을 계획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주문제란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계획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다.》(1962년 9월 3～4일 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에서 하신 말씀)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분배하기 위한 수단인 주문제는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상품 공급에서 계획적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상품 운동의 모든 단위들에서 주문제를 관철함으로써만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생산을 계획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상품을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문제를 통하여 도매 상업 기업소는 상업의 대표자로서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필요 없는 것을 만들지 않도록 생산에 요구를 제기한다. 이렇게 하여 생산의 규모와 구조를 주민 수요의 규모와 구조에 적응시킬 수 있다.

또한 주문제를 통하여 소매 상업 기업소는 인민들의 요구를 대표하여 도매 상업 기업소에 상품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며 필요한 상품들을 확보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도매 상업 기업소가 소매 상업 기업소에 자기 마음대로 상품을 내려 먹일 수 없게 하며 소매 상업 기업소에서 주민들의 수요에 적응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주문제는 또한 주민들의 요구를 주로 계획 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생산에 제기하여 계획에 정확히 반영케 함으로써 상품의 계획적 생산과 주문에 의한 계획적 공급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된다.

따라서 주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보다 긴 기간을 두고 앞질러서 타산되여야 하며 또한 생산의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도매 상업 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매 상업 기업소는 자기가 봉사하는 소매 상업 기업소들과 주민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장악한 기초 우에서 수공급 관계를 맺고 있는 생산 공장, 기업소들에 상품 품종별로 재질, 규격, 색갈, 무늬, 모양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주문을 제기하고 그를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

상업 내부 주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매 상업망에서는 매달 자기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 장악한 기초 우에서 상품 재고와 도매소의 상품 보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 주문을 도매 상업 기업소에 제

기하며 도매 상업 기업소는 제기 받은 주문을 책임적으로 해결해 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도매 상업 기업소는 소매 상업망에서 상품 주문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방조하기 위하여 상품 견본실을 잘 운영하며 도매 상업 기업소 일'군들이 소매 상업망에 직접 나가 주문서 작성을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매 상업망의 주문서에는 상점에 일상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할 상품을 떨구지 말며 또한 도매소 창고에 있는 상품들이 하나도 빠짐 없이 상점 매대에서 판매되도록 주문 품종과 주문 량이 예견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문제를 관철함으로써만 상업 활동에서 계획적 원칙을 실현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계획적으로 공급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다.

상업 조직과 방법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계획적 원칙을 관철함과 동시에 상업 활동을 경쟁적으로 다채롭게 조직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또한 관철해야 한다.

상업 활동을 경쟁적으로 다채롭게 조직한다는 것은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더 많이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상업의 조직과 방법을 경쟁적으로 부단히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상업 일'군들의 동지적 협조와 호상 방조에 기초하여 주민들에게 더 잘, 더 편리하게 봉사할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경쟁인바 이러한 경쟁은 돈을 벌기 위하여 기만과 사기, 모리, 투기를 일삼는 자본주의 상업에서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 당은 도매와 소매 호상간에 상업 활동을 더욱 경쟁적으로 조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매 상업 기업소는 자기 봉사 구역 도매 상업 기업소에서 뿐만 아니라 임의의 도매 상업 기업소들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소매 상업 기업소들로 하여금 자기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기 위하여 더욱 창발적으로 활동하게 하며 반면에 도매 상업 기업소는 소매 상업 기업소들에서 주문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상품 구성을 부단히 개선하고 견본실을 잘 만들며 상품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자극한다.

도매 상업 기업소들은 상품 확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 공장들, 특히 지방 산업 공장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품 확보 사업을 신축성 있게 조직하는 한편 지역 간의 상품 교류 사업을 원활하게 조직하는 데 보다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리고 도매소는 소매 상업망에서 잘 가져 가지 않는 상품들을 제때에 실현하기 위하여 직매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매 상점의 운영은 비단 잘 팔리지 않는 상품들의 실현을 촉진시킨다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통로를 확대하고 도매소가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수요를 연구할 수 있게 한다.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을 경쟁적으로 다채롭게 조직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의 기본 단위인 소매 상업망들을 합리적으로 포치하고 다양한 판매 방법과 상품 진렬 및 광고 조직 등을 개선하는 것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선 식료품 상점을 주민 지대에 최대한 접근시키며 공업품 상점은 집중과 전문화를 결합하는 원칙에서 상업망 포치를 계통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를 다양하게 조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민 지대가 분산되어 있는 농촌 지역과 림산 마을들에는 성냥, 실, 바늘, 칼, 연필, 학습장 등 일용품들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망을 광범히 설치하고 판매 활동을 다양하게 조직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상 편의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 시장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 시장은 국영 상업을 보충하는 방향에서 그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품 류통 통로를 최대한으로 확대 정비하는 한편 상점들에서는 상품 품종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일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품 품종을 반드시 구비하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상점에 와서 빈손으로 돌아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 형식을 적극 도입하며 상품 진렬을 풍족하고 문화적으로 할 것이며 신문, 잡지, 라지오, 포스터 등을 통한 상품 광고 사업도 활발하게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극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판매원들 속에서 례절 밝고 친절하며 고객들에게 성심성의로 봉사할 줄 아는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상점들을 사철 다양한 식료품과 쓸모 있고 맵시 있는 일용품들로써 흥성거리게 하며 상업 일'군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다채롭고 편리하게 봉사하도록 하는 등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우리 상업을 다채롭게 조직함에 있어서 사회 급양 및 편의 봉사 조직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사회 급양 부문에서는 식당들을 더욱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고 민족 료리와 지방 특성에 맞는 각종 음식물 생산에 기본을 두고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며 주민들의 식생활에 편리하도록 공급 사업을 개선하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편의 봉사 부문에서는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생활 상 가장 긴요한 업종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각종 수리, 수선 업종들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형식의 봉사 방법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품 류통 자체가 상품 운동을 전제로 하는 만큼 상업 활동의 개선은 수송 조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상품 수송은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르며 각이한 물리 화학적 속성을 가진 수 많은 상품을 매일과 같이 대도시로부터 산간 오지에 이르는 수백 수천의 상업망들에 각이한 규모로 규칙적으로 운반해야 할 자체의 특성을 가진다. 이로부터 상품 수송은 높은 계획성과 조직성을 요구하며 기동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업 지도 관리 단위들에서는 새로 확립된 자체 수송 체계를 강화하고 상품 수송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조직하여 수송 기재의 리용률을 높이며, 우에서 아래에 내려다 주고 도매가 소매에 직접 공급해 주는 송달 공급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상업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현물에 기초한 경상 경리 제도를 계속 강화하며 상품의 입출고와 보관 관리 사업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귀중한 상품 및 화폐 재산에 사소한 손실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상업 활동 전반을 더 활발하고 다채롭게, 문화적이고 편리하게 조직할 수 있다.

3

인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더 잘 봉사

하기 위한 상업 일'군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그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함으로써만 더욱 강화된다.

이것은 오늘 상품 류통의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업 활동의 내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또한 상업 일'군들의 창발적이고 자각적인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하다.

우리 당은 항상 상업 일'군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정치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상업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복무하는 높은 자각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여 왔다.

상업 일'군들 속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높은 자각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옳게 결합시키는 한편 특히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상업은 리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상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상업은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상업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따라서 상업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한 신성한 사업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상업 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옳게 인식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심을 가지며 근로자들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데 있다.》(선집 제 5 권, 51~52 페지)

따라서 상업 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 상업은 근로자들을 기만 착취하는 자본주의 상업과는 달리 본질 상 주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며 인민들의 생활 상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 상업은 산간 오지에까지 다 상점을 차려 놓고 계획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계획적으로 날라다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공급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상업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사상 교양을 통한 정치 도덕적 자극 일면만을 가지고서는 일'군들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반드시 물질적 자극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상업 일'군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동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며 로임 지불 형태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상업 일'군들의 로동에 대한 평가에서 류통 계획 수행과 봉사성의 두 측면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침에 의하여 이번 내각 결정에서는 상업 일'군들에게 일정한 기본 로임을 주고 류통 계획을 초과 수행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데 따라서 추가적인 보수를 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상업 일'군들의 로동이 주로 봉사 로동이며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상업에서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을 가장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한다.

상품 류통 계획을 초과 수행하며 팔기 힘든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데 따르는 로임 지불에서의 차이는 주로 로동의 량적 측면을 고려한 분배 원칙

의 실현이며 상품 품종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봉사성을 높인 데 따르는 로임 지불에서의 차이는 로동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분배 원칙의 실천이다.

이와 같이 상업 로동의 특성에 맞게 로동의 량과 질적 측면을 고려한 로임의 지불 형태는 상업 일'군들로 하여금 상품 품종을 다양하게 갖추어 놓고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하며 이들의 로력적 열성과 창발성을 더욱 제고시킨다.

그러므로 상업의 모든 지도 단위들에서는 주민들의 구매력과 수요 구조, 상품의 가격 수준, 상품 보장의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상점 별, 작업반 별, 개인 별 상품 류통 계획과 상점들에 일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품의 품종 수를 정확히 규정해 주며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옳게 하여 로임 지불에서 평균주의를 극복하고 로동에 의한 분배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일을 더 많이, 더 잘 할 데 대한 일'군들의 열성은 가일층 높아질 것이며 공업과 농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상점들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더 빨리 실현될 것이다.

※　　　　※

새로운 상업 체계의 요구에 적응하게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바로잡는 것은 상품 공급 사업의 개선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시방 당 및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과 상업 부문 지도 일'군들은 우선 새로운 상업 체계에 의하여 조직되는 상업 기관, 기업소들을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것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지도를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상업의 모든 지도 단위들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고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능숙하게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모범 상업 단위를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는 사업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과 전체 상업 일'군들은 현시기 상업 부문 앞에 제시된 당과 정부의 시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상품 공급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과 은행 체계의 개편

리 원 경

최근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은행 체계를 개편하며 은행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가일층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당의 이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종전의 국립 건설 자금 은행이 폐지되고 그 사업이 중앙 은행에 이관되였으며 산업 은행이 창설되였다.

은행 체계의 개편에 따라 중앙 은행은 종전까지 수행하던 신용 업무를 그만 두고 생산 및 건설 자금을 유일적으로 공급하며 국가 수입을 받아 들이며 고정 재산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되였으며 산업 은행은 단기 대부, 저금 및 보험 사업과 협동 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도 및 통제를 실시하게 되였다.

금번 우리 당이 취한 은행 체계의 이러한 개편은 나라의 경제 생활과 은행 사업 자체의 발전에서 아주 큰 의의를 가진다.

이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은행 기관들은 명실공히 인민 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적 통제의 중추 기관으로 되였으며 기업소 경영 활동에 주는 자기의 영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실로 금번에 진행된 은행 체계의 개편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은행을 전 인민적인 계산과 통제의 강력한 수단으로 리용할 데 대한 요구를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획기적 조치로 된다.

*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은행 문제는 항상 중요하게 제기된다.

사회주의 혁명 수행에서 낡은 은행을 장악하며 그것을 새 사회 건설과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복무하도록 개조하는 것은 정권을 장악한 프로레타리아트 앞에 나서는 기본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은행들은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며 또 우리가 자본주의 하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계승하게 되는 그런 〈국가 기관〉인데 우리의 과업은 여기에서 이 훌륭한 기관을 자본주의적으로 불구화하는 것을 막아버리며, 그것을 더욱 대규모적으로, 더욱 민주주의적으로, 더욱 총괄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것이다.》(선집 제26 권, 119 페지)

사회주의 하에서 은행은 생산과 류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의 강력한 공간이며 인민 경제 체계의 중요한 신경절(神經節)을 이루고 있다.

정권을 장악한 로동 계급은 은행을 국유화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현실 발전에 맞게 부단히 개선 강화하여야만 생산과 분배에 대한 전 인민적인 계산과 통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 생활을 장악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나갈 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나라의 구체적인 경제 형편에 적응하게 은행 체계와 그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여 왔으며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일관하게 실시하여 왔다.

해방 후 민주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은행의 국유화와 민주주의적인 새 은행 체계의 창립,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에 따르는 은행 체계와 은행 사업의 개선 등은 우리 당이 지난 시기 은행 건설 행정에서 취한 중요한 조치들이였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은행 기관들이 화폐 류통을 정확히 조절하여 전반적인 경제 생활을 건전하게 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은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하는 현실은 은행 체계와 그 사업을 더욱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하였으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튼튼히 닦아졌다.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최근 년간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경제 관리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계획화 수준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사업 체계와 방법이 달라지고 생산과 류통 과정이 째여지게 됨에 따라 생산의 장성과 정상화가 확고히 보장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 조건에 많이 의존하는 채취 공업과 농업 생산이 부단히 앙양됨으로써 이 부문의 생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업 부문들에서 경제 활동의 계절성이 결정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로 하여금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자금 수요를 더욱 정확히 타산할 수 있게 하며, 기업소들에서 자금 수요에서의 불균등성을 최대한 축감시킬 수 있게 하여 준다.

지금 우리 나라 기업소들에서의 자금 수요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볼 때 대체로 균등성을 띠고 있으며 기업소 재생산 과정에서 유리되는 자금도 대략 동일한 규모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인민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정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은행 대부는 우리 나라에서 사실 상 큰 의의를 가질 수 없게 되였다. 은행 대부는 다만 기업소들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인 자금 수요의 일부를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하게 되였다.

국가가 기업소의 자금 수요를 시기별, 요소별로 정확히 계획화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은행 대부가 자금 수요의 해결과 재정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한 지금 인민 경제에 필요한 류동 자금을 종전과 같이 국가 예산 자금과 은행 대부의 두 통로를 통하여 보장할 필요는 없게 되였다.

이제 와서 국가는 은행을 통하여 기업소들에서 요구하는 기본 건설 및 대보수 자금 뿐만 아니라 류동 자금 전액을 유일한 자금 공급 체계에 의하여 보장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과 농촌에 대한 국가의 증대되는 지원에 적응하게 협동 농장들에 대한 은행의 재정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또한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이 취한 은행 체계의 새로운 개편은 이와 같이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과 은행 사업 자체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금번 개편된 새 은행 체계는 종전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새 은행 체계에서는 경제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자금 공급의 기능이 발권 은행인 중앙 은행에 집중되고 중앙 은행 체계에 신용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은행 체계가 배합되였다.

이것은 새 은행 체계가 신용 업무를 주로 하는 중앙 은행과 자금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건설 자금 은행으로 구분되여 있던 우리 나라의 종전 은행 체계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자금 공급의 기능이 중앙 은행에 집중됨으로써 은행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요구하는 자금을 기동적으로, 적시에 보장할 수 있게 되였으며 자금의 효과적 리용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그것은 또한 종전까지 재정 기관과 은행 기관들이 예산 자금과 은행 대부를 각이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공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자금 공급 분야에서의 기관 본위주의를 퇴치하고 기관, 기업소들의 복잡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하여 준다.

다음으로 새 은행 체계의 중요한 특징은 은행 사업의 집중화를 강화하면서 은행 기관들의 기업소 현장에로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는 데 있다.

은행 사업의 집중화는 사회주의 하에서 은행의 본질과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 요구이다.

은행 사업을 집중화하여야만 은행 기관들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의 재생산 과정을 통일적으로 장악할 수 있으며 유일 체계에 의한 국가 자금의 공급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새로운 은행 체계 하에서는 중앙 은행이 국영 기업소, 기관들의 경영 활동 전반을, 산업 은행이 협동 농장들의 경영 활동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은행의 모든 기능들을 여기에 복종시킬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은행 기관들은 주로 대부적 공간을 통하여서만 기업소들의 재생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종전의 부족점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기업소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재정적 통제와 지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동시에 은행 기관들은 생산과 류통에 대한 계산과 통제 기관으로서의 자기의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나라 살림살이를 보다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능동적인 역할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되였다.

은행 사업의 집중화는 기업소 경영 활동을 정확히 장악할 뿐만 아니라 생산 및 류통 과정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은행 기관들을 현지에 더욱더 접근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 대한 은행의 집중적, 통일적 장악과 통제가 원만히 실현될 수 없다.

우리 당은 금번 산업 은행을 새로 창설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은행 사업을 현지에 접근시키는 사업을 더 한층 심화시켰다.

새로 창설된 산업 은행은 매개 협동 농장들에 설치한 자기의 출장소들을 통하여 농장의 재정 활동을 지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현금 출납, 저금 및 국가 보험 사업과 신용부 사업을 담당 수행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은행 기관들을 현지에 접근시킬 데 대한 일반적 요구를 우리 나라에서 농촌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산업 은행의 창설은 또한 종전까지 서로 분리되여 진행되던 인민 저금 사업과 보험 사업을 통일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중에 남게 되는 일시적 유휴 화폐 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케 할 것이다.

*　　　*

금번 은행 체계 개편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는 현실 발전에 상응하게 은행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절한 것이다.

즉 새 은행 체계에서는 종전 중앙 은행의 주요 기능이였던 대부적 기능이

자금 공급 기능에 의하여 대체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중앙 은행과 산업 은행이 조직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신용 관계가 자금 공급 관계에 의하여 광범히 대체된 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은행 기능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하에서 신용 관계 발전의 전망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 건설의 매 단계에서 조성되는 구체적 환경과 제기되는 과업에 근거하여 신용 관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며 특히 상이한 소유의 기업소들 간에 맺어지는 신용 관계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고 인민 경제가 고도로 계획화되며 조직화되는 조건에서 동일한 국가적 소유의 기업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신용 관계는 점차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인민 경제에서 전 인민적, 국가적 소유의 확대 발전과 나라의 재정적 토대의 공고화, 기업소 경영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도 관리 수준의 제고는 신용 관계 발생의 조건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대부적 방법을 통한 재정적 통제의 필요성도 감소시킨다.

인민 경제에서 신용 관계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자금 공급 관계가 더욱 전면에 제기된다. 그것은 자금 공급이 신용과는 달리 기업소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통제의 수단이며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적, 전 인민적 소유의 기업소들 간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자금 운동 형태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인민 경제에서 이러한 자금 공급 관계가 부단히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 나라에서 은행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재조직되고 발권 은행인 중앙 은행으로부터 대부적 기능이 분리되게 된 주요 조건은 특히 기업소 유동 자금 조직에서의 변화와 관련된다.

종전까지 우리 나라 기업소들에서의 유동 자금은 자체 자금과 차입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국가는 그것을 유일한 자금 공급 체계에 따라 전액 보장하여 주게 되였다.

이것은 은행 기관과 국가 기업소들 간의 신용 관계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정상적인 신용 관계는 주로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들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국가 기업소들에서의 대부적 수요는 특수한 예외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발권 은행이 신용 업무를 계속할 필요는 없으며 기관, 기업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신용 관계는 대부적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된다.

또한 국가 기업소들에서 유동 자금과 고정 폰드의 확대를 위하여 요구되는 자금 공급 원천이 다같이 국가 예산 자금으로 형성되게 된 것은 이 기업소들에 대한 자금 공급도 중앙 은행이 통일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물론 기업소의 자금 운동 과정에서는 일시적 성격을 띤 자금 수요와 자금 유휴 현상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소들에서 요구되는 류동 자금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는 자금 공급 체계에로 이행함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수한 대책이 강구되여야 한다.

금번 은행 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새로운 자금 공급 체계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충분히 타산되여 있다. 그것은 기업소의 정상적인 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수요는 중앙 은행의 조절 폰드로, 기업소 재생산 과정의 개별적 환절이 중단되여 생길 수 있

는 자금 수요는 대부적 방법으로 해결하게 한 데서 표현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자금 공급 체계는 은행 통제를 강화하며 대부 관계와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자금 대출 상의 부족점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자금 공급이 중앙 은행의 주요 기능으로 되고 대부적 기능이 발권 은행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중앙 은행의 발권 및 화폐 류통 조절 사업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일어 나게 되였다.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하에서 화폐 및 화폐 류통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은행권의 성격 상 변화가 일어 난 것은 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은행권은 원래 화폐 류통 법칙의 요구를 타산하여 신용적 절차로 류통에 방출되였다.

그런데 금번 은행 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발권은 자금 공급의 원천으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는 산업 은행이 실시하는 대부 업무의 자원적 기초로도 되지 않는다.

중앙 은행권의 발행 업무와 신용 업무의 련계가 단절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은행권은 이제 와서 신용 화폐로서의 특성보다 《상징 화폐》로, 금 대리자로서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가지게 되였다.

중앙 은행권의 이러한 성격 상 변화는 화폐 류통 조직에서 중앙 집권적 발권 제도를 보다 강화하며 현금 류통의 계획적 조절 사업을 개선하며 인민 경제 전반에서의 자금 회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로운 은행 체계 하에서 중앙 은행에는 자금 공급의 기능 외에 고정 재산에 대한 등록 감독 기능이 또한 새로 첨가되였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고정 재산에 대한 등록 감독 사업은 재정성과 내각 물자 총국 등 여러 경제 기관들에서 각이하게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금번 은행 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고정 재산에 대한 유일한 지도 통제 체계가 확립되였다.

고정 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지도와 통제 사업이 중앙 은행에 집중된 것은 중앙 은행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여 있는 광범한 지점망을 통하여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 활동 전반을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일반적 부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또 국가의 자금 공급 사업을 통일적으로 담당 수행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중앙 은행은 자금 공급 기능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들의 류동 및 류동 폰드 뿐만 아니라 고정 폰드의 운동 특히 그 확대와 관련한 경제 거래들을 취급함으로써 기업소의 고정 재산 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기업소 고정 폰드 관리에서 있을 수 있는 기관 본위주의적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하며 그 리용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우리 나라에서의 은행 체계 개편의 새로운 방향은 사회주의적 은행 건설 행정에서 거대한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실로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 시기 은행 문제 해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명백한 길을 밝혀 주며 사회주의 하에서의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제고시킬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금번 은행 체계의 개편이 가지는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새 은행 체계에 적응하게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은행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은행 기관 일'군들은 자기 활동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기업소의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을 원만히 공급하며 나라의 재정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 은행 일'군들은 기업소들에서 일시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을 제때에 정확히 공급할 뿐만 아니라 협동 농장의 재정 관리 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농장의 경제 토대 강화와 농민 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은행 기관 일'군들은 은행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자기들의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우리 나라 은행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켜야 한다.

꾸바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

최 상 순

꾸바 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1960년에 한 정치 평론가는 이 혁명을 평하면서 《이 한 알의 씨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 하는가에 라틴 아메리카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썼다. 아직 이 때만 해도 꾸바 혁명이 그 앞에 놓인 모든 장애와 시련을 과연 극복해 낼 것인가를 위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꾸바 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 꾸바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증오하는 자들까지도 혁명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였다.

꾸바 혁명은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꾸바의 오늘은 곧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래일이기 때문이다.

《꾸바 혁명은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제 2 하바나 선언에서는 꾸바 혁명이 《비로 혁명은 가능하며 각국 인민들이 능히 혁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꾸바 혁명은 전 세계 피압박 민족들과 특히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압박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인민에 튼튼히 의거하고 정확한 혁명 로선을 견지하며, 국내외의 반혁명 세력과 견결히 투쟁한다면 혁명은 승리할 수 있으며 민족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 꾸바 혁명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악명 높은 《몬로주의》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인력 법칙》, 《숙과 정책》, 《선린 정책》 등과 같은 각가지 악랄한 정책을 써 가면서 미국의 리오 그란데 국경에서 페루와 아르젠틴의 남단에 이르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철저하게 예속시켰다.

라틴 아메리카는 실로 장구한 기간 정치적으로 미국의 완전한 부속물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농업적 식민지로 되여 있었으며 그 광대한 부원을 가지고도 부원의 거의 전부를 미국에 략탈당함으로써 지구 상에서 가장 몽매하고 빈궁한 지역의 하나로 남아 있었다. 미제가 피둥은 딸라로 비대해지면 질수록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반비례로 무섭게 메말라 갔다. 실로 미제와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서로 상용할 수 없는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순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그들은 《강대한》 미국이 존재하는 한,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내여 놓으려 하지 않는 한 력사적으로 강요된 이 종속 관계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믿어 왔다. 지어 일부 진보적 계층까지도 이러한 관계를 기정의 사실로 인정하는 토대 우에서 자기의 운동을 전개하였는바 그것은 례외 없이 개량주의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 하였고 따라서 그 어느 하나

도 성공하지 못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대륙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하여 이 대륙, 적어도 서반구에서의 일체 운동은 그 어떤 극한과 같은 선을 결코 뛰여 넘을 수 없다는 반동적인 리론을 부단히 류포시켜 왔던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반동적 파두 세력과 사회 개량주의자들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미국의 《후원》과 《지지》 없이는 이 대륙이 존재할 수 없다고 설교하면서 인민들을 혁명의 길에서 떼 내며 미제에 대한 저들의 반인민적인 추종 정책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북방의 거인》을 무시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 도래할 것이며 또 어떤 힘을 가지고 《강대한》 세력과 대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력사의 과제로 되여 있었다.

꾸바 혁명의 승리—그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었다.

꾸바의 혁명적 인민들은 그 어떤 기적적인 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혁명 정세를 조성하고 대중적으로 일떠서서 혁명을 실행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이 바로 미제의 코 앞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던 《신화》를 산산이 부셔 버렸으며 이 대륙에서 혁명 운동의 새로운 불씨를 지펴 놓았다.

무장한 혁명 세력으로 무장한 반혁명을 격파한 꾸바 혁명은 꾸바와 같은 처지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무장 투쟁이 가능하며 또한 그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증시하였다. 여기에 이 혁명의 력사적 공적의 또 하나가 있다.

꾸바 혁명 승리 이후 카스트로는 오늘 《미 제국주의가 라틴 아메리카를 종속시키고 있고 간섭하고 있는 이상 그들과 미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모순이 도저히 상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인민 혁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알고 있다.

또한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 탄압이 있는 이상 반혁명의 무력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상 미 제국주의자들이 경제의 명맥을 틀어 쥐고 있고 국내의 반동적 파두 세력과 폭력으로 혁명을 탄압하고 있는 군벌들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부르죠아적 법률의 일부 측면을 리용하는 합법적 개량 운동이나 그 어떤 의회 투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근본적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늘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물론이고 지어 민족 부르죠아지의 일부 진보적 정책에 대해서까지 미제는 로골적인 간섭을 감행하고 있으며 토착 군대들을 동원하여 공공연한 전복, 탄압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다 그러하지만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대는 극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지휘부가 이 대륙의 가장 몽매한 반동 세력과 미국 독점체들의 리해 관계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는 이 군대는 미제의 지시에 따라 독자적 정책의 극히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 지배에서 더우더 군사 독재에 의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본적인 사회적 변혁이 대중적인 혁명 운동과 이와 결합된 무장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혁명의 지도 세력은 폭력이 정권 진취의 가장 신속한 길, 그리고 사실 상 유일한 방법으로 제기된다면 결코 그것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 한 길로 과감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만일 무장 투쟁을 요구하는 정세가 조성된 때, 무장 혁명이 운동 발전의 객관적 요구로 된 때 그것을 회피한다면 만회할 수 없는 오유로 된다.

꾸바 혁명의 전야에 이러한 정세가 조성되였었다. 폭력에 매여 달리고 있는 독재적인 전제 정치의 위기가 극심하여지고 오래 동안 고통을 당하며 빈궁을 겪어 온 꾸바 인민들은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이라면 희생을 무릅쓰고 그것을 향하여 과감하게 나아가려는 혁명적 열정에 충만되여 있었다. 주객관적 정세는 바티스타 독재 정치의 폭력적 전복을 일정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인민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상응하게 손에 무장을 들고 독재 정권을 뒤엎었으며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짧은 시일 내에 완수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혁명 력량이 처음부터 다같이 이 길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 카스트로를 비롯한 애국자들이 1953년 7월 26일 적은 무장 력량을 가지고 대담하게 몽카다 병영을 습격함으로써 무장 투쟁의 불'길을 높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던 때 일부 사람들은 수정주의 리론에 매달려 이를 소부르죠아 급진주의자들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평가하였다. 그 이후 이들은 이 무장 투쟁이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하에 료원의 불'길처럼 확대되고 바티스타 독재 정권의 붕괴와 혁명의 승리가 명백하게 되였을 때에야 그것을 전술적으로 지지하는 립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마치도 꾸바 혁명이 《평화적 공존》하에서의 《평화적 이행》의 실례나 되는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카스트로 수상은 이러한 비속한 리론가들을 비판하면서 《이것은 평화적 이행이 아니다. 그것은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이행이다. 이러한 투쟁이 없었더라면 우리 나라에서 어떠한 이행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첫 실례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꾸바 인민들은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전복하는 투쟁에서 피를 흘렸으며 그들이 자기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선포한 바로 그 이튿날 플라야히론에 공격을 개시한 미제의 고용군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웠다.

실로 미제와 반혁명을 반대하는 이러한 영웅적인 투쟁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혁명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할 수 없었을 것이고 철저한 토지 개혁도, 미국 독점체의 재산들에 대한 국유화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혁명의 전취물도 수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제의 거듭되는 발악에도 불구하고 꾸바가 《제 2의 과테말라》로 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과테말라에서처럼 반혁명의 공세에 당황하여 자기들의 진지와 혁명적 민주주의적 전취물을 하나 둘 포기하는 데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영웅적 투쟁의 길로, 오직 그 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꾸바 혁명은 또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이 대륙에서는 농촌의 혁명 잠재력을 동원할 때만이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 꾸바 혁명의 또 하나의 거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봉건적 대토지 소유제와 미국 독점체들의 억압과 착취로 하여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주민은 도시 로동자들보다 더 가혹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전 인구의 불과 1.47% 밖에 안 되는 대토지 소유자들이 전 경지의 64.9%라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농민의 대다수는 토지가 전혀 없다. 농촌 주민들은 농장에서 보잘 것 없는 로임을 받으면서 고용살이를 하거나 혹은 중세기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그러한 착취적 조건에서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정들이 라틴 아메리카 농촌들로 하여금 거대한 잠재적 혁명 력량으로 되게 한다.

철저한 토지 개혁이 혁명의 기본 요구로 되여야 하는 때 농민 운동을 경

시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여서는 혁명 발전을 촉진할 수 없다.

카스트로를 비롯한 꾸바의 혁명적 지도자들은 토지 개혁에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 농촌의 혁명 잠재력을 최대한 활동시킴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광범한 력량을 결속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혁명 운동의 교훈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인민들의 혁명 운동에 대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꾸바 혁명은 오늘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 대한 혁명적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확고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미 꾸바는 하나의 외국 재산도 없으며 그 모든 재부, 광산, 석유와 토지, 공장이 인민의 것으로 된 나라로 되였다. 꾸바는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단 한 푼의 리자도 지불하지 않고 모든 재부로써 인민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아메리카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 하여 카리브해의 이 섬은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앞길을 밝혀 주는 모범으로 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전 지역이 꾸바와 같이 되고야 말 것이다

꾸바에서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촉진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예속 하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을 비상히 각성시키고 있다. 그들은 반동들과의 투쟁에서의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였으며 꾸바 혁명에 고무되여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떠섰다.

라틴 아메리카 혁명 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혁명 운동이 대중적인 형태를 띠고 앙양되기 시작하였으며 투쟁의 예봉은 직접 미제에게 돌려지게 되였고 무장 투쟁이 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되였으며 혁명은 더욱더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갖게 되였다.

미제는 서반구에 퍼러지고 있는 이 물파구에 당황망조하여 꾸바 혁명이 승리한 첫날부터 그것을 압살하며 꾸바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탄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꾸바 사탕 수입을 단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경제적 《제재》와 정치적 압력을 가하였으며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직접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다. 미국의 이전 대통령이였던 케네디는 꾸바를 없애는 것이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고 공공연하게 성명하였다. 꾸바에 대한 미제의 무모한 정책은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미제는 《경제적 봉쇄》를 실시하며 꾸바에 대한 범죄적인 간첩 비행을 감행하고 있고 함선과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도시와 공장들을 포격하는 야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3일에도 미제는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중미에 기지를 둔 미 중앙 정보국 소속의 해적선을 파견하여 꾸바의 오리엔떼주 서남부의 필론 항구에 있는 사탕 공장을 포격하였다. 이것은 꾸바의 독립과 자주권을 짓밟고 꾸바를 정복하려는 미제의 강도적 행위이다.

한편 미제는 혁명적 꾸바를 당장 없애 버리지 못 한다면 적어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영향력이라도 약화시켜 보려고 꾸바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 일방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사탕과 몽둥이》 정책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 달리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경제적 및 정치적 지배 방법을 유지하면서 저들의 리해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민족 부르죠아지에게 약간의 《양보》를 주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지탱점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뿐따 델 에스떼에서 제기된 이른바 《진보를 위한 동맹》 및 이를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원조》, 《토지 개혁》, 커

피나 주석 같은 제품에 대한 미국의 구입 협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낡은 착취 방법을 가장 민음직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미국 독점들이 교활하게도 이에 양의 가죽을 씌운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미제는 이것으로써 꾸바의 혁명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없으며 라틴 아메리카 매개 나라들에서 일어 나는 내부적 불만을 무마할 수 없으며 혁명 운동을 결코 막아 낼 수 없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 정책은 더욱더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형편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인민들은 더는 종전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라들에서는 경제의 쇠퇴로 말미암아 실업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빈궁화는 가일층 촉진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로조 통일 대회의 보고에 의하면 라틴 미주에는 약 600만의 실업자가 있다. 경제학자 모랄레스는 지금과 같은 경제의 악화가 계속된다면 15 년 후에는 실업자가 3천 300만에 달할 것이라 했다. 더우기 이에 겹쳐 인플레와 물가의 등귀가 계속되여 근로자들의 생계비는 부단히 올라 가 오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천만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영양 부족과 각종 질병들로 하여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이리 하여 인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티져 나오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투쟁으로 삶의 길을 찾기 위하여, 착취와 예속, 무권리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혁명 투쟁에 일떠서고 있으며 이 투쟁은 미제의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혁명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그 모든 경우에 이 투쟁은 광범한 대중들의 참가 밑에 전개되고 있다.

작년 볼리비아 광부들의 총파업에는 전국 광부들 거의가 다 참가하였으며 지난 해 9월 아르젠틴 철도 로동자들의 파업에 의하여서는 전국의 철도 운행이 정지되였으며 금년 3월 브라질의 공업 중심지인 산 파울로시의 강철 로동자들의 파업에는 5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투쟁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예속과 지배를 반대하고 있으며 자기의 민족적 자주권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인민의 무장력이 반동적인 군대를 능히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꾸바 혁명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적 인민들은 부르죠아지들이 설교하는 타협이나 위선적인 개량의 길이 아니라 무장 투쟁만이 가장 정당한 혁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이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혁명적 무장력을 조직하고 있으며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 밑에 투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베네주엘라에서 민족 해방군이 조직되였으며 과테말라, 도미니카, 니카라과, 혼듀라스, 콜롬비아에서도 유격대가 결성되였다. 유격대들은 오늘 국내의 광범한 각계 각층 인민들의 통일 전선에 확고히 기초하고 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유격대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혁명 운동》 당 및 기타 야당 세력들을 망라한 반제 민주주의 력량의 《민족 해방 전선》에 기초하고 있고 과테말라에서는 《공동 항쟁 전선》의 지도 하에 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혁명적 무장력은 이와 같이 대중적 지반 우에 튼튼히 서 있음으로써 괴뢰 집단들에 거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도미니카에서는 이미 국내의 6 개의 지역에서 유격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베네주엘라에서는 유격대들이 팔콘주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약 20 개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베네주엘라 유격대는 작년 6~9월 간

에 뻔도 카라카스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원의 주택, 미국 《군사 사절단》 건물, 미국인 소유 회사 창고, 《베네주엘라의 소리》 방송국, 미국인 소유 송유관, 미국의 《듀퐁》 도료 공장과 수도 중심에 있는 정부군 공군 사령부를 습격하였으며 감옥을 기습하여 620 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러한 강력한 무장 투쟁의 영향 하에 농민들의 투쟁이 또한 강화되고 있다. 농민들은 더욱 대중적으로 투쟁에 진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직화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무장 투쟁에 직접 참가하는 한편 이에 적극적인 지원을 주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전국적인 농민 련맹들을 창설하고 있으며 토지 개혁, 대토지 소유제와 미국 독점체들의 지배의 청산을 요구하는 강령들을 제기하고 있다.

금년 2월 하순에 진행된 페루 중부 지역 농민 협회 제 1 차 대회에서 농민 대표들은 페루 하원에서 채택된 이른바 《토지 개혁 법령》을 규탄하고 진정한 토지 개혁의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농민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브라질에서 2,000여 명의 농민들이 미국인 소유 농장들을 습격하였으며 7월에도 2,000여 명의 농민들이 대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점거하는 등 토지를 찾기 위해 투쟁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 운동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꾸바에서 창조된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꼭 같이 창조될 것이다. 카스트로가 말한 바와 같이 《어느 한때 라틴 아메리카의 전 지역이 아니면 그 대부분이 꾸바와 같이 될 것이다. 이리 하여 전 지역이 력사의 명령에 의하여 조만간에 꾸바와 같이 되고야 말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힘으로도 력사 발전의 이 합법칙적 과정을 멈춰 세울 수 없다.

문답학습

《특수 전쟁》이란 무엇인가

《특수 전쟁》은 미제의 군사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 전쟁》은 제국주의자들이 민족해방 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토착 주민들을 리용하여 선전 포고 없이 진행하는 식민지 전쟁이다. 미제는 이것을 일명 《비정규 전쟁》, 《반유격전》 혹은 《준 군사 행동》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주로 《특수 부대 교관》들을 《고문》으로 파견하고 자금과 무기를 대여 주어 괴뢰 군대들을 무장시키며 훈련시킨다. 미군은 통례로 이 전쟁의 《고문》으로서 참가하여 토착 괴뢰군들을 통제 장악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수 전쟁》은 최근 미제의 침략 전쟁의 주되는 형태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민족 해방 운동을 막아 보기 위한 그들의 주요 《처방》으로 되고 있다.

미국 전 대통령 케네디는 《특수 전쟁》은 《이미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되였으며 또한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60 년대의 투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될 것이다》라고 떠벌렸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핵 무력》, 《상비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와 대등한 정도로 《특수 전쟁》을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고 세계 도처에서 식민지 전쟁을 도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특수 전쟁》을 위해 《반게리라전》의 《전문가》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실로 이 전쟁에 방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국, 남부 월남, 오끼나와, 타오스, 비률빈, 파나마 및 서독 등지에 4 개소의 륙군 《특수 부대》 훈련 중심, 5 개의 《륙군 특수 부대》, 1 개소의 공군 《특수 전쟁》 훈련 중심지 등을 설치하고 선발된 악질 분자들로써 《미군 력사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적인 《반게리라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 내용으로는 《폭동 진압》을 위한 과목들과 《반게리라전, 심리전》과 《적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게리라전 수행》 등으로 되여 있다. 이 곳에서 훈련을 끝마친 자들이 바로 민족 해방 운동이 일어 나고 있는 세계 도처에 《군사 고문단》으로 파견되고 있다.

《특수 부대》들의 활동 구역은 대체로 네 개 지역으로 나뉘여져 있다. 오끼나와에 기지를 둔 제 1 《특수 부대》는 동부 및 동남 아세아 지역, 프트 브래그에 기지를 둔 제 5 《특수 부대》는 아프리카, 제 7 《특수 부대》는 라틴 아메리카, 서독, 바바리아에 기지를 둔 제 10 《특수 부대》는 구라파와 중동 지역 등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특수 부대》 대원들은 이러한 지역들에서 인민 무장대를 탄압 학살하는 데로 내몰기 위한 방대한 현지 고용군을 양성하고 있다.

그들은 반동 군대들과 청장년들은 물론 지어 수 많은 녀성들까지 강제로 동원시켜 《반게리라 훈련》을 주고 있으며 《반게리라 부대》를 편성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특수 전쟁》을 중요하게는 괴뢰 정권을 사촉하여 진행하는 만큼 괴뢰 정부와 군사 기구들을 이 전쟁 수행에 편리하게 개편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선가》의 외피를 쓰고 《사회 개혁》이니, 《경제 발전》이니 하면서 주민들 속에 들어 가 《직접 다리를 건설》하여 주며 《병 치료》도 하여 주는 등 일련의 량면 전술의 가면극도 벌려 놓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특수 전쟁》을 위해 남부 월남에만 하여도 2만 5,000 명 이상의 미군을 끌어 들였으며 매일 150만~200만 딸라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밀고 있다.

그러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처럼 집요하게 《특수 전쟁》에 매달리고 있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운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에서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고 이것이 무장 형태로 발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체계를 근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중간 지대》를 저들의 예속하에 두고 치부의 원천지로, 군사 전략의 전초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여 왔다.

그들은 《힘의 립장에 선》 정책, 아이젠하워의 《집중 보복》 전략 등으로 세계 제패를 실현하며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는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억제하여 보려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늘 각성되고 세련된 혁명적 인민들 앞에서는 모두 무기력한 것으로 되여 버렸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자유,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미제의 어떠한 무력 책동에도 불구하고 손에 무장을 들고 항거하여 일어 났으며 이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핵 전쟁이나 《핵무기 공갈》 정책만으로는 도저히 변천된 현시대의 이 위대한 혁명 력량의 전진을 저지시킬 수도, 약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테일러의 표현에 의하면 《집중 보복》 전략은 쓸모 없이 되였으며 변천된 조건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였다는 것이다.

이리 하여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 진압의 새로운 보충적인 수법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특수 전쟁》이다.

물론 《특수 전쟁》은 미제의 《핵 전쟁》이나 《상비적 군사력》을 보충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대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특수 전쟁》으로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진압할 수 없을 때에는 서슴지 않고 미군을 다량 침투시켜 《특수 전쟁》을 《국부 전쟁》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특수 전쟁》을 통하여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할 뿐만 아니라 지어 사회주의 국가까지 파괴하려고 꿈꾸고 있다. 그들은 《특수 부대》의 훈련을 받은 자들을 사회주의 국가에 침투시켜 정부 전복 활동이나 군사 기지 탐지 및 그의 파괴 공작 등 일련의 암해 책동을 감행하게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이 《특수 전쟁》이라는 새 수법도 그전 수법들과 마찬가지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의해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특수 전쟁》은 이미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중국에서 실시하다가 파산 당한 《3 광 정책》의 재판에 불과한 것이며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이 이미 월남에서 적용한 파산 당한 낡은 페물이다. 불란서의 한 《반유격전 전문가》가 미제의 《특수 전쟁》에 대하여 론평하면서 《미국은 불란서가 이미 시도하다가 실패한 모든 것을 반복하는 데 불과하다》고 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피압박 인민들이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귀중한 수단인 유격 전쟁 형식을 인민 무장대를 진압하는 데 리용하려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우선 그들이 인민 유격대와는 달리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지지와 성

원을 전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격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민들과 혈연적 련계를 가져야 하며 그들로부터 물심 량면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한다. 인민 유격대들이 오늘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고 있는 기본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제와 괴뢰 군대들은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여 있으므로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인민 유격대와의 전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미군의 한 지휘관은 적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그들을 찾아 내고 포촉하고 소멸해야 하겠는데 인민 대중이 그들을 감싸 주기 때문에 도저히 《적》을 찾아 낼 수 없다고 하면서 비명을 올렸다.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날이 갈수록 미제의 《특수 전쟁》 정책은 혁명적 인민들에 의해 도처에서 더욱더 파산되여 가고 있다.

남부 월남의 사태에서만도 이것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을 《특수 전쟁》의 《시험장》으로 선정하고 이 식민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각종 신형 무기와 직승 비행기를 다량 투입하였으며 지어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혁명적 인민들을 굴복시키지 못 하였다.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들은 미군과 괴뢰군들을 물리치고 남부 월남 령토의 4 분의 3을 해방시켰으며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

1963년 첫 11 개월 동안에만도 그들은 미군 약 650 명을 포함한 약 8만 3,000 명의 적 장병들을 섬멸하였으며 5,450여 개의 《전략촌》을 파괴하고 200여 대의 비행기를 격추 격상하였다.

최근 남부 월남 일대를 돌아 다녔던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 기자 드루몬트 자신도 《현 단계에서 시간은 베트콩(인민 무장대를 말함) 측에 있다. 우리는 베트콩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 하고 있다. 벌어지는 사태로 보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담보는 현재 없다》고 개탄하였다.

이 모든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떤 수단으로써도, 무기나 딸라의 《힘》으로써도 무너져 가는 저들의 식민지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세차게 휘몰아 치고 있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기필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자들을 매장하고 종국적으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윤 삼 규

근 로 자 제 11 호 (루계 249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6월 3일 발 행 • 1964년 6월 5일

ㄱ—130328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6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 (250)
1964년 6월 (하)

(반 월 간)

차 례

—문답 학습—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

《혁명을 시작한 이상 그것을
공고화하며 계속하여야 한다.》(레닌)*

로 성 훈

일반적으로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문제—이것은 시작된 혁명을 그의 종국적 목표에로까지 계속 철저하게 끌고 나갈 데 대한 전략적 문제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것은 시작된 사회주의 혁명을 그의 종국적 목표에로까지 이끌어 가기 위한 전략적 원칙으로서 제기된 것이다.

혁명을 시작한 이상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끌고 나갈 데 대한 문제는 원래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상으로 제기되여 있었다.

그들은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에 관한 사상으로서의 계속 혁명의 사상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전취로부터 공산주의 단계에까지, 말하자면 로동계급이 자기들의 세계사적 사명을 끝낼 때까지 혁명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맑스는 이미 1850년에 쓴 자기의 저서 《1848년부터 1850년까지의 불란서 계급 투쟁》에서 《사회주의는 **계속 혁명의 선포**이며 그것은 **계급 차별 일반의 폐절**, 이 차별을 낳는 모든 생산 관계의 폐절, 그리고 이 사회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념의 변혁 등에 이르는 필수적 과도 단계》라고 썼다. (맑스 엥겔스 선집 제 1 권, 1963년 판, 222 페지)

또한 레닌도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이 주권의 전취로서 혁명을 승리한 이후에도 공산주의에로 가는 과업을 완성할 때까지 혁명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상을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레닌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자본주의가 달성한 생산력 수준보다 더 높은 생산력 수준을 달성하며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과 사상 혁명을 수행하며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계급 일반을 폐절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주권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도 기본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혁명의 진부로 간주되여서는 안 된다. 주권의 고수 및 공고화가 그의 전취보다 더 어려운 과업으로 되는 이 혁명에 있어서는 문제가 달리 선다.

혁명은 주권의 전취 이후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시기에는 물론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

---

* 레닌 전집 제24권, 114 페지.

설의 시기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혁명은 중단되지 말고 종국적 승리에로, 완성에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립장에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의 계속에 관한 전략적 원칙을 천명하였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사회주의가 승리한 조건하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의 극복에 이르는 계속 혁명의 필요성과 목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계속 혁명의 중심적인 과업;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 력량을 집중할 데 대한 계속 혁명에서의 력량 배치 문제 등 전략적 방침을 주고 있다.

테제는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당면한 구체적인 제 대책들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략 전술적 방침은 우리 당 로선과 정책의 밑바닥을 관통하고 있는 시종일관한 흐름이다.

당은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이후에도 혁명은 계속하는 원칙에서 대중을 사상적으로 교양하여 왔고 자력갱생의 혁명 로선을 수립함으로써 이 원칙을 가장 철저히 관철할 수 있도록 대중을 령도하여 왔다.

우리는 혁명의 계속에 관한 테제의 사상과 당의 이러한 방침을 옳게 파악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천리마 총로선과 그에 따르는 개별적 정책들을 옳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를 자기 사업에서 성과 있게 구현할 수 있다.

1, 왜 혁명을 계속해야 하는가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이것은 물론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이 달라붙은 세계사적 위업의 견지에서 볼 때 하나의 기본적인 리정표의 걸렴에 불과하다.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후에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남아 있고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명을 계속해야…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이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우리 당의 기본 출발점이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함으로써만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할 수 있고 각 방으로 공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있다.

우리는 혁명의 계속으로써만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로동 계급과 농민의 혁명적 열의를 계속 견지할 수 있고 더 높일 수 있으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성과 있게 동원할 수 있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함으로써만 또한 고도로 발전된 경제와 문화, 조화롭게 발전된 도시와 농촌을 건설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착취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리 하여 혁명을 계속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력사적 과업의 해결 과정으로 된다. 따라서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세계

사적 사명에 충실하는 길이다.

만일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일정하게 추진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이 향상되였다고 하더라도 혁명을 계속 추진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혁명의 전취물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전진이 아니라 뒤로 물러 서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혁명 운동은 전진이냐 후퇴냐 하는 두 길 밖에 있을 수 없다.

혁명을 계속 추진시키지 않을 때 침체와 퇴보는 불가피적인 것이며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가 식어지고 낡은 사상 잔재가 되살아 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로 된다. 만일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시기에 그렇게도 혁명적이였던 로동자들이 열의가 식어지고 점차 안락한 생활과 놓고 먹는 것만을 좋아 하게 된다면, 그리고 협동 농민들이 개인 터발에만 마음이 쏠리게 되고 지어 개인 경리에로 되돌아 갈 것을 원하게 된다면 이것은 혁명이 적극 추진되지 않는 사정과 결부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혁명 발전에 엄중한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며 구경은 사회주의 제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혁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국제 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필수적인 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는 물론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문제, 그의 완성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국제 혁명의 과업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성과적 건설은 바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제국주의 체계에 대한 사회주의 체계의 승리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는 도대체 한 나라 범위에서의 혁명의 종결을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는 그것이 남아 있는 한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부단한 공격을 감행하며 음으로 양으로 전복 활동을 감행한다. 이것은 제국주의 두목들의 그 어떤 《선악》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 자체의 본질과 관계되는 근본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나라들은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반드시 혁명 투쟁의 립장을 계속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레닌은 벌써 10월 혁명 직후에 쏘베트 정권이 전 세계의 자본가들과 대립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루차 강조하였다. 레닌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이 당하게 될 혁명 투쟁의 간고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의 타개를 국제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결부시켰다:《혁명은 한 나라에서 찬란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작되여도 아마 고통스러운 시기들을 겪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세계적 규모에서만, 그리고 모든 나라 로동자들의 공동적 노력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집 제 27 권, 471 페지)

사회주의 나라들은 국제 자본과 직접 대립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자본가들의 착취 하에서 고통 받는 모든 피착취 근로 대중의 편에 철저히 서 있어야 한다는 의리적 견지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해방 투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지에서도 혁명에서 먼저 손을 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이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만일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의 일정한 성과를 자랑만 하고 다른 나라

에서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혁명을 계속하기 싫어 하는 태도일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로부터의 완전한 리탈로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국제 혁명의 승리를 위해 더욱더 물심 량면의 지지와 성원을 주어야 한다.

만일 어떤 공산주의자들이 국제 혁명에 대한 지지 성원을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혁명 수출》론과 뒤섞어 놓으려 한다면 이것은 벌써 혁명을 계속하려는 립장, 국제주의적 립장으로부터의 리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혁명 수출》을 구실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게 하고 다른 편으로는 자신들이 국제 혁명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손을 떼려는 태도를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립장에다 그 어떤 《국제주의》라는 구호를 결부시키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까마귀가 장미를 물고 피골에 역을 놓아 보려는 격일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나라의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동시에 세계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의무이다.》(《우리의 인민 군대는 로동 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 교양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국제주의적 의리를 저버릴 수 없으며, 자기 나라에서와 온 세상에서 혁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국내 국제적 혁명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필연적인 객관적 요구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하에서 계속되여야 할 혁명은 어떠한 혁명인가?

2, 어떠한 혁명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사회주의 하에서 어떠한 혁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명백한 해답을 주고 있다. 혁명을 계속하여 공산주의에로까지 가자면 아직도 남아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기술, 문화, 사상 령역에서의 차이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형태에서의 차이,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야 하며; 그리하여 총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혁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이다.

테제는 이 다섯 가지 혁명 과업 중에서도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사회주의 하에서 계속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없애야 할 혁명적 목표인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차이 자체가 중요하게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기술, 문화, 사상 상 차이에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업과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무

엇보다도 먼저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세 가지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테제)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제시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혁명 과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구체화이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근본 지향은 인민 대중을 온갖 고통에서 해방하고 다같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큰 고통의 뿌리부터,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뿌리부터 빼 버려야 한다.

현 세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의 뿌리는 계급적 착취와 압박이다. 이것은 고통의 가장 큰 뿌리일 뿐만 아니라 기타의 고통을 조건 짓는 기본 바탕이기도 하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또 정권을 잡은 이후에 있어서 우선 계급적 압박을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과업이 끝난 이후에 있어서 계속하여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과 무지의 고통에서 해방하며 낡은 사상의 압박에서 해방해야 한다는 것도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전면적인 전개—이것은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이후 혁명의 필연적인 단계로 되며 국내적인 견지에서 볼 때 혁명의 마지막 과업들로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은 사상 혁명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상 혁명 과업을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과업과 나란이, 독립적인 혁명 과업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술 혁명, 문화 혁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이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창조적 태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 실천의 제반 력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내린 귀중한 결론이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모든 사업에서 사상 사업을 앞세울 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고 관철하여 왔는바 그것은 바로 혁명 사업 자체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였다.

우리는 사상 혁명에 선차성을 부여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성과 있게 높일 수 있으며 그리 하여 그들의 자각적인 투쟁을 통하여,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수호할 수 있으며 이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만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성과적 추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상 혁명을 앞세워야 하는 것은, 이 혁명이 기술이 없거나 적은 곳에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 혁명이나 또 문화가 뒤떨어진 곳에 문화를 도입하는 문화 혁명과는 달라서 원래 존재하는 사상, 그것도 주입하여야 할 공산주의 사상과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부르죠아 사상과의 심각한 투쟁을 의미하는, 보다 간고한 성격을 띠는 혁명이기 때문이다.

사상 혁명을 앞세우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상 의식의 발전이 물질적 발전에 뒤떨어진다는 사정과 일정한 기술 문화적 조건에서는 사상 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다.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거나 뒤'자리에 미루어 놓는다면 그 어느 한 혁명 과업도 옳게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사상 혁명에서 근로자들속에서의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에 특별한 주목을 돌렸다.

계급 교양을 뒤로 미루어 놓는 공산주의 교양이란 추상적인 근면과 사랑을 설교하는 종교의 교리와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사상 사업에서 기본을

잊어 버린 것이며 《심장》과 《척추》를 잃어 버린 것이다.

사상 혁명에서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옳바른 결합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이 량자의 결합 원칙을 도덕적 자극의 선차성에서 보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대중의 혁명적인 지향을 반영한 것이며 결국에 가서 우위를 차지해야 하며 지배적으로 되여야 할 도덕적 자극의 장래 위치를 고려한 것이다.

도덕적 자극에 선차성을 부여하지 않거나 물질적 자극 일면만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을 부르죠아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리기적이고 개인-본위적인 데로 이끌어 가게 할 따름이다.

우리는 사상 혁명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기술 혁명, 문화 혁명에 대해서도 중요시하는 립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이후 다같이 전면적으로 나서는 통일적인 혁명 과업들이다.

사상 혁명을 앞세워야 하지만 이것은 기술이 적극 도입되는 조건에서, 문화적 생활 환경이 더 잘 지어지고 사람들의 문화적 소양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보다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기술 혁명도 그것은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적 각오가 있어야 성과 있게 실현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문화 혁명 특히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문화 혁명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것이 사상 혁명, 기술 혁명과의 호상 련계 밖에서는 잘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술 혁명의 적극적인 추진은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축성을 위한 필수적 요구로도 된다. 우리는 부단한 기술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만 사회주의에 적응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성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가 달성한 생산력 수준보다 더 높은 생산력 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수준에도 오르기 전에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그 어떤 기술적 수준에 완전히 도달한 것처럼 간주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서 사회주의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그릇된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유해로운 작용을 놀 따름일 것이다.

문화 혁명도 고도로 개화 발전된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업으로 된다. 다만 문화가 일정하게 개화되고 근로자들의 재부로 되였고 그들 자신의 적극적인 창조물로 되였다는 것으로써 문화 혁명의 종결을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기술, 문화, 사상 혁명 과업들을 그의 호상 련관의 견지에서 결합시킬 데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높이에로 올려 세우기 위한 목표에도 커다란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만 이에 뿌리 박고 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형태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도 종국적으로 극복하고 공산주의 사회에로 들어 갈 수 있다.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도시와 농촌 간,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 만큼 이것은 특히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농민을 로동 계급의 수준에 빨리 끌어 올리기 위한 투쟁으로 되여야 한다.

3, 농촌에서의 계속 혁명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는 농촌에서 특별히 날카로운 문제로 된다. 그것은 농촌이 처한 사회-력사적 제 조건,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 해결의 제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의 책임적인 지도와 지원에 대한 문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민은 그의 력사적 처지와 제한성으로 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만 자기의 해방 문제를 완전히,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급이다. 그러나 동시에 농민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서 로동 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강력한 력량이다. 로동 계급은 농민과의 동맹을 부단히 강화하며 그들을 로동 계급의 수준에로 부단히 이끌어 올림으로써만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농업은 그의 특성으로 하여 자체의 생산 도구와 물질-기술적 토대의 축성을 자체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문이며 따라서 이를 공업에 의존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문이다. 동시에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 경제의 2 대 부문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 원료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 경리를 공업 발전에 따라 세워야만 전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성과적인 전진을 보장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농촌 문제 해결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야 한다.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응당히 자기들의 당과 국가를 통하여 농촌 문제를 책임 지고 돌보아 주어야 하며 더우기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다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농촌 문제 해결에 력량을 돌려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후 혁명을 계속하며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농촌 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테제) 이러한 원칙과 립장으로부터 우리 당은 협동화 이후 농촌 문제 해결에 특별히 관심과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청산리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지도와 거기에서 제시된 방법 및 과업,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창설과 그 기능의 제고, 농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의 설정과 그 역할의 제고 등등을 비롯한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지도 체계와 방법의 확립, 그의 부단한 개선 강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농촌에 대한 물질적, 재정적, 기술적 및 인적인 강력한 지원은 농촌에서의 혁명의 계속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지도와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바야흐로 우리 농촌에서는 세기적인 변혁들이 계속 일어 나고 있다. 지난날 척박하고 《번더 많던》 땅은 비옥한 땅으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는 땅으로 되고 있으며 농촌 마을은 아담한 문화 주택들로 꾸려지고 있으며 농민들은 서로 돕

고 이끄는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들로 전변되여 가고 있다.

만일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뒤에도, 더우기나 튼튼한 공업 토대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도 농촌을 책임 지는 태도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없고 로동 계급과 농민의 차이도 없앨 수 없다.

만일 농촌에 대하여 그 어떤 《독자성》을 운운하면서 협동 경리가 저절로 공산주의적 경리에로 발전할듯이 간주하거나 농촌을 굶어 오는 데 몰두한다면 이것은 필경 도시와 농촌 사이에 더 큰 장벽을 만들어 놓는 데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공산주의에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뒤떨어지는 것이 법칙으로 되여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주권을 장악하는 첫날부터 자본주의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도와 주며 락후하던 농촌이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수준에 더욱더 접근하여 가는 것이 합법칙적이다.》(해제)

우리는 이 합법칙성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들어 가는 그 날까지 농촌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 간의 간격을 메워야 한다.

농촌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를 옳게 해결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지원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어떻게 혁명에 조직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농촌의 주인공은 농민들이다. 로동 계급의 지도와 지원은 이들을 혁명에로 옳게 발동시킬 수 있을 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에 대한 지원은 농민들의 사상과 생활, 요구에 적응하게 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농촌에서의 혁명의 계속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나서도록 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에 대한 지원은 또한 농촌 자체의 혁명 진지를 정치, 경제, 문화, 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이 도시의 수준에로 급속히 따라 오르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로동 계급은 농촌에 대하여 지도를 주고 물질적 지원을 줄 뿐만 아니라 직접 거기에 파견되여 들어 가서 실천적 모범을 통하여 사상-정치적 영향을 주어야 하며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수준으로, 자각된 공산주의적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농촌에서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의 계속 문제 전반은 반드시 매개 나라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적 립장에 섬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4, 자력 갱생의 원칙과 계속 혁명

다 아는 바와 같이 혁명 투쟁에서의 기본 원칙은 자력 갱생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력 갱생의 립장에 섬으로써만 혁명의 계속 문제를 옳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비록 사회주의가 승리한 조건에서의 혁명의 계속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책임적 립장과

창발적 립장을 떠나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승리한 사회주의는 결코 저절로 공산주의에로 성장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그 나라 인민들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혁명 투쟁의 계속이 요구된다.

혁명을 계속함에 있어서 중심 과업들로 되는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은 반드시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수행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다른 나라 인민들이 달성한 기술적 성과를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도입하며 또 자체로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술적 연구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길이며 따라서 기술 발전의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문화 혁명도 이것은 민족 문화를 건설하는 원칙에서 진행됨으로써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과학, 교육, 문화, 예술의 모든 분야가 자기 나라 인민의 력량에 의거하여 발전해야 하며 민족적 형식에 맞는 또 자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상 혁명에서는 특히 주체 확립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상 사업의 내용과 제 방도들은 반드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정에 맞아야 하며 그리하여 사상 사업이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과적인 건설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창발적으로 참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되는 천리마 속도는 우리 당의 이러한 자력 갱생의 원칙에 선 제반 로선의 합법칙적 결과이다.

우리 당의 천리마 총로선—여기에는 빨리 나가려는 당과 인민의 전투적 기백과 공산주의에까지 혁명을 계속하려는 굳건한 의지가 반영되여 있는바 이 로선에는 그 밑바닥에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이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기초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고 있으며 또 이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과 남반부에서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다.

남의 원조에만 기대를 걸거나 또한 남이 조건을 지어 주어야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는 혁명의 계속 문제를 옳게 해결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조건이 좋고 국제적 원조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조건이 나쁘고 국제적 원조가 없어도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혁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원래 혁명이란 간고한 조건을 타개하고 나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 갱생의 원칙과 혁명의 계속 문제는 불가분적인 련관 관계에 놓여 있다.

또한 혁명 투쟁의 전략 전술은 적극적이여야 하는데 이것은 계속 혁명의 필수적 요구로 된다. 남에게 의거하는 전략 전술은 아무래도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수 밖에 없다. 우선 자체의 원천과 력량에 의거함으로써만 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혁명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매개 나라의 문제라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나라 인민들이 주인의 립장에 서서 혁명을 추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응당한 것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 운동은 그 나라 자체의 사회 력사 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인 것이며 그 나라 인민의 현실적인 혁명 투쟁의 열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산주의 운동은 어떠한 외부의 〈지

…나 〈압력〉에 의하여 〈부식〉될 수도 …으며 발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것은 결코 …구의 〈지시〉에 의하여 하는 것도 아…며 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자…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해방을 위하여, 국제 로동 계급의 위업을 위…여 공산주의 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능을 바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도 …지 않는다.》(선집 제 6 권, 226~227 …)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자력 갱생을 기…으로 하는 투쟁 방침을 세우지 않는 …면 혁명 운동은 저조하게 되는 결과를 …할 수 없을 것이며 혁명은 계속하…기 어려운 결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명 운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주…적 원조를 주어야 하며 또 주어지는 …조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자기 나라의 혁명 발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개 나라에는 다 자기 나라의 일이 있는 것이니 서로가 남에게 전적으로 의거해서 혁명 운동을 추진시켜 보려 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다.

더우기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리성》에 기대를 걸고 자국의 혁명 문제를 운운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만일 어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도》를 렬강국들의 그 어떤 《성의》와 결부시키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혁명을 더 계속하려는 립장으로부터의 완전한 리탈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제국주의자들까지도 포함한 렬강국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이런 식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면서 전진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함으로써만 혁명의 최후 승리에로의 계속 전진을 보장할 수 있다.

5,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 교양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에로의 …국적인 이행을 보장하자면 전략 전술…가 계속 혁명의 원칙에서 수립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지 대중 자신이 …각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사상…지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철저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은 계속 혁명에 관한 전략적 원칙의 수립과 함께 그러한 사상으로의 대중 교양을 통일적 과정으로 포치하여 왔다.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뒤 전면적인 기술, 문화, 사상 혁명 과업을 포치하면서 특히 사상 혁명 분야에 크게 주목을 돌렸으며 여기에서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 교양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당 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에서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킬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인간들이 가져야 할 사상-도덕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문제 설정이였다. 이는 사회주의 하에서 혁명을 계속해야 할 일반적 요구와 특수하게는 뒤떨어진 우리의 현실을 하루 속히 선진 수준에 끌어 올리려는 우리 인민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였다.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으로의 교양은 근로자들을 천리마 시대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되게 함에 있어서 커다란 정신적 밑천을 주였다.

우리는 이 사상에 기초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보다 멀다. 우리에게는 계속 전진이 요구된다.

《우리의 혁명은 계속 부단한 전진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 개의 혁명 과업의 실행으로써 만족할 수는 없으며 계속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또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달성한 승리는 앞으로의 더 큰 승리를 위한 준비이며 더 전진하기 위한 토대이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137 페지)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달성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이 땅 우에 공산주의 락원을 완전히 건설할 때까지 계속 나아가려는 정신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하고 전체 조선 인민들을 다같이 행복한 사회에로 인도하기 위한 일념에서도 계속 혁명에 대한 사상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국제 혁명에 관심을 가지도록 교양하여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의 붉은기가 휘날릴 때까지 계속 투쟁하려는 사상으로 교양하는 면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는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 교양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반수정주의 교양과 결합하는 측면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혁명을 그만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혁명을 계속하지 못 하도록 백방으로 방해를 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들의 배신적 행위를 철저히 규탄하는 방향에서 계속 혁명에 관한 사상 교양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자신들이 시작한 혁명의 길에서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충실하여 혁명적 절개를 지킴으로써 이 땅 우에, 온 지구 상에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가져올 때까지 투쟁에 헌신토록 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지방 공업이 노는 역할

홍 승 은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과 방조를 강화하는 것은 도시에 비한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청산하며 력사적으로 형성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는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정치적 동맹에 관한 문제, 인민 경제의 2 대 부문으로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 문제를 포괄하며 이 량자는 밀접하게 련관된 두 측면을 이룬다.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는 도시와 농촌 간 련계의 경제적 측면을 이루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정치적 동맹의 전제로, 그 경제적 표현으로 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공업 및 농업의 호상 관계를 옳게 해결하며 이 두 부문 간의 련계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들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사회주의 하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옳게 설정할 데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천명되여 있으며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키고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 공업이 노는 역할이 강조되여 있다.

테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지방에 공장을 광범히 건설한다는 것은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테제의 이 명제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지방 공업 발전의 풍부한 경험을 개괄한 기초 우에서 내린 중요한 결론이다.

* *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공업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함으로써 농촌 경리에 각종 농기계를 비롯한 생산 수단들을 더욱더 많이 공급하여야 하며 또한 경공업을 발전시켜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자극하는 한편 농촌의 소비품 수요를 원만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서는 농촌의 분산성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여야 한다.

테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협동화에 의하여 농촌의 분산성은 현저히 퇴치되기는 하나 사회주의 하에서 그것은 의연히 도시(공업)와는 구별되는 농촌(농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사업 일반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며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함에 있어서도 심중하게 타산하여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지역적으로도 강화하여야 하며 전국 각지에 분산되여 있는 농촌에 용이하게,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업 형태를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은 농촌에 용이하게,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공업 형태이다.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의 동시적 발전을 견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중앙 공업과 중소 규모 지방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합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및 지역적 련계를 밀접하게 발전시켜 왔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대규모 공업은 사회주의 공업의 기본 형태이며 농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물질 기술적 토대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규모 공업만이 사회주의 공업의 유일한 형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농업과의 련계에서도 그것만이 유일한 공업 토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규모 공업은 거대한 기술 경제적 우월성을 갖는 반면에 일련의 제한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그것은 자체의 생산 기술 체계와 생산 조건으로 말미암아 광범한 분포가 제한되고 따라서 농업과의 지역적 결합에서 일정한 제약성을 가지게 된다. 물론 농업과의 련계에서 대규모 공업이 갖는 일련의 제약성은 농기계 작업소, 상품 류통 등의 환절들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으나 이러한 고리들을 매개로 하는 방법만으로써는 공간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있는 농업에 공업 생산 자체를 직접 접근시킬 수는 없다.

중소 규모 공업은 대규모 공업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단위 생산 능력당 건설비와 생산물 원가가 높을 수 있지만 그 건설과 생산의 구체적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리용(보다 간편한 부대 시설과 유리한 자연 조건의 리용, 극히 저렴한 지방 원료, 자원의 사용, 규모는 작으나 성능 높은 기계 설비들의 도입 등등)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중소 규모 공업은 자원과 수요가 있는 임의의 곳에서 쉽게 생산을 조직할 수 있는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연 지리적 특성과 관련되는 농업의 각이한 생산 조건에 적응하게, 그리고 각 지방 농촌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의 구조에 상응하게 공업 생산을 기동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하며 공업의 다방면적 발전, 농업의 다각적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농업과의 련계에서 대규모 공업이 갖는 상대적 제한성을 보충

할 수 있게 한다.

더우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대규모 공업을 전국 각지에 광범히 분포 발전시키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동안 농업과의 련계 발전을 지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닌은 《방대한 식량, 원료 및 연료의 국가 예비를 조달하거나 수송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의 소규모 공업을 발전》(전집 제 32 권, 491 페지)시키는 것이 농민의 형편을 신속히 개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리 하여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은 대규모 공업의 제한성을 보충하면서 공업과 농업 간의 지역적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방 공업을 광범히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경공업이 담당하는 사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경공업은 광범한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들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농업 생산 및 부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동하여야 하며 또한 농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킴으로써 농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에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자면 경공업 토대를 총체적으로 급격히 확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각 지방에 경공업 기지를 가져야 한다.

또한 경공업은 그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중공업과는 달리 대규모 공업과 중 소 규모 공업을 배합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소비품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구조가 다양하고 일상적이며 따라서 기동적인 충족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 주민들의 수요의 경우에는 각 지방의 기후, 풍토, 관습, 전통 및 기호 등등의 각이성과 관련하여 소비품 수요에서의 일반적 특징이 더욱 농후하게 나타난다. 각 지방에 분산적으로 형성되는 이러한 수요를 대규모 경공업의 집중적 생산만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몇몇 중앙 공업 기업소만으로써는 도저히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도 없다.

또한 경공업 원료도 각 지방에 광범히 분포되여 있으며 그 적지 않은 부분이 농업에서 생산되고 그것들은 각이한 지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적 수요를 기동적으로 충족시키자면 현지에 최대한으로 접근하여 지방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 기초하여야 한다. 지방 공업에 의하여 동원 리용되는 지방 원료에서 농민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 농산물과 부업 산물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지방 공업이 농촌에 최대한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의 본질적 사명과도 관련되고 있다.

우리 당은 보다 집중적, 대량적으로 조성되는 전국적 의의를 갖는 소비품 수요는 비교적 복잡한 기술과 국가의 중앙적인 원천들에 기초하여 중앙 공업이 생산 충족시키게 하면서 지방 공업은 지방의 원료 원천과 비교적 간편한 생산 시설에 의거하여 지방적 수요와 관련되는 소비품을 생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한편으로는 소비품의 수요와 그 생산의 기술 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대규모 공업과 중 소 규

모 공업을 배합함으로써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며 다른 편으로는 농업과의 련계에서의 경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것을 농업에 최대한으로 접근시켜 농촌의 공업 기지를 강화하고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및 지역적 련계를 밀접하게 발전시킨 현명한 정책이다.

* *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서 지방 공업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매 단계에서 각이하게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축성하는 시기에 지방 공업은 대규모의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원천을 조성하면서 공업의 토대 축성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또한 농촌의 소비품 수요는 물론 생산적 수요의 일부까지를 충족시키면서 농촌 경리의 발전,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적극 복무하여 왔다.

이 시기 당은 지방 공업을 주로 도영 공업의 형태로, 즉 도를 단위로 하여 발전시켰다.

농촌에서 개인농 경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농촌 경리 앞에 제기된 과업이 우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고 또한 지방 공업 자체가 아직 미약하였던 당시에는 도를 단위로 하는 지방 공업의 발전이 합리적인 것이였다.

그러나 이 시기 농업과의 련계에서 지방 공업의 역할은 아직 전면적으로 발현되지는 못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방 공업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미약성, 아직 협동화가 완성되지 못한 농촌 경리의 분산성, 자연 발생성과 관련되였다. 지방 공업은 아직 각 지방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기동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의 제반 원천들을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으리 만큼 발전되여 있지 못 하였으며 따라서 공업과 농업 간의 지역적 련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놀아야 할 자기의 사명을 충분하게 다할 수 없었다.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서 지방 공업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가 축성되고 특히 지방 공업 자체의 기지가 대대적으로 확장된 이후부터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수개월 간에 1,000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새로 일떠섰다.

당은 지방에 공장들을 광범하게 건설한 데 뒤'이어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하며 농촌 경리와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우리 당의 조치에 의하여 지방 공업은 종래와 같은 중앙 공업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정도를 벗어 나 이제는 중앙 공업과 함께 소비품 생산의 기본적 원천의 하나로서 각 지방 농촌에 조성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였으며 농촌에 최대한으로 접근하여 있는 공업 기지로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과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였다.

특히 지방 공업은 이제는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군이 도시와 농촌을 련결하는 거점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자체의 공업 생산 토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군이 지방 경제 발전의 종합적 단위로서 군내의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를 유기적으로 련결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 경리가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게 되고 식량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조건에서 군내에 광범한 농산 원료 기지가 조성되였으며 농촌의 경제 생활에서 자연 발생적 요소가 일소되고 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도 이제는 계획적으로 급속히 장성하게 된 것 등은 군을 단위로 하는 지방 공업 발전의 새로운 유리한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지방 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획적으로 급격히 장성되고 그 원료 원천이 더욱 광범하게 조성되게 된 것은 지방 공업으로 하여금 농촌 경리와의 밀접한 련계 밑에 군의 자연 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지방 공업이 군적 규모에서 조성되는 수요를 군내의 원천들에 기초하여 기동적으로 충족시키면서 군을 단위로 하여 공업과 농업 간의 지역적 련결을 확고히 보장하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매개 시, 군에는 평균 1.4 개의 식료품 공장, 1.1 개의 일용품 공장, 1.5 개의 직물 공장(자료는 1962년 현재)들을 포함하여 평균 10여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있다.

거의 모든 시, 군이 가지고 있는 식료품 공장들은 군내 주민들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관련되는 수 많은 품종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군들의 간장, 된장, 기름 등의 생산 능력은 벌써 군내 수요의 규모를 릉가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례컨대 창성 식료 공장에서는 1962년에 전국적인 년간 인구 1인당 소비 기준에 비하여 각각 1.3 배나 되는 간장, 된장과 2.4 배 이상의 기름을 군내 주민 1 인 당 소비량으로 생산하였다. 이것은 이 공장들이 식료품의 가장 기본적인 품종에 대한 군내 수요를 풍족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여 군내의 식료품 수요를 더 좋게, 보다 다양하게 충족시키면서 전국적 수요의 충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직물 공장도 거의 모든 시, 군에 설치되여 군내 직물 수요의 적지 않은 몫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일용 필수품 수요도 그 상당한 부분이 지방 공업 생산으로 충족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지방 공업이 군내 경제의 종합적 발전과 군내 주민들의 수요에 적응하게 자기의 부문 구조를 갖추면서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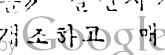
* *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 공업의 급격한 발전은 지방의 자연 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추동하여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 지방들은 산과 바다를 끼고 있으며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촌 경리의 발전, 농민들을 비롯한 지방 주민들의 수입 및 생활 수준의 향상은 산과 바다를 옳게 리용하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리므로 우리 당은 •시종일관 《산을 낀 테서는 산을 리용하고 바다를 낀 데서는 바다를 리용하라》는 원칙에서 지방 공업과 지방 경제를 발전시켰다.

지방 공업의 급격한 발전은 농민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과 부업 산물을 제때에 수매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높이고 생산 의욕을 자극하며 또 그것을 제때에 가공하여 농촌에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장성하는 구매력을 실현시키고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농민들은 자기들이 생산 공급하는 각종 원료들이 자기 지방의 공장들에서 어떻게 가공 공급되는가를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며 자기들의 생산과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 주는 지방 산업 공장들의 발전에 밀접한 리해 관계를 갖게 된다. 농민들은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 자연 경제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지방 산업 공장들에 더 많은 각종 원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지방 산업 공장들은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농업 생산 및 농촌 부업의 발전을 보다 추동할 수 있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철저히 관철시킨 창성군의 경험은 군내의 자연 경제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군내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옳게 결합한다면 자연 경제적 조건에 기인하는 매개 지방들 간의 경제 발전 수준 상 차이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그것은,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밀접히 결합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크게 추동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지방 공업은 농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자인 동시에 소비 상품의 공급자로서 공업과 농업 간 련계의 생산적 및 소비적 측면에 다같이 작용하며 지방 시장의 용량을 확대함으로써 군을 단위로 하는 지방 경제 발전의 더욱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지방 공업의 대대적인 발전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서 큰 작용을 한다.

김 일성 동지가 일찌기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이 공장들을 각지에 골고루 분포시킨 리유의 하나는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급속한 시일 내에 없애자는 데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 공업이 전국 도처에서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공업의 광범한 분포가 이룩되고 공업 생산력 배치의 더욱 합리적인 균형이 조성되게 되였다. 최근 년간 지방 공업 발전의 비상히 높은 속도는 특히 종래 공업 토대가 없던 산을 많이 낀 지방들에서 더욱 현저하였으며 이 지방들도 지방 공업의 발전에 의하여 도시의 물질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였다.

지방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로동 계급의 대렬을 확대하고 매개 지방들에 로동 계급의 새로운 부대를 조성하며 전국 각지에서 그 지도적 역할과 영향력을 일층 강화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부양 가족 녀성들의 진출에 의한 녀성 로동자 대렬의 급격한 확대는 녀성 해방의 력사적 과제로서 엥겔스가 제기한 《녀성 전체의 사회적 로동에의 복귀를》 실현시키면서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매 가정들에까

지 로동 계급의 사상과 생활 태도를 깊이 침투시키게 하였다.

지방 공업의 광범한 발전은 대도시에의 인구의 과도한 밀집을 청산하고 인구가 전국 각지에 균형적으로 분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지방 산업 공장들이 자리 잡고 발전하게 됨에 따라 군 소재지들은 일정한 인구와 문화를 가진 지방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였으며 그것들은 농촌과의 지역적 결합을 달성할 수 있는 더욱 유리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농촌의 락후성, 외계로부터의 고립, 미개성 등의 청산과 아울러 대도시에의 방대한 대중의 부자연한 밀집의 청산》(레닌 전집 제 21 권, 66 페지)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이리하여 지방 산업 공장들은 도시 공업의 기술, 문화, 사상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청산하는 데 기여하는 로동 계급의 유력한 기지의 하나로 되고 있다.

테제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량자 간의 차이를 없애자면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문화 수준,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전 인민적 소유 관계를 농촌에 최대한으로 접근시켜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농촌에 대한 도시의 기술, 문화, 사상의 영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조밀한 그물로 전국을 덮는 또 하나의 전 인민적 소유의 공업 생산 기지 계통을 이루면서 농촌 지역에 최대한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군내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함께 군 단위에서 물질적 재생산 뿐만 아니라 전 인민적 소유 관계까지도 확대 재생산할 수 있게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 간의 유기적 련계를 보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방 공업이 농촌(농업)에 대한 도시(공업)의 영향을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소멸 과정을 촉진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논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공업과 농업의 련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지방 공업의 거대한 역할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모든 군들에서 이미 축성한 토대에 의거하여 지방 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지방 원료 특히 농산물과 부업 산물을 가공하는 데 더욱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강화하고 생산 문화와 기업 관리 수준을 더욱 높여 군내의 농촌 경리와 기타 부문에 더욱 큰 영향을 주어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여 농촌과 기타 지방의 수요를 보다 다양하게, 더 좋게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창설 발전된 지방 공업은 자기 앞에 부과된 과업을 더욱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업과 농업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천리마 시대와 우리 음악

문 종 상

1

시대의 사상, 인민의 생활 감정에 대한 민감성은 오래 전부터 우리 음악의 중요한 특성을 이루고 있었다.

부르면 부를수록 사람들을 한없이 락천적인 정서 세계에로 이끌어 가는 우리의 민요들은 그것이 곧 당시 인민들의 생활 감정을 얼마나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농부가》, 《어부가》를 비롯한 다채로운 로동 가요들과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 도덕 생활을 반영한 입의의 서정 가요들을 상기해 보라!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의 거세찬 투쟁 과정에서 《강강 수월래》, 《쾌지나 칭칭나네》들이 창작되였으며 특히 《신아우》와 같은 투쟁의 기백으로 일관되여 있는 곡조들이 창작되였다.

우리 음악의 이러한 전투적 기백과 락천성은 30 년대의 혁명 가요들에서 더욱 풍부화되였다. 30 년대의 혁명 가요들이 오늘도 우리 천리마 기수들의 사상 감정을 격동시키고 듣는 사람들에게서 힘과 용기를 자아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를 반대하여 영웅하게 투쟁한 공산주의 투사들의 전투적이고 락관적인 사상 감정을 그 대로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우리 음악은 혁명 가요의 이러한 전통과 민요들의 풍부한 가락들을 옳게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데서 질적인 비약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우리 음악이 당 사상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당의 확고한 지도에 의하여 발전되고 있으며 인민의 사상 감정을 대변하려는 창작가들의 목적 의식성이 또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로동당 시대, 천리마 시대의 들끓는 사상 감정과 기백을 담은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와 같은 작품은 우리 창작가들이 시대의 과업과 인민의 지향에 얼마나 민감하고 그것을 높은 예술성으로 구현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 하여 오늘 우리 음악은 시대와 생활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확고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음악이 들끓는 천리마 시대의 사상 감정과 인민의 높은 지향을 보다 심오하게 다양하게 형상한 크고 무게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서 우리 작곡가들은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하며 힘과 지혜를 다하여야 한다. 그 만큼 우리 생활은 넓어지고 인민의 사상 감정은 풍부해졌으며 그들의 미학적 요구도 높아졌다. 우리 음악이 참으

로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이러한 영웅적 시대의 미감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 추동할 수 있는 사상 예술적으로 걸출한 대작을 만들어 내는 데 모든 창작가들이 결정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

2

새로운 시대와 생활과 인간 관계를 반영한 대작을 만들어 낼 데 대한 문제는 일찍부터 우리 창작가들 앞에 제기된 과업이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이미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과거 사회라면 수십 년 혹은 세기를 두고서만 달성될 수 있었던 그러한 창조적 성과와 경험들을 우리는 불과 20 년도 채 차지 못 하는 짧은 기간에 쌓아 놓았다.

항일 빨찌산들의 전투 위훈을 음악 형상적으로 일반화한 《압록강》과 같은 대작이 벌써 평화적 건설 시기에 창작되였던 것이다. 이 교성곡은 항일 빨찌산들이 장강을 건너 조선 인민의 기개를 온 천하에 시위한 보천보에서의 력사적 승리를 우수한 음악 형상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의 제 1 악장은 력사의 강 압록강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일제의 기반 하에서 수난을 겪고 있는 조국의 모습을 그 대로 련상할 수 있으리 만큼 훌륭하게 일반화되고 있다.

도도히 흐르는 장강에 대한 폭 넓고 웅심 깊고 장중한 선률 형상에 뒤'이어 계속되는 한 많은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 배'목에 몸을 실고 천 리 길을 흘러가는 청춘의 가슴 속에 움튼 랑만과 애틋한 감정 등 가지가지의 음악 형상들이 서로 교체되면서 어느듯 사람들의 가슴 속에 조국에 대한 뜨거운 정과 애닮고도 통분한 그러나 조국의 미래에 대한 태산 같은 신념을 안겨 준다.

《압록강》의 장중한 울림은 사람들에게 시대와 생활과 민족의 감정을 감촉케 하는바 여기에 이 작품이 가지는 형상의 힘이 있는 것이다.

투사들의 백절 불굴의 정신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고매한 정신 세계와 풍부한 인간성은 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서도 훌륭하게 일반화되였다. 이 가극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깊고 엄숙한 음악 형상들은 개구장으로 《행세》하면서 어려운 혁명 공작을 하는 주인공 최 병훈의 진정한 혁명가적 성격을 천명하여 주고 있다.

이 가극의 여러 장면에서 새로운 인간 성격들을 천명하는 아주 섬세한 음악적 명암을 찾아 볼 수 있는바 이것은 우리 음악이 새 형의 인간 성격을 음악 형상으로 일반화하는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천리마 시대에 꽃피고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 관계들을 반영한 가극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어머니의 품》, 《독로강반에 핀 꽃》 등도 우리 음악에 새로운 질적 특성을 첨가하였다.

이런 작품들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 품성이 오늘의 시대 사상과 결합되여 새로운 공산주의적 도덕으로 더욱 발전됨으로써 감동적인 이야기로 충만되여 있는 우리 현실의 면모가 진실하게 반영되고 있다.

현실의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상화하는 데서 우리 음악이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물론 아직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며 음악적 성격화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탐

구한 이 새로운 작들은 우리 음악이 장차 더욱 풍요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붉은 서광》과 같은 음악 무용 서사시들과 《밝은 태양 아래》와 같은 음악 무용극 작품들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 력사와 천리마 시대의 위대성을 형상적으로 일반화할 데 대한 생활의 요구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쟌르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유구한 력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백두산, 금강산의 기상을 타고 난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 소박하고 근면한 인민의 고매한 정신 세계와 전대미문의 수난 속을 뚫고 나온 인민이 겪은 슬픔과 비애, 치솟는 울분과 증오, 승리의 기쁨과 열정 등 각가지 곡절을 체험한 우리 민족의 감정과 기분이 반영되고 있으며 오늘은 낡은 것을 짓부시고 인류의 희망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인민 즉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자각한 인민의 그 위대한 정신 세계와 투쟁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며 오늘의 삶에 대한 다함 없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해방 후 시기의 우리 음악이 청소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이 성과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작 창작에서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위대한 현실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것이며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산천도 사람도 몰라 보게 변모한 시대, 이 시대를 명도하고 이 시대를 창조해 놓은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력사적 위훈을 후손 만대에 전해 줄 수 있는 기념비적인 대작이 우리에게는 적다.

우리의 교향곡들에서는 위대한 천리마 시대의 호흡과 감정, 기분이 음향적으로 울려 나오지 못 하고 있으며 우리의 교성곡들에서는 《압록강》에서 달성된 음악적 일반화의 길이 계속 개척되고 확대되고 공고화되지 못 하고 있다. 우리의 가극, 창극, 음악 무용 서사시적 작품들에서는 새 시대의 인간 성격들을 음악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구현하지 못 하고 있다.

오늘의 영웅 서사시적 현실은 작곡가들의 창작을 위하여 얼마나 무궁무진한 생활적 토양인가! 수천 년을 두고 인류가 념원해 온 진실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 인간의 모든 재능과 지혜와 능력이 활짝 꽃피고 있는 그런 생활! 이 위대한 현실 생활은 응당 그에 상응한 깊이와 폭에서 음악 형상적으로 반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시기 걸출한 음악을 창작한 작곡가들은 인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이 한갖 꿈과 리상과 념원으로만 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살면서조차 자유롭고 행복한 인민 생활에 대한 위대한 송가를 창작해 내였다. 그런데 이전의 작곡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격동적인 사실로 충만되여 있는 사회에서 살며 창작하는 우리 작곡가들이 이 위대한 천리마 시대에 대한, 영웅적 인민에 대한 우람찬 송가를 창작해 내지 못 한다면 그것은 시대와 생활이 제기한 숭고한 임무를 다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거창한 천리마 현실을 음향적으로 일반화한 걸출한 음악 대작들을 더욱 왕성하게 만들어 내지 못 하는 것

은 우리 작곡가들이 시대 앞에 지닌 임무에 대한 예술가적 자각이 부족한 데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 작곡가들의 창조적 포부는 크지 못하며 시대를 내다 보고 그것을 시대의 높이에 서서 일반화하려는 창조적 대담성과 사상적 안광, 창작적 환상도 넓지 못 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생활 내용을 깊고 폭 넓게 형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일부 작품들에서는 생활 내용들을 음악적으로 일반화한 형상들을 창조할 대신에 극적 줄거리 발전을 묘사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현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흔히 창조적 탐구가 결여된 안일한 창작 태도에서 생기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음악은 그 자체가 묘사성에서 극히 제한된 예술이다. 음악에서 묘사는 인간의 미묘한 정신 세계의 내'적 움직임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는 경우에만 자기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묘사의 가능성을 충분히 리용하면서도 기본 관심은 인간의 정신 세계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즉 음악 형상적 울림으로 일반화하겠는가에 두어야 한다.

관현악, 합창, 가극을 비롯한 큰 형식에서 천리마 시대의 호흡과 맥박을 감촉할 수 있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매한 감정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음악 형상을 창조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3

우리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간고하고 벅찬 투쟁을 통하여 많은 것을 건설하였고 많은 것을 창조하였지만 아직도 자기의 할 일을 다하지 못 하였다. 우리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조국의 절반 땅은 여전히 원쑤들의 발'길에 짓밟히고 있다. 같은 피'줄을 이은 수천만의 겨레들이 무서운 생활고와 도탄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오늘도 원쑤와 맞서서 피투성이의 판가리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는 비상한 로력 투쟁으로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당이 제시한 사상, 문화 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인민의 생활을 하루 속히 발전된 나라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 앞에 서 있다. 우리는 많은 고지를 넘어 왔으나 우리 앞에는 더욱 높은 고지가 우뚝 솟아 있다.

시대는 의연히 우리 인민에게서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기분, 비상한 영웅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음악은 바로 시대의 이와 같은 요구에 더 잘 대답하여야 하며, 인민 대중을 줄기찬 로력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고 준엄한 계급 투쟁에로 부르는 자기의 전투적 기능을 더 훌륭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음악 예술은 인민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 심오성과 더불어 전투적이고 혁명적이여야 하며 원쑤와의 판가리 싸움에 나선 인민의 예리한 무기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들의 심장을 곧바로 육박해 들어가는 장엄하고 씩씩하고 영웅적 기백으로 충만된 혁명 가요들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적인 노래는 총탄이 미치지 못 하

는 곳에서 적들의 심장을 꿰뚫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기 레닌은 혁명 가요의 사상적 영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아무리 경찰들이 접어 들어도 세계의 모든 대도시들에서 모든 공장 부락들에서…고용 노예로부터의 인류의 멀지 않은 해방을 일치하게 노래하는 프로레타리아적 가요가 울려 나오는 것을 막아 낼 수는 없다.》(《독일에서의 로동사 합창단들의 발전》)

이와 같이 혁명 가요는 대중을 단결시켜 원쑤 적멸의 투쟁에로 혁명적 위훈에로 고무 추동할 뿐만 아니라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전률케 하는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로 된다.

해방 후 시기의 우리 음악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혁명적인 내용을 가진 노래들이 적지 않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창작된 《결전의 길로》와 함께 전쟁 직전 시기에 창작된 《조국 보위의 노래》, 《빨찌산의 노래》들이 인민을 성스러운 싸움에로 불러 일으킨 그 위대한 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매일과 같이 스피커를 통하여 울려 나오는 혁명적인 노래들은 길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승리의 신심을 가슴 가득히 안겨 준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훌륭한 혁명 가요들이 많지 못하며 인민은 오늘의 장엄한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훌륭한 혁명 가요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인민은 우리의 천리마 대진군을 더욱 고무 추동해 줄 뿐만 아니라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기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탄압을 박차고 영웅적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우리의 벅찬 생활과 힘 있는 성원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강한 호소력을 가진 혁명 가요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조국의 절반 땅은 이 시각에도 세찬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라지오를 통하여 들려 오는 방송원의 급하고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부르쥐기도 하며 참을 수 없는 격분과 흥분에 싸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울려 오는 우리의 일부 노래들은 이러한 감정과 기분을 살리지 못 하고 있으며 어쩐지 아쉬운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 최근에 창작된 적지 않은 행진곡적인 노래들이 바로 이렇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벅찬 우리의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으며 격동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심정을 울려 주기에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행진곡적인 노래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은 노래들의 성격적 특징이 없고 일반적인 호소에 그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서 구체적이며 생동한 정서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최근의 행진곡풍의 노래들은 《서로 엇비슷해서 분간할 수가 없고 딱딱하고 웨치기만 하기 때문에 노래다운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행진곡풍의 노래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드러내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음악 창작이 그러하지만 특히 혁명적 내용을 가진 행진곡풍의 가요 창작은 매우 어렵고 책임적인 분야이다. 그것은 이 노래들이 모든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상 감정을 노래하면서도 그대만 고유한 개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이 불과 8 ~16 소절의 범위를 멀리 벗어 나지 않는 짧은 가락에서 일반화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래의 선률적 가락에는 모든 것이 구비되여 있어야 한다. 즉 만인의 심정을 틀어 잡을 수 있는 사상적 넓이, 뚜렷한 성격, 창작적 개성이 구비되여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없으면 군중을 끌 수 없고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행진곡풍의 노래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용수철처럼 탄력이 있고 약동하는 맥박을 가진 넋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요의 넋은 작곡가가 위대한 시대의 거류 속에서 자기 심장을 불태우며 천리마 기수들의 그 열화와 같은 심정으로 생활을 노래할 때에만 생겨 난다. 작곡가 자신이 자기의 노래에 온 정열과 사랑과 심혈을 부어 넣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노래의 넋은 생겨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천리마 시대의 넋이 담긴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가요—우리 음악은 이런 것으로 더욱 풍부화되여야 한다.

4

우리의 생활이 더욱 커지고 깊어 짐에 따라 인민은 참으로 사상 예술적으로 무게 있는 대작과 혁명 가요들은 비롯해서 우리의 다양한 현실 생활의 흥겹고 유쾌한 기분을 반영한 산뜻한 노래와 음악들도 더욱 풍성하게 창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람찬 로동의 끝에 맛보는 휴식의 한 때를 더욱 흥겹게 해 주는 경쾌한 기악 작품들과 음악 스케치, 바라이테와 경가극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노래와 경음악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에 대한 사상 정서적 작용은 결코 가극이나 창극, 교성곡이나 관현악 작품들과 같은 비교적 큰 음악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지로 좋은 서정 가요들과 경쾌한 각종 경음악들은 인간 생활의 친근한 동반자로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윤택케 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놀고 있다.

물론 노래와 경음악은 현실 생활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상 생활에 매우 친근하게 참여하면서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앙양시키며 현실에 대한 락천적인 생활 감정을 배양한다.

우리는 하루 일을 끝마친 청년 남녀들이 행복에 겨워 부르는 《하늘은 푸르고 내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를 들을 때 저도 모르게 수령에 대한 흠모와 사회주의 락원에 사는 행복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군 한다.

우리의 생활 자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흥겨운 기분으로 가득 차 있을진대 응당 우리의 극장 무대들에서도 이러한 생활을 반영한 다종다양한 경쾌한 음악 작품들이 울려야 하지 않겠는가! 좋은 노래도 있고 유쾌한 음악도 있고 대사도 있고 시도 있고 무용도 있는 경가극, 음악 스케치, 바라이테를 비롯한 다채로운 음악 작품들—청중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며 생활을 더욱 흥겹게 체험하게 하는 음악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 ※

생활과 인간의 정신 세계를 노래하는 작곡가가 진실로 사람들에게 생활의 의의를 가르쳐 주며 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고무 추동하는 훌륭한 음악 작품을 창조하려면 작곡가의 심장이 우선 혁명적 열정으로 불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생활 발전의 기본 흐름과 그 속에서 움트고 성장하는 새로운 싹들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생활을 음악적으로 일반화할 수도 없다.

참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음악 형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작곡가의 심장 속에서 생활과 인간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이 불타고 있어야 하며 생활을 똑바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넓은 사상적 안목과 인간에 대한 깊고 다방면적인 파악이 있어야 한다.

작곡가의 심장과 안목이 이렇게만 준비되여 있다면 사실 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데서나 《대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 압록강을 가로 막고 우뚝 솟아 오르는 운봉의 언제를 볼 때 우리의 위대한 힘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세기적 기념비를 세우는 시대와 사람들에 대한 큰 긍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것은 문'자 그 대로 천리마 시대의 《대교향곡》인바 이러한 《대교향곡》들은 우리가 살며 일하는 도처에서 울려 오고 있다. 문제는 작곡가가 생활과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심정을 항상 간직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찾아 내는가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또한 작곡가가 무게 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비상히 깊은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사회 현상들과 과학 문화에 대한 참으로 백과 전서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가령 시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 가사와 음악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우수한 성악 작품의 창작을 바랄 수 있겠는가? 희곡 문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지 못한 작곡가에게서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가극 작품의 창작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적지 않은 작곡가들의 사상 예술적 준비 정도는 아직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의 지식에는 빈 구석들이 적지 않다.

시대와 생활이 우리 앞에 제기한 보람찬 창조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창작하면서 자기의 소양을 더욱 높여야 하며 인내성 있게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창작하는 기풍을 가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악 예술의 창조자들이다. 이것은 영예로운 과업이며 또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기도 하다. 이 과업은 당이 제시한 정확한 문예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작곡가들의 인내성 있고 이악한 창조적 탐구와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성, 문화성 제고에서의 미적 정서 교양

강 성 만

공산주의적 인간 풍모의 특질은 당성, 계급성이 확고하고 풍부한 인간성, 높은 문화적 소양이 겸비되어 있는 것이다.

현시기 당은, 인'군들이 로동 계급의 계급적 의식으로 확고히 무장하며 풍부한 인간성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은 일도 잘 하여야 하며 동시에 문화적 소양도 높아야 한다. 웃기도 하며 인정미도 있어야 한다. 당성이 강하면서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여야 하는 것이다.》(김 일성)

인'군들의 인간성, 문화성을 높임에 있어 미적 정서 교양은 자못 중요하다.

미에 대한 교양이란 생활에서 아름다운 것을 옳게 인식하며 《미의 법칙》에 맞게 생활을 창조할 줄 아는 능력과 정서를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게서 미적 정서는 그의 인간미를 풍부히 하게 하며 문화성을 높이게 하는 바탕으로 된다.

인간성, 문화성은 미적 정서와 통일되어 있다.

인간성과 미적 정서

인간성은 고상한 인간 정서와 감정의 발현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 배려, 우의, 사랑은 도덕적인 의리와 함께 미적인 정서와 련관되고 있다. 미적 정서가 풍부하면 인간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리해하며 그를 열렬히 사랑하며 또한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려는 심리와 충동이 발현된다. 따라서 미적 정서는 사람들을 고상한 인간적 감정, 열렬한 우의와 사랑, 인도주의적 풍모를 가지게 한다.

또 미적 정서가 풍부할 때만이 사람들은 서로 생활적으로 어울리며 인간적으로 깊은 우의와 동지애가 형성된다. 그리 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정서 세계에서 일어 나는 심리적 파동들: 지향, 번뇌, 기호 등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악하게 되며 그에 대한 인간적, 동지적 배려를 돌릴 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높은 인간성의 발현들: 락오자를 개조하며, 한 생명을 위하여 수십 수백 명이 살과 뼈를 이식해 주며, 잃은 형제를 찾아 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품성 등은 모두 그들의 고상한 인간적 감정, 높은 미적인 생활 정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 정서와 감정이 메마른 사람에게서 인간성을 찾기는 어렵다.

미적 정서와 소양이 부족한 사람은 다정 다감하지 못하고 언어, 행위에서 딱딱하고 거칠며 따라서 그 만큼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우의적인 관계를 형

성하기가 힘들다. 생활 정서와 감정이 무며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생활과 심리를 리해할 수 없다. 설사 리해한다 하여도 그에 공감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무심할 수 있다.

일부 일'군들은 사실 본심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적 정서가 없음으로 하여 사람들을 무뚝뚝하게 대하고 또 《무정》한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것은 다정 다감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과 생활 정서적으로 어울리지 못 하고 그리 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에 깊이 파고 들지 못 하며 생활 심리적 번뇌, 사상을 리해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정서적으로 대해 주는 사람을 인간미가 있다고 하며 반대로 인간미가 없는 사람을 감정 없는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미에 대한 교양은 사람들에게 미적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그들을 다정 다감하게 한다.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 슬기로운 것 등을 인식하는 과정은 정서와 사상을 풍부히 해 주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미적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성을 풍부히 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이다.

미적 의식은 인간에게 비단 그 어떤 부드러운 감정 정서를 주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계급적인 미관은 인간성을 철저한 당'적인, 계급적인 것으로 발현하게 한다. 인간성은 순수한 《인정》은 아니다. 인간성은 계급적인 것이다.

생활은 다양하며 인간 관계는 복잡하다. 다양한 생활, 복잡한 인간 관계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로동 계급의 계급적인 의식과 함께 미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

로동 계급의 미관에 확고히 서지 못 하면 인간 생활에서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것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따라서 인정, 우의, 사랑이 계급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그리 하여 인간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비계급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인심》을 쓰며 《동정》을 표하는 경향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계급적인 원칙이 없는 초계급적인 《인류애》는 혁명가와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이렇듯 미 의식은 인간성을 풍부히 하며 그것을 정확히 발현시키게 하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문화성과 미적 정서

일'군들의 문화성은 로동 계급의 미적 관점과 소양에 기초한다. 문화성이란 아름다운 것과 일맥 상통한다. 미적인 정서가 풍부하지 않고서는 결코 문화적인 수준과 소양을 높일 수 없다.

미 의식은 사람들에게 사업과 생활에서 미적인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써 결국 생활에서 어떤 것이 문화적인 것인가를 리해할 수 있게 한다.

미적 의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외모 단장에서, 언어 생활에서, 례의 범절에서 문화적인 것과 비문화적인 것,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잘 분간할 수 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생활이 유족해짐에 따라 문화적인 생활 양식을 요구한다. 례하면 옷차림에서 맑고 명랑한 것을 좋아 한다. 이것은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미관의 발현이다. 만일 일'군들이 현대적인 미관에 서지 못 하면 낡은

미감으로 하여 맑고 명랑한 옷차림을 마치 검박성, 소박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그릇 간주할 수도 있다. 녀성들의 소박한 옷차림은 마치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는 것이라고 간주하거나 무더운 여름철에도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낡은 관점이다. 이것은 현대적인 미감에 맞지 않는다.

과거 우리 인민은 빈곤하고 구차하게 살아 왔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 생활 령역에서 높은 미적 요구를 제기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관에는 일정하게 착취 받는 인민의 우울하고 침침한 생활 처지와 환경이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유족해졌다. 현대적인 미감은 이러한 새 생활의 필수적 요구이다.

미적 의식은 생활에서 문화적인 것을 인식할 능력을 주는 동시에 생활을 《미의 법칙》에 맞게 즉 문화적으로 꾸릴 수 있는 심리적 충동과 능력을 준다. 문화적인 생활은 미적인 것을 생활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이 풍부할 때만이 가능하다.

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선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려는 지향도 나올 수 없다. 사람들의 문화성은 결코 어떤 외'적 강요로써는 높일 수 없다. 사람들의 생활 정서, 심리, 기호 등이 고상하고 문화적으로 되여야 생활도 문화적으로 꾸릴 수 있다.

미적 소양 여하에 따라 생활을 꾸리는 데서 그 문화성의 정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같은 아빠트, 같은 생활 기구를 가지고도 방을 꾸리는 데서 미적 소양 여하에 따라 장식과 가구 배치, 정돈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그 방의 아늑감, 조화감 등이 다르게 된다. 아름다운 것을 구현할 능력과 소양이 풍부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릴 수 없는 것이다.

일'군들이 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생활을 알뜰하게 꾸리는 데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자본주의 생활 양식을 뿌리 뽑을 수 없으며 특히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류포하고 있는 양풍을 반대하는 투쟁을 옳게 진행할 수 없다.

양풍은 부패한 부르죠아지들의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미 의식의 소산이며 결정체이다.

오늘 양풍은 자본주의 나라를 유령과도 같이 범람하고 있다. 쟈즈, 만보, 트위스트 따위의 색정적이고 추잡한 노래와 춤 그리고 강간, 살인, 강도질 등의 패덕 행위와 광란적인 오락은 모두 이러한 미관의 소산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양풍을 《현대적 류행》으로 선언하면서 그것을 사회주의 나라에 류포시킴으로써 건전한 로동 계급의 미관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양풍을 반대함에 있어서도 일'군들이 로동 계급의 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와의 투쟁을 정확히, 철저히 진행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의 미관에 철저히 서지 못 하면 양풍의 추악성, 비도덕성을 리해하지 못 하고 《날날이 패》들이나 좋아 하는 괴이한 옷차림이나 렵기적이며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오락 등을 마치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그릇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로동 계급의 미관에 확고히 섬으로써만 이러한 양풍의

추악성, 비문화성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를 철저히 증오하며 배격할 수 있다.

일'군들의 미적 정서는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는 데서 뿐만 아니라 생산문화를 높이는 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논다.

오늘 인민들은 제품에서 유용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것 즉 제품의 쓸모와 함께 그의 색채, 모양, 형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돌린다. 그러므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는 미에 대해서도 주의를 돌려야 하는 것이다.

례하면 건축물은 쓸모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건축물이 비단 실용적 요구만이 아니라 정신적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이 부문 일'군들의 미적 의식에 높은 요구를 제기한다. 일'군들의 미적 정서가 풍부할 때 건축물은 편리하고 쓸모 있게 되는 동시에 인민들의 혁명적인 지향과 랑만적인 정서를 반영하여 맑고 밝으며 선진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건축물이 침침하고 다양하지 못 하거나 조화되지 못 할 때 그것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만족을 주지 못 할 것이며 또 거리와 마을도 빛을 내지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경공업품 생산에서도 제기된다. 경공업품은 알뜰하고 깨끗해야 하며 간편하고 보기 좋아야 한다. 하나의 완구, 한 벌의 의복, 한 메터의 천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대 인민의 미적 정서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의 미적인 의식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적 의식은 일'군들의 인간성, 문화성을 높이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논다. 풍부한 미적 정서—이것은 일'군들의 인간성, 문화성의 중요한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인간미 있고 문화적 소양이 높은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미를 감수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동 계급의 미관

미를 인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의 미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객관 세계의 아름다움을 감수하는 견해는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적인듯 하다. 그러나 미에 대한 인식, 관점은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르다. 특히 로동 계급의 미관과 부르죠아지의 미관은 정반대된다.

로동 계급의 미관은 혁명적이고 전진적인 것이며 발전하는 미래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동 계급의 미관에 설 때만이 객관의 미를 가장 정확히 리해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생활에서 아름다운 것,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하루 바삐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이며 그의 창조물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정신 세계에는 참으로 고상한 로동 계급의 미관이 지배하고 있다. 당에 대한 충실성, 로동에 대한 적극성, 불요불굴의 투지, 소박성, 겸손성, 혁명적 락관성 등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미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정신적 미는 생활에서 밝고 명랑하며 전투적이고 랑만적인 데서 미적 정서를 찾고 있다. 근

로자들의 이렇듯 고상한 미관은 우리의 생활에 대한 환희, 행복 그리고 우리의 혁명 위업에 대한 자부심과 승리의 신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착취 계급은 우울하고 침침하고 애수적이며 진부한 것에서 미를 찾는다. 그들의 미는 패륜과 부화 방탕이며 타래와 암일 뿐이다.

부르죠아 사회에서 화폐는 미의 총체로 나타난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화폐(황금)만 있으면 못 난 사람도 잘 난 사람으로, 늙은이도 젊은이로, 저속한 사람도 일류 《유지 신사》로서 인정될 수 있으며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맑스는 화폐의 위조적 힘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 화폐가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의 미 의식을 지배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화폐의 힘이 큰 만큼, 그 만큼 나의 힘도 크다. 화폐의 제 속성은 나—화폐의 소유자인—의 속성이며 본질적인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코 나의 개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추남이지만 나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녀성을 살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별써 추남이 아니다. 왜냐 하면 추잡하게 생겼다는 것의 작용, 그 징그러운 힘이 화폐에 의하여 소멸되였기 때문이다. 내가—그 개성 상으로는—절름발이라고 하자. 그러나 화폐는 나에게 24 개의 발을 제공해 주니 나는 벌써 절름발이가 아니다. 나는 나쁜, 부정직한, 비량심적인, 머리가 둔한 사람이나 화폐는 존경을 받으며 따라서 화폐의 소유자도 존경을 받는다. 화폐—그것은 최고의 선이니 따라서 화폐의 소유자도 선량하다.》 (맑스, 엥겔스 《예술론》 65 페지)

부르죠아의 이러한 미적 정서는 그들 자신의 숙명적인 운명에 대한 비관, 애수, 우울증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본가 계급은 사회의 낡은 견지에 서 있기 때문에 생활의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미적 정서와 부르죠아의 미적 견해는 그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우리 인'군들은 미를 리해함에 있어서 확고한 맑스-레닌주의 미관, 로동 계급의 미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로동 계급의 미관에 설 때만이 생활에서 발현되는 진정한 미를 감수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미관만이 생활에서 유익한 것으로 될 수 있다. 특히 인간성, 문화성은 미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로동 계급의 미관은 그의 인간성, 문화성을 높이는 데서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된다.

미에 대한 교양 방도

미 교양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그 교양 방도를 정확히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 교양에서 중요한 방도는 감화의 방법이다. 미에 대한 교양은 구체적 정서와 감정의 교양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생활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통해서 교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름다운 인간을 보며 예술 작품이나 영웅 실기에서 미적인 것을 자기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감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미적 정서를 높일 수 있다. 미적 교양에서 예술 교양은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형식이다. 예술은 생

활의 미를 반영하며 생활의 미를 구현하는 가장 높은 형태이다. 오늘 우리 예술은 우리 생활의 미를 반영하며 인민들과 일'군들에게 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훌륭한 리상을 실현하며 그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한다.

지금 우리 나라 예술은 우리 시대 인간의 정신적 미를 가장 완전하게 체현한 천리마 기수들과 우리 인민을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시키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항일 투사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 정력하고 있다. 우리의 문예 작품들은 감상자들에게 높은 미의 리상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교양함으로써 거대한 미 교양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 속에서 예술 교양을 강화하며 예술 작품을 일상적으로 읽으며,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못 견디도록 하며 그 속에서 참된 생활을 발견하고 사업의 산 동무를 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항일 투사들의 생활을 반영한 회상기, 소설 등을 광범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항일 투사들은 높은 공산주의적 인간성, 문화성을 체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적들은 높은 감화력을 가지고 일'군들의 인간성, 문화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일'군들의 미적 정서를 높이는 투쟁은 아름다운 것을 감수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직접 미적인 것을 창조하는 실천에 들어 서서 자기 생활을 《미의 법칙》에 맞게 꾸리는 습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생활을 미적으로 꾸리는 투쟁은 전 당'적, 전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이 사업에 솔선 모범이 되여야 한다.

또한 로동 계급의 미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미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적인 생활 정서는 미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깊이 체득할 때 보다 과학적이고 심오해질 수 있다.

모든 일'군들이 로동 계급의 미관으로 무장하고 《미적 법칙》에 맞게 행동하고 사업할 때 그의 인간성, 문화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제국주의 대내외 정책에서의 《반공산주의》

현 준

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체현한 공산주의는 세상에 출현한 순간부터 새것을 겁내며 진보를 가로막으려는 부르죠아지를 포함한 모든 반동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100여 년 전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의 유명한 저서 《공산당 선언》의 서두에서 《하나의 유령이 구라파를 어슬렁거린다—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낡은 구라파의 모든 세력들 즉 법왕과 짜리, 메테르니히와 기조, 불란서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이 이 유령의 성스러운 토벌을 위하여 련합되였다.

반정부당 치고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적들로부터 공산당이라는 비방을 받지 않는 당이 있는가?》라고 썼다.

공산주의는 인류 력사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상으로서 로동 계급과 수억만 근로 대중의 리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낡은 세력과 낡은 사회의 부패와 악페를 반대하며 매장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과학적 리론으로부터 력사상 처음으로 현실적인 사회 구성태로 출현하였을 때 《반공》은 공산주의 리론을 반대하는 수단만으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와 그 실천을 반대하는, 부패해 가며 자기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보고 있는 제국주의의 주되는 사상 정치적 무기로, 부르죠아 정부의 대내외 정책으로 전변되였다.

제국주의의 선전치고 어느 하나가 《반공》의 무기고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있는가!?

공산주의를 로골적으로 반대하는 모든 맑스-레닌주의의 적들과 반동적 《리론가》들은 물론 우익 사회주의자들까지 《반공》 전선에 규합되였다.

공산주의 사상과 그 실천의 위대한 힘과 견인력에 질겁한 제국주의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산주의를 《지옥》으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악마》로 묘사하면서 자기들을 사회주의와 모든 진보적 력량의 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들은 《반공》의 방패를 내걸고 자국 내에서 진보적 사상과 력량을 파쑈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공산주의 위협》, 《공산주의 침략》을 운운하면서 타국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감행하고 있으며 침략적인 전쟁 준비를 공공연히 강화하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소동은 그들의 패배와 위기를 반영할 따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반공》 소동으로써도 그들이 직면한 위기를 수습할 수 없으며 사회적 진보를 대표하며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사활적인 리해 관계를 반영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승리를 가로 막을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위기 의식

《반공》은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적인 진진 앞에서의 제국주의 반동들의 멸망과 절망적인 위기를 반영하는 사상적 및 정치적 현상이다.

부르죠아지가 중세기적 암흑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진보의 기치를 들고 진출하던 시기는 영원한 과거로 되였으며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러 부르죠아지는 인류에게 유익한 그 어떠한 가치물도 창조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자본주의가 사회 발전의 질곡으로 되고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을 사로잡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그 어떤 진보적인 것도 대치시킬 수 없게 되였을 때 부르죠아 반동들은 자본주의의 지반에 위험을 느끼면서 자기의 여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데 련합되였다.

새로운 것, 진보적인 것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위조,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중상 비방, 공산주의의 실천에 대한 훼손 등이 오늘 《반공》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맑스-레닌주의가 백전 백승의 위대한 힘으로써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전취하고 사회주의의 위력이 비할 바 없이 증대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책동은 더욱더 악랄해졌으며 그 형태와 수법도 보다 음흉하고 교활하여졌다. 현대 《반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과 그 성과를 훼손하려고 발악한다는 데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산아인 첫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의 련쇄를 끊고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을 때 제국주의 반동들은 청소한 사회주의 국가를 그 요람에서 《교살》하기 위하여 날뛰였으며 공공연히 무력 간섭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없으며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경제적 원칙》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중첩되는 난관들로 하여 조만간에 붕괴되고야 말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형성되고 그 정치 경제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여 더는 사회주의를 무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의 《붕괴》를 운운하는 《예언자》들은 더욱 교묘한 수단에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는 빵은 줄 수 있으나 자유》는 줄 수 없다고 비방하면서 《자유》, 《개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기 시작하고 있다.

공산주의 하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란 없으며 오직 강제와 폭압과 복종만이 있다고 독설을 퍼부음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강력한 무기이며 맑스-레닌주의의 진수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자유》, 《개성》 등에 대한 구호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깜빠니야에서 마지막 《지탱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선전자들이 말하는 《자유》 구호는 독점 자본의 착취와 특권을 유지하며 근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유》는, 자본가들에게는 황금의 자유이며 근로 대중에게는 기아와 빈궁, 실업의 《자유》이며 육체적 및 정신적 불구의 《자유》이다.

《반공》 선전의 무분별성과 자본주의를

미화하는 어용 《리론》의 결합은 제국주의 선전의 교활성을 보여 주는 다른 하나의 측면이다.

제국주의 독점 자본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공산주의 실천에 대한 맹목적인 비방과 중상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온갖 반동 《리론가》들을 동원하여 각종 사이비 과학을 만들어 낸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의 《분산》과 자본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입의 균등화》가 실시되고 로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적 모순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주의가 이미 그 본성을 변경한듯이 설교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나라들에 광범히 류포되고 있는 《인민적 자본주의》, 《전민 복리 국가》 등은 그 실례이다.

이것이 터무니 없는 황당한 거짓이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오늘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서 날이 갈수록 빈부의 차이는 더욱더 격심해지고 있고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이 기아와 빈궁, 무권리의 처지에 있다.

부르죠아 반동들이 그처럼 필사적으로 《반공》에 매달리고 있는 리유는 무엇보다도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가 처하고 있는 심각한 전반적 위기와 관련되여 있다. 자본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모든 령역에서 인류의 미래인 공산주의에 아무런 긍정적인 것도 대치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멸망의 운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반동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반공》은 파쑈화와 침략을 위한 도구

《반공》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이루고 있다. 제국주의 지배층들은 《반공》 구호 밑에 로동 계급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말살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자기의 모든 로선에 있어서 반동이다.

《반공》이 맑스-레닌주의 학설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자들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지에 있어서 《반공》은 모든 진보적 사상과 력량을 반대하며 나라를 파쑈화하기 위한 반동적 무기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나라라고 떠드는 미국에서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 2 차 대전 이후 년간에만 하여도 미국 지배층들은 파쑈화 정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차에 걸쳐 《반공》, 반민주주의 깜빠니야를 일으켰다.

그들은 1947~1949년에 한편으로는 《랭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국내에서 민주주의적 인사들을 다량 심문하였으며 공산당과 로조를 반대하는 《타프트-하틀리법》을 조작하였다. 이리 하여 미국에는 삼엄한 파쑈 테로의 분위기가 조성되였고 수 많은 애국자들이 체포 구금되였다.

특히 조선 전쟁 시기 미국 국내에서 《반공》, 반민주주의 깜빠니야는 극도에 달하였다. 공산당원들과 광범한 애국 력량을 탄압하기 위한 《맥카란법》, 《공산당 판제법》 등 일련의 악법들이 조작되였다.

《맥카란 법》은 한 때 히틀리가 사용하던 수법을 미국에 적용하여 만들어 낸 것인데 그것은 공산당원들에게 《외국의 앞잡이》로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맥카란 법》의 규정대로 《공

록》하지 않을 때는 엄벌을 받으며 등록 기한이 지난 매 1일에 대하여 1만 딸라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밖에도 《스미스 법》 등 많은 파쑈적 악법들이 조작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는 《죤 비치 협회》 등 1,000여 개의 파쑈 단체들이 미국 력사에서 전례 없는 파쑈적 테로 행위로 미국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바 이것은 과거 히틀러 독일을 릉가하고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도 《반공》의 구호 밑에 전례 없는 파쑈적 탄압이 감행되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은 《반공》을 《국시 제 1》로 선포하고 온갖 민주주의적, 애국적 인사들과 청년 학생들을 체포 투옥하며 인민들의 사소한 민주주의적 권리마저 말살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부 월남에서 괴뢰들을 사촉하여 민주주의적 경향을 가진 모든 량심적인 사람들을 《공산주의 분자》라는 《죄명》을 씌워 무참히 학살하고 있으며 살벌한 파쑈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반공》은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빼앗으며 나라의 파쑈화를 초래하는 민족적 불행의 화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타국에 대한 침략과 전쟁,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탄압을 위한 상투적인 도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 계획을 은폐하며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침략》,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온다.

과거 일본, 독일, 이태리가 바로 그런 구호 밑에 타국을 침략하였고 나중에는 세계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온 제 2 차 대전을 도발하였다가 멸망하였으며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또한 력사의 전철을 밟고 있다.

세계 제패를 야망하여 나선 미제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니, 《파괴 활동》이니, 《자유 세계의 수호》니 하는 구호하에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탄압하고 그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식민지 전쟁을 도발하고 있으며 군비 경쟁과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반공》은 제국주의 나라들의 대외 정책으로 되고 있는바 그 기본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침략적 《반공》 뿔럭을 조작하며 타국 령토 상에 침략적 군사 기지를 형성하며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반공》 세력을 부식하여 친제국주의적 괴뢰들을 조작하며 애국 력량을 말살하는 것이다.

미제는 침략을 감행하는 나라들, 그리고 반동적인 추종 국가들과 《반공》을 호상 관계의 기초로 강요하면서 각종 침략적 군사 협정과 《반공》을 위한 《원조》 정책을 추진시키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제는 《자유 세계를 수호》한다는 구실 밑에 세계 도처에 900개 이상의 침략적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100만 이상의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수 많은 현지 고용병들을 양성하고 있다. 미제는 또한 일방으로는 나토, 쎈토, 세아토, 안쥬스 등과 같은 침략적 군사 동맹을 조작하고 타방으로는 추종 국가들과 쌍무적인 군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지역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기본 대외 정책을 설명하면서 러스크는 《우리 대외 정책의 기본

목적은 우리 군사력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의 복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즉 자유 세계를 수호하는 데 있다.》《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5 개의 기본 정치 방침을 세웠는바 그 중 첫째는 미국과 〈자유 세계〉의 전반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 세계의 수호》니, 《국방력 강화》니 하는 것이 대외 침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정치적 분야에서 미제는 《반공》의 방패를 내걸고 《미국식 생활 양식》을 침투시키며 친미 세력을 부식하여 괴뢰들을 내세움으로써 식민지 지반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 침투하고 있는 《평화군》, 각종 사절단, 외교 대표부들이 바로 그 초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브라질에서 감행된 군사 정변은 바로 그 실례의 하나이다.

경제 분야에서 미제는 각종 《원조》 정책을 내걸고 괴뢰들을 예속시키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방대한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민족적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미국식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은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넋을 침식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되고 있다.

《반공》의 중심은 미국이다

미국 전 대통령 케네디는 집권하자 《반공》을 념두에 두면서 《우리는 많은 면에서 전쟁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투쟁 령역에서 자기의 노력을 적극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반공》은 미국의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미제는 국내에서 발광적인 《반공》 선전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에서 《반공》 선전의 사상, 정치적 및 재정적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 미 제국주의가 세계 반동의 지주이며 침략의 원흉으로 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국 내에는 물론 세계에 광범한 《반공》 선전 기지망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들은 례외 없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 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데 복무하고 있다.

미국이 국외에서의 《반공》 선전에 매년 5억 딸라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선전 기관들의 활동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가 하는 것을 말하여 준다.

현재 미국의 《반공》 선전 기관 체계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미국 대외 공보원인데 거기에서는 1만 1,000여 명의 선전 일'군들이 일하고 있다.

이 공보원은 무려 94 개국에 230여 개의 보도 중심들과 111 개의 지방적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 2~3 년간에 그에 대한 지출은 50% 장성하여 1억 5 천만 딸라를 초과하고 있다. 미국 대외 공보원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외곡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중상 비방하는 《반공》 사상으로 일관된 잡지 57 종과 신문 22 종을 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적

지 않은 나라들에서 매수된 친미 분자들을 리용하여 간접적으로 출판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출판물 외에 라지오 방송은 공보원이 리용하는 수단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미국 국내에 있는 30 개의 방송국과 국외의 57 개 방송국을 포함한 《미국의 소리》는 일 주야 동안 계속 《반공》과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불어 대고 있다.

그 밖에 많은 비국가적 《반공》 선전 기관들이 있는바 그것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한 그물의 매듭들이다.

이러한 조직들로서는 《자유 구라파 위원회》(1919년, 뉴욕), 《문화 자유 회의》(1950년, 베를린), 《볼쉐위즘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미주 위원회》(1951년), 《아세아 반공 련맹》(1954년, 서울, 현재 사이공), 《미주 대륙 련맹》, 《도덕적 재무장》 운동 등이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조직들은 대부분이 조선 전쟁을 전후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묻지 않아도 명백하다.

실례로 그 중에서 《자유 구라파 위원회》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계획적인 파괴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호전 계층들인 아이젠하워, 알렌 덜레스, 이전의 미국 정탐 두목 도노벤과 같은 자들이 조종하였거나 조종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산하에는 5 개의 방송국이 있으며 거기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도망친 자들의 대부대가 망라되여 있다.

《문화 자유 회의》는 전문적으로 인테리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반공》 조직으로서 21 개국에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개성의 자유》 등 기치 밑에 계획적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을 비방 중상하는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으며 일련의 나라들에서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널리 침투하고 있는 《도덕적 재무장》 운동은 현재 22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도덕적 재무장》 운동은 《민족들 간, 사람들 간, 인종들 간 및 계급들 간의 협조》를 설교하는 종교 단체의 간판 밑에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은 방대한 부수의 출판물을 발행하여 무료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만 장자가 가난한 사람의 구두를 닦아 주며 백인이 흑인을 도와 주며 서로 협조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보여 주는 영화나 기타 예술적 수단을 널리 리용함으로써 인민들의 계급적 의식을 거세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반공》 단체들은 례외 없이 모두 미국 독점 자본에 의하여 조직되였으며 미국에서 조종하고 있다. 누가 그들에게 자금을 대주는가?

다름 아닌 바로 록펠러, 포드, 듀폰 등 대독점 재벌들이다. 례로 《자유 구라파 위원회》에는 록펠러, 《문화 자유 회의》에는 포드, 《도덕적 재무장》 운동에는 포드, 미국 금융 자본가이며 신문 발행인인 허스트, 미국 고무왕 파이어스토운 등이 중요한 자금 조달자로 되고 있다.

이 사실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반공》 선전 조직들은 독점 자본의 직할 선전실로 되여 있으며 《반공》 분자들과 백만 장자들과의 완전한 '사'적 결

탁이 이루어 지고 있다.

*　　　*

현재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공》 소동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더욱더 심각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절망감이 극도에 달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지반이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공》은 그것이 진보적 사상과 역량을 반대하며 근로 대중의 사활적 리해관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반공》은 반동적이며 범죄적인 조류이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제거》하려고 발악하였으나 그 모두가 멸망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치스 히틀러가 그러했고 무쏘리니가 그러했고 일본 제국주의 두목 도죠가 그러했다. 미제의 주구 장 개석, 리 승만 등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였다.

제국주의 제도는 조만간에 붕괴되고야 말 운명에 있으며 인류의 미래를 체현한 공산주의 건물은 전 세계에서 더욱더 찬란한 빛을 뿌릴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

최 호 경

오늘 남조선의 정치-군사 정세는 미제의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제는 이른바 《공산주의 위협》이니, 《자유 세계 방위》니 하는 간판 밑에 남조선을 하나의 큰 병영으로, 침략의 전초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다.

그들은 태평양 미 륙군의 기본 주력을 남조선에 배치하고 괴뢰들을 통하여 고용 군대를 증강하는 한편 각종 신형 무기를 반입하며 지어는 원자 및 유도탄까지 끌어 들이고 있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이러한 군사 기지화 정책은 남조선 인민에게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음은 물론 그것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극동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그러므로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 기지화 정책을 폭로하는 것은 인민들을 반미 투쟁에 궐기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1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이것은 남조선을 침략하며 그것을 극동 침략의 견고한 요새로 만들기 위한 미제의 침략 책동의 산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미제는 저들의 세계 제패 계획 실현의 일환으로서 대외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집중하면서 이에 상응하게 대극동 침략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극동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침략적인 집단 안전 체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반대하는 포위망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봉쇄하며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함으로써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적 공동체》를 수립하려는 미제의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적인 군사 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그것을 공화국 북반부와 나아가서는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의 요새로, 그의 공고한 기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기간 미제가 도발한 3년간의 조선 전쟁이 웅변으로 실증하여 주고 있다.

미제는 이 전쟁을 북반부에 대한 강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세아 전역에 파급시킬 것을 시도하였다.

지난 조선 전쟁에 참가하였던 맥아더는 자기들의 음흉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 놓았다.

《나의 계획으로서는 칫째 한국전을 한국 내에만 국한시켜서는 승리를 할 수 없으니 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를 폭격하고 중공을 봉쇄하는 한편 국부군의 본토 상륙전을 감행하여 장 개석씨로 하여금 북경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나의 계획은 실행만 했으면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며 그렇게 됐으면 극동 뿐만 아니라 세계 력사까지도 달라졌을 것이다.》

미제가 저들의 침략 정책에서 남조선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침략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은 미제의 전략적 견지에서 볼 때 아세아 대륙의 일각으로서 중국, 쏘련 등과 린접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발발한 경우에 일본, 대만, 비률빈 등의 군사 기지로부터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미제가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이 남조선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

미제는 일본에서 군국주의자들을 부추겨 30여만의 복수주의 군대를 재생시켰으며 수다한 원자 및 유도탄 기지들과 군사 시설을 일본에 건설하였다.

이 밖에도 남조선의 후방에는 미제의 완전한 원자 기지로 화한 오끼나와를 비롯하여 대만, 비률빈 등과 그의 태평양 제 7 함대가 있다.

미제는 조선에서 도발하는 자기들의 침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지들로부터 각종 신형 무기로 장비한 20여만의 미 침략군과 100여만의 미 고용군대의 지원을 받을 것을 타산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조건으로 하여 남조선이 아세아의 어느 도서나 지점 보다도 가장 좋은 군사 전략적 요충 지대로 될 수 있다고 간주하면서 이를 저들의 침략적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책동하여 왔다.

미국 지배층들은 남조선이 《제 1 급의 전략적 지역》이며 《아세아적 교두보》라고 그의 속심을 드러내 놓고 있다.

남조선을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조선과 극동 침략을 실현하려는 동시에 과국에 처한 남조선과 기타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와 강점 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타산하기 때문이다.

오늘 세계 도처에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이 세차게 일어 나고 있는 조건하에서 날로 강화되는 사회주의 진영과 멸망하여 가는 제국주의 진영 간의 모순의 접촉점에 위치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의 파탄은 이여의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그의 강점과 지배를 더욱 위협하는 불씨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은 물론 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은 바로 이상과 같은 침략과 략탈의 범죄적 목적을 위하여 감행되고 있는바 이 정책에 의하여 조선에서 긴장 상태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

2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하는 군사 기지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그 곳을 상용 무기에 의한 《국부 전쟁》이거나, 핵 무기에 의한 《전면 전쟁》이거나를 막론하고 다 수행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구비된 군사 기지 창설이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아세아의 어느 지역보다도 제일 많은 미군 병력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유엔군 사령부》까지 설치하고 있으며 남조선 괴뢰들로 하여금 60여만의 방대한 상비군을 유지케 함으로써 자기의 침략군의 보충물로 만들고 있다.

미군과 괴뢰군 병력의 90% 이상은 륙군이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민족해방 투쟁을 진압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국부 전쟁》의 요새로 만들려는 시도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 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방대한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각종 신형 무기들을 끌어 들여 미군의 장비를 강화하고 군사 기지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남조선을 완전한 원자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일부 사단들을 원자 사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280 미리 원자포, 《오네스트존》, 《라크로스》 등 각종 원자 및 유도 무기들을 반입하고 그 기지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강원도와 경기도의 전연 지대를 비롯하여 후방의 각처에 원자 및 유도 무기 발사 기지, 저장고, 수리 기지, 훈련장 등이 건설되였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 괴뢰군을 각종 신형 무기로 장비시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구식 비행기 밖에 없던 괴뢰 공군에는 에프 100 초음속 전투기를 비롯하여 각종 신형 비행기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싸인드 와인더》와 같은 유도 무기로써 장비시키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정비 임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괴뢰 해군에 구축함, 잠수함 등의 각종 공격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을 《국부 전쟁》, 《전면 전쟁》의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괴뢰군에 대한 지배와 예속이다.

미제는 합법적으로 괴뢰군의 통수권을 장악하고 그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있다.

그들은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1950 년 7월 리승만 역도와 미군 사령관 간에 교환된 간단한 편지를 통하여 손쉽게 장악하였으며 전후 이것을 《한미 호상 방위 조약》, 《한미 협약》 등의 일련의 군사 《조약》과 《협정》으로 더욱 《합법화》하고 재확인하였다.

미제는 괴뢰 국방부로부터 군 사령부, 군단, 사단, 해 공군 부대들과 각종 군사 학교에 이르기까지 미군 군사 고문들을 배치하고 괴뢰군의 일거 일동을 통제 장악하고 있다.

미 군사 고문들은 괴뢰군 장교들에게 지시와 명령을 하달하며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괴뢰군의 부대 편성과 장비, 훈련으로부터 장병들의 부식비, 지어 휴가 문제에 이르기까지 통제 간섭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괴뢰군을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후방 공급까지 군사 《원조》로써 얽매여 놓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는 이미 1945년 9월부터 실시되였으며 괴뢰군의 각종 장비들과 군수품들의 대부분이 그에 의존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괴뢰 정권의 전 《주미 대사》란 자까지도 《현재 미국은 우리의 모든 무기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쓸 모든 휘발유를 장악하고 있으며 2일 간 사용할 분량만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 누구나 이런 방식에서는 크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실토하였다.

미군은 남조선에서 괴뢰 도당들로부터 치외 법권까지 보장 받고 있다.

그들은 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살인 등의 비인간적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여도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쟁과 군사 건설에 필요한 시설과 로력을 마음 대로 략탈할 수 있는 무제한한 《특권》을 괴뢰 도당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괴뢰들의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제는 이미 49개 나라들과 체결한 형식적인 《행정 협정》마저도 남조선 괴뢰 도당과는 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 기지화 정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남조선의 괴뢰

들을 극동의 기타 괴뢰들과 더욱 밀접한 군사적 관계로 련결시키려는 음모이다.

그들은 괴뢰들로 하여금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게 하여 그들 간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케 하려 하고 있다.

미제에 의하여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도 《한국의 안전과 일본의 안전과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느니, 《38선은 일본의 생명선》이라느니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적극화하고 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미제의 조종하에 남조선 군대의 함선과 비행기 등 중요 장비들을 수리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크를 비롯한 각종 무기들과 연료, 탄약 등 각종 전략 물자들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조선 전쟁 시기에는 8,000여 명의 자기들의 군대를 남조선에 파견하여 참전케 하였다.

이것은 미제의 적극적인 조정에 의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 도당 간에는 이미 군사적으로 깊이 결탁되여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

군사 기지화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제는 남조선 진역을 군사적 폭압망으로 뒤덮고 있다.

미제는 인민 탄압을 주되는 임무로 삼는 괴뢰 《제 2 군 사령부》 관하 부대들과 《수도 경비 사령부》 관하 부대들을 남조선 전역에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첩대》, 《범죄 수사대》, 헌병 등 수 많은 군수사 정보 기관들을 주민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공화국 북반부와 나아가서는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정탐 행위의 교란 작전을 위하여 도처에 수다한 첩보 모략 기지들을 설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자기들의 침략적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3

미제의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은 남조선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한 인민의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미제는 막대한 군사비의 중하를 남조선 인민들에게 걸머지우고 있다.

1964년도 괴뢰 정부 국방비는 1953년에 비하여 근 7 배나 증대된 227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120만의 취업 로동자들에게 반 년 이상 지불할 수 있는 봉급액에 해당되며 남조선 전력 공업, 연료 공업, 금속 공업, 기계 공업, 광석 채굴업의 2,000여 개 기업소의 년간 총생산액에 가깝다.

이 방대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제와 괴뢰 도당은 해마다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전면적으로 군사화함으로써 민족 경제를 여지없이 파괴하고 있다.

이리 하여 오늘 남조선 공업 및 농업 생산은 일제 시기보다도 3 분의 2로 떨어졌으며 이것마저도 군사적 부속물로 전환되고 있다.

군사적 목적에 직접적으로 복종되여 있는 부문은 전력, 석탄 생산에서만도 25~30%에 달하고 있으며 운수는 40% 이상이 종속되여 있다.

이와 함께 미제는 남조선 도처에 《총포 재생창》, 《차량 재생창》, 《통신 기재 재생창》, 《항공기 수리 공장》, 《함선 수리 공장》 등 대 소 군수 공장들을 적지 않게 건설하였으며 400여 개의 민간 기업소들을 군납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복종시키고 있다.

미제는 아직도 조선은 《전시 상태》에

있다는 구실 하에 인민들의 토지, 건물, 마필 등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략탈하고 있다.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은 남조선 농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비행장, 훈련장 등 군사 기지들을 건설하기 위하여 략탈한 농토는 10만 정보에 달하고 있다.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막대한 로력적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다.

오늘 미제는 남조선에서 60여만에 달하는 비생산적인 기생적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매년 1만 7,000여개에 37만 7,000여 명의 종업원을 가진 현 남조선 공업 기업소를 움직일 수 있는 방대한 수'자이다.

군사 기지화 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강요 당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고통과 피해의 하나는 미군 야수들에 의한 인명 피해이다.

인간 증오, 민족 차별 사상으로 교육된 미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각종 악랄한 방법을 다하여 조선 인민을 학살한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이 남조선 인민에게 실로 크고 엄중한 재난을 가져다 주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이 조선 인민들로부터 반대 배격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미제에 대한 원한과 불만은 급속히 반미 운동으로 전환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박 정희의 매국 배족 행위를 폭로 배격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한 일 회담》을 타결함으로써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고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려던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군사 기지화 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요구와 밀접히 결부되여 가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조국 통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국 배족 행위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을 규탄하면서 《〈남북한〉이란 말이 소멸되고 부산서 신의주까지 육친의 정을 통하여 살 수 있는》 조국 통일이 하루 속히 실현되여야 한다고 더욱 절규하고 있다.

지금 미제와 그 주구 박 정희 도당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인민들의 거센 투쟁 앞에 떨고 있다.

승리는 싸우는 인민의 편에 있다.

조선 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문답 학습

기계 공학에 대하여

기계 공학이란 기계의 설계, 제작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 리론 및 계산의 기초를 주는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 혁명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계, 설비들을 더 좋게, 더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잘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으로는 설계에 엄격히 립각하여 정확히 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작된 기계, 설비들을 생산에서 보다 능률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기계, 설비들의 설계, 제작 및 운영 과정에서는 허다한 기술 리론과 계산 문제들이 제기된다.

기계 공학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 및 계산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핵심인 기계 제작 공업을 창설함과 함께 기계 공학 발전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이 분야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뜨락또르를 비롯한 대형 기계, 정밀 기계들이 우리 나라 자체의 힘으로 설계, 제작되며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된 대규모 공업 기업소들이 훌륭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하여 잘 말해 준다.

우리가 이미 꾸려진 기계 공업의 로대를 잘 리용하기만 한다면 어떤 기계든지 다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였다.

기계 제작 공업과 기계 공학 분야에서 이와 같이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으나 발전하는 현실은 기계 공학을 보다 심오히 연구하고 그것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중요하게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이 보다 심화된 것과 관련된다.

이미 기계 공업의 로대가 상당한 정도로 꾸려졌을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이 심화되고 보다 전면화된 우리 나라의 현 조건하에서 기계 공학에 대한 보다 심오한 연구와 그 급속한 발전은 완전히 성숙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기술 혁명에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계 공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계 공학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인민 경제 발전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기술 혁명을 추진시킬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이 기계에 걸려 있다.》(《기술 혁명 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

들의 임무» 22 페지)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촉진에서 기계 공학이 가지는 의의는 우선 그것이 기계, 설비들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개별적 부문들의 특성에 맞게, 질서오로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기계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투쟁에서 가장 힘있는 무기로 복무한다. 그것은 반드시 정복되는 대상의 특성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례하면 농기계는 우리 나라의 풍토 조건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하며 광산 기계, 설비들은 우리 나라 광산의 지질 조건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술 혁명의 목적, 기계를 생산에 도입하는 목적이 어데까지나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로동 생산 능률을 높여 더 많은 재부를 만들어 내는 데 있는 만큼 기계, 설비들은 생산성이 높고 견고하며 다루기 편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성능이 높고 견고하며 다루기 편리한 기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계의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계 공학적인 제 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한다.

우선 설계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는 기계 생산의 첫 공정이다.

설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것은 질 좋은 기계를 생산해 내느냐 못 해 내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이다.

만약 설계가 조잡하고 정확한 계산에 기초하여 작성되지 못 한다면 그러한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기계, 설비들은 투박하고 겉모양이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특성에 잘 맞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계, 설비들로 꾸며지는 공장이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결함을 나타내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설계의 운동 계통도 작성 단계에서 기계, 설비의 종체적인 형태와 작용 체계를 인민 경제 매개 부문들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도, 소재의 선정 단계에서 우리 나라에 풍부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며 합당한 규격과 강도를 규정하기 위해서도 력학, 금속 공학 등을 비롯한 기계 공학적인 제 문제들이 정확히 해결되여야 한다.

기계의 제작 과정에서는 설계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며 가장 쉽고도 경제적인 제작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잘 해결함으로써만 만들어지는 기계, 설비들의 질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촉진에서 기계 공학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그것이 이미 꾸려진 기술적 토대와 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설비, 자재, 자금이 일정하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기계, 설비 생산 증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어진 능력과 조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또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얼마나 충분히 동원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설계에서 허식과 랑비의 요소들을 제거하며 이미 생산되고 있는 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고 그 리용에서 실수률을 제고하며 기계, 설비들의 중량을 감소하는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계, 설비의 생산에 투하되는 로동과 자재, 자금을 절약하여 기계, 설비의 원가를 낮추게 함으로써 보다 적은 지출로 보다 많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문제는 성능도 높이면서 지출은 감소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설계에서 허식과 일체 랑비의 요소들을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계에서 줄을 하나 잘못 긋거나 점을 하나 잘못 찍는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이 랑비되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도 명백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규격 강재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 리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력학적 계산 문제들이 정확히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기계, 설비의 중량을 감소하고 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대용 자재와 원료들을 광범히 리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지금 기계, 기관실의 덮개를 강판 대신에 알루미니움이나 특수한 합성품 또는 가소물로 만드는 문제라든가 기계, 설비들의 일부 부속품 생산에서 대용 원료와 자재를 리용하는 것은 현실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자면 과학과 함께 기계 공학 리론과 계산 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한다.

요컨대 인민 경제의 기계, 설비에 대한 량적 및 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서 기계 공학은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기계 공학이 발전함으로써만,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기계 공학적인 제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됨으로써만 기계, 설비들을 투박하게,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지 않게 만드는 현상을 극복하고 간편하여 다루기 쉽고 견고하며 성능이 높고 값이 눅게 대량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다.

질이 높고 값이 눅은 기계, 설비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가장 절실한 요구로 된다.

지금 당은 무엇보다도 있는 설비, 자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려고 한다.

당의 이와 같은 의도를 정확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기계 공학을 전면적 기술 혁명의 절실한 요구에 적응하게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기계, 설비 생산에서 자재 소비 기준을 저하시키고 로력을 절약하는 동시에 생산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

기계 공학이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추진에서 가지는 의의는 마지막으로 그것이 생산된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과 공업 기업소들의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최신 기계, 설비들은 보다 복잡한 파

학 기술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며,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는 바로 이러한 기계, 설비들의 체계의 종합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계, 설비들을 훌륭히 다루고 그에 대한 점검 보수 사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공장, 기업소의 관리 운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로동자들과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기계, 설비의 구체적인 작용 원리와 매개 부속품 및 부분품들의 기계 공학적인 제 특징들을 잘 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동자들이 기계 공학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기계, 설비들의 생산 능률은 보다 더 제고될 것이며 그 수명도 연장될 것이다. 또한 지도 일'군들이 기계 공학 리론을 잘 알게 된다면 생산 공정에 대한 그들의 기술적 지도가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계 공학의 발전은 기계, 설비에 대한 인민 경제의 장성하는 수요를 량, 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고 공장, 기업소의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게 함으로써 기술 혁명을 힘있게 촉진한다.

기계 공학을 기술 혁명의 현실적 요구 수준에 상응하게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 공학 연구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 주고 이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잘 구비해 주어야 한다.

전면적 기술 혁명의 현 단계에서 기계 공학의 급속한 발전은 결코 이 부문 일'군들의 열성과 책임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에 와서는 전문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로동자들, 지도 일'군들 누구나가 다 기계 공학을 연구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특히는 생산 지도 일'군들이 기계 공학을 깊이 연구하고 이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기계 공학을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 수준에로 끌어 올릴 데 대한 당'적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 원 석

근로자 제 12 호 (루계 250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6월 17일 발 행 • 1964년 6월 20일

ㄱ—430373 값 4 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3호 7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3 호 (251)

1964년 7월 (상)

(반 월 간)

차 례

당의 인전대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

최근에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농촌에 조성된 새로운 현실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 농민 동맹을 해체하고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상응하는 직업 동맹의 직능을 규정함으로써 직맹이 자기의 사명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전원 회의가 취한 이 조치들은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한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창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는 현명한 조치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혁명 과업 즉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면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광범한 농촌 근로자들을 보다 조직화하고 그들을 더 잘 교양하여 당이 내세운 과업 수행에로 적극 조직 동원하는 강력한 인전대가 있어야 한다.

해방 직후 농민들의 대중 단체로서 조직되였던 농민 동맹은 새 조국을 건설하며 특히 우리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농민 동맹은 오늘 우리 나라 현실에 잘 부합되지 않게 되였다.

우리 농촌의 새 현실과 농민의 변화된 처지는 농민 동맹과는 다른 새로운 조직, 협동 농민을 비롯한 농업 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을 망라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점차 없애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새 조직체를 창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촌은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의 처지와 그의 구성, 그 사회적 역할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 나라 농민들은 모두다 협동 경리에 망라된 사회주의 근로자들이며 그들의 정치적 각성은 비상히 높고 문화 기술 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우리의 협동 농민들은 토지 개혁, 조국 해방 전쟁,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협동화 등 간고한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로동 계급과의 불패의 동맹을 형성하였으며 전후 농촌 경리를 복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들은 오늘 우리 당을 무한히 따르고 있으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 10여만 명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수 많은 제대 군인들을 파견하여 농촌 핵심 대렬을 확대 강화한 당

의 조치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구성에서 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특히 우리 농촌에는 새로운 국가 지도 체계가 확립되여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와 협동 농민들이 밀접한 유기적 련계밑에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우리 농촌의 새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농민 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전체 농촌 근로자들 —협동 농민들과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관,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며,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수행에 적극 기여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데 더 잘 이바지할 수 있는 새 조직체로서 농업 근로자 동맹을 내오게 한 것이다.

실로 농업 근로자 동맹을 창설할 데 대한 금번 우리 당의 조치는 항상 현실에 대한 심오한 연구에 기초하여 생활이 제기하는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옳은 해결 방도를 강구하며 혁명을 부단히 새 승리에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생동한 례증으로 된다.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앞으로 조직될 농업 근로자 동맹의 성격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나라 협동 농민들과 국영 농목장 및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관, 기업소,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한 혁명적 대중 단체이며 당과 농업 부문의 근로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기본 임무는 우리 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전원 회의 결정서)

농업 근로자 동맹의 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완수하는 데 있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도록 농민 대중을 교양하며 조직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에서는 농업 근로자 동맹이 사상 혁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협동 농민들과 농업 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제 1 차적 사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였다.

농촌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모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기본 열'쇠로 된다. 특히 농업 부문의 근로자들 속에서도 청년 동맹원이 아닌 비당원 근로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을 조직 생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교양 육성하는 데 심중한 주목이 돌려져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 근로자 동맹은 농촌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 교양과 문화 교양을 강화하며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제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책임적으로 지도하고 그것을 부단히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 근로자 동맹의 주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농촌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일어 난 당시에 비하여 더욱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이 운동의 내용과 그에 대한 지도에서도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튼튼히 틀어 쥐고 그에 대한 지도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따라 세움으로써 그것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놀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 근로자 동맹은 농촌의 로동 행정 사업과 사회 보험 사업에서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로동 규률을 강화하고 생산 능률을 부단히 높이며 농민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모든 혜택이 정확히 돌려지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 조직될 농업 근로자 동맹은 광범한 농촌 근로자들을 당 주위에 굳게 단결시킴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인전대로 될 것이다.

* *

다음으로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직업 동맹 단체들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한 금번 전원 회의의 조치는 우리 사회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의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지난 기간 직업 동맹은 당의 지도 밑에 자기 대렬 내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당 주위에 집결시키고 그들을 당 정책 관철에 적극 조직 동원하였다.

특히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직업 동맹 앞에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실천하는 투쟁 과정에서 직업 동맹 단체들의 사업은 더욱 개선되였으며 자기의 본신 임무 수행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런데 직업 동맹의 조직 체계에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으며 또 그 사업에도 일부 낡은 틀이 남아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직업 동맹이 당 정책 관철에서 능동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당을 더욱 적극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결함들이 제거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금번 전원 회의는 일부 직맹 단체들의 사업에 남아 있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직업 동맹의 조직 체계와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 정권 하에서 직업 동맹의 중심 과업은 로동 계급을 부단히 교양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고 혁명 과업 수행에 적극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직업 동맹의 기본 임무는 로동 계급 대렬을 공산주의적 붉은 대오로 계속 튼튼히 꾸리며 그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확고히 무장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혁명 위업 실천에 적극 조직 동원하며 근로자들의 로동 조건을 개선하고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데 있다.》(전원 회의 결정서)

직업 동맹 단체들은 로동 계급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데 선차적 주목을 돌리여야 하며 특히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거하여 당원들과 청년 동맹원들을 제외한 직맹원들의 조직 생활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 문화 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공업 생산 공정이 하나의 기술 공정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생산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나라에서 생산을 계속 발전시키는 최대의 예비가 기술 혁신에 있다는 사정으로 하여 특히 절실한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직맹 단체들은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일반 문화 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문화 위생적으로 살고 일하도록 책임적으로 사업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직업 동맹의 중요한 임무로 되는 것은 당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공장, 기업소에 부과된 생산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직맹 단체들은 공장, 기업소, 직장들에서 생산 과제의 실행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기술 혁신과 로동 규률의 강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국가 재산의 애호 절약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기업 관리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고 생산을 계속 발전시키는 투쟁에 대중을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직맹이 로동 보호 사업을 책임적으로 직접 조직 집행하며 이 사업을 로동자들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로동 보호 사업을 로동자들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직맹 사업에서 낡은 틀을 청산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

이와 같이 금번 전원 회의는 새로 조직되는 농업 근로자 동맹의 기본 임무를 천명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 상응한 직맹 단체들의 직능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직업 동맹과 앞으로 창설될 농업 근로자 동맹은 그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명백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기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각급 당 조직들은 농업 근로자 동맹 조직 위원회들과 직맹 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그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세심히 보살펴 주고 적극 도와 줌으로써 그가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인전대로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 *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 근로자 동맹을 창설하며 직업 동맹 단체들의 역할을 일층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적 령도 체계와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강

화하며 우리의 혁명 대오를 더욱 튼튼히 결속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오직 당의 령도적 역할이 강화될 때에만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가 강화되고 모든 전선에서 계급 진지가 공고화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되게 된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배격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자면 우선 당 자체를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을 높이는 동시에 인전대들을 강화하고 그의 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매 시기 조성된 정치 정세와 대중의 준비 정도 등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적시에,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실로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은 항상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기능을 강화하며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우리 당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당 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게 하였으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군당 위원회들을 강화하기 위한 독창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생산 단위의 당 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한 것 등은 이의 명백한 실례로 된다.

또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에 기초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당'적 지도가 대중속에 더욱 깊이 침투되게 되였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 고도로 발양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직맹, 민청, 녀맹 등 근로 단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그가 당의 인전대로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바로 이 방침에 따라 얼마 전에 민주 청년 동맹이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되였으며 금번 전원 회의에서 농업 근로자 동맹을 창설하고 직맹 단체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가 취하여졌다.

이와 같이 금번 전원 회의가 취한 조치는 당'적 령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더우기 농업 근로자 동맹의 창설은 김 일성 동지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기한 사상과 명제를 구체화한 조치로서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혁명의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이 농민에 대하여 옳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성과적 건설을 위하여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농촌의 면모

와 농민의 처지 및 그들의 사회적 역할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계속 차별시하는 관점과 립장은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유해로운 것이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테제에서 천명된 농민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하고도 정확한 립장, 농민들의 힘을 믿고 그들을 차별 없이 당의 넓은 품에 포옹하며, 농민들을 완전히 책임 지는 립장에서 지도하고 방조하여 공산주의 사회에까지 이끌어 가야 하며 또 갈 수 있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 혁명적 군중 로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데 대한 금번 전원 회의의 조치는 우리 농민들을 무한히 흥분시킬 것이며 당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강력히 고무할 것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농촌에 있는 로동자들과 농민을 단일한 조직체에 망라시킴으로써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을 조직적으로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며 로동 계급이 달성하는 과학 기술적 성과들과 선진적 기업 관리 방법 및 생산 문화를 농촌에 더 잘 보급하게 함으로써 테제에서 제시된 웅대한 과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실로 이 조치는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정치 경제적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당과 대중의 통일을 불패의 것으로 강화한 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가져 오게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농업 근로자 동맹을 창설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이후 그들을 교양하여 공산주의에까지 이끌어 가는 가장 훌륭한 조직 형태를 창조하였다.

이것은 농촌 문제 해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실천적 기여로 된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적 령도 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확고히 립각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

각급 당 조직들은 금번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하여 도시와 농촌의 전체 근로 대중을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 오도록 힘차게 투쟁하며 전진하자!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6.3 봉기에 대하여

하 앙 천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기간 남조선 전역을 휩쓴 청년 학생들의 애국 투쟁은 4.19 인민 봉기 이래 최대의 사변이였다.

이 투쟁은 남조선의 42 개 지역에서 53 개의 대학, 173 개의 중고등 학교 학생들과 일부 시민까지 포함하여 연 31 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적 투쟁이며 5만 9,900여 명의 괴뢰 무장 경찰과 피어린 투석전을 전개하면서 1,570여 명의 괴뢰 경찰놈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2 개월 반 동안이나 지속한 완강한 투쟁이였다. 투쟁의 최고 절정인 6월 3일에 이르러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괴뢰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괴뢰 대통령과 국무 총리가 도사리고 있는 《청와대》와 《중앙청》까지 육박하게 되자 적들은 5 만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한 일 회담》 반대로부터 시작된 애국적 시위 투쟁은 매국 배족적 파쑈 통치를 반대하는 반《정부》적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한때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는 적의 통치 기구가 마비 상태에 빠지고 배모대가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사실까지 있었다.

실로 이것은 그의 성격 및 조직성과 의식성, 지구성 등에 있어서 전후 시기 남조선 인민들의 구국 투쟁에서 질적으로 더욱 발전된 애국 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다.

오늘 이 투쟁을 정확하게 평가하며 여기에서 경험, 교훈을 찾는 것은 앞으로 남조선 청년 학생 투쟁과 전반적 혁명 운동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투쟁의 의의

이 번 투쟁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남조선의 혁명 운동 발전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 투쟁은 4.19와 같이 현 《정권》을 타도하지는 못 하였으나 미제 예속 하의 괴뢰 파쑈 통치의 기초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미제의 극동 정책과 일제의 재침 기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남조선 학생들과 인민들의 불굴의 투지와 애국적 기개를 국내외에 시위하였다.

미제의 조종 하에 진행되여 온 《한일 회담》 조기 타결 음모는 파탄되였으며 제 2 리 완용으로 규탄 받던 김 종필은 독재 정치의 주요한 직책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일본 학생들이 괴뢰 재일 대표부 앞에서 시위하였으며 미국에 있는 남조선 류학생들도 괴뢰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학생 조직들과 대중 단체들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국제적 조직과 모든 나라 학생들과 인민들이 그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 성원하고 있다.

둘째, 이 번 투쟁을 통하여 괴뢰 통치 기구의 부패, 무능이 인민 대중 앞에 여지 없이 폭로되였으며 앞으로 통치 계급 내부의 모순과 분화가 더욱 격화될 것이며 가혹한 폭압 하에서도 애국적 민주주의적 투쟁 력량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계기가 조성되였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삼척, 부평의 중고등 학교 학생들까지 《총칼이 아니면 유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은 원치 않는다》라고 파쑈 통치에 항거하고 있다. 미국 신문 《볼티모어 선》까지도 《한국의 장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자기의 기대와 신뢰를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날 때까지 폭발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시사하고 있다.

세째, 이 번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학생들 자체의 요구와 의사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대변하는 선구적 교량적 역할을 놂으로써 인민 대중을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켰으며 청년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주요한 혁명 동력의 하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증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수적으로도 110만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중이 실업중이 되고 정치적 탄압이 심한 오늘의 사회적 처지로 인하여 자기들의 원쑤에 대한 반항력이 강하다. 그들은 광주 학생 사건을 비롯한 오랜 애국 투쟁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4.19의 정치적 체험을 겪은 조직된 력량이다. 그들은 미제 강점 하 남조선 인테리들의 고유한 혁명적 특성으로부터 생기는 선구적 교량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네째, 이 번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더욱 단련되였으며 투쟁 경험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3.24~6.5 기간의 투쟁 기 과정에서 청년 학생들은 조직성을 보여 주었으며 투쟁 구호와 투쟁 형식과 전술에서 많은 창발성과 기동성을 발휘하였다.

투쟁의 발생 원인

이 번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인 투쟁은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한 김 종필의 일본 방문을 도화선으로 하여 개시되였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남조선의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와 생활고 및 파쑈적 폭압 하의 극도의 무권리로 하여 인민 대중 속에 오래 동안 쌓였던 극도의 불만이 놓여 있다.

그것은 우선 미제의 조종 하에 감행된

괴뢰 정권의 매국 배족 정책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 책동에 의한 새로운 민족적 모순의 조성에 따르는 반제 민족 감정에 기초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한 일 회담》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위기에 처한 식민지 통치를 수습하고 나아가서는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의 조작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미제의 극동 침략 정책의 하나이다.

최근 년간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 통치가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이 총파탄에 이르게 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책동으로서 《한 일 회담》의 시급한 결속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더욱더 친미, 친일적인 박 정희 도당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조종하여 《한 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서둘러 왔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 책동에 편승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그들은 이미 50여 개의 일본 상사들의 출장소와 주재소들을 남조선에 상주시키고 경제적 침략과 함께 사상 문화적 침략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지어 일본의 반동 종교 단체인 《창가 학회》까지 끌어 들이였다.

이리 하여 남조선에는 문'자 그 대로 《한 일 합병》 전야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민족적 위기가 조성되였다.

이것은 과거 36년 간 일제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망국노의 설음을 체험한 남조선 인민의 반일 감정을 촉발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정의감이 강하고 4.19의 정신을 계승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민족적 의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교도 통신이 《한 일 회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뿌리가 깊고 이것이 일거에 표면화된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다른 한편 군사 정권의 파쑈 테로 통치와 략탈적인 경제 정책은 남조선 인민들이 4월 인민 봉기와 그 후의 거세찬 투쟁으로 쟁취한 약간의 민주주의적 권리마저 완전히 유린하고 민생을 더욱 도탄 속에 몰아 넣었다.

이것은 또한 남조선 인민들과 특히는 청년 학생들 속에서 반《정부》적 감정을 더 한층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 파쑈의 폭압 통치 하에서도 부단히 전개되여 온 남조선 인민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투쟁과 작년에 있은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에서 박 정희와 《민주 공화당》의 투표률이 전례 없이 낮았다는 사실, 작년 10월 학생들에 의한 군사 《정권》의 전복 기도 사건 등은 박 정희 도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말해 준다.

남조선에 조성된 이러한 모든 사태는 다름 아닌 미제 식민지 통치의 후과이다. 미국 출판물까지도 이번 투쟁에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남조선 인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어떤 쓸모 있는 수습책 하나 내놓지 못 하였으

며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극히 적은 지지조차 받지 못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투쟁에 궐기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혁명적 민주 기지의 영향이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령도 밑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였으며 자체의 원료 자재와 기술과 로력으로 인민들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지상 락원을 꾸며나가고 있다.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는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 부유해 가는 인민들의 생활, 꽃 피는 민족 문화 예술, 날로 높아 가는 공화국 정부의 국내외적 위신, 조국의 평화 통일 방안과 남북 경제 문화 교류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제의, 남반부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적 애국 행동에 대한 우리들의 동포애적인 지지 성원, 이 모든 것은 외세 의존과 《한 일 회담》을 반대하며 민족적 자주 통일을 념원하는 남반부 청년 학생들과 전체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에 대한 고무적 힘으로 되였다.

투쟁의 성격

이 번 투쟁의 성격은 반제 반《정부》적 민주주의 투쟁으로서 그 동력이 주로 학생들이였으나 전 인민적 성격을 띤 애국 투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혁명을 위한 모든 운동의 성격은 그 운동이 어떤 계급을 령도 계급으로 어떠한 계층이 참가하며 그 지도적 사상은 무엇이며 어떠한 사회 계급적 모순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선 이번 운동의 령도적 계급과 참가한 계급, 계층은 로동 계급을 령도적 계급으로 하지 못하였고 또한 현시기 일부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의 민족 해방 운동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족 부르죠아지를 그 령도적 계급으로 한 것도 아니며 또 이들의 조직적인 참가도 없는 운동이였다.

즉 운동의 주도적 력량은 일부 시민들도 참가하였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계급이나 계층도 아닌 학생들이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해방 직후 민주와 반민주 세력 간의 치렬한 투쟁 시기에 일련의 정치적 진출 면에서 적극적이였던 것으로 하여 군중 운동의 전반적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반혁명의 공세가 강화되고 대중 운동의 점진적 소생기로 특징 지어지는 전후 4월 인민 봉기 전 시기에도 일련의 정치적 진출에 있어서는 다른 계층에 비하여 앞섬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4월 인민 봉기와 그 후 시기의 운동에서는 학생 청년들의 선구적이며 주도적 작용이 더욱 명확히 표현되였다.

즉 리 승만 괴뢰 정권을 전복한 주력 군도, 그 후 《그 놈이 그 놈이다》, 《장면 정권 물러 가라》고 하면서 그의 친미,

친일 정책을 반대하며 조국 통일을 위한 대중적인 정치 투쟁의 선두에 선 것도, 가혹한 군사 파쑈 통치의 폭압 하에서 반독재, 반보수 및 반미, 반일 구호를 들고 일련의 정치 투쟁을 부단히 전개한 것도 학생들이였다.

이것은 남조선 학생들이 지닌 그 기질이 다만 청년들 일반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 진취성, 용감성 뿐만 아니라 강한 혁명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번 투쟁에서 학생들이 그들 고유의 단순한 리해 관계로 출발한 요구만을 제기하지 않고 전 인민의 리해 관계와 관련된 일련의 기본 문제들의 해결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그 어떤 《정부》 시책에 대한 개량적 요구가 아니라 통치 체계의 변혁을 지향하며 요구하는 학생들이 이 번 투쟁의 주도적 력량으로 된 사실은 바로 투쟁 성격이 가지는 혁명성과 진보성의 첫째 징표로 된다.

이 번 투쟁에서 표현된 민주주의 사상에서도 일정한 진보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민주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부르죠아 민주주의와 대치될 뿐만 아니라 제 2 인터나쇼날의 기회주의자들이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는 초계급적 《순수 민주주의》도 아니다.

남조선 학생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에는 일체의 《외압》과 신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주권의 자주성에 대한 사상과 현 통치 체제 내에서의 《합법적 진보》가 아니라 현 제도의 혁명적 변혁을 지향하는 사상과 함께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정치적 권리의 획득을 위한 사상 등이 내포되여 있다.

이것은 이 번 투쟁의 지도적 력량이 대체로 애국적이며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자기의 정치적인 신조로 삼으면서 민족적 압박에 대한 반감과 남조선 사회 현실에 대한 환멸감으로부터 반미, 반일, 반《정부》적 의식이 비교적 높은 혁신적인 학생들로 되였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이 번 투쟁의 지도적 력량의 사상적 견해는 운동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구호와 요구 및 투쟁의 지향성에서 더욱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이 번 투쟁에서 첫째로,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 특히 일본 군국주의 재침과 관련하여 미 일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인민들 간에 얽힌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둘째로, 미 일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철저한 주구이며 국내 반동 세력의 괴수인 지주, 예속 자본가 및 민족 반역자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괴뢰 정권과의 계급적 모순을 비롯한 일련의 모순 해결을 들고 나왔다.

물론 이 두 모순의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가 그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다 철저한 것으로 되지 못 하였고 일정한 제한성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조성된 정세 하에서 적아 간의 력량 대비와 대중 운동 발전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일련의 문제들에서 절박하고 기본적인 것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중의 기본적 요구였던 《한 일 회

담》의 중지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축출, 괴뢰 정권의 파쑈 통치의 기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중앙 정보부》의 해체, 파쑈 정권의 타도, 매판 자본의 몰수와 민생고의 해결 기타 일련의 민주주의적 요구들은 모두다 현 정세 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이 그의 해결을 요구하는 절박한 문제들이다.

이 번 운동에 로동자, 농민 등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인민적 성격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레닌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조건 하에서 《전 인민적 운동》의 성격을 론하면서 이 혁명에 리해 관계를 같이 하는 모든 계급, 계층이 참가하거나 그들의 동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리해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전 인민적인 운동이란 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는 원쑤의 중심 세력에 심중한 타격을 가하면서 전체 나라의 객관적 요구를 표현하는 그러한 운동이다. 전 인민적 운동이란 절대 다수 주민의 공명에 의한 지지를 받는 그러한 운동이다》(전집 조선문 판, 제 18 권, 604 페지)라고 하였다.

나아가서 《반식민》, 《반외압》, 《미국은 가면을 벗어라》, 《우리의 투쟁은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의 봉기》라는 등으로 남조선에 들어 온 제국주의 침략 세력 일체를 배격한 사실이라든가 《민족의 단결 없이 남북 통일할 수 없다》, 《민족 분렬을 획책하는 독재 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를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운동의 지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말해 준다.

《구국 기조 선언문》에서는 학생들 자체가 이 번 투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의 혁명은 《민주 민족 혁명》이며 자기들의 투쟁을 《반보수, 반매판, 반외압, 반신 식민의 구국 항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 제 4 차 대회 총화 보고에서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혁명이며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혁명의 성격과 기본 상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투쟁의 특징

세 단계(1 차는 3.24~30. 2 차는 4. 17~21, 3 차는 5.20~6.5)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이 번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 투쟁은 그의 조직 및 진행 과정을 통하여 일련의 특징적인 현상들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금후 남조선 청년 학생 운동을 포함한 대중 운동 발전에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남겨 놓았다.

그것은 첫째로, 매 단계마다 투쟁이 발전할수록 정치적 성격과 목적, 의식성이 더욱 명확하여진 것이다.

처음부터 명확한 정치성을 띤 요구들을 든 사실을 비롯하여 그것이 투쟁의 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 발전되였다는 것은 종래의 자연 발생적 운동에서는 찾아 보기 드문 하나의 발전적 현상이였다.

례하면 박 정희 《정권》을 반대한 구호 하나만 보더라도, 1 차 시위 때에는 주로 《한 일 회담》 반대에 예봉을 돌리면서 《김 종필 소환》 등의 구호를 들

고 나왔다면 2차 시위에서는 《4월의 붉은 피는 매국 정권을 증오한다》, 《4.19 정신, 반정부, 반불의, 반독재》, 《중앙 정보부 해체》 등으로 박정희 《정권》을 정면으로 규탄하였다. 3차 시위의 후반기에 와서는 그의 타도를 제기하고 전면적인 폭동에로 나아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내 혁명 세력의 계급적 원쑤인 매판 세력을 반대하는 구호를 들었으며 반《정부》 구호를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호와 적절히 결합하면서 《우리는 민중의 편에 서 있다》, 《국민들은 우리 대렬에 함께 나서라》라고 인민 대중의 합류를 호소하였다. 이것은 학생 운동이 로동자, 농민 운동과의 결합을 시도하는 의식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종래 흔히 있은 산만한 운동과는 달리 일정한 투쟁 지도 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운동이였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이미 작년 봄부터 서울 대학교, 고려 대학교, 연세 대학교 내의 선진 분자들에 의하여 준비되여 오다가 특히 작년 말 경부터 더욱 본격화되여 벌써 이 때부터 《한 일 회담》을 둘러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정책과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비판하는 군중적 계몽 운동으로 전개되여 왔으며 각 대학들 간의 일정한 련계도 맺어졌다.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에서는 시위 전에 이미 《한 일 회담 반대 투쟁 위원회》가 조직되여 구호판, 프랑카드, 삐라 등을 준비하여 시위의 전날인 3월 23일에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조직하여 군중을 발동시켰다.

시위의 조직성은 첫날 서울 대학교 법과 대학, 고려 대학교, 연세 대학교 등 중요 대학들이 거의 동시에 호응하였으며 그것이 불과 2~3일 간에 서울과 지방의 수 많은 학교들에까지 파급되였다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투쟁이 확대 발전됨에 따라 투쟁 지도 기관은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학생 총련합회》 또는 민족이 처한 위기를 타개한다는 의미의 《난국 타개 학생 대책 위원회》 등으로 발전적인 개편을 하였으며 보다 광범한 학교들을 이에 망라시켰다.

세째로, 정세 발전과 투쟁 정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투쟁 구호를 제기하였으며 투쟁에서 나타나는 재한성을 점차 극복하고 다양한 투쟁 형식과 방법을 취한 것이다.

례하면 1차 투쟁은 김 종필의 소위 측면 외교로 《한 일 회담》의 조기 타결 음모가 실현되려던 가장 절박한 시기에 《한 일 회담》 반대와 제 2 리 완용으로 지목한 김 종필에 대한 집중 공격을 가하였으며 2차 투쟁은 4.19 4주년을 계기로 4.19 정신을 모독하는 박 정희 《정권》을 정면으로 규탄하면서 더욱 완강한 기세로 반파쑈적인 민주주의 구호를 높이 들었으며 이에 민생 문제의 해결을 결합시킴으로써 전 인민적 투쟁에로의 확대 발전을 시도하였다.

3차 투쟁 역시 환률 인상에 따르는 물가의 급격한 등귀 및 박 정희 도당의 학생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과 그들의 부패 행위의 폭로와 관련하여 대중의

반《정부》 감정이 더욱 높아진 정세 하에서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이행하였고 나아가서는 반《정부》적 폭동으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이다.

1차 투쟁 때부터 투쟁의 중요한 약점과 제한성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 군중이 동원되지 못 한 것이다. 사실상 학생들은 거의 단독으로 투쟁하는 형편에 있었다. 2차 투쟁 때에는 《국민들은 우리 대렬에 함께 서라》고 의식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투쟁 대오에 합류하였다.

5월 20일 시위 때 체포된 시민 81 명의 구성을 보면 로동자 25 명, 실업자 26 명, 소상인 24 명, 기타 6 명으로서 남조선 사회의 기본 계층들이다.

3차 투쟁이 시작되면서 더욱 많은 군중이 동원되였으며 일반 사회계의 동향이 학생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데로 나아갔다. 투쟁의 지도층이 적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포착하고 그에 집중 공격을 가한 것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투쟁 과정에서 경찰의 학원 침입, 군대의 법원 침입, 정보원의 학생 린치 사건 등을 들고 범죄자 처벌, 구속 학생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파쑈 통치를 반대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리 하여 법조계 대학 교수, 정계 인사 등 각 계층의 지지 성원을 받으며 많은 군중이 동원되였다.

대중 쟁취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서울 대학 문리과 대학생들의 5 일 간에 걸친 단식 투쟁이다. 단식 투쟁은 40 명으로부터 130 명으로 그 대렬이 확대되였으며 이들은 학부형, 교수, 언론계, 정계, 종교계, 로동자 등 각 계층의 지원을 받게 되였다. 6월 3일 많은 시민이 투쟁에 동원된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다.

투쟁 형식과 방법에서도 평화적 담판과 적극적인 투쟁 방법을 엇바꾸어 진행하였으며 《민족 민주주의 장례식》, 《화형식》, 《가상 재판》 등 다양한 형식을 적용하였다.

네째로, 운동은 완강성과 지구성을 띠였다. 2 개월 반이나 전개된 운동은 시위의 첫 순간부터 괴뢰 경찰들과의 류혈적 충돌로써 시작되여 마침내는 폭동에까지 이르렀다.

괴뢰 정부는 수만 명의 괴뢰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여 최루탄과 곤봉으로 야수적인 탄압에 광분하였으나 오히려 괴뢰 경찰들은 많은 부상자를 내였으며 서울에서는 한때 괴뢰 경찰 기관까지 시위 군중에 점거 당하고 경찰관들이 도망질 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것은 투쟁의 격렬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후 시기 남조선 인민 투쟁에서 파상적 투쟁으로 단숨에 74 일간을 싸워 본 례는 처음으로 되는 현상이다.

이 번 청년 학생 투쟁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서 의식성과 조직성을 더욱 제고하며 그 운동을 반드시 로동자, 농민 운동과 결합시키는 문제이다.

우선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자기의 혁명 조직을 가져야 하며 자체 력량을 시급히 수습 정비하고 학생 운동의 통일

과 단결을 강화하며 나아가서는 광범한 각계 각층 인민들과 일체 애국적 력량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번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혁명적 각성이 높고 투쟁에서 적극적이며 진보적인 학생들을 묶어 세우고 광범한 학생들을 하나의 통일적인 조직에 망라시켜야 한다. 특히 신앙과 정견, 출신의 차이를 막론하고 반미, 반일, 반《정부》 반독재 감정을 가진 각계 각층 청년들과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투쟁에서 행동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들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에게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애국적인 계몽 사업을 전개하며 그들과의 공동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더우기 로동자, 농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요구 조건을 들고 그들과의 공동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학생 운동 자체의 의식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 의식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될 것이며 남조선에서의 군중 운동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군대는 사실 상 군복 입은 로동자, 농민들이며 대학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많고 4.19 인민 봉기에 참가하였던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애국적 운동의 탄압을 위한 도구로 되지 못하게 하며 민족의 군대로 전환시켜야 한다.

* *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반제, 반파쑈 민주주의 운동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파쑈적 폭압이 더욱 강화된 조건하에서 일시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나 청년 학생들은 자기 대렬을 재수습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합법적, 비합법적 온갖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 남조선의 식민지 파쑈 통치는 경제 위기와 민생고의 격화, 파쑈적 폭압의 강화, 외세에 의존하는 괴뢰 정권의 매국 배족 정책의 강행, 괴뢰 내각과 《민주 공화당》 내부 모순의 심각화에 따르는 여 야 간의 대립의 첨예화 등 정치 경제적 제 요인들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며 미 일 제국주의의 충복인 현 《정권》에 대한 청년 학생들과 전체 남조선 인민들의 증오와 불평은 또다시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4 차 대회 총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남조선의 식민지 제도를 결코 구출할 수 없다. 파쑈적 군사 통치는 도리여 인민들의 투쟁을 가일층 격화시킬 것이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의 종국적 붕괴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우선 《계엄령》 철폐 및 즉시 개교, 구속된 학생과 인민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원

사찰 및 학생 검거 구속 중지, 언론, 출판, 결사, 시위 등 학생들의 사회 정치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부단히 투쟁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탄압과 회유, 기만 책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면서 모든 계기와 수단을 다 리용하여 도처에서 《한 일 회담》을 파탄시키며 민주주의적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꾸준히 계속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유지되고 괴뢰 정권이 그 대로 존속되는 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오늘의 무권리와 생활고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병사, 지식인들을 비롯한 모든 애국적 민주 력량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박 정희 《정권》을 타도해야 하며 각계 각층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자주 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투쟁하며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인 조국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어야 한다.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 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정의의 애국적 투쟁은 원쑤들의 그 어떠한 발악적 책동으로도 가로막지 못 할 것이다.

승리는 반드시 싸우는 인민의 것이다.

공산주의 운동과 혁명적 의리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는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통일과 단결의 중요한 사상-도덕적 요인으로 된다.

통일과 단결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에서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며 그의 강화는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에게 그 만큼 힘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 준다.

동일한 사상, 공통된 투쟁 목적에 기초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은 그것이 불패의 것으로 되자면 호상간에 믿고 사랑하며 혁명적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고상한 의리 관계, 동지적 관계로 결합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혁명적 의리, 혁명적 동지애는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 처지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도덕적 풍모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온갖 착취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다같이 일하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걸음걸음은 이러한 사회, 이러한 인간 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로정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자체 해방을 위한 그들의 투쟁 속에서 발생하였고 발전하여 왔으며 또 그 도가니 속에서만 진정으로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는 력사적으로 피착취 근로 대중이 착취 계급을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형성 발전된 고상한 의리 관계의 계승이며 그의 최고 발전이다.

혁명적 의리는 계급 사회에서, 특수적으로는 부르죠아 사회에서 황금이 인간 관계 전체를 지배하며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승냥이》로 되는 그러한 인간 증오적이고 랭담한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대립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동지애와 의리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리상—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 동지들이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맺는 진정한 믿음, 사랑, 존경, 배려, 지조의 총체이다.

이것은 인류 력사 상 일찌기 찾아 볼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인간 관계이다.

* *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과 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선구자들은 혁명적 동지애, 혁명적 의리의 훌륭한 체현자들이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과학적 공산주의의 위대한 창시자들이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간적 풍모를 산 모범으로 보여 준 선구자들이

였다.

맑스와 엥겔스를 결합시킨 우정, 동지애, 의리는 아직 력사가 알지 못 하는 새로운 인간 관계의 구현이였다. 《옛'이야기는 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실례를 이야기하여 준다.—하고 레닌은 저서 〈프리드리히 엥겔스〉에서 썼다—… 이 두 사람의 교의는 인간의 우정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모든 옛'이야기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맑스에게 있어서 엥겔스는 《제 2의 〈나〉》로 간주되였다. 맑스는 엥겔스와 같은 열렬한 투사, 학자를 자기의 벗으로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언제나 만족을 금치 못 하였다.

맑스는 엥겔스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으로 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하였고 몹시 걱정하군 하였다.

맑스는 모든 면에서 엥겔스의 의견을 듣는 것을, 또 그에게서 찬동을 받는 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맑스는 엥겔스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각오로 충만되여 있었다.

엥겔스에게 있어서 맑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참으로 무한한 것이였다.

엥겔스는 자기의 스승이며 벗인 맑스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그를 가장 량심적이고 혁명적인 태도로 대하였다.

1848～1849년 혁명이 실패하고 반동기가 닥쳐 옴에 따라 가족이 많았던 맑스의 생활은 말할 수 없는 빈곤에 쪼들리게 되였다. 이러한 때에 엥겔스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저주하고 뛰쳐 나왔던 부친의 상사에 서슴없이 다시 물어 가는 길을 택함으로써 맑스와 그 가족들의 생활비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였다.

혁명의 원쑤들과 각종 기회주의자들은 갖은 방법을 다하여 맑스로부터 엥겔스를 떼 내려고 책동하였으나 그것은 엥겔스로 하여금 맑스에 대한 의리를 지켜 벗으로서의, 전우, 방조자로서의 립장을 더욱 굳건하게 하였을 뿐이다.

엥겔스는 맑스가 돌아 가신 뒤 그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최대의 정력을 기울였으며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였다.

엥겔스는 63세의 고령에 맑스가 집필하다 채 끝맺지 못 한 《자본론》 초고를 정리하고 추고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는 자기의 여생에 이 사업을 마치지 못 하지나 않을가 봐 못내 근심하였다. 그는 자신이 쓰려고 계획했던 모든 저술 사업들을 뒤로 미루어 놓고 이 사업을 추진시켰다. 년로한 그에게 있어서 이 사업은 몹시 방대하고 어려운 사업이였지만 그는 이것을 《다시 옛 친구를 상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였고 《가장 고귀한 과학적 향락의 원천》으로 간주하면서 끝내 마치고야 말았다.

엥겔스는 또한 자기에 대한 모든 찬사와 높은 평가를 언제나 맑스에게 돌렸다. 엥겔스는 1893년 제 2 인터나쇼날 제 3 차 대회에 참가하여 폐회사를 하였다. 이 때 그는 대회 참가자들이 그에게 표시한 열렬한 환대에 대하여 자기를 《저 벽에 그 초상이 걸려 있는 위대한 인물의 협조자로》 수락할 것을 요청하면서 모든 찬사를 맑스에게로 돌리였다.

맑스, 엥겔스에게서와 같은 두터운 동지애와 의리는 레닌에게 있어서도 찾

아 볼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의 충실한 제자인 레닌은 그들을 무한히 존경하였으며 그들의 혁명 위업을 훌륭히 계승 발전시켰다.

레닌은 맑스와 엥겔스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위하고 그들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공산주의자의 량심으로, 혁명 선배에 대한 의리로 간주하였다.

레닌은 맑스와 엥겔스를 배반한 제 2 인터나쇼날의 수정주의자들과 각종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맑스주의를 로씨야의 현실과 제국주의 시대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10월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함으로써 맑스와 엥겔스에 대한 의리를 다하였다.

레닌에 대한 쓰딸린의 충실성에서도 혁명적 의리, 동지애의 모범을 찾아 볼 수 있다.

쓰딸린은 레닌의 친근한 제자이며 전우이며 그의 위업의 직접적 계승자였다.

쓰딸린은 레닌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물론 레닌이 돌아 가신 뒤에도 뜨로쯔끼파, 부하린파,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형형색색의 공격으로부터 레닌의 사상을 철저히 고수하였고 레닌이 가리킨 길을 따라 농업 집단화와 공업화를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레닌적 로선을 훌륭히 실현하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쓰딸린은 쏘베트 인민을 레닌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의 위업을 계승하는 것을 자기의 첫째 가는 의무로 간주하였다.

그는 1925년 1월 21일 부 《라보챠야 가제따》 제 17 호에 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억하라, 사랑하라, 연구하라 우리들의 스승, 우리들의 령도자 레닌을.

내외의 적들을 싸워 이기라—레닌 식으로.

새 생활, 새 풍습, 새 문화를 건설하라—레닌 식으로.

사소한 일이라 해서 결코 거부하지 말라, 사소한 것으로부터 위대한 것이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이것이 레닌의 중요한 유훈의 하나인 것이다.》

쓰딸린은 언제나 레닌을 우러러 받들었으며 그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을 최대의 영예로 간주하였다. 그는 1931년 12월 13일에 있은 독일 작가 에밀 루드위히와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로 말하면 나는 레닌의 제자일 따름으로, 나의 일생의 목적은 그의 훌륭한 제자로 된다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레닌에 대한 쓰딸린의 존경과 사랑은 극진하였고 무조건적인 것이였다.

이러한 고상한 풍모들이 맑스와 엥겔스, 레닌과 쓰딸린의 혁명 동지와 전우에 대한, 혁명 선배에 대한 태도이며 관계였다.

우리의 항일 빨찌산들도 바로 그러한 생활 풍모를 가지고 살았다.

항일 빨찌산들은 하나의 목적과, 같은 사상으로 굳게 결합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뜨거운 동지 우애심으로 친형제들처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빨찌산들에게 있어서는 혁명 사업이나 동지를 배반하고 의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간주되였다.

항일 투사 마 동희 동지는 일제 군경

놈들에게 체포되여 극악무도한 취조와 고문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혁명적 지조를 지켜 싸웠다. 그는 오직 자기가 고문 끝에 혹시 정신을 잃고 헛소리로라도 혁명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동지들의 이름을 불러 《배신 행위》를 하지나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일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혀를 깨물어 끊을 것을 결심하였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무서운 고통까지도 견디여 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의리인가!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적 의리는 특히 자기들의 지도자이며 어버이며 벗인 김 일성 동지에게 바친 열렬한 사랑과 존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 일성 동지에게 바친 빨찌산들의 사랑의 감정은 수다한 이야기들로써 알려져 있다. 불굴의 혁명 투사 권 영벽 동지의 다음과 같은 말은 빨찌산들 모두의 심정을 표현한 실례의 하나이다. 《나를 낳아 준 조국은 어머니이고 혁명 전선에서 나를 가르쳐 주고 길러 준 사장 동지(김 일성 동지를 가리킴—인용자 주)는 나의 스승이며 어버이이다.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는 불효자이며 용납 못 할 죄인이다. 나는 둘도 없는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리라.》 권 영벽 동지는 또한 공작원들과 군중들 앞에 나서면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하군 하였다: 《김 일성 장군이 계시는 사령부는 조선을 독립시키는 혁명의 심장이요. 우리는 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팔다리가 되여 그를 받들며 철석 같이 보위하여야 하오. 이 정신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목숨을 바쳐 고수하여야 하오.》 그는 혁명 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심장 속에 아로새긴 이 맹세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적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되는 순간까지도 그 맹세에 충실하였다.

혁명 동지와 혁명 선배,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이러한 혁명적 의리는 공산주의자들, 우리의 항일 빨찌산들에게 있어서 뗄 수 없는 품성으로 되고 있었다.

*　　　*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는 공산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싸웠으며 싸우고 있는 모든 혁명 투사들, 혁명 군중들에게 돌려지는 무한히 넓고 무한히 깊은 사랑과 배려의 도덕적 감정이다.

의리를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혁명 선렬들, 혁명 선배들에 대한 태도 문제이다.

혁명 선렬들, 선배들은 오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피압박 대중의 영원한 해방을 위하여,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한 분들이다. 또한 그들은 어제'날까지도 우리의 대오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면서 투쟁하던 분들이다.

그들이 있었음으로 하여, 그들의 피의 투쟁이 있었음으로 하여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사업이 있으며 우리의 성과가 있는 것이다.

혁명 선렬들에 대한 경건한 추억, 존경과 사랑—이것은 공산주의적 의리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다.

혁명 선렬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넘겨 받고 그들이 걷던 길을 그대로 걸어 가며 그 위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

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며 혁명적 절개이다.

선렬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떠나서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항일 빨찌산 선렬들과 조국 해방 전쟁에서 희생된 선렬들의 투쟁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을 추억하며 배우며 그들처럼 투쟁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참으로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은 우리 투쟁의 귀중한 밑천으로, 힘으로, 등대로 되고 있다. 그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그 전통이 주는 힘으로 하여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전진을 이룩할 수 있었던가!

사람들이 혁명 선렬들, 선배들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의 정을 느끼고 적극 배우기에 힘쓰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전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나 매개 나라의 혁명 운동에 있어서나 선렬들의 투쟁, 그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을 제쳐 놓고 오늘의 운동, 오늘의 승리에 대하여 말하는 수정주의자들의 행동은 심히 그릇된 것이다.

만일 혁명 선렬들이 이미 계시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이 이룩한 전통을 거부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건 내뱉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그들이 하던 운동—혁명 운동을 거부하는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복수로 갚는 배은 망덕으로 될 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인민적 격언도 있거니와 원래 뒤' 시비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개적인 당성과는 인연이 없다. 혁명 선렬들이 투쟁 대오에 있을 때에는 찬사를 아끼지 않다가 이미 대오에 없게 되자 그 어떤 《개인 미신 반대》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 대면서 그들의 투쟁 업적과 전통을 없애치우려 한다면 이것은 철저한 패덕 분자의 행동으로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래일의 락을 위하여, 전 세계 피압박 대중의 해방의 날을 위하여 오늘의 모든 고통, 오늘의 갖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투쟁하는 것이다. 만일 오늘의 이 투쟁이 래일에 가서 헌신짝처럼 저버려지리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혁명 운동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선렬들의 투쟁 정신과 전통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특히 자라 나는 새 세대들에게 과거 투쟁에 대한 허무주의를 고취하며 그들을 선렬도, 선배도 몰라 보는 무뢰한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향락에만 몰두하고 인류의 광명한 래일을 위하여 투쟁할 줄 모르는 속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우리는 의리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동을 철저히 배격하며, 공산주의자들의 행동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으로 규탄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 선렬들, 선배들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킴으로써만 사람들을 혁명 정신으로 옳게 무장시킬 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할 수 있다.

혁명적 의리는 또한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그를 보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혁명의 령도 핵심은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오랜 혁명 투쟁 행정에서, 그 투쟁 자체의 요구에 의하여, 그 투쟁

력량 속에서 배출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혁명의 령도 핵심은 인민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가장 헌신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고 용감하게 투쟁한 사람들이며, 힘과 지혜와 생활의 모든 것을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바친 사람들이다.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충성은 혁명 군중의 마음 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동지애와 의리의 표현으로 된다. 이것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며 그 누가 막아 버릴 수도 없는 고귀한 감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령도 핵심을 깊이 믿고 지지하며 그 앞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이와 배치되는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도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혁명에서 령도 핵심의 결여는 그 운동의 혼란과 파산을 면할 수 없게 한다.

우리는 자체의 혁명 력사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를 통하여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1920 년대에 우리 혁명은 그 지도부에 종파'군들과 각종 기회주의자들이 기여 들었던 탓으로 하여 얼마나 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하였던가.

또한 제 2 인터나쇼날 시기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혁명의 위대한 령수인 엥겔스의 서거 이후 베른슈타인, 카우츠키 따위의 기회주의자들에게 령도권을 탈취 당하여 얼마나 간고한 시련을 겪었던가.

오늘에 있어서도 유고슬라비야와 같은 나라에서는 쩨또의 썩은 무리가 지도부를 타고 앉은 것으로 하여 혁명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이 엄연한 력사의 교훈에서 외면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개인 미신 반대》의 감투를 갖고 돌아 다니면서 음모와 사기의 방법으로 혁명의 령도 핵심을 허물어 버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은 가장 배신적인 행동이며 위험하기 그지 없는 행동이다.

만일 혁명의 령도 핵심이 어떤 음모적 방법에 의하여 제거된다면 이것은 그들을 중심으로 단결되였던 전체 혁명 대오의 정연한 체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며, 혁명 운동에서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려던 혁명 군중의 심리에 가혹한 상처를 주며, 사람들을 서로 경원하게 만드는 결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혁명의 령도 핵심과 대중, 당과 대중과의 관계를 범연한 관계로, 아무렇게나 대하는 관계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공산주의 운동을 사분오렬시키는 데로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며, 간고한 투쟁으로 이루어진 혁명의 전취물을 말아 먹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당의 정책이 허수아비의 주먹 놀음처럼 무맥한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사기 행위를 철저히 폭로 비판하며 저지시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이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대오들은 오직 자체의 령도 핵심을 굳건히 보위함으로써만 당의 통일 단결, 전체 혁명 대오의 통일 단결을 보존 공고화할 수 있으며 정확한 령도를 보장 받으면서

성과적인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그것이 국경이 없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리익이 귀중한 만큼 모든 나라 피착취 대중의 리익이 귀중한 것이며 또한 각국 인민들의 원쑤는 전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들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제 로동 계급과 피착취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피로써 국제 혁명을 지원할 각오로 준비되여 있는 것이다.

국제주의—그것은 다름 아닌 국제적 범위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의리이며 동지애이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국제주의적 의리에 충실하였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일제의 쏘련 침공을 반대하여 싸웠으며 쏘베트 군대는 우리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싸웠다.

우리는 또한 과거에 중국 땅에서 중국 동지들과 손을 맞잡고 중국 인민의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웠고 또 중국의 아들딸들은 우리 조국의 해방 전쟁 시기에 조선 땅에서 피흘려 싸웠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싸운 쏘 중 인민의 아들딸들을 길이 추억하는 것을 응당한 의리로 간주한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지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착취자들의 압제 밑에 신음하는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언제나 떨쳐 나설 각오가 되여 있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국제 혁명에 대한 지지 성원은 결코 그 어떤 보답을 바라거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국제적 지원을 부담으로 간주하거나 그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것은 벌써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와는 거리가 먼 계산 관계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지원을 주면서 그 나라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노린다면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행동을 방불케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당의 기성된 권위를 리용하여 자신을 남의 어깨 우에, 머리 우에 올려 세우려 하며 극도의 거만을 부리는데 이것은 아주 옳지 못한 행동이다. 남이 자신을 평가할수록 자신이 더 어깨를 낮추고 허심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원래 동지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국제주의적 원칙에서 국제적 혁명 동지들을 평등하게 대해 주며 존중하고 배려하며 호상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는 혁명의 적들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의 정신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 지주들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에 대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

착취자들과 반동파들에 대한 증오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로동 계급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큰 사람일 것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사랑이 큰 사람은 반드시

착취자들에 대한 증오가 클 수 밖에 없다.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기는커녕 그들과 극력 야합하며, 제국주의자들을 증오하기는커녕 제국주의라는 말조차 하기 싫어 하는 사람들에게서 공산주의적 의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혁명 동지와 계급적 원쑤를 갈라 보지 못 하는가 하면 지어 바꾸어 놓으려는 데까지 이르러 제국주의는 《평화 옹호자》로 보고 반제 투쟁의 립장에 선 나라들은 《랭전의 고취자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리성》, 《신뢰》, 《양보》, 《친선》에 대하여 말하고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말로 말하며 원쑤처럼 대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어떻게 의리, 동지애를 찾아 볼 수 있겠는가?

결국 혁명적 의리의 문제는 단순한 《인정》 세태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넓고 깊은 로동 계급의 근본적인 립장의 문제인 것이다.

혁명적 의리, 혁명적 동지애가 결여된 사람들은 례외 없이 혁명에 대한 배반자로 되며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에서 탈락 분자로, 기회주의자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에는 엄중한 손실로 되며 제국주의와 반동들에게는 리득으로 된다.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는 이것을 너무나도 똑똑히 보여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운동의 전진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혁명적 의리, 혁명적 동지애를 부단히 강화하여야 하며 이에 배치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배격하는 립장을 취하여야 한다.

혁명적 의리는 결코 아무런 비판도 없이 무원칙하게 누구를 추어 주고 받들어 주며 맹종맹동하는 것이 아니다. 의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호상 배려하는 것이며 또 따라서 모든 비원칙적인 행동들을 철저히 비판하고 제거함으로써 공고화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립장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 내에 나타난 비의리적인, 비동지적 립장을 폭로 비판해야 한다고 간주하며 그것을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적 동지애의 립장에 기초하여 실현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 대렬 내에 나타난 부패 타락한 오물을 가시여 버림으로써 자기 고유의 아름다운 지조와 의리로서 순결해지고 굳건해질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의 강화의 길이며 발전의 길이다.

우리는 그 강화되고 발전된 력량에 의거함으로써 배가된 힘으로 매개 나라에서, 세계적 규모에서 공산주의의 종국적인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결합

박 건, 허 재 억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밀접히 결합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 특히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 운동의 발생, 발전은 이 원칙의 구현과 중요하게 관련되고 있다.

오늘 이 원칙의 관철 과정에서 우리 당이 쌓은 성과와 경험을 연구하고 전개하는 것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시키는 우리 당의 원칙과 그 구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가일층 풍부화한 귀중한 모범으로 된다.

따라서 그것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경험으로 무장하는 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원리 학습에서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결합하는 우리 당의 원칙을 정확히 리해하는 것은 오늘 실천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오늘 인민 경제 매개 부문에서 전면적 기술 혁신과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고 종업원 1 인 당 생산량을 높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에로 근로자들을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키는 문제 등이 모두 우리 당의 이 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고 있다.

* *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시킴에 있어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확고한 방침은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위를 보장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한다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

을 발휘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방침을 시종 일관 견지하였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두 자극 중에서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우리 당의 이 방침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는 인류 력사 상 처음으로 근로 대중을 온갖 착취에서 해방하고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근로자들 개인의 리익과 전체 사회의 리익을 완전히 통일시켰으며 또한 근로자들의 로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은 바로 사회주의가 가져 온 이러한 획기적 변혁에 그 기초를 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는 모든 선진적인 새로운 생산 관계가 그러한 바와 같이 선행한 생산 관계 하에서보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훨씬 제고시킨다. 근로자들의 로동이 착취에서 해방되고 그 결과가 직접 근로자들 자신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이 자본주의 하에서보다 훨씬 높아진다. 이것도 역시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중요한 우월성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우월성은 근로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로동에 참가한다는 데 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 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 데 있다.》(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이 우월성, 사회주의 제도의 이 본질적 우월성은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로동에 대한 근본적 태도를 개조케 하는 정치 도덕적 자극에 의하여서만 발휘될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 리해 관계만 따지게 하고 《돈'벌이》를 위하여서만 일하게 한다면 그들이 결코 서로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을 발휘할 수도 없을 것은 명백하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당 정책 교양, 혁명 전통 교양, 공산주의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데 가장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함으로써 바로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훌륭히 발휘시켰으며 생산력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천리마적 대진군, 근로자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대중적인 로력적 앙양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회를 위하여 일하려는 근로 대중의 고상한 사상

을 떠나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위성을 보장하는 것은 또한 사회주의의 첫 시기로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근로 대중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키우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대책으로 된다.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첫 시기로부터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변혁이 가져다 준 정열과 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다는 자각으로부터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배출된다.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 혁명 이후 첫 시기에는 아직 크지 않은 싹에 불과하지만 당면한 새 사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나,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나 아주 귀중한 싹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 첫 시기에 나온 무보수 로요 로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키워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론 이것은 아직도 시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상히 큰 중요성을 가진 시초이다. 이것은 부르죠아지의 전복보다도 일층 더 곤난하고 일층 더 본질적이고 일층 더 근본적이고 일층 더 결정적인 변혁의 시초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보수성, 무규률성, 소부르죠아적 리기주의에 대한 승리이며 저주할 자본주의가 로동자와 농민에게 유산으로 남겨 놓은 이 습성들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이다. 이 승리가 공고화될 때에는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새로운 사회적 규률, 사회주의적 규률이 수립될 것이며 그 때에는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뒤로의, 자본주의에로의 복귀는 불가능하게 되고 공산주의는 참으로 불패의 것으로 될 것이다.》(전집 제 29 권, 490 페지)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태도에서 발현되는 이러한 새 싹은 그것을 키워주는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수단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는 자래울 수 없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낡은 사상 잔재 특히는 수 세대에 걸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여 온 뿌리 깊은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남아 있게 되는바 이것은 자라나는 공산주의적 새 싹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낡은 사상의 저항이 있는 조건에서 만일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약화시키거나 그것과 분리하여 물질적 자극만을 강화한다면 근로자들의 로동에서 새로 자라 나는 공산주의적 싹은 사멸되고 말 것이다. 물질적 자극이란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 개인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되는 충동을 리용하는 공간이니 만큼 정치 도덕적 자극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조장하게 될 수 있으며 물질적 리해 관계만 따지는 속물적 근성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중적 로력적 앙양, 로동에서의 대중적 영웅주의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정치 도덕적 자극과 분리시켜 물질적 자극 일면만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과 모순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위성을 보장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한다는 것은 결코 물질적 자극을 약화시켜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만을 강화하고 물질적 자극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객관적 법칙에 모순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이 있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 생산력이 아직 근로자들에게 수요에 의한 분배를 할 수 있으리만큼 발전되여 있지 못하며 근로자들의 로동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남아 있고 그들이 아직은 무보수 로동에 습관되여 있지 못하며 근로자들의 머리 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다는 등의 제반 객관적 사정과 관련된다.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무시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물론 정치 사업,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이 보다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식 수준이 낮은 층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할 수 없으며 그들의 앙양되는 로력적 열의를 장구한 기간 계속 견지하게 할 수 없다.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많은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고 그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지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국가적, 사회적으로 물질적 배려를 더 많이 돌려 보다 높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들의 열성과 적극성을 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정치 도덕적 자극과 결합되는 조건 하에서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은 또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수단으로도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곧 한 개의 훌륭한 공산주의 교양 방법으로 된다.》(《당 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 것이다》)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는 일하지 않고 남의 덕에 붙어 먹으려는 자들을 통제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에 인입하며 근로자들 속에 로동을 애호하고 존중하는 근로 정신을 배양하며 또한 로동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교양 개조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도 물질적 자극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교양하는 정치 도덕적 자극을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이 정치 도덕적 자극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할 데 대한 우리 당

의 방침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튼튼히 기초하여 또 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력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케 하는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 *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하는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의 조건과 매개 부문의 특성에 맞는 물질적 자극의 형태를 설정하는 것이다.

물질적 자극의 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결합할 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다.

물질적 자극의 형태의 정확성 여부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얼마나 잘 실현하는가에 의해서 평가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물질적 자극의 형태가 될 수 있는 대로 매개 근로자들의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인의 로동의 량과 질에 철저히 준하여 그에게 분배 몫이 돌아 가도록 설정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 당면 및 전망 과업,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문화 생활 수준, 인민 경제 개별적 부문의 특성 등에 적응하게 물질적 자극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를 설정하고 그것을 관철하여 왔다.

국가 기업소들에서 적용된 도급 로임제와 추가적인 로임 형태로서의 상금제, 협동 농장들에서의 로력일에 의한 분배 등을 통하여 당은 인민 경제 발전의 객관적인 제 조건들에 적응하게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였으며 그리 하여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밀접히 결합시켜 왔다.

물질적 자극의 이러한 제 형태들은 개인들에게 차례지는 분배 몫이 자기가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일'군들로 하여금 로동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휘케 하였다.

우리 나라의 실천적 경험은 물질적 자극의 모든 형태들 중에서 특히 개인 도급제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형태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개인 도급제는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가장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하며 일'군들의 생산 열의를 가장 훌륭히 높여 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개인 도급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 도급제도 물질적 자극의 다른 모든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조건 하에서만, 그것과 철저히 결합되는 조건 하에서만 근로자들의 생산 열의를 높여 주는 훌륭한 형태로 될 수 있다. 특히 개인 도급제를 실시하는 조건 하에서 그것이 정치 도덕적 자극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제도와는 거리가 먼 요소들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개인 도급제가 도입되고 있는 인민 경제 매개 부문들에서는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면서 작업반 증산 절약 상금제와 같은 추가적 지불 제도를 적용케 함으로써 개인 도급제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는 창조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업반 증산 절약 상금제는 작업반에 부과된 생산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작업반 전체 성원들을 불러 일으키는 데서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동지적 협조 관계를 강화하며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실은 개인 도급제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치 도덕적 자극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물질적 자극의 추가적 형태들을 배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 도급제는 어디까지나 개별 일'군들의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다.

사실 사회주의 건설의 현시기 인민 경제의 개별적 부문들을 본다면 생산의 최종 결과를 매 개인 별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개인 도급제가 도입될 수 없거나 또는 도입되는 경우에도 큰 성과가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분배 형태들—협동 농장에서의 작업반 우대제, 국영 기업소들(채취, 림업, 염전, 천해 양식 등)에서의 작업반 우대제, 국영 목장들에서의 작업반 독립 채산제 및 작업반 상금제, 건설 부문에서의 현물 평가제 등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 단계의 요구에 적합한 가장 적극적인 물질적 자극의 형태들이다.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이 새로운 형태들은 적용되는 령역에 따라서 일정한 특수성을 가지나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생산의 최종 성과와 직접 결부시킴으로써 그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그 공통성이 있다. 이러한 부문들에서는 새로운 분배 형태가 도입됨으로써 분배가 더욱더 개별적 일'군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철저히 의거하여 실현된다. 말하자면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분배해 주는 원칙이 더 잘 관철되는 것이다. 여기에 물질적 자극의 새로운 형태들이 가지는 근본적 우월성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분배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우월성의 하나는 전체 집단을 **공동적으로**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킨다는 데 있다.

그것은 이러한 새로운 분배 형태들이 근로자들의 물질적 리해 관계를 우선 집단의 생산 계획 수행 정도에 의존되게 하며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완전한 통일을 생산의 최소 단위에서 가장 명백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리 하여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새로운 형태들은 일'군들의 생산 활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하며 앞선 사람은 계속 전진하면서 뒤떨어진 사람을 끌어 올림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의 앙양을 달성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생산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개인 리기주의적 편향을 근절시키며 동지적 협조와 접조를 강화하며 대중적인 지혜와 창발성을 고도로 발휘케 한다. 이것은 개인적 로동의 단순한 총화에 비할 바 없는 새로운 사회적 힘을 산생케 하며 생산 발전을 강력히 추진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작업반이 고정된 생산 단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의 거점으로 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물질적 자극의 이 새로운 형태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기치 하에 작업반 전체 성원들을 묶어 세우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위를 보장하면서 거기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하여 온 우리 당의 경험은 근로자들의 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국가 계획 지표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계획을 수행했는가 못 했는가, 계획을 수행하였다면 어느 정도로 수행하였는가 하는 데 따라 집단 또는 개인들의 물질적 보수에서 일정한 등차를 설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관심을 우선 국가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에 집중시켜 왔다.

이것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를 생산의 매개 환절에서 철저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 담보로 되며 특히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국가적 및 사회적 의무 수행에로 자극함으로써 물질적 자극을 정치 도덕적 자극과 더 잘 결합될 수 있게 하는 중요 조건으로 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를 국가 계획 과제 수행 정도와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성격과 배치되며 그것은 결국 사회주의 하에서의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합목적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된다.

만약 근로자들이 될수록 낮은 계획을 받으려 하는 현상이 발로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약화시킨 결과이며 정치 도덕적 자극과 분리시켜 물질적 자극만을 강화한 결과이다.

우리의 경험은 정치 도덕적 자극이 선행되는 조건에서는 근로자들의 관심을 국가 계획 수행에 집중시키는 것이 그들의 적극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에서 보다 높은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케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은 다같이 생산자 대중과의 사업에 관한 문제이며 생산 과정에 대한 지도, 생산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의 밀접한 결합은 당의 령도와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통해서 실현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당과 국가의 경제 관리 지도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 완성함에 있어서는 반

드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강화할 데 대한 원칙적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생산에 대한 관리 체계와 방법이 소여 시기의 구체적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최대한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일 때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 있게 추진하는 무기로 될 수 있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우리 당의 원칙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확립된 새로운 관리 체계는 그 자체가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확고히 하는 당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당 위원회의 령도 체계의 확립, 집체적 령도의 강화는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철저히 선행할 수 있게 하며 당 조직들과 전체 당원들의 활동을 강화케 함으로써 생산자 대중을 당이 제시한 혁명 과업 수행에로 한결같이 동원시킬 수 있게 한다.

특히 새 체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공장 관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공장의 관리 운영에서 그들의 열성과 책임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주며 로동 과정에서 일'군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의 창발성과 헌신성을 제고케 한다.

이리 하여 대중을 보다 목적 의식적인 투쟁에로, 보다 자각적인 투쟁에로 이끌어 주는 새 사업 체계는 집단적 혁신 운동과 기술 혁명의 불'길을 더욱 앙양시킬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사업 체계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체계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단결시키며 그들의 헌신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기 때문에 생산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는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며 그것을 정치 도덕적 자극에 더 잘 안받침하여 줄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 체계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집단적인 생산 계획의 수행에로 추동한다는 데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 발전되고 있는 자체 정량 사업, 반 도급제에서의 점수에 의한 분배 방법, 상금제, 내부 채산제 등은 변천된 현실에 적응하게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작업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하며 작업 결과의 평가, 분배를 매개 근로자들이 투하한 로동의 량과 질, 그들의 국가 계획 수행 정도에 철저히 의거하여 가장 정확히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새 체계 하에서 광범히 도입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실현하는 새로운 제 형태들은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정확히 결합시킴으로써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 사상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관리 지도 체계는 두 자극의 결합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을 가장 잘 관철시킬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오늘 새로운 사업 체계의 우월성을 발휘시키며 특히 모든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을 관철시키는 것은 다른 모든 사업과 함께 로동 행정 사업,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교양, 당 정책 교양을 심화시키는 문제나 또한 근로자들의 로동 기준량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작업 평가를 잘 하여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나 다같이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관철시키는 것과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며 직접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업인 로동 행정 사업을 완전히 청산리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을 더욱 높이는 데서 가장 선차적 문제로 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밀접히 결합시켜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에 가일층의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 배치의 균형 문제

림 계 수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천명한 김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공업의 발전에 농업을, 도시의 발전에 농촌을 따라 세우며 앞으로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의 차이를 점차 축소시켜 나갈 데 대한 기본 과업들이 제시되여 있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에 대한 문제는 테제에서 제시된 이러한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이 문제의 해결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적 발전, 전 사회적 로동력의 합리적 리용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와 련결되여 있기 때문이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는 무엇보다도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과 전반적인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를 견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서는 생산에 참가하는 제반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요소인 로동력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은 로동력이야말로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동시에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력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그 정확한 배치 없이는 생산 수단의 합리적인 리용과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로동력은 전 사회적 로력 자원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 두 부문 간의 로력 류동은 전 사회적 로력 류동의 기본 조류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민 경제 발전의 매 단계마다 도달된 생산력 수준과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 그리고 나라의 생산 구조와 거기에서 공업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업과 농업 간에 로동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할 때만이 이 두 부문 간의 균형적인 발전도, 인민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에서는 농촌 로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았으며 인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 수준이 훨씬 뒤떨어져 있었던 나라들에서 특히 절실한 문제로 제

기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락후하였던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업에 농촌 로력을 인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많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일정한 시기까지는 아직 농업 로동의 적지 않은 부분이 수공업적인 손로동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 하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도 비교적 오랜 기간을 요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촌 로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 한다면 농업의 발전을 공업의 발전에 따라 세우지 못 하고 결국 공업 자체와 인민 경제 전반의 가일층의 발전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는 사회주의 하에서 사회적 로력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함에 있어서 또한 큰 의의를 가진다.

전 사회적 규모에서 사회의 물질적 및 로력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우월성이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당과 국가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과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타산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는 이 우월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을 좌우하는 이 두 부문에서의 사회적 로동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사회적 로력 자원의 최대한의 동원과 합리적인 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로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수행하고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전망적인 과업의 해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명시되여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 공업과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의거하여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실현하고 농촌 경리의 발전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

그런데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잘 하자면 무엇보다도 농촌에 그것을 담당하여야 할 력량을 잘 꾸려야 하며 당의 농촌 진지를 공고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당과 정부의 계획적이며 의식적인 조치에 의하여 실현된다.

공업과 농업 간에 로동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당의 농촌 진지를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강화하고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할 것이며 그것은 결국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도시와 농촌,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케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가 사회주의, 공산주

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　　　　*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시종일관 중요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당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력사적 특성과 혁명 발전의 매 시기 제기되는 현실적 요구를 과학적으로 타산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 나갔다.

이에 있어서 우리 당은 우선 경제 건설의 매 시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에 필요한 로동력의 량적 수요를 옳게 타산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나라의 생산력 발전 정도, 로동 조직과 생산 조직의 완성 정도에 따라 공업과 농업에서의 로동력의 수요는 각이한 시기에 각이하게 제기된다. 나라의 공업적 토대가 약하며 농촌에서 개인농경리가 지배하던 시기와 공업화의 토대가 축성되고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시기에 있어서 공업과 농업의 로동력 수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경제 발전의 매 시기 공업과 농업에서의 로동력에 대한 량적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는 것은 이 두 부문 간의 로동력을 균형적으로 조절 배치함에 있어서 선차적 의의를 가진다.

당은 공업과 농업에서 요구되는 로동력의 량적 수요와 함께 그 질적 구성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농업을 희생으로 하여 공업을 발전시킨 과거 사회의 후과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 공업 로동력과 농업 로동력의 질적 구성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을 수 없다. 공업과 농업 부문 로동력 구성에서의 질적 차이는 로동 계급에 비하여 농민들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이 낮으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에 기술, 기능 로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농촌에는 청장년 로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에서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 조건이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방침을 수립함에 있어서 언제나 이 두 개 측면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으며 그것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력 배치의 균형 문제 해결에서 우리 당이 견지한 방침은 우선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을 조절 배치하는 것이였다.

공업은 인민 경제의 기타 모든 부문에 대하여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부문의 발전에 필요한 생산 수단을 공급한다.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공업의 발전을 다른 모든 부문의 발전에 앞세워야 한다. 공업의 우선적 발전, 그 기술 수준의 제고는 공업이 인민 경제에서 지도적 역할을 놀 수 있게 하는 기본 담보이다.

이로부터 공업과 농업 간에 로동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함에 있어서는 공업의 발전에 요구되는 로동력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로동력을 동시에 풀어 나가는 원칙을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으며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로동력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하여 또한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며 그 대렬의 질적 구성을 부단히 강화하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당의 이 방침은 농업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농민들로 하여금 기술 기능과 문화 수준을 높이고 선진 영농 과학을 습득케 함으로써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며 농업 생산력을 부단히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이다.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고 그 대렬의 질적 구성을 강화하는 것은 농촌 로력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고리이며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 당은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고 그 질적 구성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전 당과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계속 견지하였다.

로동 계급이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고 당의 농촌 진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더우기 산지대가 많고 논 농사가 위주로 되여 있으며 집약적 영농 방법이 기본으로 되여 있는 우리 나라 조건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 진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에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로력자들이 들어 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은 고도로 집약화되여 있으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장시일을 요한다. 우리의 농촌 로력에서는 아직도 로인들과 녀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 청장년 로력을 더욱 보충하여 주며 농촌에 대한 사회적 로력 방조를 더 계획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폐제)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로력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 등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로력을 적극 절약하여 농촌에 더 많은 로동 계급의 핵심들을 파견하며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적 로력 협조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데 일관한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은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농촌 진지를 공고화하며 공업의 발전에 농업을 따라 세우며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이러한 모든 방침을 견지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경제 건설의 매 시기마다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다. 당은 혁명 발전의 서로 다른 시기에 제기되는 상이한 과업과 조

전들을 정확하게 타산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매 시기 이 두 부문 간의 로동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절 배치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이 빠른 속도로 복구되고 로동력에 대한 공업의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던 과도기 첫 시기에 당은, 로동력 배치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 보장을 위하여 우선 아직 농촌에 잠재하고 있었던 과잉 로력을 공업 부문에 조직적으로 이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과도기 첫 시기에 실시한 우리 당의 이 조치는 당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였다.

해방 직후 우리 나라 공업 부문 앞에는 일제의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하루 속히 퇴치하고 점차 자립적 공업 토대를 확립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여 있었으며 이것을 위하여 공업에서는 로동력을 절대적으로 급격히 증대시킬 것이 요구되였다. 다른 한편 일제 통치의 결과 증대되였던 농촌의 과잉 로동력은 토지 개혁 이후 현저히 축소되였으나 아직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

당은 이러한 형편에서 농촌으로부터 공업에로 로동력을 국가의 통일적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인입함으로써 로동력 배치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였다.

이것은 과도기 첫 시기 공업에서 요구되였던 로력 문제를 최단 기간 내에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시기에 존재하였던 농촌의 잠재적 과잉 로력을 최대한 축소시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 시기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되였던 전쟁의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혹심하게 파괴되였고 로동력이 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구성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 났다. 공업 부문 로력 구성에서 숙련 로동자들의 비중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감소되였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청장년 로력이 극히 부족하였으며 농사'일의 대부분이 녀성들과 로인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서 로동력 문제는 공업에서나 농업에서나 다 같이 절실하였다.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 로력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공업의 복구 발전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 축성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는 한편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면서 농촌에서 협동화를 통하여 긴장된 로력 문제를 풀었다.

이것은 전후 시기 공업과 농업에 조성되였던 구체적 실정에서 이 두 부문에서 다같이 긴절하였던 로동력 문제를 동시에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있게 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또한 전후 공업과 농업의 복구 발전에 필요한 로력 문제를 푸는 사업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면서 이 과업들의 급속한 수행에도 적극적 작용을 놀았다.

우리 당은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면서 협동화 운동을 통하여 긴장된 로력 문제를 푸는 한편 공업의 기초가 축성되는 차제로 점차 농촌에 대한 도시의 물질 기술적, 로력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심중한 주목을 돌려 왔다.

당은 전후 곤난한 조건 하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농촌의 대규모 관개 공사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적극 진행하였으며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와 농기구를 생산 공급하여 주었으며 특히 농촌에서 로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결정적 시기에 사회적 로력 협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가 축성되고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에 따라 농촌에 대한 이러한 국가적 지원의 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보다 폭 넓게 실시하였다. 당은 농촌에서 부족되는 로동력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촌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공업 부문에서 집단적인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공업 자체의 로동력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로력적 지원을 더욱 더 많이 줄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농촌을 적극 지원하며 농촌 출신의 초중 및 기술 학교 졸업생들을 농촌에 고착시키며 군대에서 제대되는 청장년 로력들을 농촌에 더 많이 파견하며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그리 하여 전후 10 년(1954～1963)간에 우리 나라 농촌 로력 구성에서 남성 로력의 비중은 5% 이상이나 더 제고되었으며 그에 따라 청장년 로력의 비중이 훨씬 더 증대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추진됨으로써 이 기간에 절약된 농촌 로력만 하여도 매년 평균 1,840여만 공수에 달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이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긴장된 문제의 하나였던 로동력에 대한 공업과 농업의 수요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이 두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였으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더욱 추진시킬 수 있게 한 주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는 것을 증시해 주고 있다.

*　　*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미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특히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농촌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킬 보람찬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공업과 농업 간에 로동력을 보다 균형적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조절 배치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하여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농촌 로력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다.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가 축성되고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와서도 우리 나라 농촌에서 로력 형편은 계속 긴장되여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 농촌 경리 부문 앞에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업과 도시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에 적응하게 농업 생산을 더욱더 증대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모든 협동 농장들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할 방대한 과업이 부과되여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은 지금 진행 도상에 있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급속히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농촌은 또한 경제 관리 특히 로동 행정 사업 분야에서 공업에 비하여 적지 않게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아직 상당한 기간 로력 확보 사업이 계속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로력 문제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를 기계화하고 화학화해서 적은 로력을 가지고 헐하게 농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계속 농촌에 많은 로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촌 로력 확보에 십중한 주의를 돌리야 하겠다.》(김 일성, 《농촌 경리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하여》)

현시기 농촌 로력을 증가시키며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결정적 고리는 농촌 지원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더욱 강력히 전개하며 전반적인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농민들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전 당'적, 전 인민적 사업이다.

현실은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공업 건설에 필요한 로력을 일정한 정도로 농촌에서 뽑아 오지 않을 수 없었다면 공업화의 로대가 축성된 오늘에 와서는 공장이 농촌을 물질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로력적으로도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의 농촌 진지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공업의 발전에 농업을, 도시의 발전에 농촌을 따라 세울 데 대한 과업도 잘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로력을 최대한으로 절약하여 농촌에 더 많은 로동 계급의 핵심들과 청장년들, 우수한 로력자들을 들여 보내야 한다. 농촌의 로력자 대렬을 대대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사업과 동시에 농촌에 대한 사회적 로력 협조를 계획적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데 또한 깊은 관심을 돌려야한다.

현시기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와 합리적인 리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과 함께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로동 행정 사업의 강화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력의 합리적 배치와 로동력의 절약적인 리용을 통하여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과 로력자 1 인당 생산량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담보의 하나로 된다. 더우기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로력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해마다 수 많은 로력자 대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농촌 로동 행정 사업

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우선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며 농업 로동력의 질적 구성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

농촌 로력을 인민 경제의 기타 부문에 빼돌리는 현상을 극력 제한하여야 하며 농민들 속에서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다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지식을 소유케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 부문에서는 자체의 내부 로력과 지원 로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도록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절 배치하며 로력 조직 사업과 관리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협동 농장들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에는 선장한 청년들을, 헐하고 쉬운 일에는 녀성들과 허약자들을 배치하며 농장의 기본 로력을 농사'일에 집중하는 원칙에서 모든 농장원들을 그들의 성별, 년령, 체질, 기능 등 특성에 맞게 정확히 배치하며 로력 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로력의 랑비 현상을 없애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에서 로동력의 랑비와 류동이 없도록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리용하며 작업 정량을 정확히 선정하며 로력 관리와 작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잘 실시하도록 농촌 로동 행정 사업 전반을 틀어 쥐고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반적인 로동 행정 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로동 생산능률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백방으로 제고하고 로력 예비를 적극 탐구해 내여야 한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로동 행정 사업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이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로동 행정 기관들의 지도와 감독 기능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로동 행정 기관들이 도시와 농촌의 모든 로력 원천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나라의 경제 및 기술 발전에 상응하게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 배치의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로동 행정 기관들은 국가의 전반적 로동 계획 작성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고 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로력의 류동과 랑비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우리 나라 현 실정에 맞게 부문들 간의 로력 배치의 비례를 정확히 설정하고 모든 부문에서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일'군들의 비중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과 농업이 다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다같이 번영하고 있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특히는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 배치에서의 균형 보장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증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 배치에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전반적인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할 때 우리 나라에서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전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될것이다.

남조선에 침습하고 있는 《왜색》, 《왜풍》

김 연 성

해방 후 19년 동안이나 미제의 식민지 통치로 여지 없이 파괴 몰락된 남조선 사회 문화 생활은 오늘 《왜색》, 《왜풍》의 침습으로 더욱 수습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침습하고 있는 《왜색》, 《왜풍》은 반동적 일본 부르죠아 문화와 부패한 생활 양식이다.

일제는 《한 일 친선》이니, 《경제 협조》니 하는 간판을 들고 최근 시기 남조선에 대한 침투 기도를 로골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 하여 오늘 남조선에는 일제의 침략적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명목의 사절단들이 매일과 같이 기여 들고 있으며 이들은 각 방면에 걸쳐 자기들의 침략적 지반을 구축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에 오늘 남조선에는 일제의 해외 팽창의 선봉대로 복무하는 반동적 종교 단체들을 비롯해서 인민들 속에 숭일 사상과 일본의 부르죠아 생활 양식을 부식하는 퇴폐적인 영화와 출판물, 음악, 문예 작품들이 급속히 밀려 들고 있다.

《왜색》, 《왜풍》의 급속한 범람은 오늘의 남조선 현실로 하여금 과거 일제의 식민지 통치 시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자기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를 유린 당하던 근 40년 간에 걸치는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는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너무나 생생하다.

일제는 근 40년 간 우리 인민에게 빈궁과 기아의 처참한 생활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빛나는 문화 전통과 생활 양식을 파괴 말살하는 데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었다. 그들은 지어 《동조 동근론》, 《황국 신민화》를 떠벌리면서 이른바 반동적 《대화혼》을 강제적으로 주입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 성까지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목적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자기의 성, 모국어를 쓰는 것마저 막아 보려 하였다.

해방 후 남조선에서 민족 문화는 일제에 의한 치욕의 흔적을 가시지 못한 채 또다시 미제에 유린 당하게 되였고 민족의 고유한 미풍 량속은 여지 없이 파괴 당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사실상 민족 문화의 발전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고 있다. 부패한 부르죠아 문화와 생활 양식의 침식으로 민족 주체 의식은 차츰 말살되고 허무주의와 염세 기분이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투가 예속된 나라 인민들의 생활을 헤여날 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 넣으며 민족의 존망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략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민족적인 전통과 민족 주체 사상의 완전한 말살을 목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 속에 저들에 대한 순종과 굴종의 사상을 고취하고 타국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길을 개척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책동은 흔히 《원조》와 《친선》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진행된다. 과거 일제가 조선을 강점할 당시 그렇게 하였고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이 어떠한 구실로 기여 들든지 간에 철두철미 침략과 략탈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은 결코 변할 수 없다. 력사의 경험은 이것을 똑똑히 말해 주고 있다.

조선에 대한 옛 지위를 회복하려는 야망을 품고 일제는 최근 박 정희 도당이 《한 일 회담》의 속결을 서두르는 것을 기회로 또다시 남조선에 대한 침투를 로골적으로 추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한편으로 본격적인 경제적 침투를 준비하면서 대대적인 문화적 침습을 이에 선행시키며 각이한 형태와 방법으로 남조선 사회 생활에 급속히 기여 들고 있다.

그리하여 일제의 문화적 침투는 패망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장차 남조선과 아세아 지역을 또다시 저들의 예속 하에 넣어 보려는 재침 기도 실현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감히 남조선에 기여 들려고 발악하는 데에는 그들 자체의 이러한 침략적 욕망이 우선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미제의 조작이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미제는 《한 일 국교의 정상화》를 실현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일제를 리용하며 나아가서 아세아를 침략하는 데 그들을 《돌격대》로 내몰려는 목적으로 일제의 남조선 침투를 적극 지지하고 추동해 왔다.

미제는 우선 《한 일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일제의 남조선 침투의 길을 열어 놓으며 일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결합시켜 침략적 《동북 아세아 동맹》을 결성하려는 책동을 오래전 부터 꾸며 왔다.

미제의 이러한 음모에 장단을 맞추는 박 정희 괴뢰 도당은 허물어져 가는 자기의 파쑈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일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서두르면서 일제를 남조선에 끌어 들이는 매국 배족 행위를 서슴 없이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런 것으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재침 기도는 박 정희 도당이 군사 정변을 일으킨 5.16 이후 더욱 적극화되였는바 여기에서 특히 박 정희 도당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그들에게 중요한 자극을 주었다.

박 정희 도당은 일제와의 결탁이 《번영의 터전》을 이룩하는 길인듯이 말하면서 자기들의 매국 정책을 정당화하며

일제 문화의 대대적인 침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외국 문화는 민족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량식》으로 된다는 구실로 자기들의 반인민적 책동을 변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반부에는 《한일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친일》 단체가 조직되여 《한일 친화》를 선전하고 있다. 《일장기》 (日章旗)를 앞세운 일제 침략의 척후병들인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비롯해서 상인, 종교인, 문화인들이 침략의 기회를 노리면서 련이어 기여들고 있다. 그리하여 해방 전 일제가 부르짖던 이른바 《동조 동근론》이 오늘 또다시 소생하고 있다.

그들은 한때 《일 한》 두 나라 사이를 가리켜 《가장 가까운 나라끼리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였다면 박정희 도당이 《대일 저자세 외교》 정책을 실시하는 오늘에 와서는 《일 한》 두 나라가 《부자지 간》으로 아주 가까와졌다고 떠들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문화적 침투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진행되고 있는바 여기서 특히 반동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종교 단체들의 침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우선 남조선에서 일제의 침략적 지반을 구축하는 데에 활동의 주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침투한 국수주의적 정치 종교 단체인 《창가 학회》와 《천리교》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노리면서 조직적으로 자기 활동망을 늘이고 있다.

《창가 학회》와 《천리교》는 사기적인 교리로 인민 대중의 반일 감정을 무마하고 그들 속에 숭일 사상을 부식시키며는 반동적인 정치 종교 단체로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해외 팽창 정책과 타국에 대한 사상적 침략 수단으로 적극 복무하고 있다. 일제가 오늘 남조선에 《창가 학회》를 적극 침투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남조선에서 발간되는 한 신문이 《일본 〈가미가제〉 래습》이라는 표제의 글에서 일제가 《창가 학회》를 남조선에 급격히 전파하고 있는 것은 《한국을 일본 독점 자본의 지배 하에 몰아 넣기 위한 전초 작전으로서의 정신 공세》라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창가 학회》와 함께 남조선에 들어 온 《천리교》 역시 그 교리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목적과 본질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다같이 재침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기여 든 일제의 척후병들이다.

이들의 본질과 목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도당은 작년 12월 21일에 《천리교》를 《합법 종교 단체》로 《문교부》에 정식 등록하게 하고 그의 대대적인 전파를 장려하고 있다.

오늘 종교 단체와 더불어 침투하고 있는 《왜색》, 《왜풍》은 남조선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무서운 병균과도 같이 침투되여 민족 주체 의식과 정서를 극도로 마비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후대들의 정서 생활에 파멸적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놀고 있는 것이 일본 출판물이다.

각종 반동 사상과 일제의 해외 팽창 정책을 선전하는 정기 간행물과 퇴폐적인 문예 서적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 그 종수는 무려 200 여 종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영화 배우들의 저속한 취미와 사생활을 소개 선전하는 《예이

가노 도모》(映畵之友)와 같은 책들만 해도 45만 권 이상이나 들어 오고 있다.

《젊음이 흐르는 강》, 《알송달송》, 《장미의 수형》, 《사랑이 끝날 때면》 등 그 제명만 들어도 구역질 나는 10~20대 청소년들의 추잡한 색정 세계를 그린 소설들이 번역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미야모도 무사시》와 같은 사무라이 정신을 고취하는 소설들도 뻐젓이 번역되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서점들은 일본 출판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바 서울에서 만도 이러한 출판물들의 판매소가 12개소나 되며 부산, 대구를 비롯한 각 도시들에 여러 개씩 있다. 이 외에도 순전히 낡은 일본책만 파는 서점은 무려 1,000개소가 넘는다. 민족적 량심의 편린마저 저버린 남조선의 출판업자들은 젊은 세대의 장래나 나라의 운명에는 상관 없이 순전한 영업 목적으로 퇴폐적인 일본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다. 지어 신문에 나는 책 광고에까지 일본 작가의 작품이 대서특필로 소개되고 있으며 방송에서 그들의 작품이 련속 랑독되고 있다.

일본 출판물의 대대적인 전파는 남조선의 몰지각한 문화인들 속에서 친일 사상과 민족 허무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일본 작가의 작품을 표절하는 비렬한 행위들을 산생시키고 있다.

퇴폐적인 일본 소설들은 번역되기가 무섭게 영화계에서는 이를 표절하여 영화를 만드는 데 때로는 한 개의 일본 소설이 이름만 다른 두 개 《국산 영화》로 제작되여 물의를 일으키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영화의 표절 행위도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 오늘 남조선 영화의 90퍼센트가 일본 영화의 표절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영화들의 화면에는 일본의 《하오리》, 《하까마》를 입은 배우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일본 도시들의 밤 유흥장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시각을 어지럽히고 있다. 《사무도비 사스께》라는 일본 영화가 만화 영화 《요술 소년》으로 변조되여 상영되였는데 이러한 영화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사무라이》의 칼 싸움을 흉내 내다가 곤봉으로 자기 동무의 머리를 쳐서 죽사케 한 사실까지 빚어지고 있다.

과학계에서 표절 행위도 문학 예술계 만 못지 않게 로골적이고 파렴치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조선의 어떤 의학자는 일본책에 실린 의학.론문을 그 대로 베껴서 《의학박사》가 되였는가 하면 고려 대학의 어떤 교수는 《트루맨의 대한 정책》이라는 자기 론문에서 일본의 《이등 박문》이 《한일 합병》을 반대했다는 망발까지 늘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것이면 무조건 따르려 하며 자기의 력사와 문화를 외곡하는 것마저 서슴지 않는 이런 매국 배족 행위는 오늘 남조선의 일부 문화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로 민족 허무주의와 사대주의에 물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들 자신의 죄에도 있지만 해방 후 19년간 미제와 매국 역적들의 반동적 반인민적 통치가 이러한 결과를 빚어 내였으며 또 계속 빚어 내고 있다. 제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만들어 내지 못하였고 또 만들어 낼 능력도

없는 조건 하에서 일제의 퇴폐적인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 들고 그것을 아무런 렴치도 수치감도 없이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것쯤은 이젠 예사로운 일로 되고 말았다. 게다가 풍전 등화의 처지에 놓여 있는 자기들의 운명을 일제와 결탁함으로써 구원해 보려는 박 정희 도당이 이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왜색》, 《왜풍》의 침습은 이런 것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 남조선 사회 생활을 더욱 타락시키고 헤여날 수 없는 궁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비애, 절망과 고독을 강요하는 부패한 류행가와 왜음판 레코드의 범람이다.

남조선의 거리들과 골목들에서는 《월하의 나포리》, 《하나》, 《오에도 니혼바시》 등 일본 류행가들과 《리별의 하네다 공항》, 《명동의 장미》 등 일본 류행가를 표절한 노래들이 때 없이 불리여져 사람들을 타락과 애상의 세계에로 몰아 넣으며 무기력과 허무주의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음악가는 《일본 색조의 침식에 대한 숙청의 대담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가요의 근본은 완전히 바다 건너의 집령 시대가 될 것 같다. 왜색에 오염된 우리 음악계에 철저한 방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왜색 침습이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주체성을 잃은 〈정신 환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개탄하고 있다.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대담한 대책》이니 《방비 태세》니 하는 말만으로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사람들의 사상 감정을 동원할 수 있는 고상한 인민적 선률, 부정의를 반대하여 일떠선 인민의 의지와 지향을 묶어 세우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줄 수 있는 인민적 음악을 이에 대치시키는 것만이 왜음악의 침습을 이겨 낼 수 있는 길이다. 남조선 음악가들이 퇴폐적인 음악을 만들어 내는 데서 해방되어 사실주의의 립장에 서지 않는 한 이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이것은 소설이나 영화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기실 오늘 남조선의 많은 독자나 관람자들이 일본 것에서 그 어떤 매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남조선의 문학 예술이 그 만큼 부패 타락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작가, 예술인으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 자신이 독자 관람자들에게 안겨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훌륭한 작품도 만들어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 유산을 스스로 망쳐 놓고 국적 불명의 것으로 변조시키지 않았는가? 그들이 이러한 립장에 서 있는 한 퇴폐적인 일제 문화의 침습도, 박 정희 도당의 문화 말살 정책도 결코 방지해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의 한 비평가가 《오늘의 한국 문학 예술에서 그 어떤 예술성을 운운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며 이런 조건 하에서 독자들이 일본 것에 매여 달리는 데 어찌 그들만을 탓하겠는가》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일제 문화의 침습을 받고 있는 남조선 사회 정치 생활은 일부 사람들의 이러한 개탄이나 비판에는 아랑곳 없이 더욱 처참한 함정에 빠져 들어 가고 있

다. 남조선 거리들에서 풍기는 《왜색》, 《왜풍》은 일본어의 대대적인 류행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남조선 거리들에서는 한때 우리 인민의 귀에 그토록 거슬리던 일본말 절반 조선말 절반의 대화들이 하나의 류행으로 되고 있으며 《미스터 김》과 더불어 《최 상》, 《리 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튀여 나오고 있다. 심지어 10 대 소년들 속에서까지 만나면 일본말 인사가 오가고 있다.

일본말은 그 시세가 점점 높아져 지금 남조선에는 《일어 강습소》가 무려 600 개소를 넘으며 일어 개인 교수의 간판이 도처에 나붙고 있다.

《한국행 빠스》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 오는 《왜색》, 《왜풍》은 이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남조선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을 포위하고 남조선 인민의 문화 도덕 생활을 파국에로 몰아 넣고 있다.

한때 《민족 자주 의식》이요, 《민족 문화 건설》이요 하는 구호를 열병 환자의 잡소리처럼 떠벌리면서도 그 리면에서는 일제를 끌어 들인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정책이 빚어 낸 결과는 이러하다. 오늘 남조선의 모든 사회 현실은 그들의 진면모를 여지 없이 드러내 놓았다.

남조선 인민들, 특히 청년 학생들 량심적 문화인들은 차츰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보기 시작하였고 박 정희 도당의 매국 정책을 반대하는 그들의 도 날로 높아 가고 있다. 해방 후 오늘까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가 조선 사회에 끼친 엄중한 후과를 뼈저리게 체험한 그들은 일제 문화의 침습으로부터 민족 문화를 고수하며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양식과 건전한 도덕 풍습을 수호하는 길은 오직 미제 침략 세력과 박 정희 도당을 종국적으로 타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이러한 각성된 투쟁이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한 일 회담》 속결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경험과 각성은 더욱 장성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유구한 문화 전통은 남조선에서도 인민의 힘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습으로부터 고수될 것이다.

력사적 경험이 있고 인민 대중의 각성된 투쟁이 있고 더우기 조국의 북반부에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가 서 있는 한 일제가 남조선에 다시 발을 붙이고 살 수는 없다.

근 로 자 제 13 호 (루계 251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7월 3일 발 행 1964년 7월 5일

ㄱ—430412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4호 7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4 호 (252)
1 9 6 4 년 7 월 (하)

차 례

일본 공산당에 대한 파괴 책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로동 신문》 사설)

형제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과 그 통일을 위하여 형제당들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규정하였다.

평등, 호상 존중, 자주성,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 호상 지지 및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호상 관계의 규범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형제당들이 집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일치하게 합의한 것이다.

국제 혁명 대렬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이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형제당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함부로 유린하고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형제당들에 대한 계통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렬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최근에는 형제적 일본 공산당에 대하여 불의에 공개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일 반동들의 온갖 박해 속에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 공산당에 대한 공격은 일본 로동 계급의 영웅적인 투쟁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있는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국제 로동 계급의 우려와 분격을 자아 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공산당에 대한 공격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조성된 사태를 수습하며 그 통일을 보장할 것을 바라는 국제 로동 계급의 요구에 대한 또 하나의 로골적인 유린이며 배반으로 된다.

일본 로동 계급의 전위대인 일본 공산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가장 영광스러운 전투적 부대들의 대오에 서 있다.

장기간의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장성 강화된 일본 공산당은 오늘 일본 로동 계급의 위업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고 있다.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인 일본 공산당은 시종일관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형제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으며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렬을 저지하고 그 통일을 고수하기 위하여 완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그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령도 밑에 일본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투쟁의 기수로

서 인민들을 승리의 길로 확신성 있게 인도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일본 령토를 강점하고 예속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일본 독점을 반대하는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도발 정책을 반대하며 일본의 평화와 안전 및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년간 일본 공산당의 지도 밑에 미 제국주의자들과 일본 독점들을 반대하여 일본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이 전개하고 있는 투쟁은 국제 로동 운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에게 심각한 혁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로동 계급의 의지를 마비시키며 혁명 투쟁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을 때 일본 공산당과 영용한 일본 로동 계급은 실천적인 투쟁으로써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제 인민들의 투쟁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일본 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국제 로동 계급 및 피압박 민족들과의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정확한 로선과 정책, 일본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일본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 속에서 더욱더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을 따라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일본 로동 계급과 나아가서 국제 로동 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쌓은 업적에 의하여 국제적으로도 높은 위신을 가지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국내에서 수정주의자들을 비롯한 각종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통일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으며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 공고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공산당은 외부 세력과 련계를 가지고 당에 도전하여 나선 시가 요시오와 스즈끼 이찌조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의 비렬한 행동을 폭로하고 전 당을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하였다.

맑스-레닌주의당에 있어서 강철 같은 규률은 그 생명이다. 로동 계급의 당은 토론 구락부가 아니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복잡한 혁명 투쟁에서 대중을 성과적으로 령도하기 위해서는 전 당이 일치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한 당 내에서는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당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며 전 당은 중앙 위원회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은 자기의 그릇된 견해로 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 하여도 례외 없이 당 결정을 무조건 집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원의 가장 주요한 표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력의 지지 하에 당의 결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시가 요시오와 스즈끼 이찌조 등의 행동은 배반자의 정체를 그 대로 드러낸 것이다.

당 규률을 위반하고 개인을 당 우에 올려 세우려고 한 변절자들을 당 대렬에서 제거한 것은 진'적으로 정당하다.

로동 계급의 선진 투사들의 사상 의지의 통일체이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조직체인 맑스-레닌주의당은 당 내에 종파의 존재를 허용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이 진실로 혁명의 전위 대로, 전투적이며 조직된 부대로 되자면 그 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여야 한다.

이것은 혁명 투쟁의 전 력사가 가르친 칠칙이며 위대한 레닌과 쓰딸린의 가장 귀중한 유훈이다.

이 변절자들을 출당시킴으로써 일본 공산당은 그 대렬이 더욱더 순결하여지고 그 통일이 강화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은 일층 제고되였다. 모든 지방 당 조직들과 당원들이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조치를 일치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타기할 변절자들을 규탄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직접 반대하며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반대하여 평화와 사회적 진보를 위한 전초선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일본 공산당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만일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면 가장 어렵고 복잡한 정세 하에서 싸우는 계급적 형제의 투쟁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의견 상이가 있다 하더라도 형제당을 공격하며 내부 문제에 간섭하며 그 혁명 투쟁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할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그들은 일본 공산당을 반대하여 대대적으로 중상과 비방을 퍼붓고 있으며 이 당을 내부로부터 분렬시키려는 로골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미 일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 공산당의 활동에 갖은 장애를 다 조성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 고질로 되고 있는 대국주의적 행동을 보게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된 견해를 류포하면서 모든 사람이 맹목적으로 자기를 추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당들에 압력을 가하고 모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이미 쓰라린 체험을 하였다.

그들은 자기가 공개적인 론쟁을 도발하고도 남이 론쟁을 일으켰다고 하며 자기가 분렬 책동을 하면서도 남을 분렬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 그들은 일본 공산당에 대하여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일본 공산당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 의견 상이에 대하여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노기를 품고 공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 공산당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자기 내부 사업에서 해당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저회에 대한 반대 행동이라고 생트집을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공산당이 자기 당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그만 둘 것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큰 죄나 되는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

옳건 그르건 간에 모든 경우 저회를 공손히 떠받들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 사람들의 론법에 의하면 저회는 남의 당 내부를 교란시켜도 다른 사람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조차 말할 수 없으며 저회는 남을 공격하여도 다른 사람은 대답 한 마디 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하여야 《국제주의적》이고 《친선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형제당에 대하여 상하 간의 관계를 수립하려는 가장 전형적인 대국 배타주의적 행동이다.

그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그 어떤 중앙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자처하면서 남에게 명령하려고 하며 형제당들의 내부 문제에까지 함부로 간섭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일본 공산당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 의견 상이의 내용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기 출판물에 형제당들의 글을 전재한 것에 대하여서까지 시비를 걸고 있으며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저회의 편지를 어떻게 토의하는가 하는 것까지 문제로 삼으려 들고 있다.

자기 출판물을 어떤 자료들로 편집하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매개 당의 내부 문제이다.

일본 공산당을 공격하는 사람들 자신은 출판물을 비롯한 모든 보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연설과 각종 회의를 통하여 매일과 같이 형제당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의견을 달리 하는 형제당들을 공격하기 위하여서는 저회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의 자료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선전 자료까지도 서슴없이 리용하고 있다.

저회는 출판물을 통하여 형제당들을 마음 대로 중상 비방하여도 다른 사람은 형제당들의 글을 자기 출판물을 통하여 소개할 수조차 없다는 주장은 도대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남의 당 중앙 위원회가 어떤 문제를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토의하는가 하는 것까지 간섭하려는 행동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형제당을 마치 자기의 하부 조직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남에게 그릇된 것을 내려 먹이려 하며 남의 내부 문제에 되는 대로 간섭하는 대국 배타주의적 전횡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 내에는 큰 당도 있고 작은 당도 있으나 남에게 명령하고 훈시하는 상급 당과 이에 복종하는 하급 당은 없다.

매개 당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 혁명 문제와 자기 당 내부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을 지고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활동하여야 대중의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령도할 수 있다.

자기 당의 내부 문제를 그 누구에게 보고하고 비준을 받고 처리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더우기 혁명하는 당이 남의 그릇된 주장과 행동에 맹종 맹동하면서 자기 인민의 리익을 배반할 수는 없으며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원칙을 팔며 독자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국제 로동계급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 당으로서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대치되는 모든 주장과 행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않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일본 공산당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금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형제당들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헌 신짝처럼 집어 던지고 파괴 활동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쌍방 간에 합의된 문제도 꺼리낌 없이 뒤집어 엎으며 동지적인 신의를 배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공산당을 내부로부터 교란시키며 지도부와 당원 대중을 리간시키며 당을 인민들로부터 리간시키려고 공공연하게 획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본 공산당을 파괴하기 위한 종파적인 음모 활동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미부터 일본 공산당 내 종파 분자들을 지지하여 오던 그들은 지금 일본 공산당에서 출당 당한 한 줌도 못 되는 변절자들을 각종 선전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애국자》이며 《사회주의 위업의 충실한 옹호자》이며 《국제주의자》라고 추켜 올리며 그들의 반역 행위를 고무하며 조장시키고 있다.

종파 행동에 열이 오른 이 사람들은 일본 공산당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있는 변절자들의 책동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있으며 일본 공산당의 지도부를 각방으로 위협하며 모해하고 있다.

당 지도부를 전복하고 당을 분렬시키려는 반역자들을 지지하며 맑스-레닌주의당을 공격하는 이러한 범죄적인 행위를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다름 아닌 일본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타격을 가하는 행동인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일본 공산당에 대한 파괴 활동을 감행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민주주의 운동 대렬 특히는 일본의 평화 운동 대렬을 분렬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핵 무기의 생산과 지하 핵 시험을 합법화하고 인민들 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는 데 리용된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을 특별히 변호하면서 일본 내 각종 기회주의자들에게 정치적 자본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평화 옹호 운동 대렬에 혼란을 조성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책동과 관련하여 미 일 반동 계층과 분렬주의자들이 기뻐 날뛰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늘 일부 사람들의 일본 공산당에 대한 공격은 쏘련 공산당 20 차 대회 후 그들이 계속 감행하고 있는 험악한 음모 활동의 일환이며 연장이다.

형제당들에 자기의 부당한 주장을 강

요하며 형제당 지도부를 배후에서 모해하며 형제당 내 종파 분자들을 조종하여 당 지도부를 공격하며 혁명 대오를 파괴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상습화된 행동이다.

그들은 도처에서 북새통을 놓았으며 어제는 이 당을 타격하고 오늘은 저 당을 타격하고 이쪽 저쪽 돌아 가면서 파괴 활동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형제당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 당내 종파 분자들과 온갖 변절자들을 조종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형제당 지도부를 전복하려 하였다.

특히 그들은 《개인 미신》에 대한 악명 높은 딱지를 붙여 형제당 지도부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박해하고 배제하려고 끊임 없이 획책하였다.

그들은 소위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을 계속하면서 형제당 당원들과 형제 나라 인민들에게 자기 당 지도부를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진출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반맑스-레닌주의적 종파적 활동에 의하여 수 많은 당들의 내부에서 소란이 일어 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수라장으로 되였다.

이 때까지 모든 일이 잘 되던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수정주의가 대두하고 인민의 버림을 받은 온갖 배신자들과 타락 분자들이 머리를 쳐들었으며 일련의 나라에서 소동이 일어 났으며 지어는 반혁명적 폭동까지 일어 났다.

수 많은 당들이 엄중한 피해를 입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전반이 심중한 손실을 당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조성되였던 일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그릇된 행동에 추종하지 않는 형제당들에 대하여 각방으로 타격하고 형제 나라와의 국가적 관계까지 단절하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형제 나라의 자주권까지도 무시하면서 각종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민족 리기주의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형제 나라의 경제를 저희들의 부속물로 전변시키려고 책동하며 이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음으로 양으로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다.

국제 로동 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당들이 이러한 책동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당 저 당에 손을 뻗치며 옳지 못한 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더욱 더 멀리 리탈한 사람들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파괴 책동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사람들의 반맑스-레닌주의적, 분렬주의적 행동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 운동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더욱더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일본 공산당에 대한 분렬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은 즉시 중지되여야 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파괴 책동은 저지되여야 한다.

우리는 자국 인민의 혁명 위업과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원칙적인 립장을 견지하고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고 수정주의

를 강요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형제당들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유린하고 대국 배타주의적 전횡을 일삼는 사람들의 책동은 절대로 용납되여서는 안 된다.

대국 배타주의는 형제당들 간의 단결을 파괴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파괴하는 악독한 독소이다.

맑스-레닌주의당들은 반대하여 내부 문제에 간섭하며 파괴 활동을 감행하는 대국 배타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수호하여야 한다.

더우기 일부 사람들이 여기저기 음모의 손을 뻗치여 종파 활동을 감행하는 데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일본 로동 계급과 일본 인민의 리익을 자기들의 불순한 목적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일본 공산당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장구한 기간에 걸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가진 강력한 당이다. 일본 공산당은 어느 때보다 그 대렬의 통일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과거로부터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왔다.

두 나라 당과 인민의 단결은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 정책을 물리치고 량국 인민의 민족적 리익을 고수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된다.

오늘 조선 로동당과 일본 공산당은 미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고 인민들의 해방과 독립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그리고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굳게 단결되고 있다.

정의의 위업을 위한 투쟁 속에서 맺어졌으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확고히 기초하고 있는 량당 간의 단결은 확고 부동하다.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고 있는 조선 로동당과 조선의 로동 계급은 형제적 일본 공산당과 일본 로동 계급의 정당한 투쟁에 확고한 계급적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일본 공산당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일본의 평화와 극동과 세계 평화를 위한 그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자기 대렬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 공산당의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 공산당과 일본 로동 계급을 비롯한 일본 인민과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것이다.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며 일본 인민과 세계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 국제 로동 계급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 공산당의 힘은 필승 불패이다.

우리는 자기의 세련된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친 일본 공산당이 내외의 온갖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일본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위업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며 이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로동 행정에 대한 지도는 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오늘 우리 당은 로동 행정 사업을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다.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시기 우리 앞에 나선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오늘 우리의 인민 경제는 전례 없이 방대해지고 훨씬 째여진 조건에서 새로운 더욱 큰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단계에 처하여 있다.

우리는 7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들을 공고화하고 그 기초 우에서 공업, 건설, 농업 등 모든 경제 부문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7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채취 공업을 계속 선행시키면서 이미 마련하여 놓은 계반 조건에 의거하여 강철, 화학 비료, 뜨락또르, 자동차, 세멘트를 비롯한 각종 중공업 제품과 다종다양하고 질 좋은 경공업 제품 등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에 절실히 요구되는 공업 제품의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며 산업 건설을 비롯한 기본 건설을 일층 촉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농업에서 논 면적을 계속 확장하고 2모작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알곡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동시에 축산업을 비롯한 기타 부문들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켜야 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 방대한 새로운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로력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인민 경제 전 전선에 걸치는 이러한 새 비약은 결코 로력의 절대적 증가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늘 경제 건설의 속도를 일층 높이며 긴장된 로력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고리는 바로 전면적 기술 혁신과 함께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데 기초하여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급속히 높이는 것이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인민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견지하기 위한 기본 방도를 로력의 절대적 증가에서가 아니라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서 찾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으며 또 이 원칙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켰다.

우리 당의 이 원칙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복구와 개건이 중심 과업이였던 전후 3개년 계획 및 5개년 계획 기간에도 공업 부문의 로동 생산 능률은 년평균 15.3%씩 장성하였으며 1946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그것은 605%로

장성하였다.

현시기 우리 당의 이 원칙을 관철시키는 문제가 특별히 날카롭게 나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로력 원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제한되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은 데 비하여 새로 동원 인입할 수 있는 유휴 로력은 거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앙 공업, 지방 공업 혹은 협동 농장들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인구 1,000 명 당 물질적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적 로력 자원의 리용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이제는 새로 생산에 인입할 수 있는 유휴 로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제 로력 예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로동 행정 사업을 통하여 이미 일하고 있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 리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시기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는 로력자 수의 장성에 의해서 생산을 장성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로력 예비를 찾아 내여 다른 부문에 돌리면서 로동 생산 능률과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높이는 방법에 의거하여 자기 앞에 부과된 방대한 과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은 바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누구든지 로력을 잘 조직하고 이를 절약하는 사람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된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동 정량을 정확히 설정하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며 로동 규률을 확립하는 등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로력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담보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이 로동 행정 사업의 강화에 그처럼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면서 이 사업에 전 당'적인 주목을 돌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리유가 여기에 있다.

* *

현시기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 고리는 생산을 조직하고 경제 관리 운영을 책임 지고 있는 지도 일'군들이 이 사업을 직접 틀어 잡고 조직하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로동 행정에 대한 지도는 상, 부상, 관리국장들과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의 사업 중에서 극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로동 행정 사업은 원래 그 자체의 내용으로 보아 로임부 일'군이나 기타 전문 일'군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는

사업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로동 행정 사업이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기업 관리는 《기아와 채찍의 규률》에 의거하는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착취에서 해방되고 생산 수단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생산자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 지혜에 의거하여 경제가 관리 운영되며 로동 조직이 실현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완전히 자각화되고 근로자들의 로동 간에 질적 차이가 소멸되며 로동이 생활의 제 1 차적 요구로 전환되는 공산주의 하에서의 경제 관리와도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아직 전면적인 자동화가 실현되고 근로자들의 의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이 높은 공산주의 하에서처럼 로동 조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생산 활동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으나 아직은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낡은 사회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기업 관리에서 특히 로동 행정 사업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사회주의 기업 관리에서는 로동 정량을 옳게 설정하고 임금 조직을 잘 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로동 규률과 사업 질서를 확립하는 등 생산 과정에서의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우월성을 발휘시킬 수 있으며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로동 행정 사업은 사회주의 기업 관리의 모든 측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 요소인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인 만큼 생산의 기타 요소들의 효과적 리용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로력 조직이 잘 되고 생산 대중의 열성과 적극성,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높아져야만 기계 설비들의 능력도 효과 있게 리용되며 원료 자재들의 합리적인 리용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생산의 발전과 기업 관리 운영을 책임 진 지도 일'군들에게 있어서 1 차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이 로력 배치, 로력 조직, 생산자들의 열성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을 하부 일'군들에게만 맡겨 놓고 기술 상태나 생산 고로만 따진다면 생산 관리는 응당한 수준에서 실현될 수 없다.

기업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 일'군들이 로력의 합리적 리용에 관심을 돌리며 로동 행정 사업을 참모 체계를 통하여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는 사업 질서를 세움으로써 그것이 전 기업소적인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현시기 로동 행정 사업 강화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로동 조직을 새로운 조건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

로동 조직을 개선하는 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데서 뿐만 아니라 현시기 생산 장성의 커다란 예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 로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비생산 로력을 극력 축소한다면 허다한 로력 예비를 찾아 낼 수 있으며 로동 조직을 생산 조직과 밀접히 결부하여 개선해 나간다면 현존 로력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생산물을 낼 수 있는 예비가 있다.

따라서 인민 경제 모든 지도 일'군들은 매개 경제 단위들에서 로동 조직의 현 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한 명의 로력 예비라도 남김 없이 찾아 내며 현존 로력으로 하나의 생산물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백방의 대책을 세우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로동 시간의 랑비를 근절하고 480 분 로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 규률을 확립하고 생산과 관리 조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움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귀중한 로동 시간이 생산 이외의 다른 일에 류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 일'군들은 로동 시간 내에 회의, 강습 등을 조직하여 사람들을 생산에서 리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로동 시간 리용 정형을 세밀히 분석하고 모든 생산 조건을 철저히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480 분 내에 더 많은 생산 성과를 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시기 로동 행정에 대한 지도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로동 기준량을 정확히 제정하는 것이다.

로동 기준량은 로동 계획화와 로동 조직의 기초로 된다. 기준량이 과학성을 띠여야만 계획도 과학성을 가질 수 있으며 로력 예비도 찾아 낼 수 있다. 또한 로동 기준량이 현실의 요구에 맞게 설정되여야만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고 생산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오늘 기술 혁신이 추진되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로동 기준량을 제때에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도 일'군들은 생산자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 자신이 새로운 더욱 높은 로동 기준량을 창조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로동 기준량 수준을 생산 계획 수준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작업 평가 제도와 로임 조직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근로자들의 생산

적 적극성을 더욱더 높여야 한다.

오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각급 당 조직들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당 조직들은 우리 당의 로동 정책으로 지도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단위들에서 이에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도록 온갖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 일'군들에게 현시기 로동 행정 사업 개선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철저히 인식시키고 그들 속에서 이 사업을 해당 전문 일'군들에게만 맡겨 놓고 차요한 일로 간주하는 그릇된 현상이 발로되지 않도록 강한 당'적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 위원회들은 직접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살피고 깊이 파고 들어 대책을 세우며 그것을 전 집단적인, 당'적인 관심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은 로동 행정 사업을 전 당'적인, 전 인민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이 사업에서 최단 기간 내에 일대 혁신을 이룩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과 지역적 단위로서의 군

현 동 관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가 있은 이후 우리 나라 모든 지방들에서는 군의 역할이 높아지고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 군들은 력사적인 김 일성 동지의 창성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직접 조직하고 실현하는 단위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이러한 성과를 개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군은 지방의 경제 문화 발전의 종합적 단위로 되고 있다. 지방 공업이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 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지도한다. 군 소재지와 농촌 건설도 군 단위로 진행되며 지방에서의 공급 사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다.》

지방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국 도처에 있는 무진장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더 촉진시키며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켜 전국적 규모에서 경제의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 발전의 합리적인 단위를 설정하고 그 역할을 계통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매개 지방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왔다.

오늘 지방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지방 경제 문화 발전의 종합적 단위인 군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한 과업들을 성과 있게 실현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전 행정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각 지역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지방 경제는 전체 인민 경제의 주요 구성 부분을 이루며 그것은 대규모 중앙 공업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과거 사회에서 넘겨 받은 나라의 공업 지대와 농업 지대 간, 도시와 농촌 간, 중앙과 지방 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나감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담당 수행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은 생산력의 높은 발전 속도를 견지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적 앙양을 달성하며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과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적인 과업의 실현을 앞당김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은 무엇보다 먼저 공업과 농업 간, 국내 여러 지역 간의 경제적 련계를 실현하며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앙양을 보장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민 경제의 전반적 부문들과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 생산력의 부단한 발전과 그 높은 속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중요한 특징이며 사회주의 제도가 가지는 본질적 우월성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는 나라의 모든 생산적 자원과 예비의 전면적인 동원 및 그 계획적이며 가장 합리적인 리용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지방적 예비를 포함한 생산 장성의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사회적 로동의 절약과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에 의한 생산의 장성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원가의 체계적인 저하를 가져 오며 나라의 재부를 급속히 증대시키고 인민 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적 예비와 생산의 잠재력을 적극 동원 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지출하게 되는 국가의 생산 수단, 로동력, 자금에 대한 추가적 부담을 덜게 하며 그것을 인민 경제의 기간적인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이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최대한 접근시키면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과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견지할 수 있게 한다.

지방 경제의 종합적인 발전은 이와 같이 지방의 예비와 생산의 잠재력을 사회주의 건설에 최대한 동원 리용케 함과 동시에 가장 합리적인 생산의 전문화를 보장하며 국내의 일정한 지역들을 단위로 공업과 농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시킴으로써 인민 경제 모든 부문과 나라의 모든 지역들 간의 합리적인 련계와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 온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지방 경제의 종합적인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유휴 설비, 유휴 로력과 지방적 원료 자재 등 확대 재생산의 추가적 원천을 최대한 동원 리용할 수 있었으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유기적으로 련결시키고 공업과 농업 간, 인민 경제 전반적 부문들의

급속한 앙양을 위한 보다 유리한 전제와 조건을 적극 조성하여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지방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하는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게 하며 최단 기간 내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더욱 확대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의 하나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공업과 농업을 직접 련결시킴으로써 생산을 원료 원천지와 소비지에 최대한 접근시키고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 상품 류통 등의 보다 원활한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은 생산 장성의 높은 속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장성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하에서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는 량적으로 장성할 뿐만 아니라 그 질적 구조도 부단히 변화 발전한다. 특히 그것은 대개 지방마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풍습과 그 지방 인민들의 기호와 취미 등에 의하여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 이에 따르는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은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하며 질적으로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도시 주민들과 농촌 주민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며 농촌의 각이한 지역들 간의 농민들의 생활 상 차이를 없애는 우리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게 하며 농산물과 소비품에 대한 전국적 수요와 함께 다양한 취미와 기호를 가지는 지방적 수요까지도 적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하여 준다.

지방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과 장성하는 사회적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하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공업 지대와 농업 지대 간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는 전망적인 과업의 해결과도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지방에 대규모적 공장들을 광범히 배치하는 동시에 지방 경제의 발전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 지방 공업을 대대적으로 창설 발전시키는 것은 농촌 지역들에서 로동 계급의 대렬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련계를 강화하며 과거 사회에서 물려 받은 나라의 공업 지대와 농업 지대 간의 차이를 축소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찌기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폐절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서 공업을 전국에 널리 분포되게 하며 인구를 전국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만이

새로운 높은 생산력을 조성할 수 있으며 농촌 주민들로 하여금 수천 년 동안의 락후와 몽매에서 벗어 나게 할 수 있다고 예언하였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공업과 인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불균형적으로 도시에 집중되며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고 그 차이는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는 공업이나 인구도 다같이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배치되고 발전함으로써 모든 지방이 종합적으로 발전하며 이에 기초하여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점차 없어지게 된다.

우리 당은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중앙 공업의 강력한 지원 하에 전국 각지에 지방 공업을 창설하는 동시에 인구도 고루게 분포시키는 원칙을 관철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도시에 인구를 너무 집중시키지 않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 좋지 못하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였던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폐단이 나타나게 할 필요가 없다.》(《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금후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의 발전 방향에 관한 명백한 지침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지방 공업, 농촌 경리, 건설, 상품 류통 등을 포괄하는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 따라 전국이 발전되게 하는 것을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방에 배치된 대규모 중앙 공업 기업소들이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거의 모든 군들에 중앙 공업 기업소들이 1~2 개 또는 그 이상 분포되여 있다. 이것은 지방 경제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 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생산력을 전국적 규모에서 균형적으로 배치하며 국내 모든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과 생산 문화 및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며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바 이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 과업의 하나인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한 전제를 조성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리하여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은 나라의 각 지역들 간의 차이, 중앙과 지방, 공업 지대와 농업 지대 간의 차이를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적이고도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그 접근 과정을 추진시킨다.

이 모든 것은 지방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 과업 수행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만약 대규모 공업의 우월성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지방 경제의 발전을 홀시하며 그 어떤 《전문화》만 강조하고 전국 또는 매개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홀시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약화시키고 중앙과 지방과의 차이를 심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는 사업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 올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은 사회주의의 성과적 건설과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인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당의 전략 전술적 방침의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

* *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의 하나는 그 단위를 정확히 설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을 한 개 단위로 하여 지방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그 단위 내에서의 여러 부문들의 합리적인 결합과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전반적 경제 발전을 이룩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동시에 이것은 미래 사회의 생산과 공급의 지역적 단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심오한 과학적 예견을 요하는 문제이다.

지방 경제 발전의 단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매개 나라마다 사회 발전의 력사적 조건과 자연 경제적 특성, 경제 발전 수준, 행정적 지도 단위의 전통 등에 의하여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농업 생산이 직접 조직 지도되는 단위가 있고 지방 공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단위가 있을 것이며 지방적 상품 류통의 기지가 있을 것인바 이러한 것들은 대체로 지역적으로 이러저러하게 일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군을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과 전반적인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 단위로 설정하고 그 사업을 매 시기 변천되는 현실에 적응하게 부단히 개선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 왔다.

우리 나라에서의 군은 농업 및 지방 공업, 농촌 건설, 공급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성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단위이며 특히 지방 경제의 매개 부문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합한 단위이다.

우리 나라에서 군을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지도 단위로 설정한 것은 농업이 가지는 자연적, 기술적 조건들의 특성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또한 대규모 경리의 우월성을 발휘시키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협동 농장들은 전국 각지의 넓은 지역에 분산 배치되여 있으며 그것은 농업 생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확대 재생산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는 기계 설비 등 로동 도구를 자체로 생산하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업 생산에 대한 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도 전국 각지에 분산된 농촌 경리를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지역적 단위를 선택하며 공업에서 생산되는 기술 수단과 국가의 기술 경제적 력량을 가장 잘 공급하고 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태와 규모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농업 생산의 지도 단위는 우선 크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지도에 적절하여야 하며 또한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물질 기술적 수단들과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군은 그 크기에 있어서 물질 기술적 수단과 기술 경제적 력량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농촌 경리를 성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단위이다.

일찌기 레닌은 대규모 경리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그 규모는 농업 생산의 특성, 자연 지리적 조건과 함께 특히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이 더욱더 기술 공정으로 전화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농업 생산의 지도 단위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 수단들과 기술 경제적 력량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규모로 되여야 한다.

평균 1만여 정보의 경지 면적과 20개 내외의 협동 농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 군은 현대적 기술 집단이 하나의 경영 단위에 결합되여 모든 기술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규모로 발전하였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군은 지대별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매 개별적인 군 내에서는 조건들이 대체로 류사하며 따라서 군을 단위로 할 때 이 지역들의 특성에 적합한 기술 경제적 대책들을 세울 수 있다.

또한 군에는 우리 당의 예견성 있는 조치들에 의하여 이미 농촌 경리 지도에 필요한 농업 기술자들과 관리 간부들이 적지 않게 배치되여 있으며 농기계 작업소, 농기구 공장, 관개 관리소 등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이 대체로 구비되여 있다.

이리 하여 《우리의 군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간부와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점에 있어서》(테제) 농업 생산 지도의 가장 적합한 단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군은 농업에 대한 지도 단위인 동시에 지방 공업 발전의 단위이다.

일정한 지역에서의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공업 생산의 배치는 우선 농업 생산을 조직 지도하는 단위와의 련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방 공업 발전 자체의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지방 공업은 기본 사명이 주로 지방적 자연 부원과 농산물 및 부업 생산물을 원료로 하여 소비품을 생산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전국적 수요와 함께 주로는 해당 지역 내 농촌과 로동자구 주민들의 사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 공업에서의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재생산의 중요한 계기들은 많은 경

우 농업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으며 따라서 그 발전은 농촌 경리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것은 지방 공업 발전의 단위는 농촌 경리의 지도 단위와 일치하는 방향에서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함께 우리의 지방 공업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기술 및 기타 생산 조건에 있어서 군적 수요를 대상으로 기업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앞으로 현대적 기계 기술로 더욱더 장비되는 경우에도 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방적 원료에 기초하여 지방 주민의 수요를 제때에 기동성 있게 충족시켜야 할 지방 공업의 중요 부문들은 리 단위가 아니라 적어도 군을 단위로 하여 운영됨으로써만 현대적 기업으로서의 합리적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는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는 군 소재지를 비롯한 농촌 건설과 농촌 및 로동자 지구에 대한 공급 사업을 군적 규모에서 진행하는 데 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

이와 함께 당의 조치에 의하여 군에는 지방 건설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토대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일정하게 고착된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와 지방의 특성에 맞게 공급 사업을 조직할 수 있는 력량이 준비되여 있다.

따라서 군은 농촌 건설과 로동자구 및 농촌 지역들에 대한 공급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지로 된다.

특히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는 공급 거지로서의 군은 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결국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한다.

군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경제적 거점으로서, 공급 거지로서 현시기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앞날에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군이 지방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단위이라는 데로부터 여기에 필요한 각종 지도 기관들을 창설하였으며 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당은 나라의 혁명 발전과 경제 문화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적응하게 인민 정권 기관들과 경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전 과정에서 특히 군 단위 지도 기관들의 창설 발전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특히 청산리 방법의 전면적 확립과 대안의 사업 체계 및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 창설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과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조치였다.

당은 지방 공업에 대한 계획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 공업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도 경공업 위원회와 군 지방 공업 경영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부합되게 협동 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 농업 지도 기관인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국가

적 지도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군 인민 위원회로 하여금 상품 류통, 도시 경영 등 후방 공급 사업과 문화 혁명 수행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당은 지방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과 지역 간, 지역 내부에서의 부문 호상간의 경제적 련계가 비상히 강화된 조건 등을 타산하여 군 계획 기관들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대책도 새로이 강구하였다.

특히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 단위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군당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 한층 높이게 한 조치이다.

당은 군당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군당 위원회로 하여금 지방 경제의 두 주요 전선인 공업과 농업을 한 손에 틀어 쥐고 그에 대한 당'적 지도를 훌륭히 보장하며 농촌에서의 당 사업과 정치 사상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을 강화하기 위한 이 모든 대책들은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적극적인 령도와 지원을 실현하며 각 부문들과 지역적 경제 단위들의 유기적 결합에 기초한 통일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능동적인 조치로 된다.

이리 하여 《군을 튼튼히 꾸리며 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폐세)

*　　　*

군을 단위로 하여 지방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조치에 의하여 최근 년간 우리 나라 각 지방들의 경제 발전에서는 실로 눈부신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에서는 지방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으며 농촌 경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상품 류통이 더욱더 활기를 띠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지방 공업의 발전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최근 년간 지방 공업의 발전에서 달성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방 원료 원천에 의거하는 생산 비중이 현저히 높아진 것이다.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군들에서 지대적 조건을 고려하여 각종 과실, 산채류, 섬유 원료를 비롯한 자체의 원료 기지들을 조성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지방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지방 원료 원천에 의거한 생산액의 비중은 1958년에 58.8%였다면 1960년에는 62.5%로 장성하였다.

특히 산이 군내 경지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창성군에서는 지방 산업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지방 원료에 의거한 비중이 1959년의 75%로부터 1962년에는 90% 이상으로 제고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료 가공품은 거의 100%를 지방 원료로 충당하게 되였다.

이것은 당의 정확한 조치에 의하여 지방 공업이 자체 원료에 의거하면서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우리 당은 일용품 생산과 농산물을

가공하는 지방 공업이 군내 인민들의 수요를 가능한 범위에서 더 잘 충족시키도록 필요한 생산 부문들을 갖추어 줌으로써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발전시키며 주민들의 수요를 지방 생산으로 더 잘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다.

창성 련석 회의 이후 매개 군들에서는 자체의 지대적 특성과 원료 및 로력 조건과 수요 등을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하여 이미 있는 직물, 식료, 제지 공장들을 확장하며 피복, 토기, 가구 기타 공장들을 신설 혹은 병설함으로써 부단히 장성하는 군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는 데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방 공업에서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농촌 경리를 포함한 지방 경제의 기타 부문의 발전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의 발전 속도를 비상히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이와 함께 지방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와 기술적 장비도 급속히 강화되였다.

지방 공업의 기술 장비를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매개 군들에 분산 배치된 중앙 공업 기업소들로 하여금 몇 개의 지방 공업 공장들을 담당하여 물질 기술적 지원을 주도록 한 당의 조치였다.

군에 설치된 중앙 공업 기업소들은 군내 지방 공업 기업소들에 대하여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과 생산 문화를 배워 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기술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적극 방조를 주고 있으며 필요한 원료 자재들까지도 보장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군내 지방 공업은 확고한 원료 원천과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게 됨으로써 생산이 비약적으로 장성하였으며 제품의 질과 문화성을 높이는 데서나, 생산 조직과 기술 관리,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 관리 운영에서도 적지 않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지방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되고 있는 농업 생산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공업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기술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사상 혁명,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농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숙청하고 전반적인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특히 군을 단위로 하는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 농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의 강화는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유기적인 련계 속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며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고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해당 지역의 지대적 특성에 맞게 점차 전문화를 실현하면서 알곡, 공예 작물, 축산, 과수 등 제 부문을 갖춘 다각적 경리로 발전하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 농업은 알곡 생산에 편중되였던 일면성을 청산하고 흉풍을 모르는 다각화된 식량 원료 기지로 전변되였다.

지방 공업, 농업의 발전과 함께 군 소재지 건설을 비롯한 지방 건설 사업과 군내 상품 류통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방 경제의 모든 부문들의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인민 생활의 향상 특히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며 평지대와 산간 지대 주민들의 수입을 고루게 장성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지대 농민들의 수입이 급속히 장성하고 있으며 특히 산간 지대 농민들의 생활이 모든 분야에 걸쳐 보다 빨리 향상됨으로써 지대 간 차이도 현저히 극복되여 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산간 지대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입도 보다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창성군 내 지방 산업 공장들의 종업원 1 세대 당 월 평균 수입은 1959년에 비하여 1962년에는 약 2.7 배로 장성하였다.

군내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은 수입의 장성에서 뿐만 아니라 군 소재지와 모든 리들에 있는 상품 공급망과 문화 후생 시설물의 적극적인 봉사에 의하여서도 보장되고 있다.

군내 모든 리들에는 상점은 물론 각종 편의 시설들과 문화 후생 시설들이 구비되여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상 요구가 충족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의 농촌 리들은 튼튼한 생산 세포일 뿐만 아니라 공급 세포로, 봉사 세포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군들 앞에는 김 일성 동지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한 과업을 집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에서는 새로운 전망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과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촉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과정을 성과 있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맑스-레닌주의 교양

리 량 훈

우리 당은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을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당이 현시기 근로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의 요구와 관련되여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대중의 높은 의식성과 능동적 활동이 요구된다.

대중의 높은 의식성은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중에 대한 옳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지난 시기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당의 정확한 방침과 지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정치 리론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정치 도덕적 풍모에서도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리 근로 대중의 사상적 풍모에서의 변화는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혁명적 대고조 속에서 급속하게 전진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근로 대중의 의식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에 수응함으로써만 우리는 더 성과 있게 전진할 수 있다.

대중이 더 높은 의식성을 발휘케 하자면 그들에 대한 교양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전면적인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에 대한 리론적 파악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 실천 활동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 속에서 리론 교양 사업 특히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은 심기한 문제로, 혁명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더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임무에 대한 철저한 인식,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의한 의지, 난관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하려는 정신이 나올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당의 세계관이며 세계를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상 리론적 무기이며 방법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방법을 체득하면 할수록 그들의 당성은 강화되고, 정치 실무 수준은 제고되며, 혁명적 사업 방법과 작풍은 더 잘 확립된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지식,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것을 실제 사업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과 수완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천 활동에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과거에는 체험하지 못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련'이어 일어 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능숙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맑스-레닌주의는 사물 현상들을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며 혁명 정신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혁명적 사고 방법과 혁명적 태도를 가지고 일할 때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더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우리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당 정책의 내용도 심화되고 있다. 당 정책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투쟁의 지침이다.

당 정책에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당면하게 제기하는 긴절한 문제뿐만 아니라 먼 장래의 문제들까지도 예견한 심오한 사상들이 담겨져 있으며 그 해결의 명확한 방도가 밝혀져 있다.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심오한 리론적 준비가 없이는 당 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당 정책의 현명성과 창조성을 더 잘 알 수 없다. 당이 제기하는 의도를 정확히 모른다면 그를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 열정도, 창조적 재능도 잘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 정책을 옳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리론적 지식을 깊이 있게 소유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비단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계속 폭로 분쇄해야 할 요구로부터도 제기된다.

김 일성 동지는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하기 위한 투쟁 자체가 단순한 리론 탐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사상 투쟁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맑스주의는 온갖 부르죠아 반동 사상과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발전되고 풍부화되여 왔다. 맑스-레닌주의와 그에 적대되는 각종 사상 조류와의 투쟁은 현대 사회의 계급 투쟁을 반영하는 것이며 계급 투쟁이 있는 한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하기 위한 투쟁은 단순한 리론 탐구가 아니라 날카로운 사상 투쟁이다.》(《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을 맑스-레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교활한 방법으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정신을 거세하며 그의 원칙을 외곡 수정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를 리론적으로 깊이 있게 소유함이 없이는 혁명적 언사 뒤에 숨어 있는 수정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인 《리론》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기만적인 《리론》에 넘어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반수정주의 투쟁을 강화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그것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된다.

이러한 요구로 하여 오늘 맑스-레닌주의 리론 선전 사업은 사상 사업 분야에서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된다.

그리고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리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요구되는데 지난 시기 우리 근로자들은 일반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을 현저히 높였다. 이것은 오늘에 와서 맑스-레닌주의를 리론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이르러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 문제를 새로운 높이에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한 문제이며 또 성숙된 문제이다.

* *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맑스-레닌주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학습을 혁명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옳바른 학습 태도를 가질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개별적 명제들을 암송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론의 혁명적 본질을 리해하며 그에 기초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사건들과 혁명 투쟁의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여 정당한 결론을 지을 줄 알며 그 결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연구하는 태도는 이 리론의 일반적 원리에 근거하여 조선 혁명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연구 분석하고 우리 앞에 나선 실천적 과업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되여야 하겠다.》 (선집 제 4 권, 556 페지)

맑스-레닌주의는 원래 그 자체가 혁명적 실천과 리론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명제들과 결론들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거나 현실과 실천을 떠나서 일반적 명제를 가지고 공담을 늘어 놓는 형식적이고 교조적인 학습 방법으로써는 창조적이며 생동한 학설인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진수를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통하여 그의 혁명적 사상과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우리의 혁명 실천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립각하여 자신의 사업을 전개하고 검토하며 결함과 부족점을

시정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성과 있게 습득하며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혁명적 실천과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를 당 정책 학습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원래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학습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혁명을 더 잘 수행하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학습이 당 정책 학습과 유리되여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의 정책—그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천과 결부된 산 맑스-레닌주의이다. 따라서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연구 파악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은 곧 맑스-레닌주의 리론 수준을 더욱 높이는 과정이며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깊이 학습하고 그의 본질을 체득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파악하고 그의 관철을 위한 투쟁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리론적 무기와 수단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된다.

이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교양과 우리 당 정책 교양은 서로 다른 두 개 문제가 아니라 불가분적인 통일적 관계에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원리 교양을 당 정책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키기 위하여서는 당 정책 학습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며 그것의 사상 리론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가령 우리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한 당의 정책을 학습한다면 그것이 언제 시작돼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완성되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식으로 사실들을 알려 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원리의 견지에서 본질에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 이 정책의 리론적 기초, 합법칙성, 창조성, 수행 방도의 현명성 등을 명확히 밝혀 주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 정책 학습을 이와 같이 심도 있게 진행한다면 당원들은 당 정책의 본질과 그 수행 방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 수준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성과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을 공산주의 교양, 계급 교양과 결부시키며 혁명 전통 교양, 반수정주의 교양과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맑스-레닌주의는 현대 인류가 도달한 사상의 최고봉이며 가장 혁명적이고 당적인 과학으로서 로동 계급의 립장과 관점, 리해 관계를 본질적으로,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온갖 부르죠아적 견해, 사상과의 비타협적인 투쟁 정신으로 일관되여 있다. 로동 계급의 립장과 혁명적 투지가 없는 사람은 맑스-레닌주의 고전과 로작들을 아무리 읽는다 해도 그의 진수를 파악할 수 없다. 혁명적 실천에 적극 참가하며, 당 생활을 부단히 강화하며, 비계급적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여 자기의 당성과 사상 의식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본질을 체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맑스-레닌주의 리론 학습을 강화하는 것은 계급 교양을 과학적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안받침하고 거기에 목적 지향성을 확고하게 부여함으로써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게 한다.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며 혁명 전통 교양을, 당원들의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공산주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의 원리를 소유해야 공산주의자의 전형인 항일 빨찌산들의 고상한 내면 세계와 그 근저에 놓여 있는 공산주의 세계관을 체득할 수 있고 그것을 목적 의식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확고히 구현할 수 있다. 지금 혁명 전통 교양에서 발로되고 있는 부족점들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혁명 전통 교양이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잘 결부되여 진행되지 못 하는 것과 관련된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그것은 항일 빨찌산들이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 투쟁과 사업과 일상 생활 가운데서 맑스-레닌주의를 구현시킨 생생한 모범이다. 그러므로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불요불굴의 혁명적 투쟁 정신, 맑스-레닌주의적 사업 방법과 작풍을 깊이 학습하고 체득하는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관점과 방법을 소유시키며 공산주의 세계관을 확립시키는 강유력한 수단이며 튼튼한 담보로 된다.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을 반수정주의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기의 수정주의적 정체를 은폐하며 기회주의 로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창조적 맑스주의자로 자처하면서 교활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말을 외곡 악용하며 온갖 력량을 동원하여 수정주의적 《리론》을 완성시키고 《체계화》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명제들을 변천된 새로운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명 하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들은 거부하고 이에 자기의 수정주의 로선을 대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들이 현대 수정주의를 철저히 폭로 분쇄하고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튼튼히 고수하자면 우선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 간의 명확한 계선을 갈라 놓을 줄 알아야 하며 그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과 현대의 공산주의자들이 한 말과 실천,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떠들고 있는 말과 실천 간에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하게 식별하며, 현대 수정주의 발생의 근원, 그들의 정치적 립장과 견해, 해독성 등을 사상 리론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 없이는 반수정주의 투쟁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수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다.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리와 그의 혁명적 본질을 파악하며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반수정주의 투쟁의 강유력한 사상 리론적 무기로 된다. 동시에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적 리론과 실천의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고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사상 리론 수준을 더욱 제고하며 공고히 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류가 이룩한 지식의 성과와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

을 과학적으로 총화하고 일반화한 과학적 학설이다.

과학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를 습득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일반 지식과 문화 수준이 요구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례컨대 맑스-레닌주의가 천명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 계급 투쟁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리론, 맑스주의 학설의 리론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 등은 일정한 기초 지식을 소유한 조건하에서만 그의 본질을 깊고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 레닌은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달성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여러 분이 만일 인류의 지식에 의하여 축적된 것을 습득하지 않고도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 여러 분은 커다란 오유를 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지식의 총화—공산주의 자체가 바로 그 결과인—를 습득하지 않아도 공산주의적 구호나 공산주의적 과학의 결론만 습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유일 것이다.》 (전집 제 31 권, 311 페지)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그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시종일관 심중한 주의와 배려를 돌려왔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호상 관계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명시하고 이 세 가지 혁명을 유기적으로 배합시켜 진행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테제가 밝혀 준 길을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시킬 때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 사업은 더욱 심도 있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구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혁명 과업 수행에서 그러하지만 특히 수백만 사람들에게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진행하여 그들의 정신 세계를 개조하며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이 어려운 사업은 제한된 일군들의 힘만으로써는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사상 교양 사업 분야에서 군중 로선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들을 이 사업에 광범히 동원 인입하며 사상 사업을 군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사상 사업에 간부들과 당원들을 광범히 인입하고 당 조직들이 이 사업을 옳게 지도한다면 맑스-레닌주의 선전 교양 사업을 더욱 확대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일상적인 사업으로 되게 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은 외부로부터의 지도와 방조에, 군중들 자체의 노력이 옳게 결합되여야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독서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문제이다.

매개 사람들이 자체 학습을 강화하며 꾸준히 책을 읽고 부단히 사고해야 학습 강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지식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실천에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

사상 교양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형식과 방법을 군중들이 잘 접수할 수 있고 쉽게 리해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사상 사업은 무엇보다도 해설과 담화의 방법으로 진행되여 군중들의 자각성과 사고력을 계발시킬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학습의 기본 내용과 중심을 파악하고 실천에 구현할 때까지 인내성 있게 계속 반복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교양 사업은 항상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각오와 수준에서 출발하며 각이한 실정과 수준에 맞게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군중이 알아 듣기 쉬운 말로 진행하여야 한다.

학습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시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 열의와 독자적인 사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집체 학습과 개별 지도, 자체 학습 및 실물 교육을 옳게 결합하여야 하며 특히 토론과 론쟁, 발표회 등의 형식을 옳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 정도와 사상 의식 수준, 성격, 취미, 능력 등이 각이한 수백만 사람들을 일률적인 손쉬운 방법으로 교양 개조한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교양과 함께 특히 매개 사람들의 각이한 특성에 적응하게 구체적인 교양과 지도 방조를 주어야 한다. 당 조직들에서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학습회 운영만으로 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교양을 대치하려는 낡은 방법을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한다. 사상 사업을 생동하게 창조적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군중들이 창조한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야 한다.

최근 년간 당 사상 사업 분야에서는 청산리 방법이 도입되고 구현됨으로써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이 창조되고 있다. 당 조직들은 대중의 의견과 그들이 창조한 경험에 깊은 주목을 돌리며 그를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더욱 완성시키며 적극 일반화함으로써 사상 교양 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현실에 적응하게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선전 핵심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당 조직들의 조직 지도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강사들과 선전 핵심들은 우리 당 사상 교양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집행자이다.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 사업의 성과적 진행 여부는 학습 강사들과 선전 핵심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실무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는가 못 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당 조직들은 학습 강사들과 선전 핵심들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지도와 방조를 주며 그의 대렬을 확대 강화하는 데 심중한 당적 주목을 돌려야 한다. 또한 전임 선전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 사업에 대한 내용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 조직들은 출판 보도 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 사업에 더 잘 복무하고 더 많은 방조를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 사업을 옳게 진행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며 근로자들의 리론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는 데 성과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인구 과잉》론

최 시 범

오늘 남조선에는 《인구 과잉》론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것은 미제와 괴뢰 정권의 반동 통치가 빚어 낸 남조선의 파국적 상태에 기초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사람들이 만성적인 실업과 기아, 빈궁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600만의 실업자, 반실업자가 있으며 수백만 호의 절량 농가와 식량 없는 도시 세대가 있으며 세계 최고률의 각종 질병 환자가 있다. 또한 사회적인 빈궁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투로 인한 사람들의 도덕적인 부패, 각종 사고와 사회적 무질서가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 있다.

《사상계》의 한 필자는 《날마다 신문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도적질, 강도, 날치기, 깡패, 자살, 살인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 먹는 것이 아닌가?》고 남조선의 한심한 사회 상을 개탄하고 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현실은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악폐의 근원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해 주고 있으며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에 일어 나도록 각성시켜 주고 있다. 《반외세, 반봉건, 반매판, 반식민지》의 애국적인 기치 밑에 계속 치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운동, 남조선에서 날이 갈수록 높아 가는 자주 통일의 목소리는 사회악의 근원을 점차 깨닫고 그를 제거하며 난국을 수습하려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다.

미제와 남조선의 괴뢰 도당은 허물어져 가는 자기들의 통치 체계를 유지해 보려고 파쑈적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반동적 사상 공세를 강화하며 인민들을 회유, 기만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괴뢰 도당의 반동 통치의 위기가 더욱 심각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 어용 학자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반동적인 정책을 변호하기 위하여 악명 높은 말사스주의를 빌어서 《인구 과잉》에 관한 황당한 《리론》을 퍼뜨리고 있다. 그들은 말사스가 《절대적인 자연 법칙》으로 《선포》한 인구의 기하 급수적 증가와 생활 자료의 산수 급수적 장성이라는 비과학적인 공식을 리용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실업과 빈궁이 불가피한 객관적 법칙인 것처럼 묘사 하고 있다. 그들은 《경이적인 인구 증가률》이라는 것을 날조하여 《사람이

너무 많다》느니 《인간의 홍수 사태》니 하고 떠들어 대고 있으며 《인구의 폭발은 원자 전쟁, 수소 전쟁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공갈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제와 그의 괴뢰들이 남조선 땅에서 저질러 놓은 죄과와 남조선의 파국 상을 보지 못하게 하며, 또한 지금 박 정희 도당이 소위 중요한 《난국 수습책》으로 떠들고 있는 《해외 이민》, 《산아 제한》 등 《방침들》을 옳은 것처럼 합리화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인구 과잉》론은 그 구호의 본질로 하여 미제와 괴뢰 도당이 남조선에서 실업과 빈궁의 근원을 은폐하는 가장 중요하고 적합한 《리론》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특별히 조장되고 있다.

따라서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인구 과잉》론을 폭로 비판하는 것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반동 통치의 본질을 밝히며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 각성시키며 우리 인민들을 무장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남조선의 어용 학자들은 남조선에서 계속 증대되는 실업과 빈궁, 도덕적인 부패 등 일체 사회악의 근원을 주요하게는 인구의 급격한 장성에서 보고 있다.

남조선 잡지 《재정》 1960년 11월 호에는 《실업, 취업난, 빈곤, 범죄, 가족 자살 등 이 나라에서 나타나는 모든 희비극은 …인간 과다(過多)》라는 데서 초래된 것이라고 쓰고 있다.

어용 학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기아와 빈궁, 실업 등의 원인이 인구의 《경이적인》 장성에 있다고 함으로써 사회악의 죄과를 우선 인민 자체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 어용 학자 리 모는, 조선 민족에게는 《자식을 많이 두려는 희망》이 특징적이라고 하면서 《시대 변화도 모르고 아들만 많이 낳으면 된다는 〈관념〉 때문에 농촌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며 실업자가 배출되고 있다》(남조선 잡지 《사상계》 1960년 1월 호)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남조선에서 《인구의 폭발》을 현대 의학 발전의 《죄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여의사 강 모는, 제 2 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온갖 살균제와 항생 물질의 발전으로 인구의 자연 증가률이 높아지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마치나 이것으로 하여 남조선 인구가 급격히 늘어 나며 따라서 잘 살 수 없게 된듯이 말하고 있다.

그들의 론리에 의하면 이처럼 인구는 급격히 늘어 나는데 우선 농업 생산량이 그 만큼 늘어 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의 과잉》 현상이 일어 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 필자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주고 있다: 사람들이 《1 인 당 하루에 3~5 홉의 량곡을 소비하여야 한다면 1 년 365 일에 소비되는 량곡은 1~3 섬에 가깝다. 이것을 해방 후 증가한 인구 900만에 환산하여 생각하면 1,000만 섬 이상 더 필요해지는 것이다. 농림부의 통계에 의하면 1950년부터 1960년까지의 10 년 간에 이른 미곡의 증산은 겨우 130만 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결국 기아와 빈궁, 실업 다시 말해서 《인구의 과잉》 현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남조선 어용 학자들의 리론의 부당성은 남북 조선의 판이한 두 현실을 대조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남조선의 어떤 학자들은 인구의 급격한 《과잉》 현상을 조선 민족의 《다자 다복》의 관념에 귀착시키려 하는데 만약 이 관념에 《인구 과잉》의 진짜 원인이 있다면 북반부도 례외로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원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북반부에는 《인구의 과잉》 현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처에서 더 많은 로력이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인구 동태의 변화는 결코 사람들의 그 어떤 관념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물질 생활의 제 조건, 사람들의 생활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제도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각이한 성격을 가진 사회 제도는 그에 상응하는 인구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남북 조선의 각이한 인구 실태는 바로 서로 다른 사회 제도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사회에서는 미제의 군비 경쟁과 각종 수탈의 강화, 남조선 민족 경제의 전면적인 파산과 인민들의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인민들의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만연되는 각종 질병과 사회적 부패로 인하여 인구의 사망률이 세계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으며; 계속 증대되는 군사 징집과 검거, 투옥, 학살 등 미제와 괴뢰 통치자들의 파쑈적 중압 및 《가족 계획》, 《산아 제한》, 《이민》 등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인구의 증가가 인공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 《경이적인》 인구 증가라는 소동은 근거 없는 것이다.

《사상계》의 한 필자가 고백한 것처럼 인구 장성에 관한 아우성은 《피상적인 관찰》에 의거한 것이며 《기하 급수적 인구의 증가 운운의 이야기는 터무니 없는 것》이다.

남조선 어용 학자들은 남조선 인구의 장성이 《경이적》이라고 하나 사실에 있어서 이것은 오직 인민들에게 일터와 먹을 것, 집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로부터 인민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시도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인구의 자연적 증가률에 대해서 말한다면 북조선은 남조선에 비하여 훨씬 높다. 북반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 근심 걱정을 모르며 무료 치료제와 사회 보장제, 모성에 대한 배려 등으로 하여 일제 시기에 비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0 년이나 길어졌고 사망률은 2 분의 1로 적어졌다. 그리하여 오늘 북반부 인구의 자연 증가률은 일제 시기에 비하여 수 배로 높아졌으며 인구 수에 있어서도 1946년에 비하여 117%의 장성을 가져 왔다. 이 외에 해외 동포들이 많이 조국으로 돌아 왔다.

한편 북조선의 농업 생산은 원래 남조선에 비할 바가 못 되였다. 곡창 지대로 알려진 남조선의 농업 생산은 일제하에서조차도 전 조선 주민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반면에 일제 때에 북조선의 농업 생산은 자체 수요를 자체로서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곡창 지대는 기근 지대로, 기근 지대는 곡창 지대로 되였다.

그리하여 북조선에서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 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과잉》

현상은 전혀 생기지 않고 있다.

남북 조선의 이 대조적 현상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비한 농업 생산물의 상대적 감소》가 그 어떤 《자연 법칙》인듯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고 사실은 그것이 남북의 판이한 사회-정치 제도와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남조선의 어용 학자들은 또한 남조선의 《과잉 인구》 현상을 《인구의 폭발》에 의한 《자원의 고갈》이 가져 오는 《경제의 파산》에서 설명해 보려 한다. 그러나 사실 남조선에서 경제가 파괴되고 실업 인구가 늘어 나는 것은 결코 자원이 적거나 고갈되여서가 아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는 금, 은, 킴팍석, 석탄, 흑연, 석회석 등을 비롯한 약 200여 종의 지하 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또한 수력 자원도 적지 않은바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한강, 락동강, 금강, 섬진강의 수력 자원만 하여도 120만 키로 와트의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 조수력 자원을 리용해서도 100만 키로 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남조선은 경공업 부문에서도 풍부한 원료를 보장할 수 있는 자연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보면 개략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는 경사도 6도 미만의 미간지 80만 정보를 비롯하여 간석지, 치키 부지, 매몰지 등 실로 200만 정보에 달하는 개간 적지가 있다. 남조선에는 풍부한 수산 자원도 있다.

또한 현대 과학 발전 특히 화학 발전은 기성 형태로 존재하는 자원 뿐만 아니라 공기와 돌, 나무, 풀 등 종래의 상상 세계를 초월하는 모든 것에서 자원을 찾아 내며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례컨대 북반부에서는 천 생산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에 오르고 있는데 원래 섬유 자원에 대해서 말한다면 북조선에는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없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조선 로동당의 올바른 정책은 돌과 나무와 갈'대를 자원으로 전변되게 하였다.

남조선의 자원을 현대적 과학 발전의 성과가 개척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타산하여 계산한다면 실로 무한히 풍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조선의 어용 학자들이 《자원의 고갈》에서 《인구의 과잉》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기아와 빈궁, 실업의 근원은 《인구의 급격한 장성》이나 인민들 자체의 그 어떤 관념의 《죄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남조선의 반동적인 사회 제도 자체에 있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 농업 생산의 파국 상이 잘 증명하여 준다.

남조선의 농업은 농경지의 축소, 비옥도의 저하, 농업 기술의 타후성으로 특징 지어진다.

(ㄱ) 농업에서 기본 생산 수단인 농경지와 그 리용률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 현재 남조선은 8. 15 해방 전에 비하여 파종 면적이 40만 정보, 경지 면적이 20만 정보로 각각 감소되였으며 10여만 정보가 군용지로 되였다.

(ㄴ) 토지 비옥도가 저하되고 또한 토지가 황폐화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미국제 화학 비료의 강제 도입으로 인하여 70% 이상의 토지가 산성화되였으며

논 면적의 45%는 의연히 수리 불안전답으로서 혹심한 자연 재해를 받고 있다.

(ㄷ)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의한 남조선 민족 공업의 전면적인 파산은 농업 생산력 발전에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기계 기술의 락후성을 초래하였다.

이상과 같은 형편은 농업 생산의 감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남조선 알곡 총생산량은 해방 전에 비하여 3분의 1이나 감소되였다. 그리하여 1963년도에 량곡의 부족량만 하더라도 무려 1천만 석 이상에 달하고 있었다.

이는 농산물의 부족이 인구의 증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미제와 그 주구들의 략탈적인 농업 정책의 후과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인민들의 기아와 빈궁, 실업의 원인은 미제의 식민지 략탈과 함께 박 정희의 반동적 농업 정책과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에 기인된다. 이른바 《농지 개혁》은 토지를 지주의 수중에 재집중시키는 것을 막지 못 하였다. 이미 《분여지》의 42%는 전매되였고 15~20% 이상은 합법적인 소작지로 되였다. 남조선 농민들의 소작료는 50~70%에 달하고 있으며 지주가 물어야 할 《농지세》와 《수세》까지도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봉건적 착취와 결합되여 미제과 괴뢰 정권의 수탈이 또한 강화되고 있다.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은 무려 80여 종의 각종 가렴 잡세를 농민들에게 들씌우고 있으며 《매상》, 《담보 융자》, 《농지 대'가 상환곡》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에만 하여도 520여만 석의 량곡을 수탈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 경리의 심각한 파산과 농민들에 대한 2중 3중의 착취와 략탈은 농민들을 기아와 빈궁, 실업에로 몰아 넣었다.

남조선 민족 공업이 파산된 것은 《인구의 과잉》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후과에 있다.

미국은 남조선 강점 첫날부터 남조선 경제를 자기들의 수중에 예속시켰다. 남조선의 재정 예산도, 기업 자금도, 국내 시장도, 중요 자재도, 원료도, 대외 무역도 미국이 거의 독점하였다. 남조선 경제의 예속성은 미국 휘발유 공급이 3 일만 중단되면 모든 운수 수단과 공장, 광산들이 조업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고 미국 잉여 농산물 공급이 조금만 떨어져도 방직 공업, 식료품 공업 등 남조선 공업의 60%가 생산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으로써도 넉넉히 알 수 있다.

남조선의 공업은 그의 예속적인 편파성으로 하여 자금난, 판매난, 원료난으로 날로 파괴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실업의 증대는 막을 수 없는 추세로 된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인구 과잉》으로부터 온다는 실업, 빈궁, 기아 등의 현상이 인구 증가에 비한 농산물의 상대적 감소나 《자원의 고갈》에 의한 경제의 파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사회 제도에 기인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 ※

남조선의 《인구 과잉》론자들은 실업

과 빈궁 등 현상을 사회 제도로부터 설명하지 않고 인구의 급격한 장성, 인민 자체에서 보는 만큼 그 해결 방도도 인구를 줄이는 데서 찾고 있다.

그들은 《인구 조절책》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인구 과잉》 문제의 해결 방도를 《산아 제한》, 《이민》, 《사망률 제고》, 《전쟁》 등의 방법에서 찾고 있다.

어용 학자 리 모는 남조선에서의 인구 문제 《해결책》으로서 《산아를 제한케 하고 또 해외 이민을 장려할 것》(《사상계》 1961년 8월 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괴뢰 당국의 한 관리는 이에 《사망률을 높이는 방법》까지 첨가하고 있다.

그리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가족 계획》, 《산아 제한》, 《해외 이민》, 《사망률 제고》 등의 방법이 법적 조치로서 인민들에게 강요되고 있다.

그러면 《인구 과잉》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해결책》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오늘 남조선 출판물들과 라지오를 통하여 흔히 설교되고 있는 것은 《가족 계획》인바 이것은 《산아 제한》의 대명사이다.

남조선 통치 집단은 일찍부터 《가족 계획》을 장려하기 위한 산모의 년령과 자녀의 수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복잡한 기구까지 조작하였다. 그들은 《타태》를 범죄로 인정하는 법 조문을 개정하고 그것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을 데 대한 것까지 떠들게 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지금도 계속 《가족 계획의 합리적 추진》을 행정 방침의 하나로 강요하고 있다.

남조선 어용 학자들은 《가족 계획》을 극구 찬양하고 있다. 류 모는,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사회의 과잉 인구를 완화하는 방법》(《재정》 1961년 8월 호)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를 《가장 유효하며 건전한 대책》, 《인도주의적 대책》이라고까지 떠들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허울 좋은 주장들이 사실 상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가?

《인구 과잉》론자들은 《산아 제한》을 통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한다.

한 반동 사회학자는 인민들의 《산아 제한》이 《급박해 오는 식량 부족이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마다 늘어 나는 먹을 입을 덜려는 것》(《사상계》 1961년 8월 호)이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담보도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만약 빈궁한 농민들이 《산아 제한》을 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누가 식량과 입을 것을 주며 집을 준단 말인가? 농민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산아 제한》으로써는 빈궁 상태를 면할 수 없다.

해결책은 《산아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문제의 옳바른 해결에 있다. 남조선에서도 반동적 《농지 개혁》의 후과가 청산되고 북조선과 같이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주는 진정한 토지 개혁이 실시되여야 한다. 동시에 새 땅이 대대적으로 개간되여 땅이 적은 농민과 리농한 실업자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여야 한다. 남조선 농민들이 기아와 빈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한 미제와 그 주구들

의 농촌 수탈이 배격되여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농지세》를 비롯하여 온갖 가렴 잡세가 폐지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남조선의 농촌 문제, 농민들의 생활 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가 종식됨으로써만 가능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남조선 어용 학자들은 《산아 제한》이 또한 《인구 부양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애당초 되지 않을 말이다. 남조선 통치 집단이 과연 언제 어디서 인민들을 위한 투자를 생각해 본 적이나 있었는가? 남조선 인민들의 빈궁은 투자 면에서 보며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인구 부양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반동적인 군사비 지출 때문인 것이다.

남조선 정부 예산은 이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설명해 준다. 1964년 예산을 보더라도 총규모는 698억여만 원인데 그 중 직접적 군사비 지출은 227억 원이고 간접적 군사비와 경찰 및 파쑈 통치 기구 유지 비용은 305억 원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및 간접 군사비와 파쑈 통치 기구 유지비의 총액은 총세출의 76.2%로서 53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60만의 괴뢰군을 《현대화》하며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데 돌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의 《경이적》인 장성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나 《인구 부양을 위한》 투자는 감소시키고 군사비는 계속 증대시킨다. 금년도 군사비 227억 원은 작년도의 214억 원에 비한다면 또다시 13억 원이나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1961년에 비해 근 40%, 1949년에 비해서는 실로 990배나 팽창한 것이다.

이는 인구 증가로 하여 마치 인민들에게 주는 배려를 위한 투자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산다는 것이 허위이며 인민들의 재산을 수탈하여 군사비에 충당하는 남조선 정부 예산의 반동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상 강좌》의 한 필자는, 어느 이가에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 투자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극히 비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정희 도당과 《인구 과잉》론자들의 《산아 제한》, 《가족 계획》 책동은 사회의 도덕적 문란과 부패를 더욱 조장하며 인민들을 정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들의 정치적 각성을 마비시키려는 데 돌려질 따름이다.

또한 이는 남조선 사회의 말세기적 풍조와 극심한 민생고를 빚어 낸 사회적 모순을 감추고 인민들을 속이며 가가호호에 이르기까지 침투하여 인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려는 데 그 진의도가 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계획》이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비난 시리로 되고 있는 것은 응당한 귀결로 된다.

《사상계》의 한 필자는 《사실 상 실제적으로 빈곤의 해결책으로서의 산아 제한의 효과는 의문시되며 한갖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되여

있는 것 같다. 빈곤의 해결책으로서의 적극적인 방법은 어디까지나 인민적인 경제적 계획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산아 제한이 무슨 빈곤의 해결 열'쇠라도 되는듯이 주장되고 심지어는 산아 제한 립법 조치까지 론의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산아 제한》과 더불어 《인구 과잉》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중요한 《해결책》은 《해외 이민》이다.

《해외 이민》은 괴뢰 정권의 《사회 시책》의 하나로서 계속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들은 《해외 이민 쎈터》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았고 《해외 이주법 안》을 조작하였으며 《해외 이민 5 개년 계획》까지 세워 그에 근거해서 이미 수천 명의 남조선 인민들을 미국, 브라질, 서부 독일 등 자본주의 나라들에 노예로 팔아 먹었으며 계속 팔고 있다.

남조선 어용 학자들은 박 정희의 《해외 이민》 책동을 합리화하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들은 《이민이 한국과 같이 과잉 인구를 가지고 있는 후진국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마련》 (《사상계》, 1961년 10월 호)이라고 하면서 《감쇠 효과》니 뭐니 떠벌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구 과잉》의 조건에서 생활 터전을 가지게 되니 좋고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 보낼 것이니 더욱 좋고 위정자들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생활 부담》을 덜게 되니 또한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달콤한 말들은 매국적인 범죄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들은 《이민》으로써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그것은 《산아 제한》으로써 《과잉 인구》의 발생의 근원을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역시 《과잉 인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과잉 인구》 즉 실업의 근원은 남조선의 제도 자체에 있으며 따라서 그것의 해결책도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어용 학자들은 이민자에게 《좋은 생활 터전을 마련》한다는데 과연 미국, 서독, 브라질 등이 로동자, 농민들에게 《좋은 생활 터전》으로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리성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400여만의 실업자와 로동 계급 그리고 흑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으며; 세계에서 생계비가 제일 빨리 등귀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더우기나 군사 파쑈 통치 밑에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살아 가며; 서부 독일의 로동 계급이 무엇을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그 곳에서 남조선 이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유린 당하고 있으며 독점 부르죠아지와 농장주들의 경제적 착취에 허덕이고 있다. 그 곳에서는 그 어떤 《좋은 생활 터전》도 마련될 수 없다.

《인구 과잉》 현상을 없애기 위한 남조선 어용 학자들의 또 하나의 《처방》은 악명 높은 《사망률 제고》 방도이다.

남조선 출판물들에 반영되고 있는 《인구 과잉》론자들의 악랄한 궤변은 인간 증오의 사상으로 일관되여 있다.

반동 학자 송 보는 《높은 인구 증

가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망률을 높이면서 출생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떠벌리고 있다.(남조선 잡지 《재정》, 1960년 11월 호)

그리 하여 남조선의 《사상계》에는 《인구 조절책》으로써 전쟁이 찬미되고 있으며 질병, 기아, 살인 등이 응당 있어야 할 현상으로 찬양되고 있다. 그리고 실지 세계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남조선의 현실은 미제와 그 수구들의 《사망률 제고 방도》가 정책화되고 있는 결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 어용 학자들에게서 흘러 나오는 인간 살륙의 범죄적인 《과잉 인구》 축소의 방법은 미 제국주의 식인종들의 흡혈귀적 본성과 밀접히 결부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조선 민족으로서의 량심은 고사하고 인간 륜리의 초보적 규범도 모르는 미제의 사상적 노예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과잉 인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의 길은 결코 《산아 제한》이나 《대외 이민》, 《사망률 제고》와는 인연이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8 차 회의에서 한 보고에서 최 용건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남조선에서 모든 공장, 광산들을 돌아 가게 하고 대규모 공장들과 함께 중소 규모 공장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하며 도처에서 개간, 관개, 치산 치수 사업을 진행하며 도시 건설, 항만 건설, 철도 및 도로 신설 공사들을 광범히 전개한다면 200만 명의 완전 실업자와 400여만 명의 반실업자들은 기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에서도 민족 경제의 앙양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과잉》한 것이 아니라 일'손이 모자란다.》

남조선에서 《인구 과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의 장본인인 미제와 박 정희 괴뢰 정권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복무하는 정치를 실시하며 남조선 경제의 예속성을 청산하고 파괴된 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자립적인 것으로 복구 건설하며 민족적인 교육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남조선 어용 학자들이 떠들어 대고 있는 《인구 과잉》에 관한 반동적인 설교는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더 비참한 처지에로 내몰기 위한 배족론에 불과하다. 남조선에 조성되고 있는 《인구 과잉》 현상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식민지 통치 제도가 존재하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어용 학자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 《인구 과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장본인인 미제와 박 정희 괴뢰 도당의 반동적 통치 제도를 종식시키고 인민들의 복리 증진과 행복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가 실시되여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이 처한 비참한 생활 현실이 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시종 일관 견지하고 있는 평화적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하는 조건 하에서만, 북반부에 창설된 자립적 민주 경제의 강력한 힘에 기초하여 파괴된 남조선 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복구 발전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과잉 인구》 문제 해결의 진정한 방도, 남조선의 사회적 진보의 현실적인 길이 있다.

심각화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실업 문제

리 병 기

오늘 미국에서 실업 문제는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으며 이 위기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위정자들도 오늘 조성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숨길 수 없게 되였다. 전 미국 대통령이였던 케네디는 실업 문제가 미국의 《최대의 단 문제》로 되고 있다고 비명을 질렀으며 존슨도 《미국에서 인간의 빈궁과 실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전쟁》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게까지 된 현실을 개탄하였다.

이것은 《번영의 자유 세계》, 《만민 복리의 국가》라고 떠들어 대고 있는 미국의 부패성과 취약성의 전면모를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보다 미국에서 실업 문제의 장래 전망은 더 암담한 것이다.

실업 증대의 요인

현시기 미국에서 실업 문제를 첨예화시키는 요인은 시장의 협착으로 인한 생산의 침체와 주요 경제 부문들에서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급격한 제고, 대독점들의 압력 하에서의 중소 기업과 중소 농업 생산자들의 대량적인 몰락 등이다.

제 2 차 대전 이후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형성되고 식민지 체계가 계속 붕괴됨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의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였다.

그러나 그 직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시장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화되지는 않았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극심히 파괴되여 생산의 과잉을 생각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고정 자본에 대한 대량적인 갱신 과정이 시작되여 생산 설비들에 대한 방대한 수요가 조성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 자료 증가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높았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나마 미국에 자본주의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으며 생산의 확대와 로동자들의 취업에도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었다.

그러나 벌써 50 년대에 들어 와서는 사태가 근본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전패국이였던 서부 독일, 일본, 이태리와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불란서와 영국이 자기의 경제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더욱 확대하였다. 1938년 공업 생산 수준을 서부 독일과 일본은 1951년과 1952년에, 불란서와 이태리, 영국은 1948년에 각각 도달하였으며 1960년에는 대체로 그것을 2~3 배로 증가하였다. 경제의 이러한 장성은 불가피적으로 이 나라들에서도 자기

의 상품 판매 시장을 요구하여 더욱 강력히 나서게 하였으며 미국의 해외 시장 문제를 가일층 악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전후 초 시기인 1947년에 미국은 자본주의 제국의 수출 무역 중에서 32.5%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1957년에는 20.7%, 1962년에는 17.3%로 각각 저하되였다.

국내 로동 계급에 대한 독점 자본가들의 착취가 강화됨으로써 미국 내에서도 지불 능력 있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되게 되였다.

이것은 공업 생산 장성에 결정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였으며 생산 장성에서 침체를 가져 오게 함으로써 기업의 만성적인 불완전 조업과 실업 증대를 가일층 촉진시키게 하였다.

현재 협소한 시장의 한계에 부닥친 미국의 생산 장성 속도는 아주 저조한 상태에 있다.

미국에서의 년 평균 공업 생산 장성 속도

1860~1913년 ……	3~5%
1918~1929년 ……	3.1%
1945~1961년 ……	1.8%
1961년 ……………	1.0%

이것은 겨우 미국의 인구 자연 증가 속도를 릉가하는 것이다. 1953~1960년간에 생산의 년 평균 장성 속도는 2.4%였는데 인구의 자연 증가 속도는 년 평균 2%였다. 더우기 1961년에는 인구가 1.5% 장성하였는데 생산 증가는 불과 1% 이하였다.

생산의 이러한 장성 속도로써는 인구의 자연 증가에 의해 생겨 나는 새로운 취업 희망자들에게 직업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주간 잡지 《에이 에프 스톤스 위클리》 최근 호는 미국에서 다만 늘어나는 인구 수 만큼 새 일'자리를 보장한다 쳐도 전국적으로 매년 350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어야 하는데 1957년 이래 미국의 몇 개 경제 부문들에서 겨우 30만의 일'자리가 마련되였다고 썼다.

그것은 미국에서 이른바 《과학적인 로동》 조직을 도입하여 로동 강도를 살인적인 수준에까지 강화하고 있으며 고정 자본이 대량적으로 갱신됨으로써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급격히 제고되고 있는 데도 크게 기인된다.

이것이 또한 실업 문제를 첨예화시키는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장 문제가 첨예화됨에 따라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생산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업의 건설에가 아니라 생산비를 저하시켜 제품의 경쟁 능력을 높이며 리윤을 증대시키기 위한 낡은 설비의 교체와 현대화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많은 직업들이 더욱더 급속히 《낡아》지고 있으며 수다한 로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 나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6년 간에 로동 강도가 급격히 제고되고 생산 공정이 교체됨으로써 150만 명 이상이 공장들에서 추방당하였으며 숙련 로동자들은 1953년부터 1959년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도합 30만 9,000 명이 거리로 밀려 나왔다.

지어 일부 공업 부문들에서는 로동

강도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제고로 말미암아 생산이 계속 장성하고 있는 조건에서도 취업 로동자 수가 절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건설 부문을 비롯하여 강길 공업, 철도 부문 등이 그러하다.

건설 부문에서는 주택 건설이 일정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1년 한 해 동안에만도 로동자 수가 12만 명 이상이 적어졌으며 1962년에도 계속 줄었다. 강철 공업에서는 1950년에 비하여 1960년에 강철 생산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취업 로동자 수는 8만 명 즉 15% 이상이 감소되였다. 철도 부문에서도 물동량은 증대되였으나 1948년에 비하여 1961년에 로동자 수가 46%나 줄었다.

제 2 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또한 석유, 가스, 전력, 합성 고무 등 부문들이 급속히 발전하여 로동력 수요가 높던 석탄, 천연 고무 생산 부문 등을 구축함으로써 실업을 증대시키고 있다.

가령 연료 채취 공업의 경우 하나만을 보아도 그것은 명백하다.

제 2 차 대전 전 시기인 1937년에 비하여 1962년에 석유 채취량은 약 2 배로 장성하였고 원래 생산이 그리 많지 않았던 부문인 천연 가스 채굴 공업에서는 생산량이 약 5 배 반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낡은 연료 채취 부문인 석탄 채굴 공업에서는 생산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였다.

특히 무연탄 생산은 오늘 전쟁 전에 비해 3 분의 1 이하로 축감되였으며 역청탄 채굴량도 현저한 정도로 저하되였다.

바로 이로 인한 석탄 공업 부문에서의 실업의 증대는 생산의 감소 비률을 훨씬 더 릉가하고 있다. 미국의 탄광물의 취업 로동자 수가 1939년에 84만 5,000 명이였었는데 그것이 1959년에는 7만2,000 명에 불과하였다.

석탄 채굴 공업에서의 취업 로동자의 이러한 감소로 말미암아 다른 채취 부문에서의 일부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되고 있다. 1960년에 비해 1961년에 채취 공업에 종사하는 로동자 수는 4만 명 이상이 줄었다.

미국에서 실업자 대렬을 련속 증대시키고 있는 다른 하나의 사정은 중소 기업이 대량적으로 파산되고 있는 것이다.

1961년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 파산된 기업의 수는 무려 1만 7,000 개에 달하였다. 이것은 1947년의 기업 파산 건 수 3,500 개에 비하면 약 5 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강화되고 국가 기구가 더욱더 대독점 자본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놀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우심하여지고 있다.

특히 농업에서는 만성적인 과잉 생산의 위기로 인하여 중 소 농업 생산자들의 몰락이 보다더 혹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공식 통계에 의하면 1954년에 농장이 478만 개 있었던 것이 1959년에는 370만 개로 감소되였으며 1962년 3월에 진행된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1956년 이래 농업 로력자 수가 129만 2,000 명 이상 축감되였다.

기업과 농장들이 파산되여 해고되는 바로 그 많은 인원들이 미국에서 실업자 대렬을 끊임 없이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실업자 수는 축소하여 발표하고 있는 공식 통계에 의하더라도 450만 명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 이것은 1952년에 비하면 2.5 배 이상의 장성으로 된다. 미 합동 로조 지도자 앤드류 비밀러는 방송 연설에서 현재 미국의 완전 실업자가 600만 명을 헤아린다고 하였다.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매 12 명 중 한 명은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의 이러한 장성은 미국이 얼마나 무능하며 그 고질적 병이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실업의 특징

미국에서 오늘 실업 문제가 막다른 국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완전 실업자 수가 방대하게 장성하고 있는 여기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자들의 구성이 더욱더 악화되고 불완전 취업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 역시 그만 못지 않는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 미국에서는 경제의 앙양기에 있어서도 실업자군이 장성하고 있으며 실업자의 수는 결코 공황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가지 않고 있다.

제 2 차 대전 후 첫번째 공황이 있었던 시기만 하여도 그 이후의 생산 장성과 아울러 실업이 그 이전 수준보다 더 저하될 수 있었으며 또 사실 그러하였다.

(단위 만 명)

년 도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실 업 자 수	227.0	214.2	206.4	339.5	314.2	187.9	167.3
실업의 증대 비률	100	94.3	90.9	149.5	138.4	82.7	73.7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952년의 실업자 수는 1946년에 비하여 26.3%가 감소되었으며 1948년 경제 앙양기보다도 훨씬 적었다.

그러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경제력이 전쟁 전 수준에로 회복되고 시장 문제가 가일층 첨예화되기 시작한 그 이후 시기에 있어서는 결코 사태가 이와 같이 되지는 않았다.

(단위 만 명)

년 도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실 업 자 수	167.3	187.0	357.8	290.4	282.2	293.6	468.1	381.3	393.1	480.1	400.7	420.0	456.5
실업의 증대비률	100	111.7	213.8	173.5	168.7	175.5	279.8	227.9	234.9	286.9	239.5	251	272.8*

(※ 1월 현재임)

우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53~1954년 공황 이후 최저점에 달했던 1956년에도, 1957~1958년 공황 종결 후에도, 1960~1961년 생산 감퇴 후에도 매번 그 전번 생산 수기의 최저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다시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취업 장성이 저조하였던 조건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였다.

1948~1949년 공황의 종결 이후 11 개월 간에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취업이 8% 장성하였다면 1953~1954년 공황의 종결 후 11 개월 간에는 다만 4.5% 밖에 증대되지 않았으며 1957~1958년 공황 이후에는 그것이 더 감소되여 4%만이 장성하였고 1960~1961년 공황 종결 후 11 개월 간에는 불과 2%미만이 장성하였다. 더우기 최근에는 생산이 일부 장성하고 있는 조건에서도 실업자 수는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실업이 만성적인 것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년령이 많아져 실업자로 구축된다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 상실되여 구휼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최하층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또 바로 이러한 층이 완전 실업자 중에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잡지 《비즈니스 위크》까지도 《이전에는 한 공업 부문의 기업소에서 해고된 로동자들은 다른 공업 부문의 기업소들에 들어 갔고 궁지에 빠진 수백만 농민들은 농토를 버리고 공업 로동자로 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바로 여기에 미국에서 실업 문제의 특징, 그 심각성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현시기 미국에서는 이상에서 본 완전 실업자와 함께 반실업자 대렬이 극히 광범하게 증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미국에서 년 평균 반실업자 수의 장성(단위 백만 명)

주 로동 시간 \ 년도	1940	1948	1950	1956	1957
1~14	1.4	1.9	2.3	3.1	3.2
15~24	5.6	8.5	9.8	8.1	8.4

주 로동 시간이 1~24 시간까지의 반실업자가 1957년에 벌써 도합 1천 160만 명이였다.

미국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1958년에 7천만 명을 좀 넘는 사람들이 로동하였는데 그 중 약 3천만은 대체로 반 년간 밖에 로동하지 못 한 반실업자들이였다.

미국에서 반실업자 수가 이와 같이 방대하게 장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는 부문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반실업자가 주로 농업 및 건설 등 계절성을 띤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계절 로동자들은 동기에 주기적으로 일을 얻지 못 하였다. 그러나 현시기에 있어서는 비단 계절적 성격을 띤 부문 뿐만 아니라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까지 다 포괄하게 되였다. 이를테면 1960년 1.4 분기에 《제네랄 모터스》 공장은 주 4 일 혹은 그 이하로 밖에 로동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만성적으로 불완전하게 조업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심각한 모순의 반영이다.

미국에서 1961년에 제강 공업은 그 생산 능력을 50%, 기계 제작 공업은 불과 30% 밖에 리용하지 못 하였으며 공

업 총체적으로도 77%를 리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이 불가피적으로 미국에서 완전 실업자 뿐만 아니라 반실업자도 계속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의 실업 문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또한 청년 실업자들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963년 《년두 교서》에서 전 미국 대통령이였던 케네디는 《학교에도 못 다니고 취직도 못 하고 있는 100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모두 쓸데 없는 존재로 남아 있으며…우리 도시의 길'가에서 번들거리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 로동 차관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청년 실업자들의 비률은 한심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1960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550만 명의 청년들이 로동 시장에 밀려들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암담한 장래를 개탄하였다.

로동 시장에로 청년들이 이와 같이 더욱더 많이 밀려 들게 됨으로써 미국 실업자 가운데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6년에 12.8%던 것이 1960년에는 20.1%로 제고되였다.

청소년들 속에서 실업의 이러한 증대는 다만 전체로서 실업자군을 장성시키며 실업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일'자리를 얻기 곤난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타락시키며 범죄와 륜락의 길로 밀어 넣는 조건으로 되고 있다. 손슨까지도 미국에서 그러한 상태가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그것이 청년들에게는 신념을 의미한다는 점이다》고 인정하였다. 이들은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인, 절도 행위들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최근 년간에 계속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 가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상과 같이 완전 실업자가 취업의 희망이 거의 없는 최하층의 상대적 과잉 인구로 더욱더 많이 전화되고 있고 반실업자가 광범히 증대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속에서 실업 문제가 첨예화되고 있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부패성의 명백한 표현이다. 미국은 내부로부터 썩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상태에 또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업과 로동 계급의 빈궁

아무런 생존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실업자군의 확장은 우선 로동 계급, 그들의 매 가정의 수입을 결정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그들의 빈궁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오늘 미국에서 로동자들이 실업 및 반실업으로 말미암아 입는 손실액은 말 그대로 치명적인 정도에 이르고 있다. 1960년과 1961년 2년 간에 완전 실업의 결과 로동 계급이 손실 본 로임액만 하여도 414억 딸라에 달하였다. 만일 여기에 불완전 취업으로 인한 손실액을 가산한다면 그것을 훨씬 릉가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것이 바로 실업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며 이들의 처참한 생활 형편에 어떤 타격을 주는가 하는 것을 리

해하는 데는 케네디나 존슨이 한 말로 써도 충분하다. 케네디는 《1천 7백만의 미국인들이 저녁을 굶은 채 잠'자리에 눕고 있다》고 하였으며 존슨은 《기백만 미국인들—우리 나라 인민의 5분의 1—이》《보잘 것 없는 생존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얻기 위하여 매일과 같이 악전 고투를 해야 한다》(에이피)고 말하였다.

실업의 장성은 취업 로동자들에게도 거대한 재앙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본가들로 하여금 낮은 임금을 로동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로임의 수준은 원래 실업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 있다. 맑스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임의 일반적 운동은 전'적으로 산업 순환의 시기들의 교체에 상응하는 산업 예비군의 팽창과 수축에 의하여 조절된다.》(《자본론》, 1 권 2 분책, 361 페지) 《1,000 명의 같은 능력의 로동자의 로임은 950 명의 취업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50 명의 실업자에 의하여 결정된다.》(맑스 엥겔스 선집, 로문 판, 제 6 권, 587 페지)

미국에서 로동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하여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독점 자본은 바로 이것을 리용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으며 로동자들의 실질 수입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사회 경제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생계비와 세금 등이 부단히 등귀하는 조건에서 식구 4 명을 가진 가정들의 매주 생활비가 1946년에는 68.77 달라이던 것이 1954년에는 102.60 딸라, 1961년에는 130.54 딸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들에 제조 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평균 주 로임은 45.92 딸라로부터 71.86 딸라, 92.34 딸라로 제고된 데 불과하다. 생활비를 미달하는 액은 결국 1946년에 22.85 딸라였었다면 1954년에는 30.74 딸라, 1961년에는 38.20 딸라로 늘어 난 것이다.

실업 증대의 주요한 후과의 하나는 취업 로동자들의 로동 조건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독점 재벌들은 각종 로동 조직의 《합리화》를 실시함으로써 로동자들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로동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다. 많은 로동자들은 이러한 긴장되고 고된 로동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각종 질환들에 걸리고 있고 또한 불충분한 안전 시설들로 인하여 그들 속에서는 불상사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로동 강도의 제고와 로동 보호 대책의 결핍으로 하여 미국에서 불상사가 매년 200만 건을 초과하고 있는 데 이것은 매 18 초에 한 건의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친 피로로 하여 로동자들이 늙기 전에 쇠약해 지는 현상은 오늘 미국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처지를 2중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공업에서의 만성적인 대중적 실업은 농민들의 처지에도 심한 후과를 남기

고 있다.

그것은 농산물에 대한 도시 주민의 수요를 격감시킴으로써 농업 생산의 만성적인 위기를 심각화시키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을 저락시켜 농민들의 빈궁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1947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사료용 알곡 가격은 44%, 식용 알곡은 16%, 유지 작물은 31%가 저락되였는데 최근 15년 간에 농기계 가격은 91%, 농촌 운반 기재는 67%, 비료는 12% 등귀함으로써 전후 시기 농민들의 수입은 17% 감소되였다. 미국 농무 장관 프리맨이 년초에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 농촌들에서는 1천 5백만 명의 농민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와 같이 실업자의 증대는 그들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의 생활에 비극적인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적대적 모순을 가일층 첨예화시키고 있다.

*　　　*

미국의 지배층은 오늘 실업 문제가 극히 엄중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로동 계급의 불만이 증대됨에 따라 그들의 투쟁을 무마시켜 보기 위하여 각종 기만, 회유 책동에 매여 달리고 있다.

1961년 국회에서 채택된, 실업자를 《방조》할 데 대한 《법안》, 1963년 《년두 교시》에서 약속하고 있는 케네디의 《실업 구제책》 등이 다 바로 그러한 것이다.

존슨의 《실업과의 전면 전쟁》도 바로 이러한 기만 정책의 재판에 불과하다.

존슨은 《직업이 없고 목적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젊은 패들을 유익한 일터로 보낼 청년 고용법》을 제정하며 시종일관 초과 시간의 지나친 사용이 실업 증대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그러한 공업들에서의 주 45 시간 또는 50 시간 로동제를 주 35 시간 로동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완전 실업을 없앤다는 것이다. 결국 반실업, 불완전 취업을 확대함으로써 완전 실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독점 자본의 리익을 위한 음흉하고 교활한 술책이며 또 도대체 실현될 수도 없는 망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미국에서 모두가 취업하고 있는듯한 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여 보려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실업이 완전히 근절된 사회주의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대중적 실업을 광범한 범위로 증대시킴으로써 미국의 로동 계급을 각성시키며 전 세계의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에게 《만민 복리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부패성을 로출시키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그들은 이로부터 하다못해 부분적으로나마 실업을 은폐하는 것만이라도 필요하게 되였던 것이다.

더우기 반실업자들에게는 완전 실업자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얼마되지 않는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전 가족이 어떻게 하여서라도 절망의 길에 빠져 들어 가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한 높은 로동 강도

와 낮은 임금을 쉽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존슨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목적도 완전 실업자들이 늘어 나기 마련인 자본주의 발전의 객관적인 로정을 돌이켜 세울 수는 없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까지도 존슨의 《빈궁과 실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 《교서》를 가리켜 《명백히 액면 그대로는 실현되지 않을 약속들의 꾸러미》라고 말하였으며 《이 나라 력사에서 가장 과장되고 가장 허위적인》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미국에서 실업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지금 미국은 경제의 앙양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강성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물며 이제 도래할 또 도래하지 않을 수 없는 공황기에 과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항시적 동반자인 실업은 제도 자체에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없애지 않고서는 결코 종국적으로 청산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오늘 로동 계급은 이것을 체득하고 있다.

미국에서 실업 군중의 생활이 극히 악화되고 그것이 전체 로동 계급에게 미치는 후과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그 어떤 회유, 기만 책동에도 불구하고 실업을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은 더욱더 고조되여 가고 있다.

로동 계급은 대중적 해고 반대, 주로동일 단축 반대, 공장, 기업소들의 폐쇄와 관련된 해고 반대, 사회 보험의 광범한 실시 등과 같은 요구들을 제기하고 파업과 시위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업과 빈궁을 반대하여 계속 강력히 투쟁하고 있다.

1941~1960년 간에 미국에서는 6만 1천 479 회에 달하는 파업이 일어 났으며 이에는 3천 5백여만 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미국에서 실업의 증대, 로동 계급의 가일층의 빈궁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 투쟁의 앙양도 필연적인 것이다.

근 로 자 제 14 호 (루계 252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주 소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7월 17일 발 행 1964년 7월 20일

7-430155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5호 8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제 15 호 (153)
1964년 8월 (상)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국토 건설과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박 문 규

국토 건설과 국토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토 건설—이것은 나라의 륭성 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이 땅우에 진행하는 백년 대계의 기본 건설 사업이며 대자연 개조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재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까지도 타산하여 나라의 경제 문화 건설을 진행하며 자연을 개조하고 도시와 농촌을 알뜰히 꾸리는 방대하고 항구적인 국가 건설 사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토를 어떻게 건설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라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 문제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국토 건설과 그 관리 사업에 커다란 국가적 력량을 돌림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전쟁 시기 미제의 만행에 의한 국토의 깊은 상처들을 단시일 내에 회복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우리 나라에서의 국토 건설 사업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확립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였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립은 국토 건설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다.

당은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우월성과 날로 공고화되는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공업과 농업의 배치, 토지 정리 및 개간, 강하천의 정리, 관개 체계의 확립, 산림의 조성, 교통 운수망의 배치, 도시와 농촌 건설 등 전반적 분야에 걸쳐 국토 건설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도처에 수많은 공장, 광산, 발전소, 항만, 철도, 전기 및 체신 시설들과 조밀한 관개망이 건설되였으며 나라의 방방곡곡마다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게 건설하여 놓았다. 우리의 도시들에는 현대적인 문화 주택과 공공 건물을 비롯한 각종 문화 후생 시설, 공원, 유원지, 난방 시설, 상하수도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였으며 농촌에는 오막살이 대신에 수많은 새 문화 주택들과 학교, 구락부가 건설되고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들이 증설 확장되였다.

오늘 나라의 토지, 산림, 강하천, 호수, 연안, 령해 등과 명승지, 천연기념물들과 풍부한 자연 부원들이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광

범히 개발 리용되고 있다.

우리가 국토 건설에서 이룩해 놓은 모든 성과는 자력 갱생의 위대한 혁명 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며 현 세대 뿐만 아니라 후손 만대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지난 기간 국토 건설과 그 관리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나 우리의 생활은 여기에 만족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호상 유기적으로 련결하는 통일적 계획에 의하여 국토를 더욱 전망성 있게 건설하며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국가와 인민의 재부를 알뜰하게 보호 관리하며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에게는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건설하고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각종 자원과 부원이 무진장하게 있으며 선조들이 남겨 놓은 찬란한 문화적 재보들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이르는 곳마다가 명승 절경이며 산천이 아름다와 금수 강산으로 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조선은 문'자 그 대로 삼천리 금수 강산이다. 산도 좋고 물도 맑다. 어느 곳 어디서나 깨끗한 물이 필요되지 않는다. 비옥한 토지는 기름진 오곡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며 동서 해안의 무진장한 가지가지의 수산물과 가는 곳마다에 매장된 금, 은, 동, 철, 석탄 등 모든 귀중한 자원 부원들은 우리 인민들을 모두다 잘 살 수 있게 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오늘 국토를 더욱 전망성 있게 건설하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개발 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질적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과거 봉건 통치 시대나 일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국토를 전망적인 견지에서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었다면 근로자들이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된 오늘에 와서는 국토를 더 잘 건설하고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있다.

오늘 우리는 결심하고 달라붙기만 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 강산을 알뜰히 꾸리고 무궁무진한 자원들을 마음 대로 개발하며 이 땅 우에 건설된 그 모든 재산들을 전체 근로자들의 행복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더 잘 리용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1962년에 수 차례에 걸친 교시에서 이러한 [illegible] 조건에 의거하여 공업과 농업을 더욱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산림 및 하천 [illegible]과 철도, 항만, 체신, 도로망, 수리 시설 배치 등 나라의 기본 건설과 자연 개조 사업을 정확히 조치하고 국토를 보다 더 전망성 있게 건설하며 [illegible] 부동산에 대한 보호 관리와 [illegible]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illegible] 철저히 보호하며 [illegible] 꾸리고 우리 나라를 더욱 [illegible] 아름다운 금수 강산으로 [illegible]

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금년 2월 10일 교시에서 지난 기간 국토 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총화 분석하시고 다시금 국토 건설과 그 관리에 대한 기본 방도를 천명함과 동시에 국토 관리 기관들을 전면적으로 개편 강화할 데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내무성에 도시 경영성이 통합되고 각 도에는 내무 총국, 각 시, 군에는 내무 관리처가 나오고 국토 관리에 필요한 연구 기관들과 각종 기업소들이 새로 조직, 확장되였다.

이것은 국토와 자원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모든 건물, 시설물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보호 관리하며 필요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는 유일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토 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와 감독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각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관리 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되였으며 국토 관리 사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 올릴 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유일적이며 실시 정연한 국토 관리 체계의 확립은 우선 당면 문제 뿐만 아니라 먼 장래의 발전까지 과학적으로 예견하여 국토 건설의 규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자원과 부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일체 부동산을 비롯한 부원과 재산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고 우리 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제 문제는 새로 확립된 국토 관리 체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국토 건설과 관리 분야 앞에 제시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하나하나 철저히 실현해 나아가는 데 있다.

국토 건설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륭성 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투쟁이며 우리 매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임무로 된다.

우리는 국토 관리에 대한 당의 방침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국토 건설과 국토 관리에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국토 건설에 국토 총계획을 선행시키고 나라의 자연 부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리용하며 둘째로, 국토 건설에 관리 사업을 병행시킴으로써 나라의 자원과 건축물을 비롯한 일체 재산들을 정확히 보호하고 도시와 농촌을 알뜰하게 꾸리며 세째로, 국토 건설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 감독 체계와 전 인민적 관리를 배합시킴으로써 국토 관리 전반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고 이 사업을 인민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

국토 건설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

은 국토 총계획을 국토 건설에 선행시켜 정확히 작성하는 문제이다.

국토는 경제 건설의 당면 과업과 전망적 과업을 옳게 타산하면서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나라의 경제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경제 부문 간의 련계가 복잡하여지고 있는 현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광산, 탄광을 개발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며 주민지를 배치하며 항만과 철도, 도로들을 건설함에 있어서 장래 발전을 예견하지 않고 당면 문제만을 일면적으로 타산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들을 뜯어 고치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며 결국 막대한 국가 자금과 자재를 랑비하게 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 속도를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공산주의 지상 락원을 계획이 없이는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통일적 총계획이 있는 조건 하에서만 호상 련결, 제약되고 있는 국토 건설의 모든 부문 호상간에 정확한 련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나라의 자원을 가장 효과 있게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국토 건설에서 국토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리용하는 문제는 극히 중요하다.

국토와 자원의 종합적 리용은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합법칙적 요구이며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국토의 종합적 리용은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정확한 련계를 보장하면서 해당 대상의 유리한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모든 부분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특히 이 문제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창설 및 그 공고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창설과 그 공고화는 나라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국토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리용하여 그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하는 투쟁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국토의 종합적 리용의 견지에서 국토 건설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경제 부문들의 다방면적 발전과 그것들의 유기적 련계를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를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

당은 지난 기간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자원과 부원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제고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우리는 앞으로 자립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국토를 전망성 있게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 건설의 계획화 수준을 높여야 하며 국토를 보다 더 종합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광산을 하나 개발할 때에도 농경지와 주민지에 그리고 강하

[illegible] 에서의 물고기 서식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하며 산림을 할 정보 조성할 때에도 어떤 곳이 적지인가를 구체적으로 타산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토의 종합적 리용에서는 부문간의 련계와 함께 개별적 대상의 종합적 리용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타산하여야 한다. 가령 대동강이라면 분류와 지류들에 저수지를 얼마나, 어떻게 건설하여 홍수는 어떻게 조절하고 전력 생산과 관개 용수 보장은 어떻게 하며 그 류역에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공업 용수는 어떻게 대주며 또한 수문은 어디에 [illegible] 마를 건설함으로써 수상 운수와 [illegible] 양어 사업은 어떻게 발전시키며, 강안은 어떻게 아름답게 정리하겠는가 등 강을 종합적으로 리용할 데 대한 안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대로 나라의 자원을 전망성 있게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도록 국토 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 총계획은 반드시 10 년, 20 년, 30 년, 50 년의 앞을 내다 보고 전망적으로 [illegible] 워야 한다.

10 년, 20 년, 30 년, 50 년 앞을 내다 보면서 전국의 공업과 농업 배치, 도시와 농촌, 교통 운수, 체신, 산림, 강하천, [illegible] 등의 배치와 건설 계획을 전국적, 지역적, 도'적, 군'적으로 수립하고 [illegible] 규모 있고 질서 정연하게 꾸 [illegible] 하여야 한다.

[illegible] 계획이라면 10 년 후에는 저수지, [illegible], 산림, 도로가 어디에 얼마나 건설되고 도시와 농촌이 얼마나 증설 확장되며 전선은 어떻게 가설되며 항만은 어디에 건설되며 어디에는 어떤 어류가 얼마나 서식할 것인가 하는 등 국토 건설 전반에 대한 안이 뚜렷이 나와야 한다. 말하자면 국토 총계획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의 휘황한 앞날을 환히 내다 보고 건설을 포치하는 공산주의적 계획이다.

따라서 국토 총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들은 우선 건설을 급속히 발전하는 인민 경제 부문들 간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하며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도 예견하여 종합적이며 전망적으로, 통일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불합리성과 기관 본위주의적인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 제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건설 대상을 경제적 및 자연적 특성에 적응하게 합리적으로 포치하며 주민들이 대도시에 과대하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 도시들과 농촌 부락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업과 도시가 농업과 농촌을 더 잘 지원, 방조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나라의 내륙지를 더 합리적으로 개척하여 나라의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나라의 풍부한 물 자원, 지하 자원, 로지 자원, 동식물 자원 등 모든 자원을 전면적이며 종합적으로 개발 리용하며 특히 로지를 획득하고 그것을 극력 절약하도록 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나라의 강로를 아름답게 정리 미화하며 국토의 풍치와 문화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휴식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 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국토의 현 실태를 정확히 장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의 현 실태를 장악하지 못 하고서는 현실을 옳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당과 정부는 많은 전문가, 기술자들을 국토 조사 사업에 동원하여 주었으며 조사에 필요한 온갖 물질 기술적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었다.

현재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남도 등은 이미 조사 사업을 끝내였으며 명년 상반년까지에는 전국적으로 조사 사업이 끝날 것이다.

국토 조사 사업은 당면한 사회주의 건설과 장래의 국가 기본 건설 전반에 관계되는 광범한 문제인 만큼 여기에는 조사 대원들 뿐만 아니라 각급 당 조직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방조가 필요하다.

지금 많은 기관, 기업소들과 근로자들은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해 나서고 있다.

내무 부문을 비롯한 관계 부문 일'군들은 국토 조사 자료들을 수집 정리 연구하며 국토 총계획 작성을 위한 준비 사업을 급속히 추진시켜야 한다.

계획 작성 사업이 빠르고 정확할수록 국토 건설은 더 잘 진행될 것이다.

국토 총계획 작성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 국토 총계획 그리고 지역 계획과 도 총계획을 세우며 도에서는 군 총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토 계획 작성 사업과 함께 국토 계획 실현에 대한 통제 감독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김 일성 동지는 현행 국토 건설의 모든 부문을 엄격히 지도 통제함으로써 잘못되는 것이 없도록 하며 농촌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내무 기관의 허가를 받는 제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내무 부문 일'군들은 국토 건설의 모든 대상에 대하여 기술 과제를 심사하는 체계를 확립하며 기술 문건을 합의 또는 승인하고 그 집행을 통제하는 사업을 강화하며 이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 일'군들은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

국토 총계획을 작성하는 사업과 함께 현행 국토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도시와 농촌을 알뜰하게 꾸리며 국토를 미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게 꾸리며 국토를 미화하는 것은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 상 요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그 자체의 필연적 요구이다.

우리는 강하천을 건설하여도 알뜰하게 건설하며 주택을 지어도 아담하게 짓고 집 주위에는 과실 나무들을 심어 봄이면 백화 만발하고 가을이면 각종 과실이 주렁지게 하며 우리 나라를 그야말로 살기 좋고 경치 좋은 금수 강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 건설 및 국토의 미화 사업에서는 새로운 건설을 잘 하는 것과 함께 도시와 농촌에 이미 건설하여 놓은 건물과 시설물들을 제때에 정비 보수하며 문화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우리의 도시와 농촌에는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각종 시설물들 그리고 아담한 문화 주택들이 수 많이 건설되였으며 거리와 마을들은 날에 날마다 변모되여 가고 있다.

이미 건설하여 놓은 이 모든 건물과 시설물을 잘 관리하면 할수록 그것들의 수명은 더 연장되고 경제적 효과성도 더욱 높아지며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도 일층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우선 비가 새거나 불이 잘 들지 않고 기술 상태가 나쁜 주택들과 건물들을 보수, 갱신하는 사업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그것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동시에 외부를 아름답게 단장함으로써 건물들의 리용 가치와 문화성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지금 당과 공화국 정부는 공공 건물, 각종 시설물, 국가 주택 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의 대보수 및 중보수까지도 직접 국가가 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 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또 하나의 인민적 시책이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 토대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만 제기할 수 있은 조치이다.

도시와 농촌을 꾸림에 있어서는 원림화 사업을 잘 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을 보람찬 창조적 일터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의 보금자리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원, 유원지, 록지들과 동식물원들을 합리적으로 건설하여 우리의 도시와 농촌 마을들에 록음이 우거지고 철에 따라 각가지 꽃이 만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문화적 휴식을 보장하며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서를 더욱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을 알뜰하게 꾸리는 동시에 금강산, 묘향산, 룡악산, 칠보산 등 우리 나라 명승지들을 잘 정리하며 새로운 유원지들을 건설함으로써 모든 곳을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유원지들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도시와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을 선택하여 근로자들이 휴일을 가족과 함께 그 곳에 가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 강하천, 도로, 연안, 영해의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나라의 자원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잘 보호하며

국토를 아름답게 꾸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의 산림은 전체 국토 면적의 근 80%를 차지하며 여기에는 목재를 비롯한 공업 원료와 유용 동식물 등 각종 부원이 무진장하게 있다. 산림은 또한 수원을 함양하고 기후를 일정하게 조절하며 농경지를 보호하므로 국토를 보호하고 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한다.

특히 농경지가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산을 효과 있게 리용하여 농경지에서 획득하던 유지, 섬유 등의 공업 원료를 산에서 얻어 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화학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 조건에서 이러한 섬유, 유지 원료를 더 많이 얻어 낼수록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 윤택해질 것이다.

우리 당은 산림 조성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1970년에 가서는 40만 정보의 경제림을 포함하여 총 60만 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할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 지리적 조건과 나무의 특성에 적응하게 경제림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원칙에서 지역화를 정확히 보장하되 빨리 자라고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분지, 초피, 동백, 수유나무 등과 호두, 잣, 가래, 살구나무 등으로 유지림을 광범히 조성하여 기름을 대량 얻어 내며 뽀뿌라, 키칠, 삼송, 닥나무 등으로 섬유 제지림을 광범히 조성하여 천과 종이를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용재림을 조성하여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특히는 평야, 탄광 지대의 산들에는 갱목림을, 주민지 부근 산들에는 화목림을 광범히 조성하여 갱목과 화목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밖에 각종 보호림과 풍치림을 광범히 조성하여 전국의 산천을 모두 록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미 조성해 놓은 산림을 잘 관리함으로써 나라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국토를 더욱 아름답게 건설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국토 관리에서 강하천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나라의 경제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하천 리용은 더욱 다양하고 광범해진다. 또한 강하천을 잘 건설하고 정비함으로써만 홍수의 피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강하천이 발달된 나라이다. 우리 나라에는 수량이 풍부한 대하천과 중소 하천이 도처에 분포되여 있으며 그 리용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당은 강하천 건설과 정리 사업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특히 1946년에 김 일성 동지는 보통강 개수 공사의 첫 삽을 들어 전체 인민들을 하천 정리와 국토 건설에로 고무 추동하였다.

전후 당은 세인을 놀래는 대자연 개조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나라의 관개 체계를 확립하고 전국 도처에서 하천 건설 및 그 정리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여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달성한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 하천 건설 및 정리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하천 건설의 기본 방향은 당이 제시한 바와 같이 중요 하천들로부터 시작하여 령토 내의 모든 강하천들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며 최단 기간 내에 홍수 피해로부터 국토를 완전히 보호하며 하천을 인민 경제 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천 건설 및 정리 사업에서는 대하천 공사와 함께 중소 하천 건설도 급속히 추진시켜야 하며 농촌 부락의 실개울까지도 완전히 정리하여야 한다.

도로의 건설 및 정리 사업은 국토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전국의 도로를 항상 튼튼하고 규모 있고 아름답게 정리하여야 하며 새로운 현대적인 도로들을 건설함으로써 교통 운수의 원활성과 국토의 미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우리 나라에서 연안, 령해 관리를 개선하는 것은 나라의 재부를 증대시키고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서해안에는 새로운 토지를 얻어낼 수 있는 광대한 면적의 간석지가 개척되지 못 한 채 남아 있다.

당의 현명한 방침에 따라 우리는 이미 많은 간석지를 농경지, 염전 및 로초전으로 전환시켰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한다.

연안 령해 관리 사업에서 새로운 어장을 더 많이 개척하며 수산물 양식장을 확장하는 동시에 아직 일부 불비한 항만 및 포구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와 함께 담수 양어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수산 자원을 더욱 풍부히 해야 한다.

우리는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국토와 나라의 자원과 일체 부동산을 정확히 보호 관리하기 위한 감독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막대한 국가 투자와 전 인민적 로력 투쟁으로 이미 건설해 놓은 각종 구축물, 건물들을 귀중히 보호 관리하며 그것들의 수명을 연장하며 경제적 효과성을 보다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1964년 2월 10일 교시에서 이미 건설하여 놓은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한 쪽에서는 건설하고 다른 쪽에서는 건설물을 파괴하여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건설에 관리를 병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재산에 털끝 만큼의 손실도 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자원과 일체 부동산을 정확히 등록하고 그 관리 보호 책임 한계를 명확히 가르며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주택, 공공 건물, 시설물, 문화 유적, 공원, 유원지, 명승 고적 등의 현 상태를 정확히 조사 장악하고 그것들의

정비 보수 사업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임의로 건물, 시설물들을 뜯어 옮기거나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손상, 파괴하는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토지는 국토의 기본 부분이며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이다.

농경지를 비롯하여 토지를 랑비하는 일체 현상들을 엄격히 통제하며 수산 자원, 유용 동식물 자원, 지하 자원 등 모든 자원을 보호 증식하기 위한 통제 감독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여야 한다.

오늘 당과 정부에서는 국토의 감독 통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각 시, 군에 이르기까지 감독 통제 사업을 유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감독 부서들을 설치하고 감독원들을 배치하여 주었다.

우리는 이 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국토의 보호 감독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진행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토 관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 대중을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것이다.

국토 관리 사업은 나라의 전반적 지역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인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광범하고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어느 한 전문 기관이나 한정된 일'군들만으로는 훌륭히 진행될 수 없다.

오직 나라의 주인인 전체 인민 대중이 이 사업에 적극 동원됨으로써만 이 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국토에 대한 국가적인 유일적 관리 체계와 전 인민적 관리를 배합시킬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자기의 향토와 조국의 일목일초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으로써 국토 관리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일상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국토 관리에 대한 당의 정책을 틀어 쥐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실제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현실과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서 대중의 지혜와 창조적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를 더욱 부유하고 문명하며 아름다운 금수 강산으로 전변시킬 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더 빨리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의 극복 방도

정 연 욱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이 사업은 장구하고 꾸준한 투쟁과 노력을 요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에 계획적이며 의식적으로 력량과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부터 도시와 더불어 농촌의 발전에 대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고 도시와 농촌 간의 밀접한 련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도시와 농촌의 발전에 대한 당의 이러한 립장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이후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간에 적대적 관계가 놓여 있던 과거 사회에서 도시가 농촌을 착취 압박하고 령락시킴으로써 조성된 력사적 유물이다. 우리 제도 하에서도 그것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대립의 유산을 단번에 청산할 수 없다는 사정과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공업 및 도시의 발전 수준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앤다는 것은 도시가 농촌을 적극 도와 줌으로써 뒤떨어진 농촌을 발전된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리는 문제인 것 만큼 여기에는 도시가 농촌을 도울 수 있는 공업적 토대를 가져야 한다는 문제가 나선다. 그러자면 《…우리 나라와 같이 과거에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나라에서는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하여 농촌에서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 수 없다.》(테제) 이러한 사정은 불가피하게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남아 있게 하며 그의 극복을 위한 투쟁을 일정한 기간 전면에 제기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일단 공업적 토대가 축성된 다음에는 도시가 농촌을 돕는 데로 방

향을 돌려야 하며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을 더욱 강력히 지원하여야 한다.

결국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은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뒤 전면적으로 제기되여야 하며 공업적 토대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더욱 이 사업이 강력히 추진되여야 한다.

이 때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달라붙어야 하며 계통적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만일 이렇게 시기가 성숙된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에 달라붙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그 만큼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오히려 그 차이를 더 심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테제가 제시한 중요한 사상은 바로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떠한 차이를 없애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명백히 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떠한 차이들을 없애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앎으로써만 이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명확한 방도를 가지고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

테제는 그의 전반에 걸쳐 크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며, 농촌 주민들의 문화 수준이 도시 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의 사상 의식이 로동자들의 그것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며, 그리고 소유 관계 분야에서 농업이 공업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경제 관리 수준에서도 농업이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또한 소유 형태에서의 차이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분배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를 첨가해서 말할 수 있다.

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9차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공업과 농업 간의 분배 관계에서의 차이에 대하여 큰 주목을 돌리였다.

이러한 구분은 참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가장 과학적으로, 전면적으로 밝혀 준 것이다.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들 중에서도 어떠한 차이가 보다 근본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다.

테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것으로 하여 소유 관계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 관리 수준에서도 뒤떨어져 있다.》

(방점은 인용자의 것)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에 존재하는 전체 차이들 중에서도 기술, 문화, 사상 상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로 된다. 그것은 바로 소유 관계와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나 분배 관계에서의 차이들도 모두가 바로 도시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 상 차이로부터 불가피적으로 나오게 되는 차이이기 때문이다.

가령 소유 형태에서의 차이를 본다 하더라도 도시에는 전 인민적 소유 형

태가 지배적이고 농촌에는 협동적 소유 형태가 지배적인데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되는 데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이 자기의 동맹자를 오직 자원적인 협동화의 길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에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여기에는 이러한 로동 계급의 도덕적 립장과 더불어 기술, 문화, 사상 상 근원이 있는 것이다. 근원까지 밝혀져야 협동화가 필연적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말하자면 농촌에서의 생산력 수준의 현 상태는 사회주의 하에서도 그에 따른 생산 관계의 일정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며 또 우리는 문화적 락후성이 기술적 락후성과 떨어져서 설명될 수 없고 사상적 락후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것이 불가피적으로 그들의 소유를 단번에 전 인민적 소유에로 넘기는 것을 방해하며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가지는 것과도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리해할 수 있다.

결국 《농업에서 지배적인 협동 경리 제도는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며 농민들의 의식 발전 정도에 적합한 것이다.》(테제)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들 중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차이들을 밝혀 줌으로써 그 차이들을 없애기 위한 과업 해결에서 선후차와 중심 고리를 옳게 틀어 쥐고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방침을 준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극복해야 할 차이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을 반드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의 측면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왜냐 하면 도시와 농촌 간에는 농촌의 지역적 분산성, 농업의 자연 계절적 제약성, 공업에 비한 농업의 생산 주기의 완만성 등으로 이루어지는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도시와 농촌 간에 조성되였던 대립과 착취 관계로 해서 도시가 앞서고 농촌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차이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그러한 조건에서 생긴 차이와 같은 부류에 놓고 차이라는 개념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테제는 이것을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의 특징이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비본질적 차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참으로 도시와 농촌을 서로 구별하는 특징인 것이다.

공산주의에로 가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없어질 것이지만 특징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의 극복은 그의 특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례컨대 도시와 농촌 간의 기술적 차이의 극복은 농촌의 분산성, 자연 계절적 제약성이 오늘처럼 농업 발전에 그렇게 심한 영향을 주지 않게 할 것이며 생산 주기의 완만성도 상당한 정도로 단축시킬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에서 중심 과업으로 나서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방도에 대한 문제이다.

테제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통일적 과정으로 진행되여야 할 혁명 과업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산주의에로 가기 위한 계속 혁명의 중심 과업들로 규정하였다.

우리는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반드시 통일적 과정으로 틀어쥐고 계속 추진시켜 나감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고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술, 문화 혁명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반드시 자본주의가 달성한 기술 문화적 수준보다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에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에도 오르기 전에 사회주의 기술, 문화 혁명의 종결을 말하거나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보다 더 선진적인 이 제도의 위신을 떨구는 것이며 혁명을 중도반단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인류 력사 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 관계와 인간들을 형성하여야 한다.

테제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통일적 과정이 그것들 간의 어떠한 호상 관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테제는 이 세 가지 혁명 과업들 중에서도 사상 혁명은 다른 혁명 과업에 앞세워야 할 혁명 과업이라고 규정하였다.

사상 혁명을 앞세워야 하는 것은 우선 사람들의 혁명적 자각성을 제고함으로써만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할 수 있고 이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만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성과적 추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혁명을 앞세워야 하는 것은 또한 사상의 발전이 기술적 발전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사정과 사상 혁명은 기술, 문화 혁명들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혁명 과업이라는 데도 있다.

사상 혁명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 문화 혁명을 소홀히 한다면 사상 혁명 자체도 옳게 수행될 수 없다. 기술, 문화의 발전을 떠나서 사상의 발전이 따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도 문화, 사상의 발전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고 문화의 발전도 기술, 사상의 발전과 떨어져서 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이 3자를 통일적인 혁명 과업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기술, 문화, 사상의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진 농촌을 추켜 올림에 있어서도 그것들 간의 이와 같은 관계를 심중히 고려하고 그 원칙에서 사업함으로써만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소유 형태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기본 과업은 농촌 경리 부문에서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협동적 소유 형태를 어떻게 국영의 그것처럼 전 인민적 소유 형태로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테제는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도를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밀접한 련계 특히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

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면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방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강화하고 이 기업소들로 하여금 협동 경리의 농업 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 기업소들을 물질-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모범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농업 협동 경리 발전에서의 그것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국가 기업소들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서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협동 농장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란 모두 전 인민적 소유의 그것으로 꾸며질 것이고 협동적 소유로 남게 될 생산 수단이란 토지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에 가서는 농민들의 의식 수준도 공산주의적인 것에 가까우리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벌써 토지에 대한 협동적 소유도 문제시될 것이 없다.

테제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관리 운영 수준에서의 차이의 극복 방도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경리 운영 방법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기업적 관리 운영 방법의 도입을 의미하며 그의 부단한 개선 발전을 위한 방도를 의미한다.

농업 협동 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경리이며 그것은 현대적 기술로 급속히 장비되고 있다. 농업의 경영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 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접근하여 가는 만큼 농업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도 공업의 기술적 관리 방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농촌에서도 기업적 방법에 기초하여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경영 활동을 가일층 계획화, 조직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수준을 공업의 운영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도와 지원 문제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들의 처지는 물론 과거 사회에서의 그들의 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땅의 주인이 되었고 나라의 주인이 되였으며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농민 문제 해결에 대하여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의 처지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으나 수천 년 동안 소생산자로서, 락후한 로동 도구에 매여 달려 많은 고생을 하면서 2중 3중의 착취를 받아 온 그들은 역시 상당한 정도로 과거의 농민적인 취약성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로동 계급의 지원, 참으로 책임적인 지원이 계속 요구된다. 그리고 원래 농민들을 공산주의에로까지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로동 계급의 사명이다.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은 농업의 특수성과 농업이 가지는 의의로 보아도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농업은 자체로서 자체의 생산 도구를 해결하지 못 하는 경제 분야이다. 이것

은 반드시 도시 공업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공업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것이다. 공업은 농업에 로동 도구를 대 줌으로써 농업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지만 동시에 공업도 역시 농산물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농업은 공업 부문의 로동자들에게 식량을 보장하며 경공업 부문에 원료의 많은 부분을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나라의 경제 전반을 급속히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공업을 발전시키며 그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촌 경리를 공업의 발전에 따라 세우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방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은 오늘 도시 공업의 위력이 장성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여 있는 조건 하에서 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였다.

이러한 데로부터 출발하여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할 데 대하여 지적하셨으며 이것을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테제에서는 우리 당이 이미 계통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투쟁한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 국가 부담에 의한 모든 농촌 기본 건설의 실시, 국가 부담에 의한 농촌 문화 주택의 건설 문제 등을 실현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국가의 이러한 지원과 방조만이 참으로 농민들을 고된 로동과 온갖 락후성에서 영원히 해방할 수 있으며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영원한 동맹자로,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위한 진정한 투사로 만들 수 있고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로 끌어 올릴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도로서 또한 테제가 제시한 중요한 사상은 전국 각지에 지역적 단위와 거점을 설정할 데 대한 문제이다.

이 사상은 물론 1962년에 소집되였던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이미 제기되였고 또 구현되고 있는 문제이다.

테제는 그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리론적으로 그것을 론거 지었다.

지역적 단위와 거점의 설정은 우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실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실현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준 것이다.

또한 지역적 단위와 거점의 설정은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계통적으로 밀접하게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길을 밝힌 것이다.

지역적 단위와 거점의 설정은 매 지방에 경제, 문화 발전의 종합적 단위를 가지도록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것은 바로 그러한 단위들을 요구하게 될 미래 공산주의 사회에로의 전진의 견지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만일 지역적 단위와 거점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란 아무래도 일정한 무질서와 무계획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가 주로 일정한 도시와 일정한 농촌 지역이 서로 유리성의 견지에서만 련계를 맺게 될 수 있으며 그것도 행정적 체계들을 가로 질러 관난을 조성하거나 교통 상으로 불합리하고 복잡한 점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당은 매개의 군 범위를 지역적 단위로 설정하고 군급 지도 기관, 경제 기관, 문화 기관 그리고 그것들이 집중된 군 소재지를 이 단위의 거점으로 설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정확히, 합리적으로, 계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 당은 지역적 단위와 거점을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농촌의 특성, 도시와 농촌의 련계의 특성, 일정한 지역적 단위의 제반 자연적 및 기타 특성—에 주의를 돌렸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하고 테제는 지적하고 있다—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 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는 그 크기가 적절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 내에서는 자연 지리적 조건 기타 조건들에서 심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역적 단위와 거점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타산과 요구는 농촌에 대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단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를 일정에 제기한 단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의의를 더욱 크게 해 준다.

우리 당은 혁명의 현 단계에 있어서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을 지역적 단위와 거점으로 옳게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 군이 그러한 역할을 놀도록 군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는 데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당은 군당 위원회를 비롯한 군 기관들을 유능한 간부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힘을 돌렸다.

당은 군에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지방 공업 경영 위원회, 계획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학교, 병원, 도서관, 영화관 등을 비롯한 많은 문화 후생 시설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당은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련석 회의를 통하여 창성군의 사업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군들 앞에 나선 과업들을 명확히 내놓음으로써 군 사업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울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당의 이러한 방침들은 모두가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

우리는 테제에서 제시된 원칙과 사상을 옳게 관철해 나간다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극복되고 전국 도처가 조화롭고 종합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지상락원을 이룩할 것이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이 위대한 구상과 방침을 리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의 실현에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확립된 계획화 체계

김 하 광

최근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인민 경제 계획화 체계를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데 대한 중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독자적 활동을 수행하면서 국가 계획 위원회에 직속하는 국가 계획 위원회 도, 시, 군 위원회들이 새로 창설되였으며 성, 중앙 기관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계획 부서들은 해당 상급 기관에 복종하는 동시에 국가 계획 위원회 및 그 지방 조직들에도 종속하게 되였다.

계획화 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금번 조치의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의 확립은 인민 경제 계획화 체계 전반에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구현한 것으로서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보다 완성시키는 분야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그것은 계획화 사업에서 국가의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며 인민 경제의 모든 균형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한층 힘 있게 촉진시킬 것이다.

1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중앙적인 일원화 특히 계획화에서 전국적인 일원화를 실현하는 것은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도로 조직화된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경제는 오직 당과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 밑에 모든 경제 부문들과 계획 단위들의 활동을 옳게 결합시켜 목적 의식적으로 움직여 나갈 때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민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를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도 경제 관리에서 근본 문제의 하나인 계획화의 전 행정을 레닌적인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 운영하여야 하며 나라의 모든 계획 기관과 계획 일'군들을 유일한 지도 체계에 의하여 하나의 의지 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레닌은 《…전 국가 경제 기관의 통일적 대기구 즉 수억만 사람들이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지도되도록 사업하는 경

제적 유기체에로의 전화》(전집 제 27 권, 98～99 페지)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제기되는 거대한 조직적 과업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계획 경제를 실시한 첫 시기부터 언제나 계획화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방침을 견지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기되는 정치 경제적 과업과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 그리고 공업 및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의 주요 부문들에 대한 국가 관리 지도 체계에 맞게 계획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 완성시켜 왔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 각 부문들과 국내 각 지역들 간의 합리적인 련계와 균형을 보장하고 나라의 모든 생산 자원과 기술 력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달성할 수 있은 것도 바로 이와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만일 모든 부문이 하나의 유기체로 밀접히 결합된 대규모적이며 조직적인 사회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 관리하지 않으며 지방 분권화한다면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요구에 부합되게 나라의 경제 생활 전반을 조직 지도하여 나갈 수 없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는 결코 분권화할 수 없으며, 계획화 사업에서 그것은 더욱 그러하다.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약화시키려는 온갖 시도는 경제의 각 부문과 지역들 간의 합리적인 련계와 균형을 보장할 수 있게 하며 막대한 사회적 자원의 랑비를 가져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과정 전반에 심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금번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현 시기 나라의 경제 발전과 계획화 분야 앞에 제기되는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게 계획화 사업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열어 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경제의 규모가 날로 더욱 확대되고 그 기술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 부문들과 부문 내부 간, 국내 각 지역들 간의 생산적 및 소비적 련계가 더한층 복잡하여지고 있다.

또한 지방 경제가 확대 발전됨에 따라 지방 공업, 농촌 경리, 기본 건설 부문들의 지도와 관리 기능이 인민 위원회로부터 분리되였으며 그것들은 각각 자기의 부문 별 지도 체계에 의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의 비상히 높은 발전 속도는 경제 부문 상호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오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나라의 모든 작전 및 전투 계획 단위들을 유일한 체계와 방법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의 확립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의 확립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이러한 객관적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말단 시도 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전 계획 작성 단위들로부터 전투 계획 작성 단위들에 이르기까지 국가 계획 기관의 직접적이며 유일적인 지도를 미치게 함으로써 날로 복잡하여지고 다양해지는 경제 부문들과 지역들 간의 련계를 정확히 보장할 수 있게 하며, 당과 국가의 의도가 기층 계획 세포에까지 보다 신속히 전달되여 계획화 사업에서 더욱 잘 구현될 수 있게 하여 준다.

동시에 그것은 전국의 모든 계획 일'군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계획화 사업에서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 및 책임성을 더욱 높이게 함으로써 당성의 원칙과 군중 로선을 보다 전면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우리 나라에서 계획화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의 강화는 금번 새로 창설된 지방 계획 기관들의 기능과 임무에서 더욱 명백히 반영되고 있는바 그것들은 국가 계획 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중앙 공업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의 모든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계획 작성과 그 실행에 대한 조직 지도 사업을 진행하며 지방 경제 각 부문들 간의 호상 련계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그리 하여 지방 계획 기관들은 인민 경제 앞에 제기된 과업을 해당 지역 내의 생산 현장에 직접 접근하여 구체화하는 경제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게 되였다.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또한 인민 경제 매개 부문의 작전 계획과 개별적 기업소들의 전투 계획을 국가의 전략적 과업 해결에 보다 철저히 복종시킬 수 있도록 경제 지도에서 높은 기동성을 보장하여 준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계획 단위들은 나라의 전략적 계획의 한 부문을 담당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가 작성한 전략 계획을 잘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작전 및 전투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특히 《…작전 계획을 바로 작성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아래 단위인 공장, 기업소들과 직장들에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전투 계획 즉 실지 생산 계획을 작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일성, 《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계획화 체계의 전국적 일원화는 국가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작전 및 전투 계획 작성 단위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전면적으로 보장케 함으로써 모든 계획들을 나라의 전략 계획 실행에 복종되도록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준다.

뿐만 아니라 이 체계는 강력한 지령 통보 체계를 동반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형편을 항상 손'금 보듯 장악할 수 있게 하며 그리 하여 매 시기, 매 부문들에서 제기되는 사업의 선후차와 중심 고리, 사업 방향과 당면한 과업 등 제반 문제들을 적시에 포착하고 전국적인 견지에서 그것을 기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계획화 체계가 국가 전략 계획의 과학성과 작전, 전투 계획의 현실성을 가장 정확히 결합시키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

의 경제 활동을 국가가 제시한 총적 과업 해결에 더 잘 복종시킬 수 있게 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국가적 지도의 통일성과 기동성의 보장—바로 여기에 새로운 계획화 체계가 가지는 본질적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실로 새로운 계획화 체계에는 그 조직 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계획의 작성 및 시달 절차, 상하 간의 지도 체계와 부문 간의 연계 체계, 계획 기관들의 활동 형식과 사업 절차, 지령 통보 체계 등 계획화 사업의 전반적 분야에서 국가의 통일적이며 기동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관통되고 있다.

2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계획화 사업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더욱 전면적으로 관철케 함으로써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다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요인을 정확히 결합시켜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된다.

계획화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자면 전국의 모든 계획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광범한 생산자 대중 속에 들어 가 그들을 계획화 사업에 적극 인입할 수 있도록 계획 기관들의 체계와 사업 질서, 사업 방법 등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계획화 사업에 대중을 얼마나 광범히 인입하는가 하는 문제가 국가 계획 기관의 체계와 사업 질서 및 사업 방법 등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바로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전면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기구 체계와 사업 절차 및 사업 방법 등을 확고하게 조직화하고 있다.

사실 상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가 수천 수만의 계획 일'군들을 잘 발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획화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한 그것이다.

이 체계 하에서는 나라의 모든 계획 일'군들이 국가 계획 기관과 계획 세포들을 통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침투하여 직접 생산자들과 계획을 토론하며 계획 수행에서 걸린 문제를 같이 해결하며 서로 배우고 도와 주는 사업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계획화 체계가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인 로동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생산자들 자신의 것으로》(김 일성,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만드는 계획화에서의 군중 로선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를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군중 로선에 기초한 계획 작성의 정연한 체계가 확립되였으며, 매해 계획 토의 사업이 전 군중적인 사업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구현할 때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년간 계획의 예비 총화 및 새해 계획의 작성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을 그 전 해에 벌써 몇 개월씩 훨씬 앞당겨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계획화의 비상히 높은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며 경제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지도의 능숙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금번 또다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모든 계획 작성 단위들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사업으로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하여 놓았다.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계획화에서의 군중 로선의 원칙을 나라의 전략 계획 작성 단위까지 포함한 인민 경제 계획 작성의 모든 고리들에서 조직화된 체계를 통하여 관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체계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의 전략 계획 작성에 참가하는 국가 계획 기관들이 행정 경제적 지도 단위인 도, 시, 군에 포치됨으로써 국내 모든 지역과 인민 경제 모든 단위에 직접 침투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결국 국가 계획 위원회가 도, 시, 군에, 중앙의 계획 일'군들이 지방에 항시 주재하게 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리하여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국가 계획 위원회가 직접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 현지에 접근하여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알아 내며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계획 작성에 최대한 조직 동원하며 계획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관 또는 지방 본위주의적 현상을 근절시킬 수 있게 한다.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또한 국가 계획 기관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계획 세포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며 모든 계획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게 함으로써 계획화 사업에 생산자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더욱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는 인민 경제 각 부문 계획 세포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획 세포는 국가 계획 기관의 지도 통제 밑에 인민 경제의 일정한 부문, 일정한 지역 또는 기관, 기업소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행정 경제적 및 생산 업무적 활동을 집행하는 작전, 전투 계획 수행 단위의 계획 부서들이다. 계획 세포는 계획의 작성, 생산 기술적 지도, 자재 공급 등 기관 기업소 경영 활동의 전반적 부문과 밀접한 련계를 맺고 있으며 그 일'군들은 생산자 대중 및 행정 기술 일'군들과 함께 기업 활동에 직접 참가한다.

따라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계획 세포들을 잘 발동시키는 것은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을 보다 실'속 있게, 보다 구체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중요 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새로운 계획화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 계획 위원회에 직속하는 지방 계획 기관들을 창설함으로써 군중 속에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다리를 마련하였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계획 세포들에 대한 우로부터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함으로써 계획화에서의 군중 로선을 더욱 폭 넓게 관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계획화에서의 전국적인 일원화 체계가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의 기본 요구인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체계이며 나라의 모든 계획 일'군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적극적인 체계이며 전략 계획 작성 단위로부터 작전 전투 계획 작성 단위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통하여 당의 군중 로선을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관철할 수 있게 하는 체계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전국적인 일원화의 계획화 체계는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군중 로선, 중앙 집권적인 지도와 지방의 자발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계획 작성의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을 정확히 배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체계이다.

3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의 전국적인 일원화 체계는 발전하는 현실에 상응하게 경제 부문들과 지역들 간의 균형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열어 줌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더 한층 촉진시킬 것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하에서의 계획성이란 의식적으로 유지되는 부단한 균형성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가 의식적으로 설정하는 균형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부단히 발전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 우월성이며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공고화와 그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증하는 담보로 된다.

균형의 보장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를 실현하는 계획화의 중심 내용으로서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항상 인민 경제 계획화의 기본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계획화에서의 균형 문제가 결국 나라의 생산 자원 및 기술 력량을 동원 리용하는 문제와 관련되며 특히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 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는 오직 인민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기초 우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균형 문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 사회의 합법칙성이며 그것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 만일 경제 발전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이 파괴된다면 막대한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를 가져 오게 되며 일시적으로 개별적 부문에서 높은 발전 속도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 지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인민 경제의 합리적인 균형 보장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전국적인 균형을 정확히 설정하며 그것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매개 계획 단위들의 균형을 해결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균형은 확대 재생산의 전체적인 규모에서 생산 수단과 소비재 간,

공업과 농업 간, 축적과 소비 간의 호상 관계 등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들과 직접 관련된 인민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균형이다.

그것은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주도적이며 지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기타의 모든 균형 관계를 규제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는 이러한 균형 문제만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균형과 함께 일정한 부문 내부 간 또는 지역 내부 간의 균형, 공장, 기업소 내부 계획화에서 제기되는 균형 등도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균형은 그것이 어떠한 균형이든지 간에 모두 밀접히 련계되여 있으며 서로 보충하여 주는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균형 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이 모든 균형들을 전체적인 련관 속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통일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확립된 계획화에서의 전국적인 일원화 체계는 균형 문제 해결의 이러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계획화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지도가 실현됨으로써 모든 계획 기관들과 계획 세포들은 전국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자체의 균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는 나라의 모든 균형을 인민 경제 전반의 균형, 전 국가적인 균형에 보다 잘 복종시킬 수 있게 하며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전국적인 균형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차적이며 주도적인 고리의 해결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 균형의 현실성을 보장한다.

그것은 또한 국가가 국가 계획 위원회에 직속하는 지방 계획 기관들을 통하여 균형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다 정확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즉 지방 계획 기관들은 계획화 사업에서 일원화된 지도 체계에 의하여 도적인 균형, 시, 군적인 균형을 설정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의 부문 간, 지역 간의 균형을 현지에서 책임적으로 검토하며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속도와 균형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된다.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특히 지방 경제의 부문 간 련계와 그 종합적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이 체계는 국가 계획 위원회의 지방 출장소 형태인 지방 계획 기관들로 하여금 지방 경제의 부문별 관리를 담당하는 인민 위원회, 경공업 위원회, 농촌 경리 위원회, 건설 위원회 등의 계획을 련계시켜 해당 지역 내의 종합적 균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적 견지에서 생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균형의 변화, 균형의 다면성을 정확히 예견하고 속도와 균형 관계를 옳게 해결하는 것은 실로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비상히 높

은 속도로 전진하면서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우리 당은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성숙 정도, 경제적 잠재력과 내부 예비, 근로자들의 정치 사상적 준비 정도 등을 정확히 타산함으로써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속도와 균형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여 왔다.

우리 당은 금번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를 창조함으로써 인민 경제 전반의 균형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며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 수단과 소비재 간, 공업과 농업 간,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균형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속도에 가일층의 박차를 가하게 할 것이다.

⁂ ⁂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확립된 계획화에서의 전국적인 일원화 체계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계획화의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국가적 지도의 강화에서 거대한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 확립된 군중 로선에 기초한 계획화 체계의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 발전으로 되며 계획화 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오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 일'군들과 계획 일'군들은 새로운 계획화 체계의 본질과 기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함으로써 인민 경제 계획화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할 것이다.

환률 인상과 남조선 경제

전 기 홍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남조선 화폐와 미국 화폐 간의 교환 비률이 변경되였다.

환률 변경에 따라 남조선 화폐의 대외 가치는 다시 절반으로 저하되였으며 환률 제도는 《자유화》되였다.

금번 미제가 취한 환률과 환률 제도의 이러한 개편은 남조선 경제와 인민 생활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된다.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의 《자유화》에 의하여 남조선의 물가 및 대외 무역을 비롯한 전반적 경제가 미국 딸라에 더욱 철저히 예속되고 그에 의한 착취와 략탈이 일층 강화됨으로써 남조선의 민족 경제와 인민 생활의 파괴 몰락 과정은 더욱 급속히 촉진될 것이다.

현시기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 개편의 략탈적 본질을 밝히는 것은 남조선을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에서 벗어 나게 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궐기한 인민들을 각성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

세계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위한 제국주의 팽창 정책 실현에서 환률 문제는 항상 첨예하게 제기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에 대한 금융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국의 화폐를 지배적 지위에 올려 놓으며 다른 나라들의 화폐를 자기의 부속물로 만들려고 한다.

그것은 제국주의 팽창 정책에서 환자 정책이 노는 역할과 관련된다.

제국주의자들의 환자 정책은 금융 정책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서 그것은 식민지에 대한 재정 금융적 침략, 경제적 침략의 중요 공간의 하나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환자 정책을 통하여 식민지들에서 재정 금융 부문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 환자 정책은 식민지 착취와 그 착취 범위 확대의 중요한 무기로 된다.

레닌은 미국 출판물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였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즉 딸라와 은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딸라가 있다. 우리는 은행을 만들 것이며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레닌은 이어서 이 글에는 딸라에 의한 독점 자본의 세계 제패 야망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남조선에서도 현물 형태에 의한 착취와 함께 화폐 형태에 의한 예속과 략탈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금번 환률 인상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화폐 형태에 의한 예속과 략

말이 강화되였다는 데서 특징적이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 원과 미국 딸라의 환률이 일거에 2 배로 인상된 것이다.

물론 종전에도 환률이 일거에 2 배로 인상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환률의 액면 단위의 크기에 있어서 금번과 같이 대폭적으로 인상된 례는 없다.

(단위~1 딸라: 원)

인상 년 월 일	환 률	인상 비률 (배)
1945. 10. 1	0.05	
1948. 10. 1	0.45	9
1949. 6. 14	0.90	18
1950. 5. 1	1.80	36
1950. 5. 15	1.60	32
1950. 6. 15	1.80	36
1950. 11. 1	2.50	50
1951. 11. 12	6.00	120
1953. 12. 15	18.00	360
1955. 8. 15	50.00	1,000
1960. 2. 23	65.00	1,300
1961. 1. 1	100.00	2,000
1961. 2. 1	130.00	2,600
1964. 5. 2	255.00	5,100

우의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는 금번 환률 인상을 통하여 130 원 대 1 딸라를 255 원 대 1 딸라로, 즉 환률을 《자유 시장 시세》의 수준에로 끌어 올렸다.

상이한 화폐 단위를 가진 나라들 간의 화폐의 교환 비률로서 통화의 대외 가치를 표시하는 환률이 일거에 2 배로 인상된 실례는 세계의 어느 나라들 간의 환률 변경에서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남조선 통화의 대외 가치가 대폭적으로 저락된 반면에 미국 딸라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딸라에 의한 지배와 략탈이 그 만큼 더 강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환률이 《자유화》, 《현실화》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 환률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공정 환률과 자유 시장 환률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시기 미국 정부와 남조선 괴뢰 정권 간의 공정 환률은 전반적 외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 환률로서 일정한 기간 환자 거래의 비률을 고착시키는 것을 말하며 자유 시장 환률은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환률로서 이것은 항상 공정 환률보다 그 비률에 있어서 높다.

해방 후 미제는 수십 차에 걸쳐 남조선 화폐와 미국 화폐의 환률을 인상하였다.

그들은 해방 후 오늘에까지 각종 환률을 무려 38 회에 걸쳐 인상하였다.

물론 미제가 지난 시기 여러 차례에 걸쳐 환률을 인상하였지만 괴뢰 정권과의 각종 협약, 협정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이나마 환률을 고정시키군 하였다.

그러나 금번 환률 인상을 통하여 미제는 환률을 외환 시장에서 그 날 그 날 형성되는 환자 시세에 따라 변경되게 하였다.

즉 255 원 대 1 딸라의 교환 비률을 기준으로 하되 이 비률은 《국제 통화 기금》과의 거래에만 적용하게 하고 실제상 시장 시세에 따라 환률을 255 원 대 1 딸라 이상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환률이 《자유화》, 《현실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률이 《자유화》, 《현실화》됨에 따

타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에게 부등가 교환에 의한 략탈의 조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남조선의 외화, 물가, 대외 무역이 미국 딸라에 더욱더 종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환 관리 면에서 매상 집중 제도를 환 증서 제도로 전환시킨 것이다.

물론 종래의 매상 집중 제도와 현재의 환 증서 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미제가 모든 외화를 《한국 은행》에 집중시켜 외환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한다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량자가 동일하다.

다만 환 증서 제도가 매상 집중 제도에 비해 다른 점은 외화를 《한국 은행》에 집중시키고 그 대신 외화를 획득한 자에게 획득한 외화와 동일한 액면의 외환 증서를 주어 이를 외환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속 자본가와 모리 간상배들에게 외화가 더욱 집중되고 반면에 중소 기업가, 상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였다.

따라서 이 조치는 예속 자본가들에게 부정 축재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마련해 주며 중소 기업의 몰락 과정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미제의 화폐 형태에 의한 예속과 략탈이 보다 강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제의 이러한 환자 정책 상 변화는 미국 자체의 경제 위기와 남조선의 사회 경제적 파국과 관련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는 2차 세계 대전 후 다섯 번째의 경제 공황의 위협이 드리우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년간 미제는 심각한 딸라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는 1962년에 22억 딸라였던 것이 1963년 1.4 분기에 년률로 환산하여 32억 딸라에 도달하였다.

금 보유량은 1963년 7월 5일 현재 156억 딸라로서 전후 최저의 수준에 떨어졌다.

영국의 《런던 타임스》지는 이에 대하여 《전후의 딸라 지배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다른 한편 미제의 식민지인 남조선에서는 최근 물가가 폭등되고 통화가 팽창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물가는 1960년 이후 3 년 동안에만도 80~90%나 등귀하였으며 통화량은 같은 기간에 200억 원 선에서 400억 원 선으로 뛰여 올랐다.

지난 6월 15일 현재 남조선 통화량은 415억 원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제가 추구하는 《경제 안정화》에 대한 타격으로 되며 경제적 지배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는 자국의 경제 위기를 다소나마 모면하고 식민지 지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책동에 매여 달리게 되였다.

미제가 오늘 남조선에 대한 《원조》를 일본에 분담시키기 위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적극 끌어 들이면서 화폐 형태에 의한 지배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게 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는 환률 인상을 통하여 우선 남조선 시장에서 형성되는 《현실적》 환률의 토대 우에 물가를 재편성함으로써 남조선 경제에 대한 딸라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종전까지 미제는 김박 공정 환률을 변경할 때 그 비률은 자유 시장 시세에 의한 실제 환률보다 낮게 설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물가 등귀를 억제하고 재정 긴축, 저임금, 저미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이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계획은 《자유 경제 체제》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략탈 책동과 조상 모순 관계에 있다.

즉 실제 상 예속 자본가들의 경제적 목점파 투기를 조장시키는 《자유 경제 체제》는 필연적으로 《경제 안정화》에 대한 타격으로도 된다.

특히 미제의 거듭되는 환률 인상은 그 만큼 남조선 통화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따라서 물가는 더욱 폭등되고 경제적 혼란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는 환률 인상을 통하여 남조선의 물가를 국제 가격과 일치시킨다는 가면 밑에 실제로는 남조선 물가를 자유 시장 가격으로 조정하며 《자유 경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남조선 시장에 대한 딸라의 지배를 더욱 강화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미국 국무 장관 러스크가 금번 환률 인상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조치》라고 극구 《찬양》한 것도 우연하지 않다.

미제가 금번 환률 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지출되는 군사비의 보다 많은 부담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남조선과 같이 경제 전반이 미제의 완전한 부속물로 된 조건에서 환률이 인상되였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잉여 물자의 가격이 자동적으로 인상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제는 잉여 물자 가격 인상에 의하여 략탈한 자금의 대부분을 경제적 지배와 군사비 확대에 리용하려 하고 있다.

미제가 금번 환률 인상을 통하여 략탈한 약 130억 원 이상의 자금도 바로 그러한 것으로 리용될 것이다.

금번 환률 인상에서 미제가 추구하는 것은 또한 남조선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 사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유리한 경제적 로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환률 제도의 《자유화》는 필연적으로 무역의 《자유화》, 기업체들의 《자유 경쟁》, 은행 리자의 《현실화》 등을 촉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미국 사자본은 물론 딸라와 관련되고 있는 기타 자본주의 국가 사자본의 침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금번 환률 인상을 미리부터 준비하여 왔다.

지난해 미제는 《국제 통화 기금 대표단》을 남조선에 끌어 들였으며 금년 3월에는 현시 사환군들과 박 정희 도당과의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박 정희 도당은 지난 5월 2일에 남조선 통화와 미국 딸라와의 환률을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다.

박 정희 도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중요하게는 자체의 경제적 곤경과 관련된다.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최근 남조선 경제가 전례 없는 파국에 처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의 정치적 지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박 정희 도당은 조성된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걸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춘궁기에 환률 인상이 남조선 경제에 주게 될 후과에 대하여 우려하면서도 환률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된다.

미제가 강요하는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의 변경을 통하여 박 정희 도당이 추구하는 목적은 첫째로,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

그들은 환률을 인상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의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원조》를 받으며 재정 수입을 증대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남조선의 외화 위기를 완화해 보려는 것이다.

박 정희 도당은 환률 제도의 《자유화》에 의하여 우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자극하는 한편 외자 도입의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외자 도입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타산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제반 사실은 금번 환률 인상이 자국의 경제 위기를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착취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다소나마 모면해 보려는 미제의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본래 종주국과 식민지 간의 환률 인상은 중요하게 종주국의 정치 경제적 력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환률 인상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식민지 예속국 경제에 대하여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남조선과 같이 미제에게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 남조선은 정치, 군사적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면에서도 미제의 완전한 종속물로 되여 있다.

생산과 류통 및 재정 금융과 무역 등 경제 전반의 명맥을 미제가 장악하고 있으며 기업체들의 원료, 연료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환률이 인상되고 환률 제도가 《자유화》된다는 것은 남조선 경제에 더욱 큰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남조선의 야당들까지도 환률 인상은 《기본적으로 불행한 일이며 위험한 수술》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환률 인상은 우선 물가 체계를 딸라에 더욱 종속시키며 전반적 물가 등귀를 초래하게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조선은 중요 공업 원료의 80~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환률을 인상하는 것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자동적으로 오르게 할 것이며 이를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상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폭등시킬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환률이 인상된 이후 1주일 간에 남조선의 전반적 물가는 20~30%나 인상되고 그 중 량곡, 원면, 비료, 유류 등은 근 40%나 인상되였다.

물가의 폭등은 필연적으로 전기, 철도, 전차, 빠스 등 각종 료금을 인상시키게 한다.

남조선의 《경제 기획원 장관》까지도 《료금 조정》은 《원가고》로 인한 《불가

피》한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환률 인상에 의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남조선 중소 기업체들의 자금난, 원료난을 더욱 심화시키며 공업 상품과 농산물 간의 협상 가격 차로 인한 영세 농가들의 몰락을 촉진시킬 것이다.

수입 원자재 가격의 등귀는 또한 소비재 생산 자본의 집중 과정을 촉진시키며 경제 부문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조선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 변경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의 다른 하나는 남조선 경제가 미제와 외국 독점에게 더욱더 예속되게 되는 것이다.

종전에 형식 상이나마 일정한 기간 유지되여 온 고정적인 환률이 완전히 파괴되고 《자유화》됨으로써 환률이 미국의 《원조》 정책에 더욱더 복종되게 되였다. 따라서 남조선의 물가 체계는 물론 재정, 금융, 무역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미제의 통제와 지배가 강화될 것이다.

특히 환률의 《자유화》로 말미암아 외국 자본의 침투의 길이 열려졌다.

환률이 인상된 후 벌써 미국의 은행인 《휘스트 내쇼널 시티 뱅크》와 박 정희 도당 간에는 2천만 딸라의 단기 차관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독점 자본가들은 《남조선의 화폐 평가 인하는 일한 협조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의 변경이 초래하게 될 후과는 남조선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악화이다.

환률 인상으로 인한 물가 등귀는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저하시키고 그들에 대한 추가적 수탈을 강화시킬 것이다. 1961년의 환률 인상 당시에 남조선 농민들은 화학 비료 구입에서만도 년간 220억~270억 환을 수탈 당했으며 금번 환률 인상에 의하여 금년도에만도 약 50억 원을 착취 당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인민 생활의 령락으로 말미암아 구매력과 부담 능력은 더욱 감소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재정, 류통 나아가서는 경제 전반의 혼란과 파탄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될 것이다.

최근 남조선 실업계에서 환률 인상 이후의 전망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 경제계에서는 금후 물가가 최소한 30~40% 정도 등귀되며 환률은 또다시 《년 내에 300:1~350:1로 될 것》이며 《극도의 불경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률 인상을 계기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민생고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급격히 높아 가고 있다.

금번 환률 인상 이후 남조선 인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봉급을 인상할 것을 요구해 나서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비료 가격의 인상을 우려하면서 인상될 가격 만큼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학자는 《서울 방송》을 통하여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특히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의 립장으로 볼 때 눈 앞이 캄캄

할 지경》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의 가일층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정치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며 미제와 괴뢰 정권의 통치 지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더우기 날로 장성 강화되는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적 력량은 남조선 인민들의 각성을 급속히 제고시키고 있으며 미제와 괴뢰 도당들을 전률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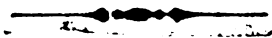
오늘 남조선은 계속 외세에 매여 달려 멸망의 길로 더욱 깊이 빠져 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주 자립의 광명한 길을 따라 나가느냐 하는 두 갈림'길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남조선에서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 변경의 후과를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자면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를 몰아 내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일체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이 합작하여 전 민족의 력량을 동원한다면 절박한 오늘의 남조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외세에 의존해야 할 그 어떤 리유도 없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이 그를 말해 주고 있으며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반부 인민들이 이룩해 놓은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금자탑이 이것을 웅변으로 실증하고 있다.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미제는 라오스에서 손을 떼야 한다

문 영 환

미 제국주의자들의 로골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오늘 라오스에서는 극히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이미 합법적 통일 정부가 파괴되고 새로운 전면적인 국내 전쟁의 위협이 다시 증대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해방 지역에 대한 정찰 비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사식 폭격기들까지 대량 동원하여 이 지역을 폭격하는 야수적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기간에만도 400여 대의 미국 분사식 추격기들과 《티-28》형 전투 폭격기들이 해방 지역 상공을 침범하였으며 100여 차에 걸쳐 도시와 마을들을 폭격하고 기총 사격을 감행하였다.

그들의 책동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미 제 7 함대를 인도양에까지 접근시켜 라오스의 애국적 인민들을 위협하며 자기들의 무력을 증파하는 한편 타이를 비롯한 추종 국가 군대들까지 이 나라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무력 간섭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로골화되고 있으며 그들이 또다시 새로운 전쟁의 불'길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 행위는 비단 이 나라 인민들뿐만 아니라 인도지나와 동남 아세아 인민들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고 간섭을 저지시키는 것은 라오스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며 인도지나와 동남 아세아의 안전을 위하여 지극히 절박한 문제이다.

조선 인민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더불어 라오스 사태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으며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 있다.

* *

최근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무장 간섭과 전면적인 내전 도발 책동은 지난 4월 19일 비엔티안에서의 군사 정변을 계기로 하여 더욱더 로골화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 친미 세력의 두목 푸미 노사방의 졸개들인 쿠프라시트와 시호를 사촉하여 비엔티안에서 군사 정변을 조작하였다.

미제와 라오스 우파들은 처음에 무력으로 수반나 푸마를 연금하고 그를 수상직에서 《파면》시켰다가 그 후 연금을 해제하고 수상직에 복직시키는 연극을 꾸미였다.

그들이 수반나 푸마를 연금하였다가 그것을 해제하고 그를 복직시키는 연극을 꾸민 것은 자기들이 직접 라오스 민

족 통일 정부를 전복하는 것보다 이미 저들의 통제 하에 들어 간 수반나 푸마를 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세 관계측 협정과 1962년 제네바 협정에 대한 파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극에 뒤'이어 미제는 수반나 푸마를 정면에 내세우면서 통일 정부를 파괴하고 애국 력량을 반대하는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소위 《확대 개편된 정부》와 《군대 통합》은 바로 그들의 이러한 음모의 산물이다. 그들은 쿠프라시트-시호 도당의 《국군 혁명 위원회》를 사촉하여 감금하였던 수반나 푸마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합법적 중립 정부를 《확대 개편》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를 친미 분자들의 소굴로 전화시켰다.

사실 상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의 위협과 압력으로 《정부》 수상 수반나 푸마는 유명 무실한 존재로 되고 있으며 라오스 세 관계측의 쥬리히 협정과 자르 평원 협정에 근거하여 조직된 그리고 1962년 제네바 회의 참가국들의 국제적 담보를 받은 라오스의 합법적 민족 통일 정부는 와해되고 그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였다.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이며 민족 통일 정부 부수상인 수파누봉이 정당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애국 전선당과 진정한 중립파 세력을 제거하고 친미 반동 분자들로 조작된 이 새로운 《통일 정부》는 평화와 중립의 길로 나아가는 라오스 련립 정부를 미제의 전쟁 정책에 복무하는 도구로 전변시킨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정부》를 《개조》하는 한편 중립파 군대와 우파 군대의 《통합》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옴으로써 중립 세력을 우파에게 용해시키며 그들을 애국 전선당과 대립시켜 라오스 애국 력량의 단결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군대 통합》에 의하여 라오스 중립파 군대 내의 일부 불견실한 층들은 군사 정변의 주모자들의 지배 하에 들어 갔으며 미제의 새로운 전쟁 정책에 리용되고 있다.

오늘 해방 지역을 비롯한 라오스의 광범한 지역에서 미제의 간섭 책동을 반대하여 군중 집회와 시위들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으며 미제와 우파의 통제 하에 있는 진정한 중립파 군대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반대하고 애국 전선당 측으로 대량 의거해 오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은 진정한 중립파 군대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이 항거에 대하여 총포로 대답하고 있다.

미제는 수반나 푸마의 《요구》라는 미명 하에 직접 로골적인 무장 간섭을 감행하고 있으며 애국 전선당과 라오스 중립 세력의 거지들을 폭격하고 수 많은 도시와 마을들을 불사르는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라오스에서 제네바 협정에 기초한 정화가 파괴되고 라오스의 사태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준비되였고 조장되였으며 또 실지로 그들에 의하여 조작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라오스에서의 사태 악화의 원인이 자기들의 간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테트 라오군과 북부 월남군의 공격》에 있다는듯이 사태를 전도하면서 도리여 저들이 마치

도 라오스 사태에 대하여 그 무슨 《관심》이라도 하는듯이 떠들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의 강도적 론리이며 저들의 죄행을 다른 사람에게 들씌움으로써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정당화해 보려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위협》을 념불처럼 떠드는 존슨 정부의 평화 애호 인민들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사회 여론의 규탄을 모면할 수 없다.

지금 미제는 라오스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듦으로써 남부 월남을 비롯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민주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중국, 민주 월남을 비롯한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들과 기타 평화 애호 국가들을 반대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미국 통치자들이 《라오스는 미국에 있어서 사활적인 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며 라오스는 《거의 불가피적으로 미국이 남부 월남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게릴라전의 한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이 지역에서 전쟁 확대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극도의 위기에 처한 동남 아세아 지역 특히는 남부 월남 전쟁에서 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보자는 것임을 잘 말해 준다.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계속 참패를 당하고 있으며 동남 아세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배격 당하고 있다.

그들은 남부 월남에서 10여 년 간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으나 아무러한 결과도 얻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날이 갈수록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 있다. 그들은 오늘 2만 5,000여 명의 미군과 700여 대의 비행기를 포함하여 수 많은 군수 물자들과 현대적 살인 무기들을 동원하여 침략 전쟁에 광분하고 있으나 남부 월남 인민들과 인민 무장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여지없는 참패를 당하고 있다.

악명 높은 호전 장군 테일러의 남부 월남 파견과 지난 6월에 진행된 《호노룰루 회의》 그리고 최근에 있은 존슨의 동남 아세아 《정책 성명》 등은 이 지역에서의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인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조치》에 의하여 그들은 남부 월남 괴뢰들에게 추가적으로 1억 2천 500만 딸라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폭격기를 비롯한 새로운 군수 장비들을 끌어 들여 남부 월남에서의 《특수 전쟁》을 확대하는 한편 라오스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자기들의 위기를 수습해 보려 하고 있다.

백악관의 두목들과 펜타곤의 호전 장군들은 라오스를 완전히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함으로써 또한 민주 월남, 중국 등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침략 기지로 전화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민주 월남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에서 라오스 공군 기지를 리용하였다는 것은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된다.

미제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을 준비하여 왔다.

1954년 인도지나의 평화 회복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후 이 국제적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자기의 주구들을 사촉하여 1958년 7월 그들은 라오스 련립 정부를 전복하고 친민적인 사나니코네 정부를 조작하였으며 1959년 7월에는 수파누봉을 비롯한 애국 전선당 ㅓ

도자들을 체포하고 파테트 라오 전투부대들을 공격케 함으로써 국내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무력 간섭을 감행해 나섰었다.

미제의 이러한 무력 간섭이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와 라오스 애국 력량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파탄되게 되자 1960년 4월에는 보다 철저한 친미 주구인 솜사니트를 내세워 군사 독재 정권을 조작하였으며 12월에는 푸미 노사방을 사촉하여 사반나케트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중립 세력과 애국 전선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내전을 도발하게 하였다.

미제의 침략 책동은 1962년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후 더욱 강화되였다.

그들은 라오스 반동들에게 더 많은 현대적 무기와 군수 물자들을 공급하며 군사 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반역 도당들을 해방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로 내몰았으며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감행케 함으로써 정화 협정을 유린하고 민족 통일 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미제는 바로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라오스에 대한 무장 간섭을 감행하였으며 라오스 인민의 민주적 독립과 평화, 중립을 파괴하여 왔다.

이 모든 것은 미제야 말로 라오스 인민의 첫째 가는 원쑤이며 제네바 협정을 파괴하고 라오스의 독립과 평화를 유린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 준다.

미제가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고 라오스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이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라오스 문제는 벌써 오래 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였을 것이며 라오스는 민족적 화목과 번영의 길로 나아갔을 것이다.

미제의 침략 책동이 계속되는 한 라오스에서의 독립과 평화는 실현될 수 없으며 동남 아세아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

미제는 라오스에서 자기의 군대와 살인 무기들을 걸어 가지고 당장 물러 가야 한다. 그들은 라오스에 대하여 간섭할 아무러한 리유도 없다. 라오스 문제는 라오스 인민 자신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들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라오스 인민의 념원에 부합되고 라오스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된다.

미제의 무력 간섭으로 말미암아 라오스의 사태가 더욱더 엄중하여지고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파괴되고 있는 조건에서 라오스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최근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 부수상이며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인 수파누봉이 언명한 바와 같이 라오스 세 관계측 지도자들의 회담을 시급히 진행하여야 하며 14 개국 제네바 회의 참가국들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것은 1962년 제네바 회의 14 개 참가국들은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제네바 협정의 리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 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수호하려는 진정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제네바 회의 참가국 14 개국 국제 회의 소집을 제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지난 6월에 비엔티안에서 조작한 이른바 6 개국 《비엔티안 협상》은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미제의 책동을 정당화하여 보려는 기만적인 술책인 것이다.

라오스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의 리행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1962년 제네바 회의 참가국의 대다수 나라들을 제껴 놓고 미제의 추종 국가들로만 라오스 문제를 토의한다는 것은 또한 완전히 비법적인 행위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기만 술책으로써도 라오스에서 저지른 저들의 죄과를 엄폐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국제 여론을 오도할 수 없다.

오늘 라오스 인민은 미제의 로골적인 침략 책동에 더욱더 경각성을 높이고 이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궐기하고 있다.

해방 지역을 비롯한 도시와 마을들에서 농민, 청년 학생을 포함하여 애국적 승려들까지도 반미 시위와 군중 집회들을 진행하고 있는바 지난 5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의 기간에만도 이러한 집회들에는 연 46만여 명의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비단 해방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지어 사반나케트 도당들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들과 미 군사 고문들의 통제 밑에 있는 군대 내에서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비법적으로 《통합》된 군대 내의 애국적 중립과 장병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통제를 반대하여 애국 력량의 편으로 대량적으로 넘어 오고 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중립과 군대 내에서 2개의 락하산 대대가 봉기를 일으키고 집단적으로 두응 대좌 휘하의 애국적 중립과 군대에 의거하여 왔다.

애국 전선당을 비롯한 라오스 애국 력량도 급격히 장성 강화되였으며 그들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을 중심으로 하는 애국 전선당은 미제를 몰아 내고 라오스 문제는 라오스 인민 자신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한 군중들을 조직 동원하고 있다.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를 핵심으로 하는 라오스의 광범한 애국 력량은 라오스 애국 전선당의 령도 하에 해방 지역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으며 공격하여 오는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미제의 침입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라오스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의 그 어떠한 정치적 음모 책동과 기만 술책으로도, 현대적 무기의 힘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다.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저지시키며 라오스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은 이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고수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 있으며 싸우는 라오스 인민들에게 전투적 련대성을 보내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 서기국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라오스 내정에 대한 미제의 로골적인 간섭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꾸바 신문 《오이》는 《양키들아, 학살 만행을 중지하라》고 미제를 단죄하면서 싸우는 라오스 인민들에게 굳은

현대성을 표시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유린하고 공공연하게 무력 간섭을 감행하며 또다시 국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를 한결같이 규탄하며 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민족적 화목을 성취하기 위한 라오스 인민의 정의의 애국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다.

조선 인민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라오스 인민은 미제 침략을 반대하고 평화와 중립, 독립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미제는 라오스에서 손을 떼고 자기들의 침략 군대와 군수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 가야 한다. 만약 그들이 라오스 인민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 여론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 계속 침략 책동에 매여 달린다면 조선, 꾸바, 남부 월남에서 당한 것과 같이 라오스에서도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도덕적으로 더욱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분쇄되고야 말 것이다

경 원 형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지지 밑에 영 제국주의자들이 그 주구 라흐만을 사촉하여 꾸며 낸 《말레이시아》는 이 지역 인민들과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강력한 대결 투쟁에 의하여 난항에 봉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조건에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이 《사생아》의 여명을 부지하며 그것을 기정 사실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다.

미제는 《말레이시아》를 둘러 싼 분쟁의 원인이 마치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비타협적인 투쟁에 있는듯이 사태를 외곡하면서 공갈과 압력으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을 저지시키려 하고 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도구인 《말레이시아》의 존속은 이 지역 인민들과 인도네시아 인민들에 대한 큰 재난으로 될뿐만 아니라 동남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애국적 투쟁이며 동남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투쟁이다.

《말레이시아》는 신식민주의의 도구

제국주의는 부패하고 쇠퇴하여 갈수록 더욱더 식민지 통치에 매여 달린다. 그들은 종전과 같이 로골적이며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식민지 통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된 환경에서 보다 교활하고 은폐된 형태로 식민지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강화한다.

그들은 일련의 나라들에 형식 상 《독립》을 《부여》하고는 그 나라들을 《련방》, 《공동체》 또는 《동맹》에 얽매여 놓고 자기들이 길러 낸 괴뢰들을 리용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여전히 이 나라들에 대한 예속과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

영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작된 《말레이시아》가 바로 이러한 신식민주의 수법의 산물이다.

동남 아세아의 이 지역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인민들의 각성이 비상히 제고되고 있는 조건에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종전의 방법으로는 이 지역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였다.

최근 년간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의 투쟁은 비상히 고조되였다.

1959년 사라와크 인민들이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 무장 폭동을 일으켰으며 1962년 12월에는 다시 브루네이 인민이 브루네이 인민당의 지도 밑에 무장 폭동을 일으키는 등 이 지역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게 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이 지역의 《불온한 정세는 영국의 극동 전략 상 골치'거리로 되고 있다》고까지 하면서 저들의 식민지 통치 위기에 대하여 우려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영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역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들의 식민지 체계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상 동남 아세아 특히 《말레이시아》 지역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식

민지 리권이 크게 집중되여 있는 초과 리윤의 원천지이며 대외 침략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 지대이다.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산지이며 주석, 고무 및 기타 자연 부원이 매우 풍부하다. 영 제국주의자들은 이 풍부한 자연 부원을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하고 이로부터 매년 막대한 리윤을 짜 내였으며 또 짜 내고 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현재 말라이의 고무, 야자, 코코아의 80%와 주석의 60%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 지역 수출의 70%와 수입의 75%를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말라이에서만 하여도 매년 이 나라 재정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리윤을 얻고 있는바 1950년부터 1960년까지 기간에 영국 독점 자본이 말라이의 고무와 주석을 략탈하는 데서 얻은 리윤만 하여도 무려 8억 5천만 파운드나 된다.

《말레이시아》 지역은 이처럼 경제적으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고률 리윤의 원천지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반공》의 기지로 되고 있다. 이로부터 영 제국주의자들은 1957년 10월 영국 침략군을 무기한 말라이에 주둔시키는 《대외 방위 및 호상 원조 협정》을 강압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에는 2,500 명의 영 련방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을 영원히 자기의 수중에 장악함으로써 극동에서 중근동에 이르는 《반공》 《포위선》을 강화하며 이것을 《반공》의 《방파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투쟁이 거세차게 앙양됨으로써 과거와 같은 형식으로써는 자기 지배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 영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의 옛 지위를 보존 강화하며 동남 아세아에서의 그들의 음흉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련합하여 통치》하는 수법에 따라 비교적 반동 세력이 《강한》 말라이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를 통합하여 《말레이시아 련방》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을 진보적 세력과 격리시키며 그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압살하려 하고 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도구인 《말레이시아》는 이 지역 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 《련방》과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말레이시아》를 발판으로 인도네시아의 주변에 수많은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고 자기의 괴뢰들을 사촉하여 부단한 파괴 활동을 감행하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를 포위하고 압력을 가하며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인도네시아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며 결국 이 나라를 전복하여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오늘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인민들이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그처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말레이시아》와 미제

영 제국주의자들과 그 괴뢰들이 조작한 《말레이시아 련방》은 오늘 더욱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를 받고 있다.

미제가 이 《련방》을 그처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비호하고 있는 것은 이 《련방》이 자기들의 동남 아세아 정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이 《련방》을 제국주의 군사 블럭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동남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있는 침략 체제를 재편성하는 데 리용하려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미제의 동남 아세아 침략 정책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있으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남부 월남에서의 《특수 전쟁》은 진퇴량난의 궁지에 빠지고 있으며 라오스에

세의 《비밀 전쟁》도 더욱더 수습할 수 없게 되였다.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에 의하여 하루에 무려 200만 달러나 허비하면서 감행해 온 《특수 전쟁》은 남부 월남 인민과 무장대에 의하여 실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있다. 지난 3 년 간에 만도 1,500 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25만 5,000 명의 괴뢰군을 상실하였으며 애국 력량에 대한 《소탕 작전》의 기둥으로 삼아 오던 《전략촌》과 《공수 작전》도 완전히 쓸모 없는 것으로 되였다.

라오스에서도 애국 력량의 장성과 진출에 의하여 미제와 그 괴뢰들의 지반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자기들의 믿음직한 《동맹》으로 간주하여 오던 《세아토》가 분렬되여 마비 상태에 처하여 있다.

미제의 동남 아세아 침략 정책은 수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실로 미제는 《동남 아세아라는 범의 잔등에 올라 앉아 그 대로 타고 있기도 난처하고 뛰여 내리기도 곤난한 처지에 있다.》 (6월 1일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지)

이러한 정세 하에서 미제는 《말레이시아》를 이 지역에서 파탄되고 있는 저들의 침략 체제를 재편성하는 데 리용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레이시아》를 군사 동맹으로 전변시켜 알라스카로부터 일본, 남조선, 대만, 비률빈 및 《말레이시아》 지역에 이르는 군사 전략적 체제를 재편성하며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 《중동 조약 기구》 및 《안쥬스 동맹》과 련결시킴으로써 제국주의의 《반공》 진선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고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에 압력을 가하며 그들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외교적 압력, 경제적 《봉쇄》, 군사적 위협으로써 인도네시아를 부당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괴뢰들을 내세워 《회담 외교》를 벌려 놓음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립장을 변경시키며 《말레이시아》와 《타협》케 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방코크와 최근 도꾜에서 진행된 3 개국 《회담》은 미제의 이러한 술책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미제는 《말레이시아》 분쟁의 《조종자》로 자처하면서 지난 3월 타이의 방코크에서 인도네시아, 비률빈, 《말레이시아》 3 개국 외상 회의를 벌려 놓고 인도네시아에 《타협》을 설교하려 하였다.

미제의 사촉 하에 《말레이시아》는 북부 칼리만탄에 끌어 들인 영국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리여 인도네시아가 이 지역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지 말 것을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적 외교 정책으로도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에 궐기한 인도네시아의 립장을 변경시키며 굴복시킬 수 없었다.

통신 보도들에 의하면 최근 도꾜에서 진행된 3 개국 수뇌자 《회담》도 라흐만의 파렴치한 주장에 의하여 결국 아무런 결과도 달성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외교를 통한 정치적 압력과 함께 경제적 《봉쇄》로 인도네시아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적 《원조》에 허다한 정치적 부대 조건을 붙이며 《원조》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자기의 괴뢰인 라흐만을 사촉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봉쇄》하려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반《말레이시아》 투쟁에 일떠선 인도네시아 인민을 반대하기 위한 책동은 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자기들의 파렴치한 외교적 압력과 경

제《봉쇄》정책으로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반제, 반《말레이시아》투쟁을 제압할 수 없게 된 미 제국주의자들은《조종자》의 가면마저 벗어 던지고 영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최근에는 로골적으로 무력으로 위협해 나서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자기들의 호전 장군과 전쟁 상인들을 이 지역에 빈번히 파견하는 한편 미 제 7 함대의 활동 범위를 인도양에까지 확대하면서 도발적인 군사 연습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영국으로 하여금 북부 칼리만탄에 군대를 증파케 하는 동시에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등 추종 국가들의《군사 원조 사절단》을《말레이시아》에 파견케 함으로써 인도네시아를 공갈하고 있으며《세아토》군대를 쟈바 해상에 동원하여 공공연하게 군사 연습을 감행하고 있으며 지어는 남조선, 대만 등지로부터《의용군》까지 모집하려 하고 있다.

미 법무 장관 로버트 케네디는《만약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 난다면 그것은 지금 남부 윁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전쟁》으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말레이시아를 둘러 싸고 전쟁이 일어 나는 경우》미국은《안쥬스 조약에 따라 자기의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한편 그들은《말레이시아》의 따호만을 사촉하여 군비와 병력을 증강케 하고 있는바 최근《말레이시아》반동들은 21 세부터 29 세까지의 청년들을《징집》하여 인도네시아를 반대하는 데로 내몰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제야말로《말레이시아》의 배후 조종자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파산은 피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공모에 의하여 조작되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이 지역 인민들을 반대하고 착취하기 위한 범죄적 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한 첫날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으며 오늘 파산의 운명에 처하여 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음모 책동에 대처하여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반제, 반《말레이시아》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싸우는 북부 칼리만탄 인민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투쟁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고 한 수카르노 대통령의 호소와《인도네시아가〈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대결 방도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한 아이디트 동지의 호소는 반《말레이시아》투쟁에 궐기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의 반영으로 된다.

작년 9월《말레이시아》의 조작을 반대하여 쟈카르타에서 진행된 시위 투쟁을 시작으로 한 반《말레이시아》투쟁은 오늘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전 인민적 운동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있으며 가일층 조직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파괴 책동에 대처하여 정치, 경제, 군사 및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들의 음모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적 외교 술책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경제적 면에 있어서도《말레이시아》와의 통상 관계를 단절하고 지금까지 제 3 국을 경유하여 통상하던 나라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유항, 자유 통상 지대 및 수출항을 설치하였으며《말레이시아》에 대한 일체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부대 조건이 붙는 일체 외국의《원조》를 배격하고 미 영 독점 자본이 장악하고 있던 일련의 기업소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를 경제적으로《봉쇄》하여 질식시키려던 기도는 파탄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압력과 무

력적 위협을 반대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민족 전선은 《말레이시아 분쇄 행동 사령부》를 설치하고 싱가포르, 말라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고 있으며 일련의 지역들에서는 《말레이시아》를 반대하여 싸울 수 있는 민병 사단들이 편성되여 있다.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2천 5백만 명 이상의 남녀 청년들이 《지원병》 대렬에 참가하고 있으며 북부 칼리만탄 국경 지대에 진출한 인도네시아 병사들은 《손에 무기를 튼튼히 틀어 쥐고 현 위치에서 한 걸음도 물러 서지 않을》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인도네시아 인민의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은 경제, 군사적 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면에서도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쟈카르타를 비롯한 일련의 도시들에서 미국 영화 상영이 금지되고 있으며 미국 대사 존스와 파괴 책동을 일삼고 있는 《평화군》 성원들도 배격 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은 오늘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적극적이며 선봉적 역할에 의해서 가일층 대중화되고 있으며 조직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말레이시아》가 형성되기 전부터 그 계획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고 그 조작을 반대하는 데로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였으며 《련방》이 조작되고 그 침략성이 더욱더 로골화됨에 따라 그를 반대하는 투쟁의 최선단에 서서 당원들과 전체 근로 대중을 이를 분쇄하는 데로 궐기시키고 있다.

오늘 400만의 조직된 로동자들과 640만의 농민 협회 성원들 그리고 각계 각층 인사들이 250만 명의 인도네시아 공산당원들과 함께 이 거족적인 투쟁에 대중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자기 조국의 민족적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분쇄하고 동남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아세아를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세계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며 인도네시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청년 대표단을 포함하여 5 개 대륙의 44 개 국가 및 지역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지난 1월 쟈카르타에서 진행된, 신식민주의자들의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며 북부 칼리만탄의 민족적 독립을 지지하는 국제 청년 회의는 인도네시아와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하고 미 영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며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다.

《전체 조선 인민은 〈말레이시아 련방〉을 분쇄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 용감히 떨쳐 나선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김 일성)

오늘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고 조국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은 조선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에 일떠선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그것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궐기하였으며 세계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카르노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이 한 개의 함대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인민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한 개의 함대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7 함대가 덤벼 든다 하여도 인도네시아 인민은 그것을 분쇄하고야 말 것이다.》

〔문답 학습〕

《미주 국가 기구》는 미제의 침략 도구이다

제 2 하바나 선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주 국가 기구는 미국의 식민지성이며, 군사 동맹이며,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진압하는 도구》이다.

이 기구는 1948년 3월 30일부터 5월 2일에 걸쳐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제 9 차 미주 국가 회의에서 정식으로 성립되였다.

그러나 그 전신은 1890년 제 1 차 미주 국가 회의에서 창설된 미주 공화국 국제 련맹과 이 련맹의 상설 기관인 미주 제국 통상국이다. 그 후 1910년 제 4 차 미주 국가 회의에서는 그것을 범미 련맹으로 개편하였고 1948년 4월 30일 제 9 차 미주 국가 회의에서 《미주 국가 헌장》을 통과시키고 범미 련맹을 미주 국가 기구로 개편하였다.

이 기구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에 이 지역 나라들 간의 《리해의 공통성》, 《호상 련대성》, 《서반구 국가들 간의 단결》, 《법률적 평등권과 완전한 독립 원칙》에 기초한 호상 《사회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의 협력》, 《련대성의 발전》 등의 구호 밑에 조작되였다.

미주 국가 기구의 조직 기구로서는 5년에 한 번씩 소집하는 미주 국가 회의(최고 기관)와 자문 기관인 미주 국가 외상 회의, 상설 기관인 리사회, 《구체적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 회의 등이 있다.

미주 국가 기구에는 미국과 아르젠틴, 볼리비아, 브라질, 꾸바, 도미니카 등 라틴 아메리카의 20 개 나라가 망라되여 있지만 실지 조직 기구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대다수는 미제국주의자들이며 총비용의 70%도 미국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

제 2 하바나 선언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주 국가 기구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지배를 확립하며 날로 앙양되고 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 도구이다. 그것은 미제가 이 기구를 조작한 후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그들이 감행하고 있는 술책들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주 국가 기구를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영국을 비롯한 기타 식민지 소유국을 배제하고 자기의 정치, 경제 및 군사적 지배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을 누었다.

당시 서구라파 나라들에 비하여 뒤늦게 자본주의 길에 들어 선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자기 세력을 라틴 아메리카에로 뻗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이 지역을 분할 강점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구식민주의자들을 쫓아 내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을 하나의 예속의 올가미에 묶어 세우는 것이 필요하였다.

미제는 미주 국가 기구를 창설하면서 그것을 바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할 것을 타산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사실 상 이 기구를 조작한 후 빈번히 회의를 벌려 놓고 일방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자기의 그러한 침략적 야욕을 계속 강요하였다.

그것은 미주 국가 기구 제 1 차 회의에서부터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19 세기 말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손의 개최 하에 소집되였던 미주 국가 기구 제 1 차 회의에서 미제는 《미주 국가 간 관세 동맹 조직》, 《미 대륙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기관 설치》에 관한 2 개 안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남미 시장에 대한 저들의 특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배를 확립하며 이른바 《중재 기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남미에 대한 자기 세력을 더욱 확장하려는 것이였다. 이것은 대표들의 일치한 항의에 의하여 전부 부결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후에 있어서도 미 제국주의자들은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으로써 2 차 대전 전까지 무려 8 차(1890년부터 제 2 차 대전 전까지)에 걸치는 미주 국가 회의와 기타 일련의 모임들을 벌려 놓고 이러한 파렴치한 술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결과 미제는 이 시기에 와서 벌써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구라파 세력들을 구축하고 거의 대부분을 독차지하였다.

특히 2 차 대전 후 미제는 이 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적 략탈의 희생물로, 미 독점 자본의 중요한 자본 투자지로, 값싼 원료 공급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방면에 걸친 침략 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였다.

1951년 3월 26일 미주 국가 외상 회의에서 미제는 남미주 제국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며 전쟁 준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군사 경찰, 경제 《협조》에 관한 10여 개의 결의를 강제로 통과시켰다. 1957년 8월에 진행한 미주 국가 기구 경제 리사회 회의에서 미제는, 미국의 경제적 침투를 제어하기 위한 《라틴 아메리카 공동 시장》을 창설할 데 대한 중미 국가 경제 대표들과 기타 라틴 아메리카 대표들의 합의된 제안을 파괴하고 그 후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중미 자유 통상 지대》와 《경제 통합》을 조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중미 국가에로 미국의 상품을 자유롭게 투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지역의 값싼 원료와 로동력을 리용할 수 있는 공장들을 마음 대로 건설할 수 있게 하였다.

케네디가 내놓은 신식민주의 올가미인 《진보를 위한 동맹》도 바로 1961년 8월 17일 우루과이에서 열린 미주 국가 기구 경제 사회 리사회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렇듯 미주 국가 기구를 통하여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정치적 및

경제적인 통제자로 등장하였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의 농산물과 채굴공업, 전기 공업, 가공 공업, 철도, 항구, 전신, 전화 등 거의 대부분이 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으며 이곳에서 그들은 실로 막대한 리윤을 긁어 가고 있다. 제 2 하바나 선언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로부터는 돈이 끊임 없이 미국으로 흘러 나가고 있다. 1 분에 거의 4,000 딸라, 하루에 500만 딸라, 1 년에 20억 딸라, 매 5 년에 100억 딸라가 흘러 나간다》고 쓰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주 국가 기구를 다만 경제적 침투와 략탈의 도구로써만 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 기구를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류혈적 탄압과 대외 팽창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도 리용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주되는 내용으로 되고 있다.

특히 꾸바 혁명이 승리한 후 그들은 《반공》과 《민주주의 안전》의 구호 하에 자기의 추종 국가들을 동원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첫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집단적 간섭과 도발 행동을 감행하면서 저들의 반꾸바 침략 책동을 정당화하여 중미 지대를 반꾸바 침략 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데 이 기구를 리용하고 있다.

1954년 3월 1일 제 10 차 미주 국가 회의에서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 제국에 대한 압력과 통제를 강화하며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할 목적 밑에 있지도 않는 국제 공산주의 《간섭》이라는 구실 하에 《반공산주의》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저들의 예속으로부터 자립적인 독립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였다.

1960년 8월에 코스타 리카의 수도에서 진행된 미주 국가 외상 회의에서는 꾸바 내정에 간섭하며 미주 국가들로부터 꾸바를 고립시키기 위한 깜빠니야를 조직하며 하였으며 미국 전 대통령 케네디의 제의에 의하여 1962년 10월 23일에 소집된 미주 국가 리사회에서는 꾸바에 있는 미싸일 기지를 즉시 해체하며 꾸바에로의 《공격용 무기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무력을 사용할 데 대한 미 국무 장관 러스크의 제안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일체 무력들을 자기의 지배 하에 두기 위한 책동까지 감행하고 있다.

1962년 4월에 미주 국가 기구 리사회 특별 회의에서는 미국 괴뢰군의 예속물인 첫 범미 군사 기구 《미주 방위 위원회》를 조작하였으며 작년 3월에 소집된 《중미 국가 대통령 회의》에서는 꾸바 침공을 위한 《련합 전선》을 형성하려는 흉계를 꾸미였다. 그리고는 미 《군사 고문》의 지휘 하에 미주 국가들의 륙해군의 공동 군사 연습들을 빈번히 벌려 놓고 있다.

1962년 8월 페루 해안에서는 미국, 아르헨틴 및 우루과이 해군의 참가 하에 《우니타스-3》이라는 해군 훈련과 남부 태평양에서는 칠리, 콜롬비아, 에꾸아도르 및 미국 해군들의 공동 군사 연습이 진행되였고 같은 해 9월 혼듀라스에서는 증강된 전략 공군의 지원 하에 항공 운수 부대가 참가한 반유격전 군사 훈련이 진행되였다.

미주 국가 기구를 통한 미제의 이러한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및 군사적 예속화 정책에 의하여 이 지역 인민들은 오늘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겪고 있다. 석

유, 동, 주석, 철, 망간 등 풍부한 지하 자원들과 넓고 기름진 옥토를 가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오늘 무서운 굶주림과 기아, 인간 이하의 민생고에서 헤매고 있다.

미국 잡지 《뉴스위크》도 《라틴 아메리카의 2억 인구 중 근 반수는 매일 밤마다 주린 창자를 그러안고 자리에 누우며》, 《불치의 병도 아닌 병으로 죽었거나 늙기도 전에 쇠약하여 죽은 사람은 1분에 4명, 하루에 5,500명, 1년에 200만 명, 매 5년에 1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미주 국가 기구가 미제의 하나의 신식민주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불행의 화근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속에서는 날이 갈수록 미주 국가 기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1963년 멕시코 기술자 로소는 성명에서 미주 국가 기구 리사회의 《결정》은 라틴 아메리카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구실이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유린》으로 된다고 규탄하였으며 같은 해 6월 볼리비아 외상은 이 기구에서 볼리비아가 탈퇴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특히 지난 7월 21일 워싱톤에서 진행한 미주 국가 외상 회의를 앞두고 7월 13일 아르젠틴 학생들은 이 번 회의에서 자국 정부가 꾸바에 대한 외국의 간섭 행동을 반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르젠틴 종합 대학 학생 련맹 대표단은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고 미주 국가 기구가 꾸바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 이와 같이 날로 각성되고 있는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미주 국가 기구는 반드시 분쇄될 것이며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자유의 날은 도래할 것이다.

윤 수 삼

근 로 자 제 15 호 (루계 253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8월 3일 발 행 • 1964년 8월 5일
ㄱ—430482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6호

8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6 호 (254)
1964년 8월 (하)

(반 월 간)

차 례

학풍을 수립하자

공산주의자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 투사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부단히 학습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혁명 임무이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의 학습에 대하여 항상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김 일성 동지는 최근에 있은 평남도 당 전원 회의에서 또다시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였다.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하는 것—이것은 현시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자체가 요구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정치 의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이 훨씬 제고되였다.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급속한 변화 발전은 혁명의 지휘 성원인 간부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지도 능력을 그에 상응하게 빠른 속도로 높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는 현 시점에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이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하여 왔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전 당이 학습할 데 대한 문제를 초미의 문제로 제기하고 지도 일'군들의 정치 리론 실무 수준을 최단 기간 내에 급속히 제고시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특히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조선 혁명 수행에서 달성한 위대한 승리와 함께 당 사상 사업,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를 총화하고 전 당이 학습할 데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리 하여 전 당에 학습하는 기풍이 서게 되고 간부들 속에서 학습 열의가 높아졌으며 일'군들의 리론 수준과 지도 능력이 급속히 제고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일군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지도 능력을 그에 따라 세울 데 대한 요구는 여전히 우리 앞에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것은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더 높은 단계에 들어 선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들어 섰다. 지금은 빈 주먹을 가지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던 때도 아니며 호미와 낫만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때도 아니다.

우리의 인민 경제는 그의 규모가 전례 없이 방대해지고 더욱 조직화되였으며 기술 혁명이 추진됨에 따라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선진 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였다. 큰 규모의 협동 경리로 전환된 농촌에서도 수리화,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기계화와 화학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 앞에는 또한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해결하여야 할 더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기본 과업,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로동 계급의 지원 하에 농촌에서도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더우기 우리는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후반기의 전투적 과업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투쟁에서 다시 한 번 커다란 비약을 일으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한다.

실로 우리 사회는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으며 할 일은 많아지고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매개 일'군들이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지식을 습득함이 없이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며 경제를 관리 운영하기 어렵게 되였다.

현시기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한 요구가 그렇게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또한 조성된 혁명 정세와도 관련된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이 날로 로골화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분렬 책동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지도 일'군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는 것은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기치를 고수하며 조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한 문제—이것은 오늘에 와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우리 혁명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로 되였다.

오늘 당의 통일과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화되고 전 당과 전 사회에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당의 령도 하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는 현 조건 하에서 일'군들의 지휘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열'쇠로 된다.

그러므로 현시기 우리 당은 중앙의 간부들로부터 공장과 농촌의 지배인, 관리 위원장, 작업반장에 이르는 모든 지도 일'군들이 각종 교육 체계에 망라되거나 자체 학습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광범한 지식을 소유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 교양망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자기가 어느 부문에서 일하거나를 막론하고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그 뜻을 높이 받들고 자체 학습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를 개조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자면 우선 간부들 자신부터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여야 하며 사회의 발전 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가 학습하지 않고서는, 즉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298 페지).

모든 일'군들은 우선 어떤 복잡한 조건 하에서도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깊이 연구 체득하여야 하며 더우기 현시기 우리의 주요한 혁명 과업인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매개 일'군들이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리론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정치 활동가로 될 수 있으며 군중을 확신성 있게 옳은 길로 이끌고 나갈 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특히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인 우리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심오하게 학습하여야 한다.

당 정책과 수상 동지의 로작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야만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일편단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우는 당'적 사상 체계로 튼튼히 무장할 수 있으며 어느 때,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여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적 립장, 계급적 립장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정치 지식 뿐만 아니라 오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경제 지식과 기술도 습득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우리 일'군들이 높은 경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함이 없이는 발전된 대규모 사회주의 경리를 옳게 운영할 수 없으며 전면적 기술 혁명을 강력히 촉진시킬 수 없다.

《기술 혁명의 시대에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병신이나 다름 없다.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상의 기술과 과학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다》(김 일성,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 기술 혁명의 시기에 상응하게 우리 일'군들의 지도 능력을 급속히 제고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이 모든 과업은 오직 전 당에 철저한 학풍을 수립할 때에라야만 성과 있게 해결될 수 있다.

일'군들 속에서 학풍을 철저히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은 학습에 대한 그들 자신의 자각성을 높이는 것이다.

오늘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이 학습해야 할 량은 많은데 사업은 바쁘고 시간은 매우 긴장되여 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하는 시간이란 따로 주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형편에서 학습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각오 여하에, 학습에 대한 자각성 여하에 달려 있다.

모든 일'군들은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더는 전진할 수 없으며 맡겨진 혁명 임무를 감당해 낼 수 없으며 결국은 당 앞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쉬임 없이 일하면서 배워야 하며 배우면서 일하여야 한다.

항일 빨찌산들은 원쑤들과의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도, 무서운 기아와 추위가 시시각각으로 엄습하는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한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꾸준히 배우고 또 배웠다.

그들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 가는 의무이라는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혁명적 리론과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모든 정력을 쏟아 바쳤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의 이 훌륭한 학습 기풍을 본 받아야 한다.

혁명을 위하여 쉬임 없이 투쟁하며 끊임 없이 배우는 것—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의무이며 고유한 품성이다.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혁명 투쟁을 피하거나 중단하는 것과 같다.

오늘 당은 학습하는 것을 당원들과 간부들의 당성의 기본 척도의 하나로, 당 생활의 기본 문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모든 간부들은 학습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동시에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학습하여야 하며 그것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책임적 지위에 있는 일'군들은 그가 당 앞에서 맡고 있는 혁명 임무와 그의 위치로 보아 응당 누구보다도 더 잘 학습하여야 하며 이신작칙하여야 한다.

학습에서의 책임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해당 기관, 기업소 일'군들의 학습에 강한 자극을 주며 그들 속에서 학습을 생활화하고 철저한 학풍을 수립케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 일'군들은 우선 자기 자신이 학습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는 동시에 학습 계획의 수립으로부터 그의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모든 일'군들의 모범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학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학습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학습에 대한 당 조직들의 목적 의식적인 지도와 통제는 학습 기풍을 더 공고화할 수 있게 하며 학습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게 한다.

학습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은 정상적인 총화이다.

총화는 간부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당 조직들로 하여금 그들의 학습 정형을 정확히 료해할 수 있게 하며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조를 줄 수 있게 한다.

특히 자습을 기본으로 하는 방향으로 학습 방법을 전환시키고 있는 오늘 간부들의 학습에 대한 정상적인 총화는 학습 조직에서의 기본 문제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당은 간부들이 일상적으로 공부하는가 안 하는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 조직들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 체계에 망라되여 있는 일'군들은 거기에서 빠짐 없이 시험을 치게 하며 당 교양 망에 망라되여 있는 일'군들도 정상적으로 자기의 학습 정형을 총화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당 조직들은 간부들의 학습 정형이 그들의 당 생활 총화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되게 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그야 말로 자각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학습하고 총화하는 데 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당 조직들이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의 하나는 간부들의 자습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매개 간부들은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한 목표와 계획도 없이 이것 저것 닥치는 대로 학습한다면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으며 학습에 대한 흥미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체계적인 학습은 반드시 당면 학습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만 체계적인 학습이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되면서 실천적 문제와 잘 결부될 수 있으며 또한 당면 학습도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당 조직들은 매개 일'군들의 준비 정도, 희망, 사업의 특성들을 잘 고려하여 그에 맞게 학습 방향을 바로잡고 전망 학습 목표와 당면 학습 계획을 정확히 세우며 계획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풍을 수립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학습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습에 시간을 많이 돌리는 것만 가지고 학풍이 섰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학습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실속 있게 하며 학습이 혁명적 실천에 도움을 주도록 될 때에만 학풍이 옳게 수립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에 깊이 파고 들지 않고 겉만 핥는 형식적인 학습, 실천적 문제와 유리된 학습은 아무리 많이 하여도 소용이 없다.

당은 오늘 간부들과 당원들의 학습에서 리론적으로 더욱 깊이 파고 들며 학습을 실천적 문제의 해결에 더 잘 복종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일'군들이 학습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고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혁명 정세를 옳게 분석하고 리해할 수 없으며 우리 당 정책의 본질을 리론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없다.

학습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당 정책의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당 정책 학습을 심화시켜 당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리론적으로 심오히 파악하며 거기에 구현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보편성과 창조성, 실생활에서의 그의 구현 방도를 똑똑히 인식할 때에만 우리는 습득한 리론을 혁명적 실천에 옳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기술 지식을 학습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끝으로 일'군들 속에서 철저한 학습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학습에 필요한 수단인 학습 자료들을 옳게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 지도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오늘 학습이 자습으로 전환된 조건하에서 학습 자료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매개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들이 차례지도록 하며 그의 질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 조직들은 매개 단위에서 선전 핵심들, 학습 지도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의 학습을 옳게 방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풍을 확립하는 것은 오늘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긴절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높은 자각성과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여 학습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매개 당 조직들은 학습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지도 능력을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까지 급속히 끌어 올림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추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사회주의 경제 법칙

김 상 학

사회주의 하에서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경제 법칙들을 옳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 문제이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당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과거에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이미 전후 짧은 기간 내에 튼튼한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오늘은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면서 발전된 공업 국가에로의 전환 도상에 있다.

전쟁 전과 전후의 두 차례에 걸쳐,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는 어려운 과업이 수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에 우리 나라 공업 총생산액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수준을 32 배로, 일제 말기인 1944년 수준을 11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급속히 장성하는 공업의 지원 하에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났다.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고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됨으로써 알곡 생산은 해방 전에 비하여 근 2 배로 장성하였으며 식량은 완전히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다.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축성에서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형제 국가들과의 호상 협조와 분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것은 세계 평화와 반제 력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신생 독립 국가들과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되였다.

지난 7월에 평양에서 열린 제 2 차 아세아 경제 토론회 참가자들은 우리의 성과와 경험에 커다란 공명을 표시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성과가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며 앞으로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지향하고 있는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에게 고무적 힘으로 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이,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우리 혁명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자립 경제 건설 로선의 정당성—이것은 이미 생활에 의하여 확증되였으며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로 되였다.

그런데 최근 시기 일부 사람들은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건설하고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폐쇄 경제》니, 《경제의 고립화》니 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회주의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듯이 비방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 협조에서 새로운 단계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체계 전반의 범위에서의 《단일한 경제 기구》의 창설과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통합 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가 자주적인 민족 국가 단위로 건설되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와 여기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들에 대한 그릇된 평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리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편에 있어서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를 규정하는 합법칙성을 외곡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하는 정확한 길이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와 국제적 협조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1

사회주의가 국가 단위로 건설되는 현 조건에서 매개 나라들의 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과 경제 구조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내에서 작용하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객관적 요구에 의하여 규정된다.

물론 오늘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된 조건 하에서 이 진영 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것은 매개 나라들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결정적으로 그 나라 자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경제 법칙에 의거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전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과 확대 재생산의 법칙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 매개 나라들에서 확대 재생산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자주적이며 종합적인 인민 경제 체계의 형성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특징은 인민 경제를 선진 기술로 장비하고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있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이러한 특징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 및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법칙의 작용과 함께 우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여야 하며 또한 그것이 인민 소비품 생산의 높은 장성과 밀접히 결합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반드시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적 중공업 기지를

튼튼히 육성하는 동시에 인민 소비품 생산 기지를 강화하며 농촌 경리를 선진 기술로 장비된 식량 및 원료 기지로 전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은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촌 경리 발전 간, 가공 공업과 채취 공업 발전 간의 정확한 균형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 법칙은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의 법칙과 함께 국내의 자연 부원 및 각종 물자 자원과 사회적 로동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생산을 원료, 연료 원천과 로력 자원 및 제품 소비지에 접근시킬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총체적으로 보아 사회주의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각각 자기의 력사적, 경제적 및 자연적 제 조건에 의하여 일정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되여야 하며 지방 경제 단위들에서까지도 각기 그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요구로 되는 인민 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은 사회 생산력 발전의 일반적 추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그것은 사회 생산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분업이 심화되며 자연 부원의 리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생산 부문이 부단히 창설되고 이에 따라 인민 경제의 다방면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 경제가 모두 자립적인 경제 단위로,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제국주의자와의 투쟁에서 매개 나라들이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하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세계에서 국토가 매우 크고 인구가 많은, 특수한 몇몇 나라들에서만 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생산 전통이 있거나 또는 자연 경제적으로 유리한 일부 제한된 부문들만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리론에 의하면 국토가 크지 않은 나라들에서 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큰 규모의 기업은 건설할 수 없으며 높은 수익성과 로동 생산 능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력사에서 론박된 지 오랜 기업의 《거대광》 또는 《최상 규모 리론》에 기초하는 이와 같은 리론이 오늘에 와서 또다시 되풀이 선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우리의 경험은 국토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들에서도 공업을 능히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 그것이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담보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는 행정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관철시킴으로써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함께 현대적 경공업 및 농업 생산 기지를 창설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켰다.

우리는 인민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내의 모든 자연 부원과 로력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국내에서 필요한 생산 수단과 인민 소비품을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생산 보장하였다.

만일 대규모 기업소의 유리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강철 공장은 년산 1천 200 만 톤, 자동차 공장은 년산 8만 대 이상인 경우에만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킨다면 많은 나라의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기업소의 규모는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각이할 수 있다. 기업소의 규모는 국내의 모든 자원과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 리용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되여야 한다.

생산의 자연 경제적 조건과 전통도 결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

또한 수익성과 로동 생산 능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물론 개별적 기업소의 범위에서 엄격히 타산되여야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하게는 전체 인민 경제적 견지에서 타산되여야 하며 또한 목전의 리익과 함께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적 견지에서 고찰되여야 한다.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던 시기에 일부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건설한 뜨락또르 및 자동차 공장들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전면적 기계화를 보장하며 인민 경제 전체의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제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에 의하여 가까운 장래에 농촌 경리에서 현대적 기계화가 완성될 것이다. 만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이 몇 배나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이제 와서 더욱 명백한 사실로 되였다.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국내에 튼튼한 원료 기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일찌기 레닌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모든 종류의 가장 중요한 원료 및 산업을 독자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보장》(선집 제27권, 403 페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튼튼한 원료 기지를 조성함이 없이는 가공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업을 안정성 있게 발전시킬 수 없다.

현대 공업의 발전 과정에서 가공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부합되게 원료 생산을 증대시키고 원료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여 왔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가공 공업의 발전에 요구되는 원료를 주로 식민지 및 후진 국가들에 대한 략탈에 의하여 해결하였으며 또 해결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는 그 본성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도를 취할 수 없다.

특히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나라의 공업화에 기초하여 중요 가공 공업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조건 하에서 그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오래 동안 원료 공급 지대 또는 농업 지대로 남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나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 행정에서 자연 부원을 호상 교환 리용하며 호상 협조하되 우선 국내에 공고한 원료 기지를 최대한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채취 공업과 금속 및 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 농촌 경리의 다각적 발전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 발전의 방향과 나라의 경제 구조가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요구에 정확히 적응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확대 재생산의 속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인민 경제 발전의 빠른 속도를 보장하며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는 담보로 된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행정에서 인민 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된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에 대한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과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던 전후 년간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는바 1954~1963년 간에 공업 총생산액은 15 배로 장성하였다. 특히 제 1 차 5 개년 계획 기간은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의 공업 생산 년 평균 증가 속도는 실로 36.6%에 달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7 개년 계획 기간에도 경제 발전의 매우 높은 속도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 인민 경제의 비상히 빠른 발전 속도를 실현하게 한 중요한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 인민 경제 발전에서 국내의 모든 자원과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사회적 로동을 극력 절약할 수 있게 한 데 있으며, 둘째로 우리 나라 실정과 우리 혁명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경제 건설을 조직하며 특히 경제 발전에서 속도와 균형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게 한 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국가의 경제력을 공고한 토대 우에서 급속히 강화 발전시켰고 장구한 식민지 통치와 가혹한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되였던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단시일 내에 안정시켰으며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제반 사실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이 법칙들의 작용을 무시한다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커다란 저해를 가져 오리라는 것을 증시한다.

2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의 성격과 현시기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경제적 련계에서의 합법칙적 요구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사회주의는 이미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강대한 세계적 체계로 되였다. 따라서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은 과거에 쏘련이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극히 어려운 조건과는 다른, 유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계급적 동맹체로서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 인민들 간의 련계와 접근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경제, 문화 발전에서 자기의 거대한 우월성을 실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일부 사람들은 통일적인 계획 밑에 경리를 운영하는 하나의 세계적인 협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맑스주의 력사적 유물론과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는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인 견해이다. 이것은 오직 환상에 사로잡혀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의 성격에 대한 심히 그릇된 판단에서 나왔거나 또는 앞선 나라가 뒤진 나라들을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좌지우지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류 사회 발전에서 국가적 한계와 민족적 차이가 없어지는 로정은 점차적인 단계를 거치는 매우 장구하고도 복잡한 과정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위대한 레닌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에로 전체 인류를 고무하면서도 그 어느 때나 이 과정을 그렇게 단순화하지 않았으며 여러 나라 사이의 민족적 차이와 국가적 한계는 《심지어 전 세계적 범위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실현된 후에 있어서도 매우 오래 동안 존속하게 될 것》(전집 제 31 권, 98 페지)이라고 교시하였다.

그러면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의 성격은 어떠한가?

우리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는 사회주의를 독립된 국가 단위로 건설하며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의 자주성과 평등권을 존중하며 민족 경제의 자립성을 확립하는 단계이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 인민들 간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계와 접근을 강화하는 단계이라고 인정한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동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나 이 나라들에서의 경제 발전 수준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매개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당면한 혁명 과업,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도 동일하지 않으며 매개 나라의 전통과 풍습도 동일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앞으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 서는 나라들이, 더욱더 증대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우기 그러

하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나라가 동일한 방도와 방법으로, 그리고 동일한 속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 모든 사정은 현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 내 인민들이 공동의 목적과 사상에 의하여 호상 협조하고 원조하되 사회주의를 독립 국가 단위로 건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회주의가 독립된 국가 단위로 건설되는 현 조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생산 수단은 그 소유의 형이 동일하나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 내 국제적 범위에서 공동적인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매개 나라에서 생산된 국민 소득도 국제적으로가 아니라 국가적 범위 내에서만 계획적으로 분배된다. 사회주의 국가 근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서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의 실현도 원칙적으로 각기 자기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 자체의 경제력에 의존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내 국가들의 관계에서는 인민 경제 계획화의 정치적 전제로 되는 중앙 집권적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는 달리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사회주의 진영 내 국제적 범위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그 요구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물론 오늘 인민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는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례컨대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형제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유무 상통하며 그 경제적 련계를 일정한 전망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더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그들 간의 경제적 련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 련계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국제적 범위에서 직접 작용하기 대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련계를 맺는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작용하는데 기초하여 인민 경제가 국내에서 확고하게 계획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요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의 계획적 성격은 한 나라 안에서 인민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그것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진정한 평등과 자주성의 보장,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립각한 호상 협조와 원조의 강화는 이 나라들 간의 호상 관계와 경제적 련계에서 확고한 법칙으로 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계획적인 련계는 이러한 법칙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는 동시에 매개 나라의 자립적인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객관적 요구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것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에 있어서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인민 경제의 균형을 전체 사

회주의 경제 체계에서의 단일한 계획과 종합적 균형에 복종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의 견해가 전혀 무근거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국제적 범위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작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전체 사회주의 경제 체계에서의 단일한 계획의 설정을 주장하는 것은 《통합 경제》를 옹호하기 위한 한개의 고안에 불과하다.

이러한 견해는 결국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과 확대 재생산의 법칙의 작용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당한 견해이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과 소비재 생산 간, 공업과 농업 간, 축적과 소비 간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함이 없이는 인민 경제를 일보도 전진시킬 수 없다.

만일 경제 발전 수준이 각이하고 생산 기술적 조건이 같지 않은 개별적 나라들의 경제를 《통합 경제》의 단일한 계획과 균형에 맞추어 넣는다면 매개 나라들은 자기의 경제 발전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기동적이며 능동적인 경제 지도 사업을 보장할 수 없고 각이한 경제 발전 속도, 특히는 자기 실정에 맞는 높은 발전 속도를 실현할 수 없다. 더우기 이렇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뒤떨어졌거나 작은 나라의 생산 구조와 부문 균형은 발전된 나라의 그것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의 성격을 외곡하고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를 그 어떤 초국가적인 계획에 복종시키려는 《통합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작은 나라들의 리익을 희생시키고 크고 발전된 나라들의 리익을 추구하려는 민족 리기주의적 표현으로 밖에는 달리 리해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거부하는 것이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며 매개 나라의 맑스-레닌주의당들이 지닌 혁명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독자적 립장에서 주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자립 경제 건설을 거부하는 것은 매개 나라가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서 그가 처한 구체적인 환경에 따라 독자적인 대내외 정책을 실시할 수 없게 한다.

또한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주권의 존중 평등과 협조 호혜의 원칙을 떠난 국교 관계를 초래케 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과 친선 관계를 손상시키며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공고 발전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주성과 민족 경제의 자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시도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강화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 막대한 저해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국가의 자주권과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우선 자기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원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야 하며 모든 형제 나라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여

야 한다.

이것은, 매개 나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질적으로 촉진시키며 나아가서는 점차 그들 간의 민족적 차이와 국가적 한계를 없애게 하는 력사적 과업의 실현을 앞당긴다. 력사 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 과정은 《인류가 피압박 계급 독재의 과도기를 거쳐서만 계급의 페절에 이를 수 있는 것과 같이》(레닌 선집 제 22 권, 189 페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변증법적 로정으로 된다.

상술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건설에서 자립성을 저해하며 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통합 경제》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초국가적 계획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이상에서 말한 모든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국제적 협조, 사회주의 국제 분업과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질 수 있다.

사회주의 국제 분업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호상 통일 속에서 발전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하에서의 국제 분업은 락후한 나라 및 신생 독립 국가들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대립된다. 자본주의적 국제 분업의 후과로 인하여 지난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현대적 공업이 건설되지 못하였으며 이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세계의 농업 지대 또는 광업 지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제 분업은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와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매개 나라의 경제가 자립적으로 더 잘 발전하도록 보장한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발전은 형제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조와 국제 분업을 더욱 공고한 토대 우에서 확대하며 그를 다방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초를 조성한다.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국제 분업과 국제적 협조를 더 잘 하는 길이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 발로 든든히 선 자립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회주의 국제 분업에 더욱 광범히, 더욱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경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명백히 실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강화되고 나라의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련계와 분업도 확대 심화되였다.

례컨대 1954~1963년에 사회주의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외 무역 류통 총액은 약 6 배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사회주의 국제 분

업과의 통일을 실현하는 기본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자체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기초 우에서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경제적 및 기술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이 나라들과의 국제적 분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선집 제 5 권, 173 페지).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국제 분업과의 통일은 오로지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사회주의 국제 분업을 발전시키는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제 인민들 간의 협조와 접근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본질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제 분업의 본질적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다.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사회주의 국제 분업을 발전시키는 원칙은 또한 이미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맺어지는 계획적인 경제적 련계의 성격, 경제적 련계가 매개 나라의 계획적 발전, 자주적 발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견지에서도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민족 경제 발전을 《사회주의 국제 분업》에 종속시키려는 견해는 본질 상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에 자본주의적 국제 분업의 관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결국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부인하려는 부르죠아적 리론인 것이다.

최근 시기 일부 사람들은 또한 이와 같은 심히 그릇된 《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의 다방면적, 종합적 발전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거부하면서 세계 사회주의 체계 내에서 단일한 경제 기구와 초국가적인 통일 계획에 기초하는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요하는 견해를 류포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는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국제 분업과의 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은 나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련계를 더욱더 확대하며 필요에 따라 형제적 국가들과 생산의 전문화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전통》과 자연 조건 또는 일시적이며 국부적인 수익성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등에 빙자하여 매개 나라 경제에서 그 어떠한 부문 구조를 소위 합리적인 것으로 고착시키고 그를 계속 유지케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생산의 전문화는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생산의 전문화는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의 자립적 발전, 특히 력사적으로 락후하고 일면적인 경제를 물려 받았던 나라들에서 현대적인 강력한 공업 국가에로 전환하는 것을 저애하며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위력 강화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 온다.

국제적 범위에서의 이와 같은 생산의 전문화를 실현하려는 온갖 시도는 경제

발전에 대한 비과학적 견해에 기초한 것이며 현실에서 반드시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제국주의 기반에서 해방되여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도 현실적 과업으로 이미 실천에 옮겨지고 있으며 사회적 진보와 민족적 독립을 지향하는 인민들 속에서 그에 대한 요구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며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을 더욱 성과적으로 완수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 내 형제 국가들, 그리고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과의 호상 협조와 원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의 극복에 대하여

리 주 명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들어 가기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에는 과거 사회에서 이루어진 대립과 착취 관계로 하여 본질적 차이가 생겼다.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전면적 개조는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에 존재하던 대립의 근원을 없애 버렸다.

이것은 두 로동 사이에 존재하던 차이 극복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또한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건설은 그 차이 극복을 필연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과 더불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의 극복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 론문에서는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의 극복 문제를 전면적인 기술, 문화, 사상 혁명; 천리마 작업반 운동; 생산과 결합되는 교육 체계의 확립 등의 문제와 결부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다 아는 바와 같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분리, 대립은 사회 발전의 일정한 단계 즉 계급 사회의 출현과 때를 같이 하였다.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의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은 분리, 대립을 몰랐으며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발생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발생되자부터 정신 로동은 소수 특권층(착취 계급)의 독점물로 되고 대다수 피착취 대중에게는 육체 로동만이 운명 지어졌다. 착취 계급은 경제적, 물질적 수단 뿐만 아니라 정신 문화적 수단까지 독점함으로써 피착취 근로 대중으로 하여금 과학 문화의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여 정신적으로 무지와 몽매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사'적 소유에 의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이와 같은 대립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극도에 달하였으며 따라서 그 사이의 본질적 차이도 이 때에 와서 가장 심하게 생기였다.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착취할 목적으로 착취자들이 정신 로동을 독점하는 것—이것이 바로 계급 사회들

일관하고 있는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의 본질이며 그 사이에 더욱 더 심연을 만드는 근원이다. 따라서 이 대립의 청산 방도, 이 차이의 극복의 전제—그것은 착취 제도의 청산이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청산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와 착취 제도의 청산은 착취 계급에 의한 정신 로동의 독점을 완전히 청산하였으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의 근원을 뿌리 뽑았다. 이것은 또한 이 두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없앨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 기초하여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함으로써만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야 할 필요성은 우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 수준을 요구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이 잘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축성은 근로자들의 로동 활동에서 지적 활동을 부단히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즉 현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화, 자동화는 제한된 몇몇 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여기에는 생산자 대중의 높은 기술 문화 수준이 동반되여야 한다.

생산자 대중 즉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민 경제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참가하며 자동화된 공장, 기업소를 능히 움직일 수 있는 높은 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로부터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기술 일'군들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며 나아가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필연적 요구로 된다.

다음으로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야 할 필요성은 우리가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사람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하여야 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장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의 제거도 요구하며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요구한다. 즉 사람들이 낡은 사회에서 분업에 예속되여 불구화되고 일면적으로 발전된 상태를 극복하고 모두가 능력과 희망에 따라 임의의 로동 활동에서 높은 생산 능률을 낼 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이 과정은 근로자들이 로동에서 육체적 기능을 발전시킴과 더불어 기술적 정신 로동과 과학 문화적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되며, 기술 문화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자신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된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발전만이 고도로 자동화된 공산주의 하에서의 기술 로동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차이의 극복은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된다.

2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기본 열'쇠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는 것이

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추진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다. 이 세 가지 혁명 과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성과적으로 진행한다면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도 없앨 수 있다.

기술 혁명의 수행은 근로자들의 과학 기술 수준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마련해 준다.

공업 분야에서 선진적 기계 기술이 도입되고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가 실시되면 로동자들은 힘든 육체 로동에서 벗어나 기대의 조절자로, 감시자로 다시 말하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을 겸비한 사람으로 되게 될 것이며 기술 문화 수준 제고와 휴식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로동자의 로동 활동에서 지'적 능력의 비중이 증대되고 육체의 일면적 발전이 점차 없어질 것이다.

농업에서도 기계가 손로동을 대신하여 농사를 짓게 되고 화학화가 진척되여 김매기를 대신하게 되면 농민들은 점차 기술, 기계의 운영자로 될 것이다. 이것은 농촌에서도 8 시간 로동제를 실시하고 나아가서는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앨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도 고된 일에서 벗어나 과학과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매 개인이 자기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리 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의 분리가 제거되고 량자 간에 긴밀한 련계가 보장될 것이다.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의 극복에서 문화 혁명의 수행은 특히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의 제고가 바로 문화 혁명의 기본 내용을 이루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높은 기술을 가지게 하자면 그들의 문화 수준을 일정한 정도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 현대적 기계를 능히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는 사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기술 문화 수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을 그 만큼 더디게 할 것이다.

근로자들을 무지와 몽매 속에 집어 넣고 극소수 유산 계급의 자제들에게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교육 제도와는 달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 혁명과 교육의 방침은 도시,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특히 젊은 세대들을 지, 덕, 체가 겸비된 유능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것을 그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과 육체적 능력을 소유한 진실로 인민적인 인테리를 대대적으로 산출하는 담보로 된다.

특히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은 아주

긴절한 문제이다.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을 빨리 높이여 로동자와 농민의 기술 문화 수준의 차이를 점차 없애며 나아가서 전체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기수, 기사의 수준에로 같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은 정신 로동을 하는 사람들과 육체 로동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 문화 수준 상의 차이를 없이 하고 량자를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사상 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는 것은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상 혁명을 확고히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도 기대할 수 없다.

동시에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사실 상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인 것 만큼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 개인의 로동이 높은 생산적인 로동으로 되게 하자면 반드시 공산주의적 의식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공산주의적 의식성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기술 기능과 문화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헌신하게 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로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 것이며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선집 제 6 권, 467 페지).

사상 혁명에서 특히 사람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교양하는 것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과거에 육체 로동은 천한 것으로 간주되였고 육체 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우리 제도 하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로동에서 과거의 낡은 사상 잔재를 버리고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과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로동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면적 발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육체 로동에 정기적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조화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육체 로동을 천시하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게 함에 있어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교양과 결합된 로동 실천은 바로 로동의 진가를 가장 잘 깨닫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되는 농촌 로력 지원 사업과 토요 로동이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성과적 수행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 뿐만 아니라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도 기본 방도로

된다.

3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참가자들은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노력하며 집체적 지혜와 집체적 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집단적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가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상 도덕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함께 배우며 서로 가르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업반 내 모든 성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빨리 높아지고 있으며 그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참다운 공산주의적 태도가 배양되고 있다. 나아가서 천리마 기수들은 재능 있는 관리 일'군으로, 능숙한 조직자로 육성되고 있다.

그리 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간 개조의 공산주의 학교로 되고 있으며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고 생산 혁신을 일으키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중요한 목표로, 내용으로 되고 있는 기술 혁신 운동은 점차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다. 종전의 《1 인 1 건 창의 고안 운동》은 작업반을 단위로 하는 《한 달에 한 건 이상의 기술 도입 운동》과 그에 기초하는 《작업반 련합 혁신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 혁신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작업반 성원들의 기술 문화 수준 제고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운동은 직접 생산을 진행하며 생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로동자들과 그들의 창안과 발기를 리론적으로 안받침할 줄 아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자 대중의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킬 수 있게 하며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광범히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풍부히 해 준다.

이리 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로동 활동 과정에서 지'적 활동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 있다. 3,000 톤 프레스, 8 메터 타닝반을 비롯한 현대적인 대형 기계들과 설비들, 벼 랭상모나 목화 영양 단지 가식법 등은 다 육체 로동에 종사하고 있는 로동자, 농민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가 하에 제작되고 창안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강화 발전은 경제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뿐만 아니라 로동자,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기술 일'군들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릴 수 있게 하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4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기술 일'군들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교육 사업은 큰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 세대들을 일반 기초 지식과 함께 현대적 기술을 소유한 문명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일'군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취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 되는 것은 인민 교육 체계의 개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56년에 초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1958년부터는 동양에서 처음으로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에는 전반적인 기술 의무 교육제에로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기술 의무 교육제에로의 이행은 후대들을 유능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데서 획기적 전변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의 로력자의 기본을 이루게 될 세대들로 하여금 높은 기술 기능과 문화 수준을 소유케 하며 정신 로동과 함께 생산적인 육체 로동에도 동시에 준비된 일'군들로 성과 있게 키워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 교육 체계와 더불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각종 형태의 고등 교육 체계를 병행적으로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방침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술 간부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 교육 기관을 확장하는 한편 로동자, 농민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이 사업은 물론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기관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당은 기술 간부에 대한 인민 경제의 수요를 보장하며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됨이 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 및 통신 교육망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대학들인 공장 대학과 공산 대학을 창설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리 하여 오늘에 있어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 교육 기관에 망라된 학생 수는 14만 명 이상에 달하며 공장 대학만 하여도 수십 개나 된다.

이러한 대학 제도의 창설은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 농목장들이 생산 기지인 동시에 간부 양성의 기지로 되게 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공장 대학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크다. 김 일성 동지는 공장 대학이 가지는 우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대학들은 로동 계급 속에서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하며 교육과 생산, 리론과 실천을 가장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많은 핵심 로동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고 고등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생산과 기술의 발전은 더욱 추진되고 있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기 위

한 중요한 지표는 육체 로동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기사, 기수의 수준에까지 이끌어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과거에 배우지 못 한 로동자, 농민들에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데 중요한 해결책이 있다. 공장 대학은 바로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로동자 모두에게 자기 일터에서 리탈함이 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교육 형태이다.

그리고 원래 공산주의 교육 형태는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맑스는 로동과 교육의 결합을 미래 공산주의 교육의 형태로 간주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공장 대학 제도의 창설 및 그의 강화 발전은 교육 발전의 필연적 추세로 된다.

공장 대학에서는 생산 현장이 곧 배움터이다. 학생들은 로동자이며 직접적 생산자들이다. 대학-공장은 리론 습득의 장소이며 동시에 습득된 리론의 검증 장소이다. 근로자들은 리론의 정당성을 직접 검증해 보면서 그것을 공고화하며 창의 고안 사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발전시킬 수 있다.

이리 하여 여기서는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이 밀접히 결부되여 로동자-대학생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전면적 발전을 매우 빠르게 보장한다.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고 고등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생산과 기술 발전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다. 로동자-대학생들이 배운 리론은 곧 물질적 힘으로 전환되여 생산력의 부단한 장성을 가져 올 수 있다.

동시에 생산 현장에서 기술자-교원들과 로동자-대학생들의 긴밀한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창조적 련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며 생산의 앙양을 가져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 공장 대학 제도는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건을 잘 준비케 해 준다.

이와 같이 생산과 유리시킴이 없이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소유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사업은 벌써 본질 상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고 량자를 결합시키는 구체적 형식으로 된다.

고등 교육을 강화 발전시킴과 함께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인 교육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인 교육망을 통하여 실현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서 사정은 그렇지 못 하다. 따라서 그들의 기술 문화 수준 제고를 위한 성인 교육 사업은 절실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이 사업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해방 직후 우리 당은 전체 근로자들을 무지와 몽매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문맹 퇴치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불과 2~3 년 내에 문맹을 완전히 퇴치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당은 로동자, 농민들을 성인 교육 체계에 광범히 망라시켜 인민학교 또는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 수준을 갖도록 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하여 전체 로동자, 농민들이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질 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다.

그리 하여 오늘 전국 각지에 설치된 근로자 학교와 근로자 중학교들에서는 일반 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공장과 농장들에서는 기술 전습 체계와 기술 학습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여 근로자들이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며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을 다 유식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을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추진시키고 있으며 학습하지 않는 현상과의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자신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덕성군 나망지 협동 농장에서는 농장원 전체가 이미 근로자 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이 농장에서는 자체로 45 명의 기사, 기수를 길러 냈으며 79 명이 대학 및 고등 기술 학교 통신반에 망라되고 73 명이 자습하여 기사, 기수 검정 시험의 일부 과목에 합격하였다. 이리 하여 농장에서는 5 년 후이면 4 호 당 1 명의 기술자를 가지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신원군 월당 협동 농장에서는 현재 7 명의 기수와 118 명의 기사, 기수 검정 시험 일부 과목 합격자와 22 명의 통신 대학생을 가지고 있으며 1967년에는 자체로 학사 1 명, 기사 21 명, 기수 245 명을 양성할 것을 계획하고 그의 실현에 달라붙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장차 모두가 다 기사, 기수의 수준에 도달하는 데서 획기적 전환으로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점차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가 극복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되고 인민 경제는 새 기술의 토대 우에서 더욱 급속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 *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극복하는 사업은 장구한 기간을 요하는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며 또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당의 사상을 받들고 낡은 사회의 유물인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완강히 그리고 책임적으로 투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극복되고야 말 것이며 그 만큼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더욱더 앞당겨질 것이다.

인간 개조에서의 도덕 교양

박　형　봉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정신적 풍모에서는 심각한 변화들이 일어 나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사는 기풍이 더욱 더 생활화되고 있으며 동지를 위하여,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공산주의적 사상-도덕 풍모를 적극 조장 계발하며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서 특히는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는 단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혁명 과업이다.

이에 있어서 도덕 교양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부르죠아 사상과 도덕의 잔재를 뿌리 뽑고 로동 계급의 혁명적인 정신-도덕적 풍모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들 속에서 새로운 정신적 풍모의 형성은 물론 계급적인 사상 의식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 륜리적인 교양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정신적 풍모 전반의 개변과 발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사람들 속에서의 공산주의적인 정신적 풍모의 개변은 객관적인 물질 생활의 제 조건의 변화와 목적 의식적인 교양의 통일 속에서 진행된다.

맑스-레닌주의는 인간의 정신적 풍모는 우선 생산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인정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집단주의적 의식, 도덕의 전면적 지배를 조건 지으며 또한 그것을 요구한다.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사람들 속에서 집단주의적인 생활 규범을 요구하며.산생시키는 바탕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이 요구에 적응하게 목적 의식적이며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진행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진정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할 수 있다.

⁂　　⁂

공산주의 도덕은 인류 력사 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 관계의 구현이며 생활 규범이다.

공산주의 도덕은 사람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 개조함에 있어서 우선 그들의 감정, 량심, 품성에 고귀한 사회적 내용을 부여하여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사회와 집단 속에서 살면서 필연적으로 일정한 도덕적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적응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체득할 뿐만 아

니라 우리의 생활이 요구하는 도덕적 품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의 필연적 과정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바로 자기에 고유한 도덕 품성을 가진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적인 집단주의, 동지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등은 우리 사회의 인간들이 가져야 할 도덕적 품성으로 된다.

이러한 도덕적 품성이 생활화되고 인습화될 때 사람들은 새 사회의 성원으로서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은 공산주의 도덕으로 자신을 수양할 때 우리 사회의 생활과 인간 행위에서 진정으로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립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새 인간 풍모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 개조 과정은 바로 낡은 사상과-도덕 인습을 청산하며 동시에 새로운 사상 도덕적 풍모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생활에서 이미 낡아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배격하고 증오하며 도덕적으로 고상한 것을 적극 지지 체득할 수 있다.

현시기 인간 개조 문제에서 낡은 인습, 습관을 뿌리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도덕적으로 특히 정치-사상적 면에서 튼튼히 통일되여 있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한결같이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 통일을 더 굳건히 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성과 있게 개조하자면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도덕 인습을 뿌리 뽑고 그들을 새로운 공산주의 도덕으로 교양하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제기된다.

우리 근로자들의 도덕적 풍모에는 공산주의적인 것이 지배하고 있으나 아직도 낡은 부르죠아 도덕의 잔재가 생활의 이모저모에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우리 근로자들 속에 아직도 이러한 낡은 생활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상 의식이 물질 생활의 변화보다도 뒤떨어진다는 데 있다. 또 의식 령역 자체에서 보더라도 도덕적 의식, 인습의 개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적지 않은 근로자들의 도덕적인 품성이 이에 따르지 못 하고 있다. 아직 근로자들에게는 자본주의 도덕의 잔재와 소소유자적 인습, 관습의 잔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낡은 인습, 관습 등은 우리의 보다 성과적인 전진에서 장애로 되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 낡은 인습, 관습들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부르죠아적 생활 습관이 되살아 날 수 있다.

공산주의 도덕과 부르죠아 도덕은 적대적인 것이다. 공산주의 도덕의 형성 발전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거기에 바로 부르죠아 도덕이 머리를 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도덕 교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형편 없는 리기주의자들이 나올 수 있다》.

낡은 인습, 관습의 극복은 공산주의

도덕 기풍이 확립되는 것과 통일되여 있다. 근로자들 속에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이 확립될수록 그것은 낡고 부패한 것을 배척하며 뿌리 뽑는 위력한 힘으로 된다. 이것은 동시에 전 사회를 고상한 도덕 기풍으로 꽃 피게 하는 담보로 된다.

공산주의 도덕 교양은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생활 관습을 뿌리 뽑는 것과 함께 사회의 발전에 적응하게 그들의 정신적 풍모를 더욱 고상하게 형성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는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 사업에서, 경제 관리에서, 생산력 발전에서 계속 새로운 변혁들이 이룩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제반 변혁들은 모두가 근로자들의 높은 공산주의적 정신 풍모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더 고상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례컨대, 생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문제를 놓고 보자. 종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생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문제는 주로 생산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문제와 결부되여 있었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된 오늘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이 생산의 계획 작성으로부터 제품 검사, 재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즉 공장 관리 운영 전반에 주인답게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들이 새로운 요구를 높은 도덕적 자각으로서 실현하지 못 하고 종래와 같이 자기 맡은 제품 생산에나 그친다면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는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생산력 발전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말하자면 오늘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는 근로자들이 기대의 주인으로 될 뿐만 아니라 공장 전반의 주인으로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례로서 로동에 대한 태도 문제를 놓고 보자. 로동에 대한 태도에서 종전에는 주로 로동 규률 문제 즉 로동에 태공하며 불성실한 경향들을 극복하고 열성적으로 일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도덕적 문제였다. 물론 현재도 이러한 것이 로동에 대한 태도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나 오늘날 로동에 대한 태도의 교양 문제는 이에 국한될 수 없다. 오늘에 와서는 근로자들이 로동에서 더 자각적이고 창조적인 열성을 발휘케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동을 더 헐하고 능률적으로 하겠는가 하는 데 관심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사회-도덕적 문제로서 제기된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성화되였던 도덕적 품성은 불만족한 것으로 되여 버린다. 말하자면 어제는 비록 선진적이였던 것도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오늘에는 벌써 선진적인 것으로 되지 못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도덕적 풍모는 매우 고상하나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그것을 한층 더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의 선구자였던 사람이 오늘에는 더 교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부단히 자기의 품성을 수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로 전진할수록 이러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게 근로자들의 도덕적 품성을 높이려면 공산

주의 도덕의 전면적인, 보다 심오한 교양이 필요하다.

⁂ ⁂

도덕 교양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 내용과 방도를 옳게 설정하는 것이다.

도덕 교양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양을 계급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다.

현시대의 모든 도덕은 계급적인 것이다. 공산주의적 도덕은 철저하게 로동 계급의 사상을 반영한 행동 원칙, 생활 규범이다. 도덕 교양의 목적은 바로 근로자들을 철저한 계급적 투사로, 혁명가로 육성하는 데 있다.

도덕 교양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근로자들에게 공산주의 도덕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계급적 성격을 정확히 리해시켜야 한다. 도덕의 계급적 본질을 정확히 리해할 때만이 공산주의 도덕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할 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공산주의자다운 고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례컨대, 인도주의 문제를 놓고 보자. 인도주의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 우의, 사랑, 배려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 일반에 대한 막연한 그 어떤 《사랑》과 《배려》가 아니다. 인도주의는 초계급적일 수 없다. 우리의 인도주의는 로동 계급과 기타 피착취 근로 대중에 대해서는 열렬히 사랑하며 그들의 혁명적 리익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를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을 착취 압박하는 계급적 원쑤에 대해서는 철저히 증오하며 싸우려는 립장으로 충만되는 것이다.

계급적 원칙이 없는 《전 인류적 인도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도덕의 모든 규범들은 모두 이렇게 계급적인 것이며 혁명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교양은 계급 교양에 기초하여야 한다. 계급 교양에 기초하지 않는 도덕 교양은 무원칙하게 사람 일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종교적 설교와도 같은 것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도덕의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고 소위 《전 인류적 도덕》을 운운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고 따라서 상부 구조들인 당, 국가의 성격이 《전 인민적》인 것으로 변했다고 하면서 사회적 의식의 제 형태도 《전 인류적인 것》으로 되여야 하며 또 되고 있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그리 하여 도덕도 역시 계급적인 도덕으로부터 《전 인류적인 도덕》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초인간적, 초계급적 개념에서 취해진 이러한 온갖 륜리는 우리는 부정하는 바이다》(전집 제 31 권, 348 페지).

만일 근로자들에게 초계급적인 《도덕》을 설교한다면 그들은 소위 《인류애》, 《인류 평등》의 《고상한》 《인도주의》에 사로잡혀 계급적 원쑤와 벗을 갈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지어는 원쑤와 벗을 바꾸어 놓고 원쑤를 도와 나서고 벗을 희생시키는 위험한 행동에로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상 이것은 오늘 수정주의자들이 빚어 내고 있는 현실적 사태이다. 오늘 그들이 진정한 혁명가들의

투쟁과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책동을 《리성적》이요, 《친선적》이요 하면서 떠받드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공산주의적 도덕 규범은 그것이 모두가 철저하게 계급성을 띠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서의 무기로 된다.

근로자들을 철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도덕으로 무장시키려면 도덕 교양이 계급 교양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덕 교양이 계급 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된 결과 근로자들의 도덕적 풍모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품성으로 일관되고 있다. 도덕 교양은 바로 이러한 품성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로동 계급의 혁명적 리익을 위하여 호상 동지적으로, 의리적으로 결합되면서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게 한다.

도덕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사회-도덕적 문제들을 옳게 반영하여 교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도덕 품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과업이 나서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도덕이 요구하는 제반 문제의 포괄적인 교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산주의 도덕 교양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된다고 하여 근로자들에게 도덕 규범 전반을 평균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되여서는 안 된다. 혁명 실천 자체가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도덕의 이 규범이, 또 다른 때에는 저 규범이 전면에 제기되여 날카롭게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된다. 따라서 사회-도덕적 교양 문제의 전반을 장악하면서도 현실이 제기하는 선차적이고 중심적 문제들을 틀어 쥐여야 하며 이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도덕 교양이 이렇게 될 때 그것은 혁명 실천과 행동의 지침으로 효과 있게 복무할 수 있다. 현실에 복무하지 않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도덕 교양은 마치 종이 《도》를 닦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근 도덕 교양에서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집단주의 정신을 교양하며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배양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적 품성을 배양하는 것 등이다.

도덕 교양이 현실에 옳게 복무하려면 사회-도덕적 문제들을 옳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에 돌려져야 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례컨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문제를 설정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을 주입하는 것으로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일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제기된 애국주의 교양 문제라면 그것은 응당 원쑤들로부터 조국을 사수하며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격멸할 데 대한 사상으로 교양하는 문제가 위주로 되였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현시기에 있어서의 애국주의 교양은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향토 건설, 살림을 꾸리는 것, 국가 재산의 애호, 로동에 성실히는 것 등에 특히 주의가 돌려져야 하는 것이다.

도덕 교양이 현실이 제기하는 이러한 사회-도덕적 문제들을 정확히 반영하며 해결함으로써만 혁명 실천에서 생활력을 가질 수 있다.

도덕 교양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도덕 교양의 수단들을 옳게 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덕 교양의 중요한 수단들인 신문, 잡지, 교과서, 예술 작품들을 도덕 교양에서 제기되는 중심적인 문제 해결에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이 수단들의 비중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선전 수단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의 현 단계가 요구하는 인간 풍모를 형성하는 데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말하자면 제반 선전 수단들이 우리 근로자들을 전면적인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주인공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도덕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돌려야 할 것이다. 제반 선전 수단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옳게 반영할 때 근로자들의 새로운 풍모 형성은 참으로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전 인류적 도덕》을 운운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부르죠아 영화, 연극, 소설들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저속한 속물적인 것들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며 부패하게 만든다.

그리 하여 부르죠아 생활 양식에 취해버린 자들은 기생적 생활을 즐기며 로동을 천시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지어 계급적 원쑤와 사랑을 맺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경험은 도덕 교양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들의 인식 교양적 의의를 높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근로자들의 도덕 교양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생산 실천 투쟁에서 사상-도덕적 풍모를 개조하는 학교이다. 도덕적 품성은 도덕적 의식과 행동의 통일로써 형성된다. 도덕 품성은 생활에서 상시적으로 표현되니 만큼 실천 생활과 결합될 때 그의 교양은 효과 있게 될 수 있다. 생활을 떠난, 생활과 분리된 설교로써는 인간의 정신적 풍모를 옳게 형성할 수 없다. 실천 행정에서 아름다운 도덕적 풍모는 그 빛을 한결 나타내며 그것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 쥐고 그들을 개조하는 무기로 된다.

우리에게서 사람들의 도덕 품성이 그렇게도 빠르게 개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같은 대중 자신이 발기한 운동을 통하여 도덕 교양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 경제, 문화적 과업 뿐만 아니라 사상적 과업, 인간 개조의 과업도 대중 자신의 의식적인 참가와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참으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대중들 자신이 자신들의 사상 개조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실현하는 위대한 학교이다.

도덕 교양은 인간 개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우리는 도덕 교양 문제를 완강하게 계통적으로 끌고 나감으로써만 또한 그것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같은 대중 자신의 사회적 운동으로 더욱더 전환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도덕 교양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옳게 진행할 때 인간 개조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현시기 자본주의 하에서의 로동 계급의 빈궁화

현 호 범

오늘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의 빈궁화 문제는 현대 정치의 근본 문제의 하나로, 광범한 사회 여론의 중심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의 견인력이 날로 증대되면서 그것은 더욱더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리 하여 각종 부르조아 대변자들은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막으며 첨예하여지고 있는 빈궁화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 로동 계급의 상태가 개선되는듯한 외관을 조성하려고 자본주의의 모든 선전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우익 사회주의자들도 이들의 장난에 발맞추어 나서고 있으며 《맑스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도 자본주의가 로동 계급의 상태 개선에 그 무엇이라도 가져다 주고 있거나 또 줄 수 있는듯이 떠들고 있다.

그러나 맑스가 이미 명백히 지적하였고 또 현실이 잘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하에서 빈궁화란 결코 근절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 계급이 어떻게 더욱더 빈궁화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　　*

제 2 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일시적인 상대적 안정기가 도래하여 일부 생산 장성이 있었다. 그러나 로동 계급은 더욱더 빈궁화되였고 그들의 처지는 가일층 비참하여졌다.

그러면 전후 일정한 《번영》도 계속되고 생산도 어느 정도 장성하였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빈궁화 문제는 완화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절박하고 날카롭게 제기되는가. 그것은 전후 시기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며 또 그 작용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상 전후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독점의 전횡은 급격히 강화되였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형성되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독점들의 세력권은 현저히 축소되였다. 독점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자체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히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게 되였다.

독점의 전횡은 반영하여 생산의 집적과 집중도 급속히 장성되였다. 미국에서 10억 딸라 이상의 재산을 가진 대회사가 1914년에 7 개에 불과하였다면 그것이 1941년에는 43 개로, 1952년에

는 66 개로, 1956년에는 81 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81 개 회사들의 재산 총액은 2천 410억 딸라에 달하였다.

독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거액의 자본 집적에 기초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를 미증유의 규모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독점은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는 현대 기술 진보의 성과를 악용하고 있다.

《기술과 과학의 진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땀을 짜 내는 기량의 진보를 의미》(레닌 전집 제 18 권, 758 페지)하며 따라서 그것은 로동 계급의 착취를 급격히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된다.

작업장들에는 지난날의 직공장, 작업반장, 감독의 채찍 대신에 기계에 의한 엄격한 《과학적》 채찍이 나타났다. 독점들은 기계 체계를 고속도로 운전하여 산 로동의 랑비를 《방지》하며 로동자들의 땀을 짜 내는 《과학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로동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긴장도를 높이기 위한 책동을 비상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날의 테일러 제도나 포드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은 벌써 로동자들의 조작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를 백 단위 또는 그보다 세분하여 측정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다. 자동적 기계 체계는 로동자의 매개 동작을 경기장에 나선 단거리 결주자의 민속성을 련상시키게 하는 고도의 긴장 속에서 진행되게 한다.

극도로 세분화된 로동자의 조작은 벌써 독립적인 작업이 아니게 되였다. 고도로 단순화되고 기형화된 그의 조작은 완전히 규격화되여 자본을 위하여 물샐틈 없이 조직화되게 되였다. 오늘날 독점들은 로동자들의 땀을 짜 내는 분야에서 《과학적》 정밀성의 최고의 높이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리 하여 필요 로동 시간을 급격히 단축시키고 잉여 로동 시간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독점들의 리윤이 놀라운 규모로 장성된 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오늘날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생산의 장성에 비하여 독점에 의한 생산의 집적과 집중의 장성이 더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의 집적과 집중의 장성에 비하여 독점체의 리윤 증가가 더한층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1943년부터 1955년까지의 기간에 미국 공업에서 생산량은 9% 장성하였는데 독점들의 리윤액은 39%나 증가하였다. 1957년에 미국 공업에서 500 개의 최대 회사들은 제품 총판매액에서는 55.3%를 차지하였는데 리윤 총액 중에서 차지한 몫은 71.4%에 달하였다.

미국에서의 독점들의 리윤은 경제 공황 기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독점들의 리윤은 1929년의 96억 2천 800만 딸라로부터 1943년에는 245억 5천 400만 딸라로, 1950년에는 406억 딸라로, 1956년에는 446억 8천 300만 딸라로, 1962년에는 468억 딸라로, 1963년에는 실로 510억 딸라에까지 달하였다. 제국주의 하에서의 기술의 발전은 독점들에게 이렇듯 거액의 리윤을 가져다 주는 대신에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과 빈궁을 가져다 준다.

다른 한편 기술의 발전은 취업 로동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축소시키며 아동 및 녀성 로동을 증대시키는 대신 성년 로동을 대량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회에 방

…한 실업 인구를 낳게 하고 있다. 급…히 증대되어 가는 이러한 실업 인구…는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를 촉진…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오늘의 로동 계급은 비단 자본주의… 공장에서 심한 로동고에 의하여 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로동의 고통》에 신음할 가능성조… 가지지 못하며 굶주려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실업자의 대…은 급속히 장성하여 미국에서 그것은 …952년에 167만 명이였다면 1962년에는 …00만 명으로, 1964년 6월에는 469만 …000 명으로 격증되였다.

부르죠아 변호론자들은 이 실업자…이 소위 《실업 보험》에 의하여 《보…》되고 있는듯이 주장함으로써 이들의 …심한 상태를 미화 분식하려고 시도…다. 그들은 현대의 구휼(救恤) 제도에 …하여 비상한 《정치적》 의의를 부여하…서 그의 본질을 외곡하고 있다.

현시기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업 보험》 제도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동 계급의 행복한 생활에 무한히 고…되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부르죠아적 …휼 제도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변형…킨 것에 불과하다.

《구휼 제도의 산생은 상대적 과잉 인…의 산생에 예정되어 있으며, 전자의 필…성은 후자의 필연성에 예정되여 있으…, 구휼 제도는 상대적 과잉 인구와 더…불어 부의 자본주의적 생산과 발전의 …제 조건이다. 구휼 제도는 자본주의… 생산의 비생산적 비용에 속한다. 그…나 그것의 대부분은 자본은 자기 자…의 어깨로부터 로동 계급과 소부르죠…지의 어깨로 전가할 줄은 알고 있다.》

카. 맑스 《자본론》, 제 1 권 2 분책, 370 페…지) 독점들은 구휼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근로자들을 《부양》하면서 생색을 내는 극도의 간교성을 부리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의 《실업 보험》 제도는 자본주의적 구휼 제도의 진화된 형태에 불과한 것 만큼 그것은 물론 모든 실업자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의 적지 않은 부분은 관청의 아무런 《보호》도 없이 도시를 방황하거나 농촌에 잠복해 있으며 그 중 어떤 부분은 사기, 매음, 절도 등 사회에서 버림 받은 인간의 부류에서 헤맨다.

로동 계급의 생활 수준은 자본주의 나라 취업 로동자들의 상태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 거대한 규모에 달하는 실업자, 반실업자들의 상태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타국을 략탈 억압하고 있는 소수 제국주의 국가, 식민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의 상태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빈궁과 무권리에 신음하고 있는 식민지 인민들의 생활 형편까지 타산되여야 한다. 식민지 로동자들의 임금은 그 본국 백인 로동자들의 임금보다 비할 바 없이 낮다. 북로데시아에서의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구라파인 로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30 분의 1에 불과하다.

현시기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가일층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경제의 군사화 및 군비 경쟁에 따르는 압박이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기구를 강화하여 독점들은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의 주되는 부담을 로동 계급에게 들씌우고 있다. 물가 등귀와 조세 부담의 증대도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현저히 저하시키게 한다.

1963~1964 회계 년도 미국에서는 직접적 군사비만 하여도 553억 딸라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주민 1인 당 293 딸라에 해당한다. 여기에 간접적 군사비까지 고려한다면 그것은 이 해 예산 총액 984억 딸라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 모든 중하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들씌워지고 있으며 그들의 생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리 하여 현시기 로동 계급의 빈궁화 문제는 《부유》한 나라였거나 빈곤한 나라였거나에는 관계 없이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부르죠아 사회학자 고르크는 《미국에서의 부와 권력》에서 미국인이 점차 《중산 계급화》되여 간다는 주장의 허위성을 폭로하면서 빈곤의 계선을 년간 소득 3,000 딸라로 설정하고 전체 세대 수의 3 분의 1이 이 선 이하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실업, 질병 등의 경우를 고려에 넣으면 미국 전체 세대의 약 절반은 《생존 상 생활 수준을 확보할 수 없는 소득 수준》에 있으며 3 분의 1은 《비상 생활 수준의 확보에도 부족되는 소득 밖에 얻지 못 한다》고 썼다.

고르크가 빈곤의 선을 세대 당 년간 소득 3,000 딸라로 규정한 것은 조금도 과장된 수'자가 아니다. 미국 로동 통계국이 조사한 세대 당 빈곤 생활 계선은 4,000 딸라였고 로동성이 규정한 선은 4,500 딸라였던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 주민의 상당한 층에 심각한 빈곤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세기의 《문명국》을 자랑하는 미국에 800만 명의 문맹자가 있다는 것도 비밀이 아니다.

❊ ❊

현시기 로동 계급의 빈궁화의 특징은 그것이 우선 로동력이 정상적 상태로 재생되는 데 필요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비하여 그 비용이 부단히 감퇴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의 범주는 단순히 자본주의 하에서 실질 임금의 저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자동화 체계에 기초한 《과학적》 노동 제도가 강화됨으로써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대의 성공을 거두는 파업 투쟁시 있을 때조차 로동력의 필요 지출이 늘어 가는 데 비하면 훨씬 지지하게 증가된다. 이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은 로동력의 피로를 계속 회복하지 못 하여 빨리 로쇠해 가며 못 살게 됨으로써 절대적으로 빈궁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보장된 생활이 없는 래일에 대한 불안으로 하여 로동 계급의 세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 하는 데로부터 더욱 심해진다.

현대의 기술 진보는, 취업 로동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축소시키며 실업률을 부단히 증대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불안을 급격히 증대시키게 한다. 늘어나는 부채의 중압도 또한 근로자들의 형편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게 한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월부 잔고는 1929년의 64억 딸라로부터 1962년에는 529억 딸라로 격증되었다. 이것은 주민 1 인 당 평균 283 딸라의 소비 채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외상 구매와 월부는 로동자들의 생태를 더한층 악화시키게 한다. 로동

은 이 경우에 리자와 세금을 물어
한다. 로동자들은 이런 조건에서 가
의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푼전을 벌
고 애쓰면서 자기의 가족들까지 내
아 어떠한 일이라도 하려고 하며 또
떠한 착취의 조건도 감수한다. 그리 하
로동자들은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충분히 성장하
못 하고 계속 낮은 임금의 로동에 강
되게 되고 또 실업의 위협을 겪게
며 결국에 있어서는 오랜 투쟁의
리물까지 잃게 된다. 이로부터 그들
빈궁은 더욱 혹심해지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의
궁화는 최대 독점들이 도발하는 전쟁
의해서 특히 촉진되게 된다.

물론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들이 생
하면 당시의 제 조건에 적응하게 자본
의적 생산과 류통을 분석하고 이에
하여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를
명하였다. 그러나 산업 자본주의가
국주의로 이행하고 특히 자본주의가
반적 위기에 들어 섬에 따라 빈궁화
를 규정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들은 더
층 증가되게 되였다.

자본주의 발전의 이 단계에 이르러
로동 계급의 빈궁화는 비단 자본주의적
산과 류통 행정에서의 로동력의 과도
지출이나 임금의 로동력 가치 이하
지불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의
사화로 인한 근로자들의 부담의 급격
한 증대, 최대 독점들이 도발하는 침략
적 전쟁과 그 과정에서의 로동 계급의
육과 로동력의 대량적인 직접적 파
괴, 사멸에 의하여 촉진되게 되였다.

전쟁은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동반
자이다. 독점들은 최고 리윤을 위하여
세계 도처에서 략탈 전쟁을 일으킨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벌써 하나의
유리한 투자로 되고 있다. 독점들은 최
고 리윤을 위하여 로동자들을 자본주의
적 공장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조
국 옹호》의 위선적 구호 하에 류혈적
전쟁 마당으로 내몬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 1 차 대
전에서만 하여도 《1천만 명의 전사자와
2천만 명의 불구자》들은 독점에게 《수
천억 딸라》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희생
되였던 것이다. 2 차 대전은 1 차 대전
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통을 근로자들
에게 주었으며 그 후 계속 제국주의자들
의 전쟁 책동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이
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었다.
독점의 리윤 증대를 위하여 로동자들이
공장에서 배곯으며 헐벗는 것만이 빈궁
화이고(독점의 치부의 견지에서 볼
때) 공장의 특수화된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 마당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
어 가는 것이 빈궁화로 될 수 없다는 주
장은 누구도 수인할 수 없다. 여기에 바
로 현대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빈궁
화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신반사스주의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
는 현대의 식인종들은 자기들의 최고
리윤을 위하여 류혈적인 략탈 전쟁을
부단히 반복하여 수 많은 근로자들의
세대들을 죽음에로 내몬다. 그들은 이
로써 최대한의 전쟁 리윤을 취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방대
한 실업 문제를 《정리》한다. 그리 하
여 제국주의자들은 살아 남은 취업 로
동자들 그것도 극히 일부 중에 나일론
과 랭장고를 안겨 놓고 《번영》을 《구
가》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

※ ※

바로 현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사실 상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부인하고 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당신들의 나라는 잘 산다》고 하면서 공공연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은 로동 계급의 형편에 대한 서술에서 빈궁화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은연한 형태로, 또 어떤 사람은 당들이 자기 사업에서《절대적 빈궁화》를《타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은 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어느 형태를 취하든 간에는 관계 없이 그들은 모두 현대 독점 부르죠아지의 계급 지배의 보좌관으로, 부르죠아의 변호론자로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맑스주의자》로 자처하는 이들은 미국 부르죠아 사회학자인 허린톤의 평가 수준에도 이르지 못 하고 있다. 허린톤은 일부 사람들이 경탄해 마지 않는《부유한 미국》과 함께 수천만 근로자들이 기아와 빈궁에서 허덕이는《또 하나의 미국》이 있다는 것을 밝혔던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근로 대중과 멀리 떨어지면서 독점 부르죠아지 측에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이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를 부인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의거하고 있는 론거의 하나는 로동 계급이 독점 부르죠아지에게서 더욱더 많은《양보》를 얻어 낸다는《리론》이다.

부르죠아지의 《양보》설을 가지고 로자 《협조》를 설교하는 것은 물론 오늘 이들이 처음으로 창안해 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제 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에게서부터 발단되였다. 그들은 부르죠아지의 부분적 《양보》에 현혼증을 느끼고 이것을 미끼로 하여《계급 협조》를 열심히 고아 댔던 것이다. 베른슈타인은《맑스주의와 개조하는 소책자에서 부르죠아지의 경제적 및 정치적 《양보》로 하여 로동 계급의 빈궁이 혹심하여짐이 없이 사회주의에로의《진화》가 실현될 수 있는듯이 설교하였다.

그 때로부터 경과한 반세기 이상의 력사는 이러한 《양보》와 《진화》의 본질에 대하여 웅변적으로 말하여 주었다. 제 2 국제당이 파산된 지 이미 오래인 오늘에 와 서 일부 사람들은 제 2 국제당의 옛서고에서 그것들을 찾아 내여 재차 이 《양보》설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말하는 대로 현 시기 《사회주의의 견인력이 강화된 새로운 조건》이 조성됨으로써 독점 부르죠아지가 과거와는 달리 온순하여졌으며 로동 계급에 대하여《사회 경제적》 성격을 띠는《양보》를 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되였는가?

현실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첨예화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이 더욱 횡포하여지고 있으며 간교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자본의 가중되는 착취를 제한하려는 경제적 투쟁에 대해서까지도 그들은 폭압과 회유, 기만 책동을 교묘하게 배합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도 떠들고 있는 독점 부르죠아지의 이른바 《양보》에 관한 온갖 론의는 계급 협조에 대한 가장 《천진 란만한》《만화》를 그려 보려는 어리석은 시도이다. 사실 그들은 부르죠아지의《양보》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생활 형편이 전후 시기에 《개선》되였기 때문에 그들

의 《적극적》 진출이 전후 《생산 장성》을 촉진하였고 《과잉 생산 공황의 첨예화를 억제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부르죠아지에게서 《양보》를 받게 된 로동 계급이 이 번에는 생산의 장성, 과잉 생산 공황의 첨예화를 억제하는 데 적극 작용하며 부르죠아지와 《협력》하여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여기에 맑스-레닌주의 계급 투쟁 리론에 대한 어떠한 시인이 있는가?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의 당면한 경제 투쟁과 여기에서의 부분적인 《양보》의 쟁취의 의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함께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의 당면한 경제 투쟁을 절대화하며 이에 정치 투쟁까지 복종시키려는 개량주의적 《경제주의》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르죠아지는 철면피하고 무분별한 야수로서 행동한다. 그들은 우둔한 것을 계속함으로써 사태를 첨예화시키며 자기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르죠아지가 이러저러한 소수의 피착취자들을 이러저러한 보잘 것 없는 양보로써 무마하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이러저러한 부분의 피압박자 및 피착취자들의 이러저러한 운동 혹은 폭동을 진압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할 여하한 가능성도 절대로 없다고 〈증명〉해서는 안 된다》 (전집 제 31 권, 265 페지, 방점은 필자의 것).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뒤흔들리는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야수적인 폭력과 일시적인 《양보》를 교활하게 배합하고 있다. 부르죠아지의 《양보》란 부르죠아지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의 자본의 지배 형태이며 로동 계급을 우롱하는 자본의 제스추어에 불과하다.

로동 계급이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부르죠아지에게서 얻은 부분적인 양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 등귀, 세금 인상, 나라의 파쑈화 및 전쟁 등에 의하여 곧 사라진다. 따라서 그 누구도 부르죠아지의 《양보》설을 가지고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사실이 그러한 것이다.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를 부인하기 위하여 일부 사람들은 이 외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하여 반맑스주의적으로 외곡한다. 로동 계급의 대렬을 모호하게 하려는 시도는 그의 대표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한계를 모호하게 하기 위하여 기사, 의사 등 인테리들까지 로동 계급의 대렬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들은 지어 독점 회사의 고급 관리 성원들까지 로동 계급의 구성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르죠아 변호론자들의 주장에 바싹 접근하여 가고 있는 형편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로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을 높게 평가하여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부인하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계급 규정은 맑스-레닌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레닌은 부르죠아 사회의 인테리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한 사회층》 또는 《프로레타리아트와 구별되는…사회층》 (전집 제 7 권 2 분책, 119 페지)이라고 규정하였다.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부인하기 위한 이들의 온갖 기만 책동은 엄연한 현실을 가릴 수 없다.

현 시기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촉

진하는 요인들은 계속 작용하고 있으며 그 작용이 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최근에 존슨이 미국의 극심한 빈곤에 대하여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여 《빈궁과의 전면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지만 이것은 근로 대중의 강력한 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회유, 기만책에 불과하며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필요한 《인기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지어 그가 이것을 《약속한》 신년 《교서》를 발독하던 순간에도 대통령 관저는 켄타키, 버지니아, 펜실바니아 주들에서 온 빈민들의 시위 대렬에 의하여 포위되여 있었다고 한다. 독점 자본에 대한 공격을 동반하지 않는(존슨은 도리여 독점 자본의 리익을 대변하여 그들의 투자 의욕을 높인다는 구실 밑에 감세 계획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빈곤에 대한 《공격》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의 빈궁이 더욱 혹심하여지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가일층 첨예화되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기구가 보다 강화되여 최대 독점들의 전횡이 더욱 극심하여지고 있다는 것이며, 최대 독점체 간 그리고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더한층 첨예화되여 감에 따라 시장과 세력권 쟁탈을 위한 투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은 여러 나라 독점들로 하여금 《산업 합리화》와 생산비 저하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게 하며 불가피적으로 로동에 대한 긴장도를 높이고 실업을 증대시키고 임금을 저하시키는 현대의 과정들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의 부담도 또한 부단한 증가의 추세에 있다. 미국의 직접적 군사비는 1970년에 가서는 670억 딸라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미 제국주의의 세계 제패 계획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민족 해방 혁명에 대한 교살 책동이 날을 따라 강화되는 조건에서 《전면》 전쟁과 《국부》 및 《특수》 전쟁의 인적 및 물적 담당자로서의 로동 계급의 부담도 더욱더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적 압박이 더욱더 심해지며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도 더한층 촉진되게 되며 따라서 《수탈자의 수탈》을 위한 투쟁도 강화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표방하는 《민족주의》의 정체

리 종 률

력사는 인민의 원쑤들이 자기의 정체를 가리기 위하여 왕왕 판톡이 붙은 의상을 빌어 입고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애국 애족 운동이 앙양됨에 따라 미제의 주구들은 민족의 이름을 팔아 《민족주의》를 표방하여 나서고 있다.

민족주의—이것은 원래 자본주의 제도에 의하여 산생된 것으로서 부르죠아지가 《전 민족적인 리익》이라는 허위적 구호 밑에 자기들의 협애한 계급적 리익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착취 계급들은 부르죠아 민족주의 사상을 리용하여 민족적 압박을 합리화하며 민족들 간의 적대 관계를 선동하며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려고 광분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립되는 이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한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온갖 민족주의를 다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권과 압제를 전제로 하는 압박 민족의 민족주의는 반대하나 불평등과 억압에서 해방되려는 피압박 민족의 민족주의는 견결적으로 지지한다.

피압박 민족의 민족주의에는 례외 없이 압박을 반대하며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일반 민주주의적 내용이 포함되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레닌은 자기의 저서 《민족 자결권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피압박 민족의 부르죠아지가 압박 민족과 투쟁하는 한 우리는 어느 때나,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또 누구보다도 견결적으로 그것을 지지한다. 왜냐 하면 우리들은 압박에 대한 가장 대담하고 철저한 적이기 때문이다…

피압박 민족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에는 어느 것이나 압박을 반대하는 일반 민주주의적 내용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전집 제 20 권, 516~517 페지).

다 아는 바와 같이 리 승만 괴뢰 정권하에서도 여러 가지 부르죠아 민족주의 형태들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당시 위정자들이 제창한 민족주의는 남조선에서의 신제적 통치자인 미제의 전횡을 엄폐해 주는 《대통령》의 개인 독재를 보장하기 위한 구호였다. 미제와 리승만의 의사에 배치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모두 《민족 반역자》이라고 단정되였으며 극형의 대상으로까지 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인 항쟁의 불'길 속에 리 승만 독재가 붕괴되고 반미 사상과 자주 자립을 위한 민족적 지향

이 하나의 사회적 조류로서 대두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파산에 직면하게 되였다.

특히 민족적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인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받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빛나는 성과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 속에 대두하고 있는 자주 자립의 민족적 지향에 대해서 주목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는 자기의 주구에게 지시하여 《민족주의》를 표방케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민들의 환심을 사게 하며 위기에 처한 식민지 통치를 부지하여 보려고 타산하였다.

그러므로 남조선 위정자들이 표방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인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하며 그들을 반미 구국 투쟁에로 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워싱톤의 지시에 따라, 도꾜에 추종하여

현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민족주의》를 표방하여 나서고 있는 것은 워싱톤에서 만든 각본 대로 벌려 놓은 연극에 불과하다.

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민족주의를 무시하거나 혹은 그 민족주의와 무관계하게 공산주의의 저지를 시도한다면 그 실패는 이미 운명 지어진 것이다》라고 민족주의의 《유용성》에 관한 실용주의 철학을 력설하였다.

미제의 조선 침략 정책 립안자의 한 사람인 스칼라피노라는 자도 1959년 미국 국회에 제출한 《콘론 보고》 중에서 《지금 아세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운동에 편승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각 민족성과 그 문화를 리해하는 것이 곧 그 세력을 좌우하는 요체(要諦)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남조선에서 《민족주의》를 적극 리용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1953년에 꾸며진 로버트슨-이께다 회담에서 로버트슨이 일본의 재무장을 위하여 일본 인민에게 특히 민족주의를 부식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반동 세력이 반동적인 민족주의를 의식적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시도는 이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그 뒤를 이어 주일 미국 대사 라이샤워는 일본의 소위 《근대화》에 대하여 말하면서 《민족주의》로써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防波堤)를 만들게 하라고 계속 주장하여 왔다.

아세아에서는 일본이 《서구라파적인 근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황당한 전제를 제멋 대로 만들어 놓고 후진국들은 일본을 표본으로 삼으라고 력설하는 이 자가 바로 남조선에까지 기여 들어 《한국의 근대화론》을 제창하면서, 미 일 제국주의에 굴종하는 《민족주의》를 설교하였던 것이다.

워싱톤의 지시에 따라 도꾜에서는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실현하자는 《리론》들이 공공연히 류포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일본을 모방한 소위 《한국의 근대화론》과 함께 일본 침략자들에게 나라와 겨레를 팔아넘기려는 매국 배족의 《민족주의》 구호가 제기되였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표방하고 있는

《민족주의》에는 양키들과 일본 사무라이들의 호전적이며 침략적인 흉계를 보여 주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요구와 정치적 목적에 맞게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론술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 하며 《민족주의》의 추상적인 내용조차도 규정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모든 것을 미제에 의존하는 것이 습성으로 된 남조선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민족주의》 내용을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이니 《반미 아닌 양키즘 배격》이니 하는 얼빠진 공담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 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상전의 지시에 추종하여 독자적인 주견이 없는 것—이것이 바로 남조선 위정자들이 말하는 《민족주의》의 기본 특징인 것이다.

만일 그 정체를 캐여 본다면 그들이 《민족주의》의 구호 하에서 감행한 천추에 용납 못 할 죄행들을 규명할 수 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파산된 식민지 통치를 미봉하는 《묘책》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은 《민족주의》를 표방할 데 대한 상전의 지시를 조성된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를 미봉하며 자기들의 매국 배족적 정체를 엄폐하여 줄 《절호의 묘안》으로 접수하고 각종 《민족주의》 선전 사업을 집요하게 진행하여 왔다.

그들은 한편으로 각종 《매력 있는》 말들로써 자신들을 애국자로 분장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민족의 이름을 팔아 악랄하게 매국 배족 행위를 감행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자립 경제의 건설》, 《새 민족 문화의 창조》, 《민족 정기의 발양》, 《민족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의 구현》 등 기만적인 구호들을 빈번히 웨쳤으며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구호까지 들고 나와 인민 대중의 환심을 사 보려고 온갖 흉계를 다하였다. 또한 박 정희는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를 《한국 민족의 수호자》로 받들면서 온갖 매국 배족 행위를 감행하는 자기 자신을 파렴치하게도 조선 민족 전통의 《계승자》로 분장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미국 첩보 모략 기관의 지지하에 조작된 5.16 《군사 정변》이 반일 의병 투쟁, 갑오 농민 전쟁, 3.1 운동, 4월 인민 봉기 등의 《민족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날조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엄페물에 불과한 남조선 괴뢰 정권이 표방하는 《주의, 주장》은 한갖 인민들을 회유 기만해 보려는 빈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박 정희 도당이 《애국 애족》의 가면 밑에 밖으로 어떻게 나라를 팔고 외세에 아부 굴종하며 안으로 어떻게 동족을 탄압 학살하고 인민들을 도탄 속에 몰아 넣는가는 이미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 정희는 《남한과 공동 운명체적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미국의 번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자기 상전 앞에서 맹세하고 그것을 가장 충실히 집행하였다.

박 정희는 남조선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미군 만행 사건을 로골적으로 비호하며 오히려 미제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반미 진출을 탄압하기 위한 법

적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남조선 위정자들의 매국 배족 행위는 일제에 대한 그들의 노예적 굴종과 그를 합리화하기 위한 친일 사상의 부식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일제의 손때 묻은 이 주구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친일 단체들을 조작하여 《한 일 간의 교량적 역할》을 놀게 하고 있으며 《한 일 친선》을 공공연히 선전하는 나머지 지어 《한일 녀자 프로 레스링 경기》를 진행하는 해괴망측한 놀음까지 벌려 놓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의 퇴페적이며 색정적인 사상 문화를 도서, 잡지, 영화, 레코드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바로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하여 과거 일본 침략군의 특무, 장교들이 골간을 이루고 있는 침략의 척후 단체 《창가학회》와 《천리교》까지 왜색 문화와 함께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다.

박 정희 역도는 《한국의 존재는 일본의 방위 그 자체》라느니 《제 2의 리 완용이가 되더라도》 《한 일 회담을 타결》하겠다느니 하면서 을사 오적을 무색케 하는 매국 배족 행위들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박 정희 역도가 말로써는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을 떠들면서 실지로는 2억 원에 해당하는 《국보적 유물》 4,000여 점을 해외에 수출 또는 파괴하는 등 민족 문화 유산의 파괴 말살 행위까지 감행한 사실이 최근 괴뢰 국회 내에서도 론의되였다.

《민족 주체 의식》, 《자주 독립》 등을 떠드는 이 괴뢰 도당이 바로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식민지 예속화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여 우리 조국의 자주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의 지시 대로 남조선 위정자들은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동족 상잔의 전쟁 준비에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

그들은 있지도 않는 《공산 침략》을 운운하며 군사 연습, 전쟁 소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는 한편 남북 간의 전쟁 도발을 위한 온갖 범죄적 소동을 벌려 놓고 있다.

남조선 괴뢰 도당이 3 년 동안 《민족주의》 구호를 웨치면서 실지로 해 놓은 것이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민족의 리익과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자들과 진보적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한 것 뿐이다.

《민족 정기를 발양하며》, 《민족을 구원한다》고 떠들면서 그들은 동족 간에 적대 의식을 고취하며 남북 간에 불화의 씨를 뿌려 반목을 조성하려고 시도하였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매국 역도 김 종필은 통일 문제를 《서뿔리 서두를 것이 아니라 100 년 전쟁을 치르듯 대를 이어 가면서 다루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민족의 량심이란 털끝 만큼도 없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상전의 지시 대로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민족 경제의 파괴 략탈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집행한 결과 남조선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엄중한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즉 남조선의 농업은 식량 소요량의 75%도 보장하지 못 하고 있으며 산업 원료의 대

의 의존도는 거의 100%라는 놀라운 수자를 보여 주고 있다.

《현 시점은 력사 상 최악의 경제 상태》(《부산 일보》)에 처했으며 《기아를 해방하겠다던 5.16의 공약은 자살 류행을 결과하고 중농 정책을 웨친 민정은 농민들의 입에 칡 뿌리를 틀어 넣었다》(《경향 신문》).

박 정희가 이 길만이 《조국을 현대화》하며 《경제를 재건》하고 《민족적으로 자립》하는 출로라고 떠드는 《민족주의》의 정체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민족주의》의 구호 하에 노리는 것

남조선 위정자들이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추구하는 목적은 우선 《민족주의》의 간판 밑에 악랄한 《반공》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특히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인민 대중의 지향을 막아 보려는 데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군사 정변》 후에 각종 《반공》 선전 캄빠니야를 벌려 놓고 북반부에 대한 허무 맹랑한 악선전을 감행하여 남북 조선 인민들 간에 리간을 조성하고 남북을 대립시키며 남조선 인민들 속에 공산주의를 그 어떤 무서운 것으로 인식시켜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 《반공》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미제 침략자들이 여지 없이 유린한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권익》을 마치도 공산주의가 침해한듯이 악랄한 모략 선전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공산당의 계급 투쟁 리론은 민족적 분렬을 가져 왔다》고 하면서 완전히 흑백을 전도한 기만적인 《반공》 넋두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 남북 대립과 민족적 불화의 사상을 전파시킴으로써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며 인민들의 조국 통일 기운을 꺾으려는 망상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 민족 허무주의와 무기력한 패배주의 사상을 주입시킴으로써 인민 대중의 혁명적인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애국적인 반미 구국 투쟁을 좌절시키려는 것이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근면하고 슬기로운 조선 민족을 《한국식 게으름》과 《의타심》, 《리기주의》와 《사대주의》, 《파벌 의식》 등 《수치스러운 고질을 가진 민족》이라고 악랄하게 모독하면서 이 《렬악한 민족성》을 개조하며 공산주의와 계급 투쟁을 반대하는 《민족 협동 의식》을 주입시키는 《정신 혁명》과 《인간 개조》를 그들의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라고 선교하고 있다.

그들은 지어 외래 침략자들과 폭압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인 투쟁을 《민족성의 결함》이라고까지 모독하면서 바로 이 《결함》 때문에 《정신 혁명》이 시급한 문제로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반미 구국 투쟁의 길에 견연히 일떠선 남조선 인민에게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노예적 굴종을 감수하게 하려는 어리석은 술책인 것이다.

끝으로 미제의 주구 박 정희 도당이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노리는 것은 남조선에서의 전례 없이 강화된 파쑈

테로 통치를 《정당화》하며 극악한 친미 친일 주구로서의 자체의 정체를 감추고 자신들을 《민족적》 또는 《애국적》인 인물로 분장해 보려는 것이다.

남조선 군사 통치배들은 《단군 동상 건립》, 《신라제》, 《리 순신 장군 대제전》, 《률곡제》, 《춘향제》 등을 벌려 놓고 자신을 《민족적》인 색채로써 분장하기 위해 모략적인 흉계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민족 전통을 계승하는 것처럼 자신을 분장하고 남조선을 일체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된 암흑 천지로, 수십만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는 인간 도살장으로 전변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전 민족적 리익》의 허위적인 구호로써 남조선 로동 계급과 농민 등 근로 대중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박 정희 도당의 《민족적 민주주의》 구호야 말로 자체의 파쑈적 본색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적 구호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 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작년 11월에 연세 대학교 학생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군사 정부가 〈민족〉이란 말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자유 사상을 짓누르기 위한 복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다른 한 언론인도 박 정희 도당이 표방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목표를 위한 리념》이 아니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사대주의자》로 몰기 위한 《구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박 정희 도당이 노리는 목적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주의》 구호는 여지 없이 파탄되고 있다.

시체로 화한 《민족주의》

인민의 원쑤들이 공허한 《말의 기교》로써 인민 대중을 기만하여 권세를 누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

괴뢰 정권을 찬탈한 후 박 정희는 《민족주의》를 부르짖었으나 행동에서는 더욱 외세에 의거하며 매국 배족 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것은 결국 남조선 인민들의 격분을 자아 내게 하였으며 그들을 반제 반《정부》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6.3 봉기 때에 남조선의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이 《반보수, 반매판, 반외압, 반신식민의 구국 항쟁》을 조직 전개한 것은 그의 뚜렷한 증거이다. 그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박살하라》, 《일제의 척후병인 일본 상사를 몰아 내자!》, 《일본 예속에 직행하는 매국적 〈한 일 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등 일제의 재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웨치면서 투쟁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기만 선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란 말만 들어도 이가 갈린다》고 하면서 일제의 재침 책동을 폭로 규탄하고 있으며 동시에 박 정희의 매국 배족 행위를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정부는 매국적인 외교를 집어 치워야 한다. 툭하면 한 일 회담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서두는 너, 제 2의 리 완용을 자처하면서 하겠다는 너, 말마다 방정 맞게 국운을 걸고라도 하겠다는 너는 정말 이 나라의 정부냐? 일본의 정부(情婦)냐?》고 박 정희 역도를 비난하고 있다.

(《사상계》 1964년 4월 호 중간 호).

이와 함께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감정도 김차 높아 가고 있다.

인민들은 자기들의 실지 생활 체험을 통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됨이 없이는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항쟁에 궐기한 청년 학생들은 《미국은 한일 회담에 관여 말라!》, 《미국은 가면을 벗어라》고 절규하였으며 미국인이 탄 뻐스를 포위하고 돌까지 던졌다.

남조선 인민들의 반일, 반미 투쟁의 근저에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지향이 놓여 있다.

6.3 봉기 시에 청년 학생들은 《민족의 단결 없이 남북 통일할 수 없다》, 《민족 분렬을 획책하는 독재 정권 물러 가라》고 웨쳤으며 남조선 출판물들에는 《한일 회담보다 판문점 개방 회담이 더욱 절박하다》, 《북반부에서 제공하겠다는 백미 200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경향 신문》 1964.5.12)는 등의 요구들이 더욱 빈번히 울려 나오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남북 조선 간의 서신 거래와 경제 문화 교류의 실행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6.3 봉기의 선두에 나섰던 서울 대학교 학생들이 《북조선과의 교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일본과 결탁하여 후환을 남기기 보다는 남북이 합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학생들을 시위 투쟁에 나서게 했다》고 말한 것은 이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현 난국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혁신계를 석방하여 각계 각층을 총 망라한 범국민적인 통일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령남 일보》 1964.4.30)라고 공개 좌담회 석상에서 주장하는 인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공개적인 토론회 석상에서 박 정희 도당이 표방하는 《민족주의》에 대하여 《… 외원을 받으며 경제적 예속에서 탈피할 수 있는가?》, 《민족 해방 운동과 같은 민족주의의 내용을 빼 먹고 우리 나라에서 정치적 통일성 및 국민에게 조직과 질서만을 강조하면 민족주의의 력사적 의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동아 일보》 1963.11.6) 등의 질문을 김 종필에게 들이대면서 괴뢰 도당이 표방하는 《민족주의》는 사실 상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며 자기들의 매국 배족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간교한 술책이라는 것을 폭로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0일 애국적인 청년 학생 5,000여 명은 서울 한복판에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까지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이 《장례식 조사》에서 맨 먼저 민족적 량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한 자가 바로 박 정희 도당이라고 지적하고 《시체여 너는 오래 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 가고 있었다. 넋 잃는 시체여,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 죽어서라도 돌아 가라, 안개 속으로 돌아 가라》라고 절규하였다.

이제 더는 박 정희 도당으로 하여금 감히 악취 풍기는 《민족주의》 구호를 되뇌이지 못 하게 되였다. 《민족주의》 구호는 반미 구국 투쟁에 일떠선 인민 대중을 폭압하며 평화적 자주 통일을 방해하며 미 일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팔아 넘기는 죄행의

위장물이며 방패이다.

아무리 횡포한 폭압으로써도 민주적 지향을 억누를 수 없게 되였고 그 어떠한 회유 기만으로도 인민 대중의 민주적 각성을 마비시킬 수 없게 된 박 정희 도당은 미 일 제국주의의 추악한 주구로서의 정체를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였다.

박 정희 도당은 그 어떤 《민족주의》**적 구호로써도 각성된 인민**들을 기만할 수 없다.

결국 시체화된 《민족주의》 구호는 인민들의 조소와 분격 속에 박 정희 도당의 추악한 무리들과 함께 영원히 매장되고야 말 것이다.

근 로 자 제 16 호 (루계 254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8월 17일 발행 • 1964년 8월 20일

ㄱ—430504 값 40 전